이슬람文庫 9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마호멧 傳記

附 · 마호멧 言行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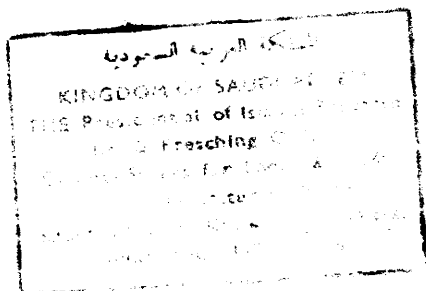
徐廷吉 編著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이슬람文庫 9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마호멧 傳記

附 · 마호멧 言行錄

徐廷吉 編著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SERIES OF ISLAMIC LITERATURE 9

HADITH

—APPENDIX: LIFE OF PROPHET MUHAMMAD (P.B.U.H)

Translated and Compiled
By Haji Sabri Suh Jung-Gil
Missionary Department of the
Korea Muslim Federation

SCIENTIFIC RESEARCH HOUSE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編著者 略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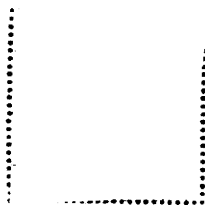
1921年生.
1959年 韓國人으로선 最初로 이슬람 國家 留學과 또한 最初로 멕카 巡禮. 그 후 韓國 이슬람敎 中央聯合會 소속 信徒로서, 1966年부터 本會 會長으로서 現在에 이름.

마호멧 傳記 附·마호멧 言行錄

徐廷吉 編著

發行人 李 起 雄
發行處 悅 話 堂
發行日 1976. 5. 5
登錄番號 제 6—8 호
登錄日字 1971. 7. 2
서울水踰洞 130—105
印刷處 光明印刷公社

값 1800 원

連絡事務室·서울 鍾路區 淸進洞 3의 3
電話 ㉞ 1387

3. *CHARMS OF ISLAM*
4. *Islam—Our Choice*

By; IBRAHIM AHMAD BAWANY

BEGUM AISHA BAWANY WAKF, Karachi, Pakisnan

5. *THE TREASURE* Collected and Compiled by;
FAKIR SYED WAHEEDUDDIN
Published by; LION ART PRESS (KARACHI) LIMITED
FRERE ROAD KARACHI-I, Pakistan

6. *THE BENEFACTOR*
By; FAKIR SYED WAHEEDUDDIN
Published by; LION ART PRESS (Karachi) LIMITED, 1965

7. *MAXIMS OF MOHAMMAD*
By; INNAMULLAH KHAN
Secertary General, MOTAMAR AL-AL AL-ISLAMI
(WORLD MUSLIM CONGRESS)

參考書籍——Reference to

1. *GLIMPSES OF THE HADITH*

BY

MUHAMMAD AZIZULLAH

Member Council of Learning, WORLD FEDERATION OF ISLAMIC MISSIONS and Author of

GLIMPSES OF THE HOLY QURAN

Published by the author

No. 19, SHAHID-I-MILLAT ROAD, Karachi-5, Pakistan

2. *MAXIMS OF MUHAMMAD*

(Sayings of the Holy Prophet)

Published by UMMA PUBLISHING HOUSE

COMMERCIAL AREA, BAHADURABAD, KARACHI-5, PAKISTAN

조 심

「너 자신과 너의 가족을 구하라。」(쿠란二八：六)

① 잠자리에 들 땐 타는 불을 그냥 두지 말라。

② 뚜껑 없는 그릇의 물을 먹지 말라。

싸 움

「알라의 길을 위해 싸우라。」(쿠란)

①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궁술(弓術)은 최고의 스포츠다。」

② 싸움터에서 여자와 종을 죽이지 말라。

㊟ 싸움터에서 「여자와 종을 죽이지 말라」함은 아녀자(兒女子)와 비 전투원(非戰鬪員)의 살해(殺害)를 금하라는 말이다。

③ 여인은 국민을 대표한 수용소(收容所)를 제공 받을 자격이 있다。

④ 예언자 마호멧이 무슬림 전투원(戰鬪員)에게 명령했다。
「신앙에 위배(違背)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적의 시체를 오손(汚損)하지 말라。 아녀자를 죽이지 말라。」

⑤ 어느 전장(戰場)에서 시체 속에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예언자 마호멧은 대단히 불쾌해 하고 、싸움터에서의 아녀자의 살생을 금했다。

⑥ 예언자 마호멧은 전투 중에 행군(行軍)하여 야반(夜半)에 적진지(敵陣地)에 도달했다。 그는 새벽까지 공격을 연기하였다。

이면 족하다。

⑦ 모든 유복한 사람들이 탐내는 물건들을 집안에 전시(展示)하는 것을 피하고 생활 필수품을 채우도록 하라。

⑧ 예언자 마호멧의 가족들은 밀가루 빵을 이틀 동안 계속해서 먹는 일 없었다。 이틀 걸러 마른 대추로 밀가루 빵을 대신해서 식사했다。

⑨ 아이샤가 진술했다。
「우리들 예언자의 식구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불을 때지 않은 적이 흔히 있었으며、 마른 대추와 냉수로 대용식을 해야만 했다。

⑩ 빈곤(貧困)은 나의 자랑이다。

여행(旅行)

①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여행은 건강에 좋다。」

② 여행길에서 어느 곳에 머물렀을 때 한 곳에 어물어물하고 있지 말라。

③ 홀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가를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밤에 홀로 여행할 사람은 없었으리라。

④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난다고 할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단장으로 뽑음이 좋다。

⑤ 여행에서 집에 돌아올 땐 여행길에서 주워서 짐 속에 넣어 둔 매끄러운 돌 한 개라도 선물로 가지고 오라。

⑥ 여행 중에 단식(斷食)함은 덕(德)이 아니다。

중진시키라。 신은 최후의 심판일에 신자(信者)상호간의 화합(和合)을 초래하시나니。

⑥ 세속(世俗)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육신(肉身)을 편안케 해 준다。 세속을 열애(熱愛)함은 심신(心身)을 피로케 한다。

⑦ 「신의 저주」、「신의 분노(憤怒)」、「불지옥」을 인용(引用)해서 사람을 협박하지 말라。

⑧ 무아위야는 아이샤(예언자 마호멧의 처)에게 편지를 보내 조언(助言)을 요청했었다고 진술 했다。 아이샤의 답장은 이러하였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나는 예언자 마호멧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인간의 불쾌는 불문에 붙이고 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追求)함에 일신(一身)을 바치는 자는 신이 인간의 불쾌에서 그를 보호해 주리라。 신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인간의 유쾌만을 찾는 자에게는 신은 그를 인간에게로 넘겨 버리시나니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리라。」

간소한 생활

①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간소한 생활은 신앙의 표지(標識)다。」

② 신은 덕망 있고 만족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③ 혈통(血統)은 재물이고 경신(敬神)은 고결(高潔)이다。

④ 자기 만족(自己滿足)하는 자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는 자다。

⑤ 세상은 무르고 달콤한 모습으로 나타남이니 조심할지어다。

⑥ 이생을 안락하게 함에는 종 하나와 말 한 필

⑪ 예언자 마호멧은 사방 둘러싸인 곳에서 예배 올리기를 좋아했다。

(주) 옥내(屋內)에서의 예배를 말한다。

⑫ 예언자 마호멧은 노상(路上)에서의 예배를 금했다。

⑬ 아부 후레이라(Abu Hurairah)가 예언자 마호멧에게 물었다。

「신의 사도여! 내가 집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왔는데、내가 예배보는 것을 손님이 보았다는 생각에 나는 퍽 유쾌했읍니다。 이것은 나의 전시효과(展示效果)이겠읍니까?」

마호멧은 대답했다。

「너 두 가지 상을 벌었다。 첫째는 너 혼자 본 예배고、둘째는 네쪽에서 공개(公開)할 생각이 없었는데 공개되었다는 선행(善行)이 그것이다。

신을 두려워하라

① 「신의 종」(무슬림)이 신을 두려워할 때는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신다。 그러나 신의 종이 신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두면 신은 그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신다。

(주) 「신을 두려워한다」 함은 독신자(篤信者)를 말하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은 무신앙자(無信仰者)를 말한다。

②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신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샘이다。」

③ 너의 모든 배움에 있어 신을 방패로 하라。

④ 역경(逆境)에서나 융성(隆盛)할 때나 신을 너의 방패로 하라。

⑤ 신을 두려워하고 상호간의 화목(和睦)을

숭배(崇拜)

① 예배는 숭배의 본질이다。

② 예배는 불행을 호전(好轉)시킨다。

③ 예배 볼 때는 신이 예배를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라。

그리고 신은 뜻을 모르는 무의식적인 예배는 받아들이시지 않음을 알라。

④ 자기의 소망을 신에게 탄원(嘆願)하지 않는 자는 신을 불쾌하게 한다。

⑤ 신에게 용서와 안전을 빌라。 신앙 다음가는 것으로서 안전보다 좋은 것이 없느니라。

⑥ 소원(所願)이 소금이나 구두끈 같은 것일지라도 신에게 빌라。

⑦ 절망(絶望)과 압박(壓迫)에 놓여져 있을 때 예배가 신에게 받아들여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후에 유복(裕福)해졌을 때 아낌없이 예배를 올려야 한다。

⑧ 국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또한 숭배(崇拜)다。

㊟「국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신을 섬기는 신앙이다」라는 뜻

⑨ 예배로서 너의 집의 격(格)을 높이고、무덤으로 만들지 말지어다。

⑩ 신이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화법(話法)이 좋다 해서 반드시 나 신(神)에게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다。 나는 사람의 동기(動機)와 의도(意圖)를 평가한다。 나에게 복종할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입으로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침묵을 찬미(讚美)로 받아들여 명예의 샘물로 만들어 준다。

⑯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엔 너희들은 불공평한 차별을 목격하리라。 그러면 저승의 천국에서 나를 만날 때까지 인내할지어다。

⑰ 부자(富者)의 지급 지연(支給遲延)은 일종의 압박이다。

⑱ 부양 가족의 할당금(割當金)을 주지 않음은 충분한 죄다。

⑲ 신의 눈에 가장 불유쾌한 자가 셋이 있으니、카바의 성역(聖域) 안에서 불신(不信) 행위를 범하는 자、이슬람에 비난받을 방법을 복귀(復歸)시키려 하고 이슬람 이전 시대의 사조(思潮)를 형성하려고 하는 자、불법적으로 남의 피를 흘리는 자이다。

⑳ 너의 형제(무슬림)가 압박자이건 피압박자이건 도우러 가라。

누가 물었다。

「신의 사도여! 피압박자를 도울 길은 알겠으나 압박자를 어떻게 도우라는 것입니까?」

마호멧은 말했다。

「다시는 침해하지 않도록 압박자의 손목을 붙드는 것이니라。」

㉑ 예언자 마호멧이 아스자라의 아들 카아바에게 말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 세상에 나올 관리(官吏)들과 대항해서 신을 방위할 것을 말해 주마。 그들은 저희 문전(門前)에서 허위 맹세하고 비행(非行)을 조장(助長)한 것이니、이런 자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라。 이들은 천국에서 내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런자들의 집엔 들어가지 않고、그들의 허위를 믿지 않고、그들의 비행(非行)을 조장하지 않는 자는 나와 같은 사람이며 천국에서 내게로 오리라。」

㉒ 이생에서 남을 고문(拷問)하는 자는 부활일(復活日)에 가장 심한 벌을 받느니라。

결고 운반하게 되리라。

⑥ 신은 이생에서 남을 박해한 자를 박해하
신다。

⑦ 신은 이생에서 남을 상해(傷害)하고 괴롭힌
자를 상해하고 괴롭히시느니라。

⑧ 신은 압박자에게 유예(猶豫)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손에 잡히면 놓아 주지 않으
신다。

⑨ 피압박자의 절규를 명심하라。 피압박자와
신과의 사이에는 가로막는 것이 없거니。

⑩ 피압박자의 절규는 그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신에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의 죄는 개인적인
것이어늘。

⑪ 피압박자의 절규를 무서워할 일이다。 피압
박자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신에게 호소할 것
이며、 또한 신은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부정(否
定)하지 않으신다。

⑫ 어느 자가 형제(무슬림)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엔、 금은보화(金銀寶貨)로도 보상
할 길 없는 그날(최후의 심판일)이 오기 전에 수정
안(修正案)을 만들어서 수락하도록 모색하라。
그리고 침해자가 신용 회복으로 무엇인가 선행
(善行)을 했다면 그 상해(傷害)의 척도(尺度)
에 따라서 희생이 메꾸어진다。 그러나 그의 신
용이 메꾸어지지 않는다면 그 희생분(犧牲分)은
자기 명의로 이월된다。

⑬ 피압박자의 절규를 무서워할지니、 피압박
자의 절규는 불꽃처럼 승천(昇天)하는 것이다。

⑭ 압박을 멈추라。 압박은 최후의 심판일에
암흑을 수배(數倍)로 하나니。

⑮ 피압박자는 최후의 심판일에 승리하는도다。

아내에게 부드럽게 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볼 때 신은 자애(慈愛)롭게 양쪽을 바라보시며、남편이 아내의 손을 부드러이 잡고 있을 때 그들의 죄는 손가락 사이를 빠져 흩어져 없어지느니라。

겸소(儉素)

① 겸소(儉素)한 사람은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

② 너의 손을 통솔하라。

③ 무엇인가로 자기를 억제해 둠이 좋다。

④ 죽을 만큼이나 끈질기게 생활(生活)이 따라다닌다。

압박(壓迫)·침해(侵害)

①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누구도 남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라。」

② 압박과 혈연(血緣)의 단절(斷絕)에 대하여 신은 저승에서의 벌(罰) 말고도 가장 빠른 벌을 이생에서 내려보내신다。

③ 바로 이생에서 신이 신속한 벌을 내리시는 두 가지 잘못이 있나니、침해(侵害)와 부모에 대한 불복종이다。

④ 압박의 행위를 목격하고도 압박자를 중지시키지 않는 자는 신이 다 포함해서 벌을 주신다。

⑤ 남의 토지를 한 치라도 부정하게 가로챈 자는 최후의 심판일에 칠천(七天)의 무게를 목에

② 도적질

예언자 마호멧은 최소한 3 디함(Dirham) 이상 가는 것을 도적질한 자에 한해서만 손목을 자를 것(切手)을 명령했다。(사소한 도적질에는 이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제三대 칼리프 우스만은 도적질한 부자 여인을 변호했다。 예언자 마호멧은 초기 국가 시대의 상습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절도(窃盜) 처벌에 불쾌를 표시했다。 그러나 도적질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신은 친절하시다。 그러나 나의 딸 화티마가 도적질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처벌의 정도(正道)를 가리라。」

③ 살인(殺人)

① 살인의 벌은 죽음이다。

② 최후의 심판일에 제일 먼저 심문받는 무리는 살인자다。

③ 살인 범죄에는 두 사람의 목격자(目擊者)가 있어야 한다。

④ 두 사람이 살인했을 경우、한 사람은 붙들고 있고、또 한 사람은 죽였다면 죽인 사람의 벌(罰)은 죽음이고、붙들고 있던 사람의 벌은 투옥(投獄)이다。

사죄(死罪)

① 음주(飮酒)、간음(姦淫)、도적질은 중벌(重罰)을 받는다。

② 신과 함께 잡신(雜神)이나 귀신 따위를 한자리에 세워 놓지 말라。

고아(孤兒)의 재산을 착복하지 말라。

허위 간통으로 여인을 고발(告發)하지 말라。

③ 자살(自殺)은 죽을 죄이니라。

㊟「죽을 죄」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사죄(死罪)는 대죄(大罪)를 말함。

② 욕망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눈은 다 간통이다. 몸에 향수를 뿌리고 남자들이 모인 곳에 나가서 호색적 교태로 남자들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어하는 여인은 간통한 자이다.

③ 간통은 네 가지 피해를 낳거니 조심할일이다. 간통은 얼굴에서 빛을 꺼 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며, 신의 자선을 연기처럼 없어지게 하며 불지옥에서 살게 한다.

④ 신의 눈으로 볼 때, 신 이외의 잡신(雜神)과 관계를 맺는 대죄(大罪) 다음가는 대죄는 합법적이 아닌 자궁(子宮)에 남자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⑤ 신이 어느 지방의 멸망을 명(命)할 땐 그 지방 주민들에게 간통을 퍼뜨리게 하신다.

⑥ 간통은 빈곤을 몰고 온다.

⑦ 눈이 밀통(密通)을 범(犯)하고, 손이 밀통을 범하고, 발이 밀통을 범하고, 기관(器官)이 간통을 범한다.

⑧ 최후의 심판일에 신이 자비롭게 보시지 않는 무리가 셋이 있으니, 누워 있는 통치자, 나이가 든 간통자(姦通者), 거만한 거지가 그것이다.

⑨ 자기 남편의 집이 아닌 곳에서 아무데서나 옷을 벗는 여인은 신의 노여움을 가려 주는 발을 찢어 버림이니라.

⑩ 간통의 댓가는 불법(不法)이다.

⑪ 나의 형제(무슬림)는 그들이 사생아(私生児)를 적자(嫡子)로 하지 않는 한 양호(良好)하게 지속(持續)해 가리라. 사생아는 신의 매질이 내려질 인간에게 번창하리라.

화 조성(平和造成)이니라. 적개심과 원망은 내세(來世)에서의 보상을 뿌리째 뽑아 버린다.

⑦ 거만(倨慢)

① 거만한 자와 말이 험한 자는 천국에 들지 못하느니라.

② 거만은 남을 업신여긴다.

③ 조상 자랑하는 거만을 단념해야 할 일이다. 인류는 다 아담의 후예이며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느니라.

⑧ 절제(節制)와 중용(中庸)

① 과음 과식(過飮過食)으로 너의 심장을 죽이지 말라.

② 가장 훌륭한 행위는 중용(中庸)에 있느니라.

③ 지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어디에서건 절제(節制)하는 자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니라.

④ 배고플 땐 음식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를 땐 네 자신을 극복(克服)하도록 노력하라.

범죄(犯罪)에 관한 장(章)

① 간통(姦通)

①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남의 아내를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간통이니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은 혀(舌)의 간통이니라.」

② 신앙은 도덕의 성질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나니, 이슬람의 특징은 겸손이다.

③ 겸손은 모두 덕(德)이다.

④ 인간에게 겸손하지 않는 자 신에게 겸손하지 않는다.

⑤ 겸손과 말의 간결(簡潔)함은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다. 뻔뻔스러움과 수다스러움은 위선(僞善)의 증거다.

⑥ 팔목과 발목을 덮어야 하며, 노출시켜서는 안 되느니라.

⑦ 겸손은 인간의 가치를 높여 준다. 겸손하라. 그러면 신이 너의 가치를 높여 주시리라.
관용(寬容)은 힘을 높여 준다. 관용하라. 그러면 신이 너를 강하게 해 주시리라.

⑧ 겸손을 실천하지 않고, 파렴치 행위를 지양(止揚)하지 않는 자는 무슬림이 아니니라.

⑨ 겸손은 덕(德)의 원천(源泉)이다.

⑩ 진실로 주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겸손하고 온순하라 하셨다.

⑪ 겸손과 예의(禮儀)는 경신(敬神)의 행동이다.

⑫ 진실로 알라는 온순(溫順)하시거니, 온순함을 좋아하신다. 거친 자에겐 주시지 않는 것을 온순한 자에겐 주신다.

⑬ 신자는 길을 걸어도 겸손히 걷는다.

⑥ 평화(平和)

내 너희에게 단식, 희사, 예배보다도 훌륭한 행위는 무엇인가를 말해 주겠나니, 상호간의 평

한 쪽을 받는다.

② 죽은 사람에 대해선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라.

③ 죽은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지 말지니 듣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④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모든 행동은 정지(停止)되지만, 남과 아이들에게 배푼 자선과 지식만은 정지하지 않느니라.

⑤ 무덤 위에 앉지 말라. 또한 무덤을 바라보고 예배보지 말라.

⑥ 장례 행렬(葬禮行列)에 끼여 세 차례 관을 부축해 주고 나면 죽은 사람에 대한 너의 의무는 끝난다.

④ 감사의 마음

① 호의(好意)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② 작은 것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③ 신의 축복을 이야기함은 감사의 마음이며, 신의 축복을 말하지 않음은 망은(忘恩)의 마음이다.

④ 인간에게 감사함을 모르는 자는 신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⑤ 겸손(謙遜)

「눈을 아래로 뜨고 겸손하라고 신자들에게 말해 주라.」(쿠란 一八:三〇)

① 겸손은 신앙의 일부(一部)다.

㊸ 예언자 마호멧은 항상 계속해서 예배를 보는 사람과 항상 악(惡)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는 말했다。

「후자(後者)가 난 사람이다。」

㊹ 어느 사람이 예언자 마호메에게 말했다。

「신의 사도여、내가 신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읍니까?」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속세를 욕심내지 말라。그러면 신이 너를 사랑하려라。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그러면 그들은 너를 사랑하리라。」

② 위선(僞善)

① 말할 땐 진심을 말하지 않고、약속을 해 놓곤 지키지 않는 자는 위선자다。

② 너희는 「최후의 심판일」에 알라께서 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한 마음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과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위선자)이 따로 불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③ 위선자임을 나타내는 세 가지 증거가 있으니、거짓말하는 자、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신용(信用)을 악용하는 자다。

④ 위선자란 자기 누의 지배력을 가진 자로서、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땐 만들어서 울 수도 있다。

⑤ 형제(무슬림)를 고의적으로 그릇 조언하는 자는 기만(欺瞞)이다。

⑥ 우상 숭배자와 어울리고 한 패가 되는 자는 똑같은 무리다。

③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

① 너희들은 꼭 죽는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

있나니、첫째는 죽음이다。그러나 죽음은 악(惡)보다 마음이 편할 수 있다。둘째는 가난인데、그러나 가난은 재산을 계산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보다 견디기 쉽다。

㉝ 죄를 회개(悔改)하였다 함은 다시는 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㉞ 늘 말다툼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죄가 된다。

㉟ 네가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데 치우칠 때는 네 자신의 단점에 눈을 돌리라。

㊱ 소비 절제(消費節制)는 생활의 기술의 반이다。
우애(友愛)는 지혜의 반이다。
옳은 질문 방법은 배움의 반이다。

㊲ 오 그대들 인간이여! 온전하고 시종일관(始終一貫)하라。

㊳ 설사 네가 도무지 구멍이라곤 없는 바위 속에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너의 좋고 나쁜 행위는 역시 알려지게 마련이다。

㊴ 행운(幸運)의 증거가 네 가지 있나니、좋은 이웃、덕(德)이 있는 아내、좋은 말(馬)과 널찍한 주택이다。
불행의 표시가 네 가지 있나니、나쁜 이웃、부정(不貞)한 아내、불쌍한 말과 답답한 집이다。

㊵ 토지(土地)는 그 이름으로 판단되고、사람은 그의 교우(交友)에 의해서 판단된다。

㊶ 나는 인간의 행동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졌다。

㊷ 「국민은 망했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자다。

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적은 허영심이다.

숭배(崇拜)의 적은 지속성(持續性)의 결핍이다.

연설의 적은 허위(虛僞)다.

배움의 적은 박약(薄弱)한 기억력이다.

지혜의 적은 우둔(愚鈍)이다.

관대의 적은 남용(濫用)이다.

㉘ 악인(惡人)은 다음과 같은 자이다——

(a)거만하고 무례하고, 지존지대(至尊至大)하신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자.

(b)압제하고 학정(虐政)을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잊어버리는 자.

(c)작희(作戱)와 유흥에 몸이 사로잡히고 무덤을 잊어버리는 자.

(d)복종하지 않고 모반(謀反)하고 생(生)의 기원(起源)과 종말을 잊어버리는 자.

(e)종교를 세속적인 물질(物質)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자.

(f)회의(懷疑)를 통해서 신앙을 구하는 자.

(g)욕심에 몸을 맡기는 자.

(h)욕망 때문에 길을 잃는 자.

(i)욕망 때문에 욕을 보는 자.

㉙ 곤란에 부딪쳤을 때는 신이 너에게 곤란에서 빠져나갈 길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조심성과 인내심으로 나아가라.

㉚ 신이 너를 위하여 생활 수단을 마련해 주셨을 때는 너의 환경이 호전(好轉)될 때까지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㉛ 네 자신이나 네 자식들에게나, 또는 너의 종이나 재산에 저주를 하지 말라. 너의 기도를 신께서 받아들이셨고, 너의 불행이 무너지는 마침 그 순간에 너의 입에서 저주가 떨어지면 안 되겠거니.

㉜ 인간이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⑮ 질투심과 원한에 대하여 보신(保身)을 잘 하면 하는 일이 잘 되어 간다。

⑯ 천국은 관대(寬大)의 주거(住居)다。

⑰ 남의 결점을 열심히 찾아 내는 자는 부패(腐敗)의 증진(增進)에만 성공한다。

⑱ 인간 중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란、그 자를 가까이하면 해를 볼 것이므로 남들이 손을 끊어 버리는 그러한 인간이다。

⑲ 세속(世俗)에 무관심하고 말이 적은 사람을 만나면 그와 벗이될 길을 찾으라。그러한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나니。

⑳ 황금 숭배자와 세속적 성공의 숭배자는 저주받은 자다。

㉑ 사람들이 축재(蓄財)를 함에 있어 합법・불법(合法・不法)을 개의치 않을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

㉒ 지나친 인색과 공개적인 비겁、이 두 가지는 인간을 타락시킨다。

㉓ 두 마리의 허기진 늑대가 양떼에게 주는 살상(殺傷)이 클 것이라 해도 인간의 욕심과 야심이 신앙심에 주는 것보다는 못하다。

㉔ 입이 가볍고、지저분하고、인색하고、비겁한 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악인(惡人)이다。

㉕ 친절은 지혜의 나무 뿌리다。

㉖ 집을 짓는 데 불법적으로 입수(入手)한 석재(石材)를 쓰지 말 일이니、이는 망할 이유다。

㉗ 재조(才操)의 적(敵)은 과도(過度)다。
용기(勇氣)의 적은 학정(虐政)이다。
자비심(慈悲心)의 적은 받은 자를 기억하게 하

④ 온건(温健)한 사람은 궁핍함에 괴로와하지 않는다。

⑤ 온건은 행복의 반(半)이다。 그리고 선행(善行)은 신앙의 반이다。

⑥ 선행은 너의 횡사(横死)를 호위(護衛)해 준다。

⑦ 상대방이 잘하면 우리도 잘 할 것이고、상대방이 나쁘게 굴면 우리도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네 스스로의 판단을 갖도록 하라。 좋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끼도록 하고、나쁜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⑧ 혀(舌)와 격정(激情)을 억제하라。 그러면 천국에 들리라。

⑨ 남이 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너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중상 모략이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

⑩ 내 너희에게 말하거니와、중상 모략을 좌악시함은 중상 모략은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⑪ 악인(惡人)이 칭찬받을 일을 하면 신이 그에게 향내를 풍겨 주신다。

⑫ 자기 아비를 자기 아비가 아니라고 하는 자、제 눈으로 본 일도 없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다고 증언자는 자、내(마호멧)가 한 말이 아닌 것을 내가 한 말이라고 하는 자—— 이들은 극악 무도한 죄인이다。

⑬ 만족감(滿足感)을 꽉 잡으라。 만족감은 불멸의 부(富)다。

⑭ 화염(火焰)이 연료(燃料)를 소모해 버리듯이 원한과 질투심은 선(善)을 소모한다。

어다.

⑧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적측(敵側)이 그들과 자녀들의 안전 댓가(安全代價)로서 합의된 금액을 제공해 오는 수가 있으리라. 일단 합의를 본 이상 합의액(合意額)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니, 초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⑨ 통치자 무아위야는 비잔틴 제국(帝國)과 휴전을 체결했다. 휴전 체결 후 그는 휴전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격할 목적으로 군장비(軍裝備)를 국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행진했다. 그가 이렇게 행진해 가고 있는데 말을 몰고 다가오는 자 있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신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독신자(篤信者)여라. 배신하지 말라.」

그것은 아마르 빈 압사였다. 무아위야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신의 예언자가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상호간 계약을 체결했으면 쌍방이 이행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 만료 기간까지 반대 이유를 내세우지 않음이 합법적이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무아위야는 철퇴(撤退)했다.

⑩ 상호간의 협정을 위반하는 자는 적의 복종 아래 들게 된다.

도덕 관계

① 도덕의 성질

1 선행(善行)은 목적의 성실성에 있다.

2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일의 자리가 잡힌다.

3 일에 집중할 때 그 결과를 반성하라. 결과가 좋으면 관철(貫徹)하고, 결과가 나쁘다면 중지하라.

고、평민(平民)에게는 과중(過重)한 벌을 준다。」
그리고는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만약 나의 딸 파티마(Fatimah)가 도적질을 했다 해도 나는 처벌의 정도(正道)를 가리라。」

⑩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나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쟁의(爭議)를 가져왔을 때 나는 청취(聽取)한 바에 의해서 확신(確信)이 가는 쪽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리라。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제소자(提訴者)의 소유라 한다면 그는 쟁의(爭議)를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에게 불지옥의 한 덩어리를 판결하리라。」

⑫ 협정(協定)·보증(保證)·계약(契約)

① 약속 이행은 신앙의 한 부분이다。

② 서약할 때는 신의 이름으로만 서약하라。

진리에 밀착해서 서약한 것을 엄격히 이행하라。 서약의 보장자(保障者)는 신을 즐겁게 한다。

③ 의무를 진 사람은 그 이행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서약은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는 의미로서 해석한다。

⑤ 너의 형제(무슬림)와 맞서서 다투지 말고、놀림거리로 삼지 말고、네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

⑥ 혹 어느 사람이 네게 생명을 걸고 보증했다 하더라도 우발 사고(偶發事故)로 생명을 뺏는 것은 불법이다。

⑦ 신과 사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 비(非) 무슬림을 살해하는 자(무슬림)는 신의 보장에 대한 범법자다。 이런 자는 천국의 향기를 맡을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자로서、70년을 가야 하는 먼 거리에 있는 향내를 맡을 수 없는 것이니、명심할 지

검(劍)으로 도벌(倒伐)해야만 한다.」

⑪ 정의(正義)

① 신은 정의를 선언하는 판사(判事)와 자선가(慈善家)에게 손을 뻗친다.

② 벌(罰)을 조금씩 내리라. 그러나, 통치자가 법을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처벌을 배제(排除)하고, 가능한 모든 변호의 혜택을 주라. 판사는 과도히 관용에 기우는 편이 과도히 처벌에 기우는 것보다 낫다.

④ 판사나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게 노력하여 옳은 결말에 도달하는 자는 이중(二重)의 보상을 받는다. 정직하게 노력했으나 실수를 저지른 자는 일배(一倍)의 보상을 받는다.

⑤ 두 사람 중간에 서서 무언가를 결정지어 줄 때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 전엔 결정을 내리지 말라.

⑥ 증인(證人)으로 불린 자가 증거를 보류(保留)하고 있는 것은 위증(僞證)을 한 것과 같다.

⑦ 너의 적(敵)의 증언은 아무 가치가 없다. 적의 가족이나 종의 증언도 그렇다.

⑧ 법원(法院)에서의 원고(原告)·피고(被告)는 동등한 신분을 주어야 한다.

⑨ 에언자 마호멧은 법(法)의 강행(强行)에 대하여 그 차별 대우를 경고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 신의 율법(律法)에 관한 문제를 쓸데 없이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미 죽어 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차별 대우에 의해서 파멸(破滅)되었다. 유력 인사는 범법(犯法)하여도 무죄 석방하

아니라 해도 그가 풍기는 향수를 맡을 수 있다。

㉖ 형제(무슬림)를 一 년 동안이나 발을 끊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것과 맞먹는다。

㉗ 말솜씨가 우아(優雅)함은 하나의 매력이다。

㉘ 상쾌한 성품, 동의할 수 있는 처신(處身), 온화한 행위는 예언자의 성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㉙ 향초(香草)를 선사받은 사람은 거절하지 말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으며, 향내를 풍기는 것이므로。

㉚ 초대를 받았으면 답례(答禮)를 하라。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게 하라。

㉛ 내일이면 제가 한 말을 사과해야 될지도 모를 말을 하지 말라。

㉜ 일단 보낸 선물을 다시 가져옴은 제 입에서 흘려내는 토사(吐瀉)와 같다。

㉝ 예언자 마호멧은 자주 미소지었으나 대소(大笑)하는 법은 적었다。

㉞ 예언자 마호멧이 밤에 남의 집을 찾아갔을 때, 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들릴 만하고 자고 있는 사람에겐 잠이 깨지 않을 만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㉟ 크리스천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예언자 마호멧에게 물어 보았다。 그는 대답했다。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이건 주저하지 말라。」

㊱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시대가 오리라。 그때 너희는 국민의 결속을 와해(瓦解)시키려는 자들을

⑭ 서로 인사하는 순서는, 승자(乘者)가 보행자에게 먼저한다。승자는 앉은 채로 한다。

단체(團體)와 단체끼리 인사를 할 때는 소수 단체(少數團體)가 다수 단체보다 먼저 한다。

⑮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는 자기가 곤경에 빠졌을 때 같은 보상을 받는다。

⑯ 병자를 찾아갔을 때는 병자 앞이마에 손을 얹어 주거나 손을 잡아 주고 건강을 물어 보도록 하라。그리고 너의 악수로서 인사는 끝난다。

⑰ 남의 집에 들어설 땐 세 번 허가를 물어 보라。허가가 있으면 들어가도 좋고, 없으면 발길을 돌리라。

⑱ 평화의 인사(⑩ ⑦항 참조)를 먼저 해오지 않는 사람을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라。

⑲ 남의 집을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은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허락없이 하지 말라。

⑳ 무기(武器)든 손으로 남을 가리키지 말라。사탄이 그를 오도(誤導)하여 총화(銃火)에 쓰러지게 할지도 모를 것을 하지 말라。

㉑ 눈을 아래로 뜨고, 장난을 삼가고, 불지옥으로 갈 일을 하지 말라。

㉒ 어리석은 짓을 멀리하라。

㉓ 악우(惡友)는 허욕과 음탕한 말과 나쁜 짓을 육성(育成)한다。

㉔ 악우를 조심하라。너의 交우 관계에 의해서 너의 사람됨이 판단(判斷)되느니라。

㉕ 좋은 친구는 마치 향수(香水)를 팔러 다니는 사람과 같으니라。 너에게 향수를 주는 것이

⑤ 회합 장소에 들어갔을 때 너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면, 그것은 너를 받들어 모시는 명예의 표시인 것이다.

⑥ 이미 자리잡고 있는 두 사람의 가운데를 파고들어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허락한다면 모를 일이지만.

⑦ 앉았던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와 앉는 것은 자격이 있다.

⑧ 「노상(路上)에 앉는 것을 금하라.」

어느 사람이 말했다.

「신의 사도여, 서로 할 얘기가 있어서 노상에 앉은 것입니다.」

마호멧은 말했다.

「그렇다면 요금(料金)을 지급해야 한다.」

「신의 사도여! 도로 요금(道路料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호멧은 말했다.

「너의 모습에 조심하라.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라. 평화의 인사로 돌아가라.」

㊟「그대에게 신의 평화 있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잊지 말라는 뜻.

덕(德)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상스러운 것을 금하라.

⑨ 권위자(權威者)와 학자(學者)는 상좌(上座)에 앉을 자격이 있다.

⑩ 연상자(年上者)와 동반함은 복받을 일이다.

⑪ 연상자와 자리를 함께하고, 학자에게서 지식을 구하고 현자(賢者)와 어울리라.

⑫ 거만한 자는 불지옥에 가리라.

⑬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사하라. 몇몇 사람에게만 인사를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는 사람은 최선의 인간이며, 악이 기대되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최악의 인간이다.

⑱ 주라. 그러면 너도 받으리라.

⑲ 빈자(貧者)와 어울리어 애정을 표시하라.

⑳ 인류의 후예들이여!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의 잉여분(剩餘分)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며, 넣어 두는 것은 해로운 일이니라.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저축해 두는 것은 해롭지 않도다.
 부양 가족(扶養家族)에게 쓰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 두라.

㉑ 예언자 마호멧이 말리크(Malik)의 아들 아나스(Anas)에게 말했다.
「아들아, 네 가슴 속에 원한(怨恨)을 품어 두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일이다.」

㉒ 우리들로 하여금 남의 잘못을 감싸도록 해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의 관용이니라.

⑩ 사교(社交)와 협의(協議)

① 교우 관계(交友關係)에 온건(温健)하라. 너의 친구가 네게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는 일이거니. 그와 마찬가지로 너의 적이 언젠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일이거니. 너의 적에게 온전하라.

② 건설적인 건의(建議)보다 훌륭한 지식은 없다. 그리고 그릇된 말을 하지 않음은 가장 훌륭한 신앙심이다.

③ 악수하는 습관을 기르라. 악수는 사람의 가슴에서 원한을 없애 주거니.

④ 여러 개의 방을 차지하는 회합(會合)이 최선의 회합이다.

⑤ 자식들에게 사랑이 없고、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좋은 일을 명령하지 않고、 악을 금하지 않는 자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라。

⑥ 친절은 신앙심의 표지(標識)이니、 친절하지 않은 자는 신앙심이 없느니라。

⑦ 말 못하는 짐승을 취급함에 있어 신을 두려워 하라。 탈 수 있을 만해지거든 탈 일이며、 지쳐 있을 땐 타지 말아야 하느니라。

⑧ 신앙심 다음가는 것、 인간에의 친절심(親切心)은 최선(最善)의 성질이니라。

⑨ 자기의 능력 범위(能力範圍) 안에서 형제(무슬림)에게 혜택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한다。

⑩ 남에게 나쁘게 했을 땐 인자함을 베풀도록 서두르라。

⑪ 가장 탁월(卓越)함은 벗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니라。

⑫ 끝맺음이 시작보다 공이 더 크다。

⑬ 최악의 인간이란 신의 이름으로 부탁받은 것을 거절하는 자이다。

⑭ 부탁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땐 받아먹으라。 그리고 일부를 자선으로 보내라。

⑮ 남의 적나라함을 감싸 주는 자는 생매장된 사람을 소생시킨 자와 같도다。

⑯ 한 사람의 명예가 집단(集團)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땐 자기 방위를 하고 공격자를 비난하라。 아니면 그 집단을 떠나라。

⑰ 남들이 그에게서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

⑧ 존엄과 자존심

① 목적 없는 일과 무용지물을 돌아다보지 말라 하였음은 이슬람의 하나의 의무이니라.

② 시가(市街)의 무질서를 가까이 말라.

③ 구두끈 하나가 없을 때 한 짝만 신고 나가지 말라. 한 짝을 고쳐서 짝을 채워 신으라. 아니면 차라리 맨발로 나가라.

④ 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악습(惡習)이다.

⑤ 신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표시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신은 말씀하셨다.
「인간이 시간을 악용한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는 시간이다. 나는 밤을 낮으로 바꾸고 낮을 밤으로 바꾼다.」

⑦ 「최후의 심판일」에 너희들의 이름과 아비 이름으로 불려 나서는 것이므로, 좋은 이름을 갖도록 하라.

⑧ 너희들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대리인을 내게 보낼 땐 수궁이 가는 이름을 가진 용모 단정한 자를 뽑아 보내도록 하라.

⑨ 친 절

① 친절한 자는 신자 중에서도 가장 신앙심이 완전한 신자이니라.

② 인간과 자기 자식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자에게 신은 친절하지 않으시다.

③ 구호(救護)를 필요로 하는 자를 도우라.

④ 지친 사람들 가슴에 기쁨을 넣어 주고, 괴로운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면 신의 앞에 나설 때 상을 받는다.

④ 사지(四肢)를 효과적으로 가려 주는 여유있는 옷을 입으라。 여인들도 외출할 때 그런 것을 입도록 강조하라。

⑤ 신이 너희들에게 부귀(富貴)를 주셨으니 신의 은혜와 우아(優雅)함의 표시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⑥ 비잔틴 제국(帝國)의 황제(皇帝)에게서 예언자 마호멧에게 비단 망트 선물이 보내져 왔다。 그는 그것을 입어 봤으나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서 옷을 입어 볼 때 손이 떨렸다。 그는 자기가 옷을 입어 보고 있을 때 들어온 사촌인 자팔에게 이것을 내주었다。 그는 말했다。

「네가 입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친구 아비시니아 왕에게 보내라。」

⑦ 외모(外貌)

① 머리를 잘 손질하라。

② 예언자 마호멧은 백발(白髮)을 뽑는 일을 금했다。

「백발은 무슬림의 외모의 광명(光明)이니라。」

③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훗날에 가서는 외모 생각만 하고 자아 향상(自我向上)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④ 하잘의 아들이 말했다。

「내가 예언자 옆에 갔을 때 내 머리가 어깨를 덮었다。 나를 본 예언자는 말했다。 〈불쾌하다。 불쾌하다。〉 나는 돌아서서 나와 머리를 깎고 다음날 다시 갔다。 예언자는 말했다。 〈나는 필요없이 결점을 찾아 낼 의사는 없었다。 이제 훨씬 보기 좋다。〉」

는다。

② 앉아서 먹을 때 신을 벗으라。 그것이 좋은 습관이다。

③ 음료를 서어브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맨 나중에 먹어야 한다。

④ 식사 2 인분은 4 인에게도 충당된다。 식사 4 인분은 8 인에게도 충당된다。 그러하니 따로 따로 떨어져서 먹느니 보다는 함께 먹으라。

⑤ 식사 초대를 받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자리를 함께하여、 먹고 싶으면 먹고 생각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된다。

⑥ 식탁에서 식사가 끝나고 다 내어갈 때까지 합석(合席)의 자리를 떠서는 안 되며、 배가 불렀다 해도 식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 주인이 먼저 끝내면 객이 당황하게 되고、 객이 먼저 끝내면 주인이 배고프게 된다。

⑦ 식탁에서 제 앞의 것을 먹도록 하고 음식 넘어로 손을 뻗지 않게 하라。

⑧ 예언자 마호멧에게 물 탄 우유가 들어왔다。 그때 오른쪽엔 농사꾼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왼쪽엔 아부 바크르(Abu Bakr—후의 제一대 칼리프)가 앉아 있었다。 마호멧은 그것을 마신 다음 그 농사꾼에게로 돌리면서 말했다。

「오른쪽 사람부터 차례가 된다。」

⑥ 의복(衣服)

① 몸에 옷을 입고 옷이 가리지 않은 곳을 드러내 놓지 말라。

② 옷을 잘 입고 마의(馬衣)를 잘 입혀라。 그럼으로써 출중(出衆)하리라。

③ 흰옷(白衣)을 입으라。 흰옷이 최상이니라。 시체도 흰옷으로 싸라。

라고 외고、마시고 나서「모든 감사는 알라에게」 라고 외느니라。

③ 손을 씻고 손으로 물을 먹으라。 손보다 깨끗한 그릇이 없느니라。

④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 것은 낭비다。

⑤ 빵을 소중히 여기라。

⑥ 마치 짐승처럼 음식 냄새를 맡아 보지 말라。

⑦ 음식을 아껴서 조금씩 먹는 사람은 무겁지 않게 만복(滿服)한다。

⑧ 신의 눈에 드는 가장 좋은 음식이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 음식이니라。

⑨ 펄펄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하라。 그 전 좋을 것 없느니라。 음식이 식은 후에 먹는 습관을 가지라。 그래야 삭키기 좋으니라。

⑩ 식초(食醋)는 훌륭한 반찬이다。

⑪ 소금은 음식 중의 왕이다。

⑫ 우유는 치료제고、버터는 약품이고、쇠고기는 병(病)이다。

⑬ 예언자 마호멧은 어떤 음료(飮料)가 가장 합당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답했다。「설탕 냉수이니라。」

⑭ 아부 후레이라는、예언자 마호멧은 한 번도 음식탓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좋으면 먹고 마음에 없으면 손을 대지 않았다。

⑤ 식탁 예법(食卓禮法)

① 나는 몸을 비스듬이하고 음식을 먹지 않

⑦ 손님을 거창하게 환대하지 말 일이다.

⑧ 떠나는 손님을 문까지 마중나감은 선행(善行)이다.

⑨ 나쁜 사람이란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다.

⑩ 손님 대접하는 법을 배워 두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된다.

⑪ 예언자 마호멧은 너무나 형식적인 손님 대접을 금했다.

⑫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신분(身分)에 따라서 사람을 맞이하라.」

⑬ 손님이 주인에게 불편을 끼칠 만큼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

⑭「오, 신의 사도여!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는 나를 대접하지 않았는데, 그가 내 집에 왔을 때 대접해야 합니까, 또는 나에게 하였듯이 해야 합니까?」
사도 마호멧은 즉석에서 대답했다.
「그를 대접하라.」

⑮ 손님이 찾아 오는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오는 것이니라.
그리고 손님이 떠날 땐 신의 용서를 놓고 가느니라.

④ 음식과 음료(飮料)

① 식사 전후에 손과 입을 씻음은 음식의 은혜를 더해 주느니라.

② 낙타처럼 물을 단숨에 넘기지 말고 두 숨 세 숨에 넘기라.
물 마시기 전에 「대자대비하신 신의 이름으로」

④ 오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최상(最上)의 인간이다。 오래 살고 나쁜 일 많이 한사람은 최고의 악인이다。

⑤ 어떤 자가 최악의 인간인가를 말해 주랴? 혼자만 먹고、종을 매질하고、선심을 쓰지 않는 자이다。

⑥ 신의 창조물은 마 신의 가족이니、신의 창조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리라。

⑶ 환대(歡待)

㊟「우리 다만 알라의 환심(歡心)을 위해서 그대를 먹일 뿐 그대의 보상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거니」(쿠란 一四：九)

① 초대는 이를 받아들이라。 선물을 거절하지 말라。 동료를 구타하지 말라。

② 초대를 거절함은 신과 신의 사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이니라。

불청객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도적질하러 들어가는 것이니라。

③ 기꺼이 올 사람은 떼놓고、오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을 초대한 피로연(披露宴)은 가장 나쁜 피로연이다。

④ 음식 자리에서는 윗손님、주인、또는 빈객(賓客)이 먼저 들도록 하라。

⑤ 손님은 三일간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이상은 주인의 자선이다。

손님은 이 기간에 떠남으로써 주인의 환대를 절약해 두어야 한다。

⑥ 찾아온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라。

㉙ 다음의 두 가지는 이교(異教)에 해당하나니 남이 망하는 것을 없신여기는 것과 죽은 사람을 비탄(悲嘆)하는 것이니라。

㉚ 너의 종과 자리를 함께하여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의 자선이다。

㉛「무슬림 간(間)에 불화(不和)가 파급(波及)되면 너희들에게 목조검(木造劍)이 유행하리라。」
고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㉜ 혀를 잘못 놀림은 발을 헛딛는 것보다 나쁘다。

㉝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경우에 듣지 않는 자는 착취자(搾取者)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㉞ 교우(敎友)들이 예언자에게 물었다。

「신의 사도여! 신이 인간에게 내려 주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입니까?」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선행(善行)을 하는 성질이니라。」

㉟ 예언자 마호멧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무엇이고 거절한 적이 없었다。

② 선인(善人)·악인(惡人)

① 최선(最善)의 인간은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이니라。

② 최악(最惡)의 인간은 나쁜 학자이니라。

③ 최선의 인간은 그 인품이 신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니라。

밀고자(密告者)는 최악의 인간이다。 이들은 악을 행하고、친구를 이간질하고、의로운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다。

⑯ 예의를 지키라。
가난한 사람、겸손한 사람과 자리를 같이하라。
이는 신의 눈에 네 스스로를 높이고、자만과 거만에서 너를 구(救)하는 길이니라。

⑰ 온순한 말은 자선이다。

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함은 하나의 재앙(災殃)이다。

⑲ 형제를 도우려 길을 떠난 사람은 나의 모스크에서 二 개월 동안 홀로 예배를 보는 것보다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⑳ 여러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를 찾았을 때 존경심으로 맞이하라。

㉑ 형제에게 자리를 내게 하여 제가 차지하는 것은 금해야 할 일이다。

㉒ 남의 집 주인이 늘 쓰는 자리를 주인의 허가없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

㉓ 형제의 소유물을 장난삼아、혹은 정말로 사용(私用)하지 말 일이다。 형제의 단장 하나라도 빌려 썼으면 서둘러서 반환해야 한다。

㉔ 하품이 날 땐 될 수 있는 데까지 입을 다물도록 하라。

㉕ 코고는 사람은 손바닥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서 소리를 없애든가 줄이도록 하라。

㉖ 우리(무슬림)에게 무기(武器)를 드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㉗ 얼굴을 때리지 말라。

㉘ 자기에게 존경을 표시하라고 사람들을 세워두는 자는 스스로 불지옥의 자리를 마련케 함이니라。

줄 안다。

⑤ 신자는 좋은 말만 해야 하느니라。 아니면 침묵을 지키라。

⑥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에겐 들리지 않도록 두 사람이 귓속말을 하지 말 일이다。 이는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⑦ 자식들에게 줄 선물로서 선행(善行)보다 좋은 것이 없느니라。

⑧ 말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말은 하지를 말라。

⑨ 온순(温順)과 겸손(謙遜)은 신앙의 두 개의 가지〔枝〕다。

쓸데없는 말과 수식(修飾)은 위선(僞善)의 두 개의 가지다。

⑩ 죽은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⑪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함은 가치없는 것이다。

⑫ 통찰력(洞察力)보다 위대한 지혜가 없고、절제(節制)보다 위대한 미덕(美德)이 없으며、선행(善行)보다 더 큰 선(善)이 없다。

⑬ 성품이 온전한 사람에겐 세상 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차례간다。

혈연(血緣)에의 배려(配慮)、선행(善行)、이웃에 대한 친절은 사람이 사는 집을 풍성케 하고 인간의 활동 시대를 연장시킨다。

⑭ 신은 명령하시기를、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서로 겸손하게 처신하도록 하셨다。 서로 침해하지 말고、서로 자만(自慢)하지 말라。

⑮ 선행은 미덕이다。

제 맘 속에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⑤ 예언자 마호멧은 산 짐승을 사격 연습에 사용함을 금했다。

⑥ 예언자 마호멧은 동물 안면(顔面)에 화인(火印)을 찍는 것과 타격을 가하는 것을 금했다。

⑦ 예언자 마호멧은 야수피(野獸皮)를 마룻바닥에 깔든가 이불요로 쓰는 것을 금했다。

⑧ 젖이 나오는 암양을 잡지 말라。

⑨ 사육양(飼育羊)을 취득(取得)하라。 이는 축복의 샘이니라。

⑩ 말 앞이마에 천복(天福)이 있다。

⑪ 새가 우리 속에 안전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라。

⑫ 신은 모든 피조물(被造物)에 친절할 것을 말씀하셨거니、 꼭 잡아야만 되겠으면(注 식용(食用))으로 최선의 도살법으로 자비롭게 잡아야 하고、 칼이 잘 들도록 갈아서 고통을 덜게 하라。

⑬ 예언자 마호멧이 마침 뱃가죽이 등에 붙은 낙타 옆을 지나게 되었을 때 설교하였다。

「말 못하는 동물을 취급함에 있어 신을 두려워하라。 점잖게 타고 먹이를 잘 먹이도록 하라。」

사회·문화(社會文化) 관계

① 예의(禮儀)와 선행(善行)

1 선행(善行)은 신앙의 반(半)이다。

2 가장 사랑받을 사람은 품행방정한 사람이다。

3 침묵과 품행방정、 이 두 가지보다 좋은 수업(修業)은 없다。

4 자신을 아는 자、 자기의 몸가짐을 가름할

이렇게 말해 주라.

「병이 나아서 오래 사십시오.」

이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병자의 영혼을 위로해 주느니라.

③ 진실로 무슬림의 병자(病者)에게 신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은 그 병이 과거의 결함을 메꾸고 장래의 교훈이 되게 하심이니라.

그러나 위선자(僞善者)가 병을 앓다가 회복함은 마치 매어 두었던 낙타를 풀려 줌과 같으니, 낙타는 왜 매여 있었으며 왜 풀려졌는가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독신자(篤信者)는 자기 병은 결함을 메꾸기 위한 것이었음을 아는 것이다.

④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문병(問病)하고, 부당하게 갇혀 있는 포로를 석방해 주라.

무슬림, 비(非)무슬림을 가리지 말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

동물 취급에 관한 장(章)

① 동물을 취급함에 있어 신을 두려워하라. 아직 미숙한 동물은 타지 말라. 새를 잡는 자에게 새를 잡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니, 신은 그 이유를 물어 보실 것이니라.

② 예언자 마호멧은 동물끼리 싸움붙이는 것을 금했다.

㊟ 투우(鬪牛), 투견(鬪犬), 투계(鬪鷄) 따위.

③ 만약 신이 너의 동물 취급 하는 태도를 용서하신다면 너는 훨씬 많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

④ 참새 한 마리라 해도 필요없이 죽이는 자는 「최후의 심판일」에 신 앞에 불려 나서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는 일곱 형제에 여자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의 빰을 한 번 때린 적이 있읍니다.」

예언자 마호멧은 그 여자종을 해방시켜 주라고 명령했다.

⑤ 아부 마수드가 진술했다.

「한번은 내가 노예를 때리고 있는데 예언자 마호멧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부 마수드, 기억하라. 신은 네가 노예를 때리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세시다.〉

나는 〈다시는 노예를 때리지 않겠읍니다.〉고 대답하고 노예를 〈신의 이름으로〉 석방시켰다.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불지옥에서 태워졌을 것이다.〉」

⑥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룸에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지니, 그들에게 옷과 양식을 주고 말을 부드럽게 하라.

④ 과부(寡婦)

① 과부가 된 여인을 돌봐 주라.

② 과부와 빈자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자는 신의 길을 가는 자에 해당하고, 밤새워 예배보는 자와 같으며, 또한 계속해서 단식하는 자에 해당하느니라.

③ 과부와 빈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알라의 길에서 싸우는 자에 해당하며, 밤을 예배로 지새고 낮엔 단식을 하는 자와 같으니라.

⑤ 병자(病者)

① 문병(問病)갔을 땐 기도의 말로 문병하라.

「그대에게 행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결음걸이에 불편이 없게 하여 주소서. 그대를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② 병자를 방문했을 땐 그의 슬픔을 위로하여

⑥ 고아의 후견인은 고아의 재산을 영리 사업에 투자해서 세금(税金)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두 약자(弱者)、즉 고아와 여인의 권리 침해를 금한다。

⑧ 너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또한 네가 위급(危急)할 때 구원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아를 친절히 해 주고、사랑해 주고、네가 먹는 좋은 음식을 먹여 주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후련해질 것이고、네가 위급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⑨ 예언자 마호멧이 아부 자르에게 말했다。

「네 몸이 약해졌구나、아부 자르。나도 내 몸을 위해서 소망하듯이 너도 네 몸을 위해 소망할 일이니、사람을 다스림에 있어 두 사람도 많으니 지배의 기회를 찾지 말 일이며、고아의 재산 관리를 책임지지 말도록 할 일이다。」

⑩ 어느 사람이 예언자 마호멧에게・자기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음을 호소했다。 마호멧은 고아를 애무해 주고 빈자(貧者)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조언했다。

③ 종복(従僕)

① 죄수(罪囚)를 우대하라。

② 무지한 노예(奴隷)에게 부당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자는「최후의 심판일」에 매를 맞으리라。

③ 예언자 마호멧의 최후의 훈계(訓戒)는 이러하였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注 노예)을 취급함에 있어 신을 두려워하라。」

④ 수워이드가 말했다。

한 이웃에 가도록 하라。

⑧ 신은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 자를 보살피지 않으신다。 신은 「불지옥에 가야만 될 무리들과 함께 불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리라。

⑨ 「이웃은 권리(權利)가 있다」 함은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웃이 너의 도움을 부탁했을 땐 도와주어야 하며、 돈을 꾸어 달라 하면 꾸어 주어야 하고、 생활이 곤란해지면 도와주어야 하느니라。

이웃이 병을 앓고 있으면 간호해 주어야 하며、 죽었을 땐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고、 이웃에 경사(慶事)가 났을 땐 축하하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땐 위로해 주어야 하느니라。

집에 과일을 사들였을 땐 좀 선사하도록 하라。 선사할 수 없거든 집안에 들여놓고、 이웃집 아이들을 쓸쓸하게 하지 않도록 너의 아이들이 들고 나가서 먹지 않게 하라。

집에서 음식을 끓일 때 음식 냄새를 풍겨서 배고픈 이웃집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니면 나누어 먹어야 하느니라。

② 고아(孤兒)

① 고아를 돌보는 자는 천국의 이웃이니라。

② 훌륭한 무슬림 가정이란 고아를 친절히 대우하는 집이고、 못된 무슬림 가정이란 고아를 불친절하게 대우하는 집이다。

③ 고아의 후견인(後見人)은 마치 엄지손가락과 인지(人指)처럼 내세(來世)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되느니라。

④ 고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먹여 주는 자는 신이 천국의 문으로 가까이 데려가시느니라、 그가 대죄(大罪)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은。

⑤ 고아가 자라서 자립(自立)할 때까지 부양을 책임지는 자는 천국에 드느니라。

하실 땐 그 가족에게 신앙의 이해를 주시고, 유자(幼者), 장자(長者)를 존경하도록 해 주신다. 상호간 친절할 것과 과용하지 말 것과 결함을 의식해서 메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그러나 신이 만것을 원하시는 경우엔 그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사회 관계(社會關係)

① 이 웃

1 이웃은 권리(權利)가 있다.

2 내 너에게 이웃을 위임(委任)하노라.

3 너의 이웃이 너를 좋게 말하면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너의 이웃이 너를 나쁘게 말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니라.

4 이웃에게 나쁘게 하는 자는 신자(信者)가 아니다. 영원히 신자가 될 수 없다.

5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소한 기회를 등한시하지 말라.

조그마한 일도 할 수 없거든 웃는 낯으로 형제(무슬림)를 만나보는 일이라도 하라.

고기국을 끓일 때 물을 조금 더 부어 끓여서 국물일망정 이웃에게 보내도록 하라.

6 예언자 마호멧은 질문을 받았다.

「이웃이 두 집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집에 선물을 보내야 합니까?」

마호멧은 대답했다.

「네 집에서 가까운 집에 보내라.」

7 두 집에서 동시에 초대(招待)를 받았을 경우, 네 집에서 가까운 집의 초대에 응하라. 네 집과 가까운 집이 이웃으로서의 강력한 주장(主張)을 할 만하다.

그러나 따로따로 초대를 받았을 땐 먼저 초대

누가 물었다。

「제 양친을 악용하는 자가 어디 있겠읍니까?」

「오 있다마다냐。 만약 남의 아비를 악용하는 자가 있으면 제 아비에게로 그 악용이 돌아온다。 또 남의 어미를 악용하면 그 악용이 제 어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⑧ **혈연 관계(血緣關係)**

① 신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혈연 관계를 강화하라。

② 수단 방법을 넓히고 활동 시대의 연장을 원한다면 혈연 관계의 유대를 강화할 일이다。

③ 하례(賀禮)에 한정되는 것일지라도 혈연 관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를 찾도록 하라。

④ 인간은 자기 혈연 관계의 의무를 진다 함은 혈족과의 우호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족 관계가 두절되었을 때 그 회복을 찾음에 있느니라。

⑤ 너와 손을 끊은 사람과 유대를 맺도록 하라。

네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관대하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이해에 어긋날지라도 진실을 선언하라。

⑥ (가족 관계에 있어) 이모(姨母)의 지위는 어미와 같다。

⑦ 장형(長兄)이 아우에게 갖는 권리는 부친이 아들에게 갖는 것과 동일하다。

⑧ 빈자(貧者)에게 주는 자선(慈善)은 단순한 자선이다。 자기 혈족에게 주는 자선은 이중(二重)의 미덕(美德)이니, 이는 자선이자 훌륭한 혈연 관계이다。

⑨ 신이 어느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

만의 명예를 손상(損傷)하는 시인(詩人)과 제 아비에게 승복(承服)하지 않는 자이니라。

⑧ 네 아비의 친구에게 친절함은 덕망(德望)의 하나이니라。

⑨ 예언자 마호멧은 질문을 받았다。

「나의 의무는 누구에게 먼저 가는 것입니까?」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 다음은?」

「너의 어머니다。」

「또 그 다음은?」

「너의 어머니다。」

「그 다음은?」

「너의 아버지다。 그 다음이 촌수에 따라서 혈족(血族)에 가느니라。」

⑩ 싸움터에 나가려는 예언자 마호멧에게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참가를 허락해 달라고 했다。 예언자는 그에게 물었다。

「너의 양친은 생존해 계신가?」

「네。」

「그렇다면 양친을 보살피라。 그것이 너의 성전(聖戰、Jihad)이니라。」

⑪ 한 안사리가 예언자 마호멧에게 물었다。

「양친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나의 의무는 남아 있읍니까?」

예언자는 대답했다。

「그렇고말고。 네 가지의 의무가 있다。 돌아가신 양친들을 위해서 신의 용서를 빌고、 양친에게 축복을 내리시도록 애원해야 하느니라。 양친이 하던 일을 완수(完遂)해야 하며、 양친의 친구분들을 존경해야 하느니라。 양친의 친척과의 혈연관계를 강화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너의 양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이니라。」

⑫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제 양친을 악용(惡用)하는 것은 대죄(大罪)이니라。」

⑥ 딸자식

[1] 딸자식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는 불지옥을 막아 주는 칸막이가 쳐지느니라.

[2] 딸 둘을 그들이 나이 들 때까지 잘 키우는 자는 마치 두 손가락처럼 죽어 저 세상에서 나와 가까운 이웃이 되리라.

[3] 가장 훌륭한 미덕(美德)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말하리니, 그것은 이혼당하고 집에 돌아온 딸을 온순하게 대해 주는 것이니라.

[4] 딸이 태어났을 때 생매장해 버리지 않고, 딸을 구박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해 주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리라.

⑦ 양친(兩親)

[1] 천국은 너희들 모친의 발 밑에 놓여 있느니라.

[2] 알라의 즐거움은 제 아비를 즐겁게 하는 곳에 있고, 제 아비를 상심(傷心)케 하는 곳에 알라의 노여움이 있느니라.

[3]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아비와 어미를 잘 보살펴야 하느니라.

[4] 양친이 자식에게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양친에게 잘 해야 하느니라.

[5] 네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자식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리라.

몸가짐을 점잖게 하라. 그러면 네 아내도 정숙하리라.

[6] 제 아비에게 노여운 눈초리를 하는 자는 남이 좋게 대해 오기는 틀린 자이니라.

[7] 크나큰 거짓말장이가 둘이 있으니, 온 국

⑤ 아이들

⑴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축복받지 못한 집이다.

⑵ 자식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품행(品行)을 미화(美化)하라.

⑶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이란 자식을 잘 키우는 것밖엔 없다.

⑷ 아비가 자식에게 글읽기와 글쓰기와 헤엄치기와 무기(武器)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합법적으로 번 것으로 먹여살리는 것은 자식의 권리(權利)다.

⑸ 아들에겐 헤엄치기와 궁술(弓術)을 가르쳐 주고, 딸에겐 베틀짜기를 가르쳐 주라.

⑹ 신을 두려워하고 자식들을 동등(同等)하게 해 주라.

(註) 아들 딸 차별 없이.

⑺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자기 식구에게 인색한 사람이다.

⑻ 부양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 충분한 죄가 된다.

⑼ 아이들이 십대(十代)가 되면 잠자리를 따로 해 주라.

⑽ 너의 아이들을 소중히 하라.

⑾ 자존심을 주입(注入)시켜 주면서 아이들을 다루라.

⑿ 남에게 욕식 한 말을 회사하는 것보다도 너의 아이들에게 예의(禮儀)를 가르침이 훨씬 낫도다.

하지 말라。 너의 고상한 아내를 노예처럼 때리지 말라。

⑧ 너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내에게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니라。

⑨ 가장 엄중한 서약은 네가 여인을 합법적인 아내로 삼을 때에 하는 서약이니라。

⑩ 어떤 것이 최고의 보물인가를 말하랴? 좋은 아내이니라。 좋은 아내는 남편의 눈을 즐겁게 하고、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재산을 감시하느니라。

⑪ 여인은 늑골(肋骨)과 같은 것이라。 곧게 펼려고 하면 부러지리라。 그러나 여인은 여인대로 두면 휘었을망정 너에게 잘 하리라。

⑫ 여인은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함이어늘 여인에게 가정을 마련해 주라。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와할 때가 있으니 용서와 침묵으로 도와주어야 하느니라。

⑬ 남편의 봉사는 성스러운 헌금(獻金)이니라。

⑭ 여인의 첫째 의무는 남편에 대한 것이고、 남자의 첫째 의무는 어머니에 대한 것이니라。

⑮ 여인에게 있어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둘밖에 없으니、 무덤과 남편이니라。

⑯ 너의 남편의 허가 없이 여인들과 이야기하지 말 일이다。

⑰ 예언자 마호멧은 「우리들이 아내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네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듯이 아내가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라。 때리지 말라。 가혹하게 말하지 말라。 집안에 있을 때 말고는 늘 동행해 주라。」

⑱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 「여인들이 마치 누우드(裸體) 같은 옷을 입고 활보할 시기가 있으리라.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마치 낙타 등의 혹처럼 머리를 건들거리며 활보하리라. 이러한 여인들은 천국에 들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향기가 그들을 감싸더라도 맡을 수 없으리라.

⑲ 예언자 마호멧이 전장(戰場)에 나갈 때 그의 처 움미 살림(Ummi Saleem)과 일단(一團)의 안사리의 처들도 동행하여 식수(食水)를 길어오고 부상자를 치료하곤 하였다.

④ 남편과 아내

① 아내는 남편의 옷이며 남편은 아내의 옷이니라.

② 부덕(婦德) 있는 아내는 남편의 최고의 보물이니라.

③ 네 아내에게 친절함은 선인(善人)이 될 첫 발길이니라.

④ 모스크에 가는 아내를 막지 말라.

⑤ 하루 다섯 번 예배를 이행하고, 「라마단」에 단식을 하고, 정숙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인들에게 말해 주라. 이런 소행은 다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니 어떤 문이고 마음대로 골라서 들어가라고.

㊟ 라마단은 이슬람 교의 五대 의무의 하나인 단식 성월(斷食聖月).

⑥ 어느날 한 여인이 예언자 마호멧을 찾아와서 남편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예언자는 말했다. 「아내는 남편의 허가 없이 집을 비우고 나아가서는 안 되느니라. 여인은 남자의 쌍동이니라.」

⑦ 아내에게 좋은 조언(助言)을 하라. 착한 아내라면 조언을 곧 받아들이리라. 쓸데없는 말을

보호가 없으면 사탄이 급습(急襲)한다.

⑥ 신은 옷을 겸손하게 입은 여인에게 자비로우시다.

⑦ 낯선 여인과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하라. 가족이 아닌 여인과 혼자 있음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⑧ 가까운 친척과 동행(同行)이 아니면 여인 혼자서 三일을 여행해서는 안 된다.

⑨ 짙은 화장을 하고 싸다니며 향수(香水)로 남자를 홀리는 여인은 매춘부이니라.

⑩ 여인의 옷장 속을 제한하도록 할 일이다. 옷과 장식품이 과분(過分)하게 많으면 활개치고 나다니게 된다.

⑪ 이쪽으로 걸어오는 두 여인과 마주쳤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비켜 가도록 하라.

⑫ 두 여인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잘못이다.

⑬ 여인이 길을 갈 때 한복판을 걸어감은 옳지 못하다.

⑭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나는 여인과 악수하지 않는다.」

⑮ 남편을 여윈 여인에게 조위(弔慰)를 표함은 천국에서의 좋은 옷을 버는 것이니라.

⑯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남자의 가장 큰 시련은 여인이리라.

⑰ 예언자 마호멧은 여인에게 설교하여 말했다.
「알뜰하게 가정에 들어앉아 있으라. 그것이 너희들의 성스러운 노력이니라.」

을 명령했다。

訳 예언자 마호멧이 박해가 심한 메카에서 난을 피해 메디나로 갔을 때, 생사를 같이한 교우(敎友)들을 안사리라고 함。이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피난을 성천(聖遷)이라 하고, 이것이 회교력(回敎曆)의 기원(紀元)인 것이다。

⑧ 다비트 이븐 까이스의 처(妻)가 예언자 마호멧에게 와서 말했다고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진술했다。「다비트 이븐 까이스에겐 도덕과 신앙면에 결점이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무슬림으로서의 그의 망은(忘恩)을 증오(憎惡)합니다。」

訳 다비트 이븐 까이스에겐 도덕적으로도, 신앙면에서도 흠잡을 곳이 없으나 아내가 이혼을 요청했다 해서 혼자금(婚資金)으로 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함으로, 「무슬림으로서의 그의 망은(忘恩)을 증오한다」면서 혼자금 반환 요구를 중재해 달라고 마호멧을 찾아왔던 것임。

예언자 마호멧은 질문했다。
「너에게 혼자금으로 준 토지를 반환하라는 것이냐?」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다。
예언자 마호멧은 다비트에게 말했다。
「너의 토지를 다시 찾아 갖고 이혼하라。」

③ 여인(女人)

① 여인은 남자의 쌍동이다。

②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거니,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부덕(婦德)있고 순결(純潔)한 아내이니라。 덕있는 아내는 남자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니라。

③ 신은 너희들에게 명령하기를 여인에게 잘하라고 하셨거니, 여인은 너희들의 어미요 딸이며 아주머니이니라。

④ 여권(女權)은 신성(神聖)함이니, 여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보장되야 하느니라。

⑤ 여인은 보호(保護)가 필요하다。 여인에게

⑬ 피로연(披露宴)은 결혼식 당일(當日)이 적당하다。 2일 후도 좋다。 3일 후에 하는 피로연은 자랑이고 위선(僞善)이다。

⑭ 남자가 여자를 구함에 네 가지가 있다。 여자의 재산、 가문(家門)、 미모(美貌)、 부덕(婦德)이 그것이다。

부덕을 제일로 쳐야 할 일이니라。

⑮ 사바의 아들 「무기라」는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었다。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결혼 후 일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자를 먼저 만나보도록 마련하라。」

② 이혼(離婚)

① 이혼은 합법이지만 신이 싫어하신다。

② 신이 허용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혐오(嫌惡)하는 일은 이혼이니라。

③ 결혼하라。 그러나 이혼하지 말라。 신은 이혼을 불쾌히 여기시느니라。

이혼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해도 신을 불쾌하게 하느니라。

④ 이유없이 남편과의 이혼을 요청하는 여인에게는 천국의 향내 그윽한 동산이 막혀지느니라。

⑤ 알라의 사도는 모두 세 번 아내와 이혼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통고받고 불쾌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너희들은 알라의 서(書)가 하나의 장난으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⑥ 남편이 전장(戰場)에서 실종(失踪)되었을 경우 아내는 一년 동안 기다려야 하느니라。

⑦ 안사리(Ansari) 중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의 간통(姦通)을 고소(告訴)해 왔다。 예언자 마호멧은 두 사람을 서약(誓約)시키고 헤어질 것

는 아니 된다。」

사람들은 물어 보았다。

「오、알라의 예언자여! 어떻게 하는 것이 처녀의 동의(同意)를 얻는 것입니까?」

마호멧은 대답했다。

「그녀의 침묵(沈默)이 그녀의 동의이니라。」

⑤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고 아부 후레이라가 진술했다。

「형이 결혼 상대를 구하고 있을 땐、형이 결혼하거나 그만두기로 할 때까지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⑥ 칸사 빈트 키잠이 진술하기를、부친이 그녀의 처녀 시절에 시집을 보냈는데 그녀는 그 결혼을 싫어했었다。그래서 그녀는 예언자 마호멧을 찾아가서 호소하자 예언자 마호멧은 그 결혼을 취소시켰다。

⑦ 결혼 생활은 나의 길이다。나의 길에서 발길을 돌리는 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 동신자(同信者)가 아니다。

⑧ 도덕과 인품이 네 맘에 드는 남자에게 결혼을 신청하고 결혼을 수락하라。

너의 거절은 피해를 자아내고 항상 알력(軋轢)을 야기하느니라。

⑨ 혼담 성립 통지(婚談成立通知)는 여자쪽에서 남자쪽에 보내도록 하라。

⑩ 과부산(寡婦產)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말라。

㊟ 과부산은 망부(亡夫)의 유산(遺產)에서 과부가 받는 부분

⑪ 다음의 三가지를 지연(遲延)시키지 말라…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보라。사람이 죽었을 땐 장사지내라。과부는 상대자가 나타났을 땐 재혼(再婚)하라。

⑫ 결혼은 널리 공개해야 한다。

해 주어야 한다。

㉘ 예언자 마호멧은 이슬람 입교자(入敎者) 명단 작성의 인원수를 감산(減算)하라고 명령하였다。

㉙ 자발(Jabal)의 아들 무아즈(Muáz)는 말했다。「예언자가 나를 예멘 총독으로 임명했기에 임지(任地)에 갔는데、그 후 사람을 보내왔으므로 나는 되돌아갔다。 마호멧은 나에게 말했다。〈내가 왜 사람을 보냈는지 알겠는가? 나의 허가 없이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불명예이므로。

그리고 불명예스런 행동을 한 자는 최후의 심판일(審判日)에 그가 저지른 불명예를 함께 가지고 오느니라〉(쿠란 三：一六二)하셨다。 그래서 너를 불러 온 것이다。 자、그러면 이제 네 일로 돌아가라。」

금기(禁忌) 사항

*「금주」·「간음」·「고리대금」·「구걸」—전술 참조

가족 관계

① 결혼(結婚)

[1] 이슬람엔 독신주의(獨身主義)가 없다。

[2] 결혼할 수 있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에게 결혼은 의무다。

[3] 말썽이 적고 결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여인이 가장 복받을 사람이니라。

[4]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고 아부 후레이라(Abu Hurairah)는 진술했다。

「과부는 상담(相談) 없이 결혼해서는 아니 되며、처녀는 동의(同意) 없이 결혼이 성립되어서

며 그도 또한 국민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통치자이니라。

너희들을 위해 기원(祈願)하고 너희들 또한 그를 위해 기원하는 그러한 통치자이니라。

그리고 최악의 통치자란 국민들이나 그나 서로 똑같이 싫어하며、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통치자이니라。

누가 질문을 하였다。

「신의 사도여、검(劍)으로 이런 자들을 퇴치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그들이 우리들 속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이상 그건 안 되느니라。그들에게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의 행위에 반대할 일이지 복종을 철회(撤回)해서는 안 되느니라。」

㉒ 예언자 마호멧은 상품의 가격을 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그는 말했다。

「신이 값을 정한다。계약을 맺는 것은 신이다。신은 준비자(準備者)다。내가 주님을 만날 때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 문제에 의롭지 못했다고 비난받지 않기를 원한다。」

㉓ 무슬림은 통치자에 복종해야 한다。

너희들의 통치자가 신에 복종하지 말도록 명령할 땐 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㉔ 통치자가 분노(憤怒)의 길을 치닫는다면 사단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

㉕ 무슬림은 물、야초(野草)、연료(燃料)의 세 가지에 있어서는 공동 소유자(共同所有者)다。

㉖ 신은 약자(弱者)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엔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

㉗ 예언자 마호멧은 명령하였다。

「풍수해(風水害)로 입은 농작물과 과실의 피해에 내해서는 경작자(耕作者)에게 정당한 구제를

⑫ 신의 눈에 즐거움으로 보이며 「최후의 심판일」에 신과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정의(正義)의 통치자이고, 신의 눈에 나서 「최후의 심판일」에 신이 가장 멀리하는 자는 불의의 통치자이다.

⑬ 중생들을 위하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정(失政)을 하는 통치자이니라.

⑭ 행정부 요직(行政府要職)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면 집 한 채를 사거나 셋집을 얻을 수 있다. 결혼 전이면 결혼해야 한다. 하인이 없으면 하나 둘 수도 있을 것이요, 타고 다닐 말이 없으면 하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자는 부정(不正)이다.

⑮ 통치자가 의심을 품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일대 곤경에 빠지게 된다.

⑯ 세금 착취자는 천국에 들지 못하느니라.

⑰ 국민 속에 악(惡)이 성행하고, 개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방치할 때, 신의 노여움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느니라.

⑱ 독신자(篤信者), 몸이 불편한 자, 요구호대상자(要救護對象者) 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두게 하는 자는 자기가 곤경에 빠졌을 때 「신의 자비」의 문이 닫혀지느니라.

⑲ 통치자는 국민의 곤욕(困辱)을 덜어 주되 가중(加重)하지 말라.

국민에게 희망을 넣어 주고 증오심을 넣어 주지 말라.

국민을 결속시키되 이간(離間)하지 말라.

⑳ 영도자들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니라.

㉑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국민이 그를 좋아하

⑥ 나에게 복종하는 자 알라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고, 통치자에 복종하는 자 나에게 복종하고, 통치자에 복종하지 않는 자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맘은 보호(保護)의 갑옷이므로 이맘을 방위하기 위하여 싸움을 해야 하고 그에게서 보호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맘이 알라의 의무를 다할 것과 정의(正義)를 행할 것을 명령하면 신에게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독한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으리라。

⑦ 통치자의 명령이 마음에 거슬릴 때 반대 입장에 서지 말지니, 왕에 거역하는 자는 무지한 죽음을 당하느니라。

⑧ 칼리프 우마르(註 제二대 칼리프)가 총독에 임명되었을 때 내려진 조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아라비아산(產)이 아닌 말을 타지 말 것。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지 말 것。
비단옷을 입지 말 것。
구원을 청해 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어걸지 말 것。
만약에 이를 어기면 벌을 받으리라。」

⑨ 통치자는 땅 위에 내려진 「신의 자비」의 그늘이니라。

통치자를 존중하는 자에게 신의 존중이 있을 것이고, 통치자를 욕보이는 자에겐 신의 곤욕(困辱)이 있을 것이니라。

⑩ 네가 권좌(權座)에 앉을 경우, 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선조(先祖)에게 정답게 행동하라。

⑪ 사복(私服)을 채우는 자와 결탁해서 부정(不正)을 행하는 권위자(權威者)는 불지옥의 선두에 서리라。

「쿠란의 법으로 하겠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쿠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하겠는가?」

고 예언자 마호멧이 다시 묻자、

「그때엔 신의 사도의 판례(判例)에 기준(基準)해서 하겠읍니다。」

라고 무아즈는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될 땐?」

하고 다시 질문을 받고 무아즈는 대답했다。

「그땐 나 자신의 이성(理性)과 판단력(判斷力)으로 하겠읍니다。」

㊟ 「사도의 판례」란 즉 「하디스」다。

국가관(國家觀)

① 영도자(領導者)는 봉사자(奉仕者)다。

② 무슬림 지도자로서 자기의 자질(資質)을 그들도 구비하도록 뒷받침하지 않는 자는 천국의 향기를 맡아 볼 수 없느니라。

③ 최선의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사랑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

최악의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미워하고 또한 피지배자의 미움을 받는 자다。

④ 설사 너의 통치자가 곱슬머리 흑인(黑人)일지라도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느니라。

⑤ 너희들은 누구나 다 통치자다。 따라서 너희들은 누구나 다 피통치자의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왕은 통치자다。 따라서 왕은 피통치자의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남편은 가족의 통치자다。 따라서 식구들의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아내는 가정의 통치자다。 따라서 아내는 가족의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 이슬람은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다。 동시에 예언자 마호멧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과 의무에는 도피구(逃避口)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선행(善行)을 하였다 한들 그 뜻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면 신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⑤ 최대의 성전(聖戰)은 폭정(暴政)을 쓰는 통치자 면전(統治者面前)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라.

⑥ 최대의 성전은 자아(自我)의 나쁜 성향(性向)과 싸우는 일이니라.

이성(理性)과 이해(理解)와 상식(常識)

① 신은 제일 먼저 이성(理性)을 창조하셨다.

② 신은 이성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느니라.

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해력(理解力)은 이성에 의해서이다.

신이 불쾌하게 여기심은 인간들이 이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며, 인간들이 신에게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음도 이성 여하에 달려 있느니라.

③ 진실로 예배, 단식, 희사, 순례,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을 다 하였다 하더라도 그 뜻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면 신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 ①「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마호멧은 신의 사도이다」라는 「신앙의 고백」, ② 예배, ③ 단식, ④ 희사, ⑤ 메카 순례, 이 五가지를 「이슬람의 五대 의무」라고 한다. 흔히 「이슬람의 오주(五柱)」라고 한다.

④ 신이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헌신(獻身)을 수락함에 있어 六번째나 十번째의 헌신을 수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력과 참다운 헌신적 정신으로 바치는 헌신만을 수락하신다.

⑤ 예언자 마호멧이 물었다.
「오, 무아즈여, 네가 예멘의 행정(行政)을 맡음에 있어 어떤 규칙을 지침(指針)으로 삼겠는가?」

자카트(Zakat)는 재산세로 번역해도 무방하다。구와금(救援金)은 장려의 항목이지만、자카트는 의무의 항목이다。자카트는 구빈세(救貧稅)이기도 하다。

④ 순례(巡禮)

① 누가 예언자 마호멧에게 질문하였다。
「순례복(巡禮服)은 어떤 것을 입어야 합니까?」
마호멧은 대답했다。
「내의(內衣)、터반、하의(下衣)、모자를 착용하지 않으며、바스(Vars)로 염색한 것을 입지 않는다。신발이 없으면 가죽 양말을 신되、발굽위를 덮지 않는다。」

注 바스는 나무 이름으로서、염료(染料)로 사용한다。붉은 색이다。

⑤ 성전(聖戰、Jihad)

① 누가 질문을 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여、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알라의 사도는 말했다。
「몸과 재산을 바쳐 알라의 길을 위해서 분투하는 신자이니라。」

② 나의 지역 사회의 일단(一團)이 진리를 위하여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반대자(反對者)를 누르고 승리하리라。

③ 알아둘지어다。천국은 검(劍)의 그늘 밑에 있음을。

④ 전장(戰場)에서 여인이 살해되었음이 발견되었다。그리하여 알라의 사도 마호멧은 여인과 아이들의 살해를 금했던 것이다。

注 이상의 五가지、즉「예배」、「단식」、「자카트」「순례」、「지하드(聖戰)」를「이슬람의 五대 교리」라고 한다。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하는、다시 말해서「맹종(盲從)」은 금물(禁物)이며 허울뿐인 형식주의는 이를 경고하는 다음의 마호멧의 말이 있다。
「진실로、예배、단식、회사、순례、그리고 모든

⑩ 신의 사도는 성원(모스크)에 들어설 때「오 신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나에게 당신의 사랑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나올 때도 되풀이해서 말했다.

⑪ 오 주님이시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가족과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느니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⑫ 예배는 신자를 신과 결속(結束)해 주느니라.

⑬ 신에게 모든 소망을 빌라. 그것이 설사 끊어진 구두끈이라 할지라도.

⑭ 예배는 천국의 열쇠다.

② 단식(斷食)

① 단식 중인 사람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분개해서 상해(傷害)를 입혀도 안 되느니라.

② 단식 중인 사람으로서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버리지 않는 자는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는 단식을 한다 해도 신은 그를 돌보지 않으시느니라.

③ 희사(喜捨, 자카트=Zakat)

① 세금(稅金)은 부자한테서 거두어 빈자에게 주어야 하느니라.

② 나 여기 승마용(乘馬用)과 노역용(勞役用)으로 말과 노예를 자카트로 보낸다. 그러나 자카트는 은(銀)으로 지급하라. 은화 四〇더함(dirham)의 자카트는 一더함이다. 一九〇더함 이하는 자카트를 지급하지 않고 二〇〇더함부터 지급하되 五더함을 낸다.

㊟ 자카트 지급 액수의 비율을 예시(例示)한 것이다. 1/40 즉 연수입의 二·五%다. 더함(dirham)은 그때의 통화(通貨) 단위.

③ 무슬림은 사회에 섞여서 사는 것이 격리하여 명상(瞑想)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슬람의 五대 의무

① 예배(禮拜)

①「가령 너의 집앞으로 개울이 흐른다 하자。그 개울에서 하루 다섯 번씩 목욕을 한다면, 그래도 몸에 때가 있을 것이랴?」하고 알라의 사도가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몸에 때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도는 말했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가 이와 같으니라。알라께서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느니라。」

② 알라의 사도는 말했다。

「쿠란의 개경장(開經章)을 암송하지 않고 올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라。」

③ 예배 올릴 때는 알라를 염원(念願)하는 한가지 마음으로 정신 집중을 해야 하며, 이 예배가 마치 이 생의 마지막 예배인 양 보아야 한다。

④ 신은 마음이, 따르지 않는 육체만의 예배는 예배로 보지 않으신다。

⑤ 마치 신을 보았는 듯이 신을 숭상(崇尙)하라。네가 신을 볼 수 없다 하되 신은 너를 보시나니。

⑥ 아침과 저녁은 예배를 보고 낮엔 직업에 종사하라。

⑦ 예배 올릴 땐 신을 염원하는 생각만 하고 딴 생각 말라。

⑧ 예배는 마음을 밝혀 준다。

⑨ 예배는 서서 본다。 그러나 서서 볼 수 없으면 앉아서 보고, 앉아서도 볼 수 없으면 누운 채로 예배를 보라。

③ 딴 기회에 「이슬람이란 무엇인가?」하고 다시 묻자, 대답하기를 「이슬람이란 절제(節制)와 신에의 귀의(歸依)」라고 하였다. 「신앙의 가장 훌륭한 덕(德)은 무엇인가?」고 묻자 「인자한 인격」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자제(自制)는 무엇인가?」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신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라」고 하였다.

④ 신의 덕이 네 몸에 배게 하라.

㊟ 이슬람교적 이상

⑤ 형제(무슬림)의 소원을 나의 소원처럼 빌라. 나의 소원을 위해서 비는 마음이 형제를 위해서 비는 경지(境地)에 이르기 전까지는 믿음이 완전하다 할 수 없느니라. 자기를 아끼듯 형제를 아끼지 않고는 믿음을 갖은 자라 할 수 없도다.

⑥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음주하고, 약탈(掠奪)하고 착복(着服)하는 자는 신자가 아니니 조심할지어다, 조심할지어다!

⑦ 혀와 마음이 똑같기 전에는 무슬림이 될 수 없도다.

⑧ 신자란, 신용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라.

비(非)무슬림

① 예언자의 추종자(追從者) 한 사람이 불신자를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예언자는 말했다.

「나는 사람을 저주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니라. 자비를 베풀고자 보내졌느니라.」

② 온순하게 사람을 대하고 거칠게 대하지 말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성서의 국민들」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고 묻는 수가 있으리니, 대답하라. 신의 진리의 입증(立證)과 선행(善行)이니라고.

⑥ 천국은 녀의 어미의 발밑에 놓여 있나니。

⑦ 거만한 자、말이 과격한 자는 천국에 들지 못하느니라。

⑧ 마호멧이 말했다。

「가슴에 원자(原子) 한 알만 한 것이라도 거만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지 못하느니라。

⑨ 예언자 마호멧이 천국을 묘사(描寫)하였다。

「천국에는 영원한 건강과 질병이 없느니라。영원한 삶과 영생(永生)이 있느니라。영원한 젊음의 불로(不老)이니라。

영원한 축복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⑩ 알라의 사도는 말했다。

「천국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셋이 있으니、주벽(酒癖)이 있는 자、혈연(血緣)을 끊는 자、마술(魔術)을 믿는 자이다。」

⑪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고、귀로 들을 수도 없으며、가슴 넘어 저쪽에서 빛을 보내어 오는 것도 아닌 그러한 희열(喜悅)이니라。

㊟ 천국과 지옥은 종교적 술어(術語)로 쓰여지는 용어이다。쿠란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정반대되는 사후(死後)의 거주지(居住地)의 내용을 읽는다。그러나 이 하디스에 명백히 말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현세적인 육신(肉身)과 감정으로서는 정통할 길 없는 그러한 것이다。따라서 천국의 상세한 점에 대해서 정력을 소비하느니보다는「천국」이란「평화의 거주지」、「영원한 평화」로 알아두는 것으로 만족함이 좋을 것이다。

이슬람

① 이슬람은 신의 계명(戒銘)을 깊이 존경하고、신의 창조물에 대한 동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자 예언자 마호멧 대답하였다。

「이슬람이란 말의 순수성과 자선이니라。」

「오 사도여、내가 숲을 지나자니 새 새끼들 소리가 들려오길래 잡아서 이 담요에 쌌읍니다。그랬더니 어미새가 날개를 팔딱거리며 내 머리 위를 빙빙 돌기에、담요를 폈더니 어미새는 그 위에 내려 떨어졌읍니다。그래서 다시 싸 가지고 왔읍니다。」

사도는 새들을 내려 놓으라고 말했다。그 사람이 내려놓으니 어미새도 내려앉아 새끼들과 다시 만났다。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어미새의 새끼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느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신은 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인간을 사랑하시느니라。새를 잡은 곳에 도로 갖다놓아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천국과 지옥

① 다음의 여섯 가지를 지켜야 할지니、그러면 내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의 보증인이 되리라。

진리만을 말하라。
약속을 지키라。
신용을 지키라。
사상과 행동을 단정하게 가지라。
불법적인 것에 손대지 말라。
부정(不正)한 것에 손대지 말라。

② (이슬람이) 금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나의 율법(律法)을 준수(遵守)하고、 인류(人類)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리라。

③ 신앙을 갖지 않은 자 천국에 들지 못하며 서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너의 신앙을 완수하지 못하리라。

④ 지옥은 기쁨에 장막이 내려지고、천국은 고난과 비참에 장막이 내려지느니라。

⑤ 가슴에 암종(癌種)이 박혀 있을망정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으리라。

③ 신의 용서

⑰ 마호멧은 말하였다。

「나는 세상의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다음의 계시(啓示)와 바꾸지 않으리라。「(오、마호멧이여!) 말해 주라。 저지른 죄로 하여 영혼(靈魂)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자여。 신의 자비에 희망을 잃지 말라。」

어느 사람이 마호멧에게 물었다。

「알라 이외의 신과 관계를 맺은 자에겐 어떻게 합니까?」

마호멧은 잠시 말없이 잠잠하다가 말했다。

「그에게도 신은 역시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나 회개(悔改)로다。」

⑱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고 아부 무사가 진술했다。

「신을 염원(念願)하는 자와 염원하지 않는 자를 비유하면、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다。」

⑲ 예언자 마호멧에게서 들었다고 아부 후레이라가 진술했다。

「어느 노예가 죄를 짓고 말했다。〈신이여! 나는 죄를 저질렀읍니다。〉신은 말씀하셨다。〈나의 노예(인간)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시험하시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나(신)는 그를 용서하였느니라。〉」

④ 신의 자비

⑳ 알라의 사도는 말했다。

「이 여인이 제 어린것을 불 속에 처넣을 것 같으냐?」

우리들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예언자는 말했다。

「진실로、신은 이 여인이 제 어린 것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나큰 사랑을 인간에게 베푸시니라。」

㉑ 어느 사람이 담요를 들고 사도 앞으로 와서 말했다。

⑥ 너희들의 조물주(造物主)를 사랑하느냐? 먼저 너희들의 동포를 사랑하라.

⑦ 알라는 말씀하셨다.
「누구나 나에게 가까이 오고자 길을 찾아 한 뼘을 다가오면 나는 그에게로 한 자를 다가설 것이며, 한 자를 다가오면 나는 그에게로 열 자를 뛰어가리라.」

⑧ 만약 불신자(不信者)들이 주님의 넓으신 자비심을 안다면 천국을 불신하지 않으리라.

⑨ 신이 창조물(創造物)에게 쏟는 사랑은 갓난아기에게 쏟는 어미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니라.

⑩ 알라는 말씀하셨다.
「진실로, 나의 사랑은 나의 분노(憤怒)를 초월하느니라.」

⑪ 알라를 만나보기를 자애(自愛)하는 자에겐 알라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시느니라.

⑫ 신의 가장 큰 적(敵)은, 이슬람교에 입교(入敎)하였으나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며, 또한 이유없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니라.

⑬ 알라 이외의 딴 신과 관계를 맺는 자, 제아비와 어미를 괴롭히는 자, 살인자, 자살자, 거짓말로 맹세하는 자는 대죄(大罪)이니라.

⑭ 알라는 말씀하셨다.
「나는 원래가 숨어 있었다. 나는 기꺼이 알려지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인간〉을 창조한 것이니라.」

② 신의 친절

⑮ 신은 온순하시며 온순함을 사랑하신다.

⑯ 신은 인간에게 인자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르치는 자이니라。

③ 나의 말은 알라의 말씀을 말소(抹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라의 말씀은 나의 말을 말소할 수 있다。

㊟「알라의 말씀」은 「쿠란」을 말한다。「쿠란」은 흔히 「코란」으로 발음되고 있으나 「쿠란」(QURAN)이 정확한 아랍어 발음이다。 정관사(定冠詞) AL을 붙여 AL-QURAN이라고도 하고、 AL-KITAB (The Book)、 또는 QURAN SHERIF(성 쿠란)이라고도 한다。 중국 회교도(回敎徒)는 「古蘭」으로 음기(音記)한다。「쿠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다。 여기의 「나의 말」이란 「마호멧의 말」、 즉 「하디스」다。

④ 쿠란은 합법적 사항、 불법적 사항、 계율(戒律)、 신비(神秘)、 사례(事例)의 五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나니。

쿠란의 교훈에 따라 어떤 것이 합법적인 일이며 불법적인가를 숙고(熟考)해야 하고、 계율을 지키도록 해야 하고、 신비를 믿고、 사례 속에서 경고(警告)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느니라。

신관(神觀)

① 신의 성질

① 신은 「하나」다。 신은 유일성(唯一性)을 좋아하신다。

② 신은 「아름다움(美)」이며、「아름다운 것」을 즐거워하신다。

③ 너희들이 자질(資質) 속에서 알라의 성질과 같은 것을 향상시키라。

④ 모든 것엔 윤(潤)을 내는 물건이 있다。 마음의 윤을 내는 것으로는 「알라에의 염원(念願)」이 있다。

⑤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오、 인류여! 나의 율법(律法)을 따르라。 그러면 나와 같게 되리라。」

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하느니라. 나쁜 식자(識者)는 가장 나쁜 인간이니라. 좋은 식자가 최고의 인간이니라.」

속세(俗世)

① 속세를 사랑함은 모든 악(惡)의 뿌리니라.

② 속세는 신자에게는 감옥(監獄)이며, 불신자에게는 천국(天國)이니라.

③ 예언자 마호멧이 멍석 위에서 자고 일어나니, 얼굴과 몸에 멍석 자국이 나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말하기를, 「오 신의 사도여! 내게 말씀만 하셨다면 푹신푹신한 잠자리를 깔아 드렸을 텐데.」라고 하니, 예언자 마호멧 이르되 「이 속세(俗世)에 내 무슨 상관이 있으리? 내가 속세를 보는 눈이란 마치 말타고 가면 사람이 저 나무 그늘 밑에 잠시 쉬었다 가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다.

④ 「밭을 적시지 않고 개울물을 건널 수 있겠느냐?」고 예언자 마호멧이 물으니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교우(敎友)들은 대답하였다.

「이 속세란 그와 같은 것이니라. 누구나 죄짓지 않는 자 없느니라.」고 예언자는 말했다.

⑤ 이 속세에서 자기는 한낱 여행자나 나그네라고 여기라. 그리고 자기를 사자(死者)라고 생각하라.

㊟ 마호멧은 이 세상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쿠 란

① 딴 예언자(豫言者)들은 기적을 가졌었다. 나의 기적은 쿠란이다. 쿠란은 영원히 남으리라.

② 가장 훌륭한 자는 쿠란을 배워 남에게 가

고령자(高齡者)

진실로, 고령자를 존중함은 신을 존중하는 표시이니라。 고령자를 존중하는 젊은이에겐 신께서 그들이 고령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존경할 사람을 지명(指名)하시느니라。

인간 마호멧

나는 인간 이상(以上)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종교를 숭상(崇尙)할 것을 명령할 때는 이를 받아들이되, 내가 현세(現世)에 관한 것을 명령할 때는 나는 인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나를 칭찬함에 도(度)를 넘지 않도록 할 일이니, 크리스천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를 신(神)의 아들이라고 하듯이 나를 과도(過度)히 칭찬하지 말라。

나는 한낱 신의 종이거니, 나를 신의 종 또는 신의 사도(使徒)라고 부르라。

성실성(誠實性)

무슬림의 성실성의 증거는 남의 일에 유의하지 않음에 있다。

무책임한 언사

내쪽에선 남을 죄인이라든가 불신자(不信者)라고 말하지 않건만, 상대방이 죄인이거나 불신자일 땐 거꾸로 말한다。

악덕(惡德)을 묻지 말고 미덕(美德)을 물으라

「가장 큰 악덕은 무엇입니까?」라고 사도 마호멧은 질문을 받았다。 사도 답하여 이르되 「악덕을 묻지 말고 미덕을 물으라。」 하였다。

사도 마호멧은 이 말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라

마치 옷이 해지듯이 신앙도 마음 속에서 낡아감이어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예배를 게을리 말라.

온건(穩健)

① 종교는 용이(容易)하여 고행(苦行)이 되게 하는 일 없나니, 견실하게, 서서히 접근케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 주고, 아침 저녁으로 신의 도움을 찾도록 할 일이다.

② 예배 인도자는 병자(病者), 허약자, 노인들을 생각해서 짧게 하라.

㊟ 예배 인도자, 즉 집전자(執典者)를 이맘(Imam)이라고 한다.

모든 병(病)엔 치료법이 있다

신은 질병과 함께 모든 치료법을 창조하셨거니, 병의 치료법을 찾으라. 그러나 비합법적인 것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

신앙(信仰)의 요점

신앙은 마음으로 인식하고, 입으로 선언하고, 이슬람의 五대 의무를 실천하는 행동이다.

부유와 빈한(貧寒)의 중간

가장 훌륭한 나의 동신자(同信者)들은 부유하다 해서 거만하지 않고, 가난하다 해서 구호(救護)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다.

인품(人品)

노인한테서 인품(人品)과 지혜(知慧)를 모방하는 젊은이는 훌륭한 젊은이이고, 젊은이의 경거망동(輕擧妄動)을 모방하는 노인은 가장 몹쓸 사람이니라.

(閨秀)로서 유혹의 손길이 뻗쳐 와도「안 되오。우리는 신을 두려워해야 하오。」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는 자。

일곱째、자기의 재산을 자선을 위해서 쓰되 자선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며、오른손이 쓴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쓰는자。

신자(信者)의 의무

내 너희(무슬림)에게 두 가지를 남겨 주었나니、「신의 서(書)」와「사도(使徒)의 법률」이니라。이 것을 지키는 자、미로(迷路)에 빠지지 않느니라。

㊟「신의 서」는「쿠란」、「사도의 율법」은「하디스」를 말함。

거 울

진실로、너희들 신자(무슬림 형제)는 서로 서로 비추어 보는 거울이거니、눈에 띄는 형제의 잘못을 제거하도록 좋은 말을 해 줄 일이다。

참다운 믿음

네가 참믿음을 가진 자라면 너의 사랑은 신을 위한 사랑이어야 하며、너의 불유쾌도 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너의 입은 신의 이름으로 말해야 하고、네 몸 아끼듯 남을 사랑해야 하고、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 싫어해야 하며、선(善)을 말하지 않으려면 침묵을 지켜야 하느니라。

㊟「신을 위한 사랑」이란 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음으로써「신의 의사에 절대 복종」(즉 이슬람)하는 것이다。

「너의 불유쾌는 신을 위한 불유쾌라야 함」은 사사(私事)로운 감정이나 이해 관계에서 불유쾌하는 것이 아니라、신이 불유쾌하게 여기는 것에 자기도 불유쾌함으로써 역시「신의 의사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신의 이름」은 100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신의 이름을 외움으로써 신앙심의 수업을 하는 것이다。

나니,

죽음이 오기 전에 인생을 활용(活用)할 일이다.

일이 몰려 여가(餘暇)가 없게 되기 전에 여가를 활용할 일이다.

청춘이 가고 노령(老齡)이 되기 전에 청춘을 활용할 일이다.

재산이 없어지고 빈곤해지지 않도록 재산을 활용할 일이다.

오래 가는 선행(善行)

사람이 죽으면 상(賞)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끝장나는 것이지만,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상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받게 되나니,

우물을 팠거나, 휴게소(休憩所), 모스크(Mosque—이슬람교 성원), 학교 건물 등을 건축해서 도움을 주는 자선 단체(慈善團體)와, 죽은 후 그의 학문(學問)이 보급(普及)된 자, 자기가 죽은 후 죽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올려 주는 아들을 둔 자는 죽어서도 계속 상을 받게 되느니라.

신의 축복을 받는 七 가지 사람

「부활(復活)의 날」은 그늘이 없는 초열(焦熱)의 날인데, 다음 七 가지 사람에게는 그늘진 안식처(安息處)가 되느니라.

첫째, 의로운 지배자.

둘째, 신에 봉사하면서 성장하는 젊은이들.

셋째, 모스크에 밀접해서 사는 자.

㊟ 이런 사람들은 모스크를 뒤에 두고 출타(出他)했을 땐, 모스크에 돌아오기까지는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자들이다.

넷째, 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모일 때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헤어져 있을 땐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헤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홀로 신을 생각하며 신의 은총에 감화되어 눈물을 흘리는 자.

여섯째, 아름답고 부유한 양가(良家)의 규수

援)을 준다。

④ 신앙과 덕(德)은 한 짝이다。

정의(正義)

신은 정의의 편을 드신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의롭지 못해지면 신은 이를 포기하여 악마(惡魔)에게 떠맡기신다。

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

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는 무슬림은 서로 서로의 가슴에 기쁨을 채워 주는 일이니라。

용서받지 못할 일

신은 무슬림의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회개는 이를 거절하신다。

무슬림이 서로 만났을 때

무슬림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명랑한 얼굴로 대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도 더 많은 신의 사랑을 받느니라。

무슬림이 만나 서로 애정의 악수를 나눌 때엔 一〇〇배의 축복이 내려지거니、먼저 악수를 청해 오는 자에겐 九〇배의 축복이 가고 나중 해 오는 자에겐 十배가 간다。

예방책(豫防策)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는 곳엔 들어가지 말도록 해야 하며、너 있는 곳에 전염병이 들어왔을 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가치있게 써야 할 것

없어져 버리기 전에 가치있게 써야 할 것이 있

천문(天文)

너를 땅과 바다의 어둠 속에서 인도해 주는 천문(天文)을 배우라.

신앙과 똑같은 것

신앙과 똑같은 세 가지가 있나니, 화날 때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세력이 있다 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그것이니라.

신앙과 실천

신은 너의 인물이나 재산을 보시지 않고 신앙과 그 실천만을 보신다.

사이좋게 지내라

설사 상대방이 우호 관계를 깨뜨린다 하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라.

신사도(紳士道)

친절보다 훌륭한 신사도는 없다.

지식의 반(半)

절약은 수입(收入)의 반이다.
인류애(人類愛)는 지혜의 반이다.
친절한 접근은 지식의 반이다.

신앙(信仰)

① 신앙은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확인하는 마음의 신념이다.

② 신앙은 인내심과 관용(寬容)으로 표시된다.

③ 신앙은 낙심(落心)과 비애(悲哀)에 구원(救

할 때나 가난한 때나 늘 절약하는 자는 신의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나 격정(激情), 욕심, 자만심이 많은 자는 파멸하느니라.

덕(德)

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나니, 자선을 비밀히 하고, 불운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불운을 불평하지 않음이 그것이니라.

인간애(人間愛)

신앙심 다음가는 가장 좋은 지혜(智慧)의 실천(實踐)은 인간애이거니, 선인(善人), 악인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善)을 베풀지어다.

내성(內省)

조용히 홀로 앉아 죄를 반성, 회개하여 신의 자비심(慈悲心)을 빌어야 하느니라.

필요 이상의 것은 불필요다

필요 이상으로 저장(貯藏)해 두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을 초래하느니라.

고상한 수입(收入)

오 인간들이여! 신을 두려워하고 고상하게 노력하라.
합법적인 것을 취득(取得)하고 비합법적인 것을 물리치라.

람의 배를 채우는 것은 흉뿐이거나、신에게서 돌아서는 자는 신이 발길을 돌린다。

⑤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지 말 일이며、너의 손으로 손수 번 것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라。

⑥ 가난은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되기 쉽다。

결점(缺點)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먼저 너의 결점을 보라。

수신(修身)

가장 완전한 신자(信者)는 훌륭하게 수신(修身)하는 자이니라。

무슬림 상호간의 의무

무슬림끼리 서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나니、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해야 하고、초대받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곤히 잠들어 있을 땐 대신 예배를 올려 주어야 하며、병석에 누워 있을 땐 찾아가 봐야 한다。

그가 죽어 나갈 땐 관 뒤를 따라야 하고 제 몸 사랑하듯 무슬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차별 없이

무슬림은 다음의 세 가지에 있어서만은 무슬림 비(非)무슬림의 구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약속을 지켜야 하고、꾸은 것은 어김없이 갚아야 한다。

구원받을 사람

다음의 사람들은 구원받느니라。 여럿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신을 두려워하는 자、유쾌한 일、불쾌한 일을 막론하고 늘 의로운 자、부유

들처럼 징조(徵兆)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모든 일에 오직 신만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좋은 낯으로 대하라

무아즈(Muaz)는 말했다。

「내가 예멘 총독으로 파견될 때 예언자 마호멧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조언을 주었다。

〈오 무아즈、백성들에게 좋은 낯으로 대하라〉」

입버릇 나쁜 혀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입버릇 나쁜 혀가 저지르는 과오는 속죄(贖罪)되지 않느니라。

재 산

① 구걸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벌고、이웃에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속세와 재물(財物)을 희구(希求)하는 사람은 十四일 밤 만월(滿月)과 같은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으로 가리라。

② 정당하게 번 재산을 성실한 수단으로 늘이기 위해서 합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복받느니라。

註 「가난한 무슬림」은 무슬림의 견지(見地)에서 모순이다。 무슬림이 가난하다면 이슬람의 五대 의무 중에서 자카트(Zakat——희사금)를 지급할 수가 없고 순례(메카 순례)를 할 수 없으리라。 이슬람은 무슬림이 내세에서 잘 살 수 있는 수업을 가르칠 뿐 아니라 현세(現世)에서도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불법적인 부(富)를 죄악시한다。

③ 인류는 번영할 것이고、인류와 더불어 두 가지가 자라날 것이니、부(富)와 장수(長壽)에 대한 애착이니라。

④ 재산이 두 계곡(溪谷)에 꽉찰 만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세째번 계곡을 탐낸다。 그러나、사

다 용서하신다。

③ 모든 아이들은 자연적 종교(圖 주、신의 의사와 율법에 귀의하는 이슬람교)의 성질을 띠고 태어난다。태어나는 아기를 유태교、기독교、「마기승」(圖 고대 페르샤의 종교)의 신자(信者)로 만드는 것은 그 부모에 달려 있다。

인인애(隣人愛)

① 자기는 포식(飽食)하고 이웃의 배고픔을 내버려 두는 자는 완전한 무슬림이 아니니라。

② 신과 내세(來世)를 믿는 사람(신자)이라면 이웃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느니라。

③ 신과 내세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상해(傷害)해서는 안 되느니라。

④ 신과 내세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존경해야 하느니라。

⑤ 입으로는 알라를 무척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욕하는 사람은 알라께서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회개(悔改)

죄를 회개하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 자는 죄짓지 않은 자와 같으니라。그러나 회개를 가장한 자는 신을 조롱하는 자이니라。

미신(迷信)

① 일식(日蝕)을 보고 미신(迷信)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일이니、일식은 한두 사람의 죽음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② 주문(呪文) 따위를 외지 않고 무지한 사람

② 진실로、신은 이렇게 말하리라。

「오、아담의 후예들이여! 내가 앓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아담의 후예들은 말하리라。

「오、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여。우리 어찌 당신을 찾아뵐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님、모든 병에서 초월하시거늘。」

알라는 답하리라。

「오、그대들이여! 이러이러한 사람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너희들은 찾아보지 않았느니라。그리고 또 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을 때 너희들은 주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오、우리의 변호자(辯護者)여、당신은 우주의 은총이며 기아(飢餓)와 식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어늘 어찌 우리 당신께 식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라는 답하리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달랬을 때 너희는 주지 않았느니라。」

불의(不義)와 침략(侵略)

불의에 편드는 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라。

침략에 협력하기를 서약(誓約)하는 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며、학정(虐政)을 돕다가 죽는 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注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우리의 동신자(同信者)가 아니다」라는 뜻。

이슬람은 성선설(性善說)이다

① 인간은 순수·결백(純粹·潔白)하게 태어난다。

② 불행과 시련은 모두 자신의 과오(過誤)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그러나 신은 이러한 과오를

선 물

서로 선물을 주라。 선물은 원한을 없애 주나니。

친선(親善)

가난한 사람의 친선 속에서 나의 친선을 찾으라。

심장(心臟)

① 체내(體內)에 고기 한덩어리가 있으니 그것이 좋으면 온몸이 좋고 그것이 나쁘면 온몸이 나쁘니라。 조심할지니 그것은 심장(心臟)이니라。

② 참답고 순수하고 인자한 마음을 지닌 자 「축복의 화원(花園)」(천국)에 들어가리라。

③ 심장은 정의감의 좌석(座席)이다。 의로운 마음을 간직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무슬림은 타인에게 불법(不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 있나니、 남의 피와 재산과 명성(名聲)이니라。

저축(貯蓄)

정직하게 벌어서 아껴 쓰고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게 하소서。

성실한 생활

집안 식구들이 좋아하도록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은 가장 완전한 무슬림이니라。

인도주의(人道主義)

① 인간을 돕는 일은 신을 돕는 일이 된다。

③ 집을 이사할 땐 먼저 이웃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
거리에 나설 땐 네 친구를 찾으라。
여행할 땐 먼저 준비를 갖추라。

용 서

① 상처(傷處)를 받은 자가 상처를 입힌 자를 용서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겐 신이 그의 위신을 높여주신다。
대항할 힘이 있으나 용서해 주는 자는 신과 가장 가까운 자이니라。

② 「진실로 역경(逆境)에 처하여 참을성 있고 남의 잘못을 용서함은 가장 훌륭한 행동이니라。」고 신은 말씀하셨다。

③ 어느날 예언자 마호멧은 질문을 받았다。
「오、신의 사도여! 종의 실수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사도는 말이 없었다。 다시 한번 또 물어보았으나 사도는 대답이 없었다。 세번째 물으니 사도는 대답했다。
「네 종을 하루 일흔 번씩 용서해 주라。」

불요불굴(不撓不屈)

① 진실로、신과 사도가 사랑하는 두 가지 성질(性質)이 있으니、군굳함과 부드러움이니라。

② 불우한 경우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불요불굴의 인간이라 할 수 없나니 경험 이외엔 의사가 없는 소이(所以)이니라。

좋은 벗

가장 훌륭한 친구란 훌륭한 몸가짐과 인격의 소유자이니라。

⑦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빚을 지면 인생이 속박(束縛)당한다.

⑧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
「나는 현금 없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

⑨ 꾸어 줌은 자선의 반(半)으로 계산된다.

⑩ 제일 좋은 사람이란 진 빚을 제일 잘 갚는 사람이니라.

⑪ 설사 실과 바늘을 빌렸다 하더라도 빌린 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최후의 심판일」에 그것을 만들어 내라고 심문(審問)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없느니라.

동 포

① 신의 총애(寵愛)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의 창조물에 선(善)을 베푸는 사람이니라.

② 도움이 필요한 동포에게 도움을 주고, 피압박자(被壓迫者)를 돕는 자는 자기가 곤경에 빠졌을 때 신의 도움을 받느니라.

③ 신은 동포에게 친절히 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시나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말고 친절을 베풀 일이다. 그리고 나쁜 자에게 친절을 베품은 나쁜 자의 악(惡)을 제지(制止)함이 되나니, 그러면 신의 친절을 받으리라.

앎일 생각

①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일을 처리함은 신을 즐겁게 한다.

② 일 처리를 잘 하고, 일을 심사숙고해서 하고, 모든 일에 황금 같은 수단 방법을 씀은 예언자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니라.

⑧ 증수회(贈收賄)

① 뇌물을 주거나 받는 자는 불지옥의 선두에 서게 되느니라.

② 신은 뇌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개자(仲介者)를 비난하셨다.

③ 당국자(當局者)에게 주는 선물은 부패(腐敗)다.

④ 공무원에게 선물과 함께 추천서가 보내져 왔을 경우, 이것을 받는 것은 마치 고리 대금(高利貸金)의 수문(水門)과도 같은 것이니라.

⑤ 어느 직업에 대한 보수가 정해져 있는데 보수 이상을 번다면 이는 도적질이다.

⑨ 부채(負債)

① 순교자(殉敎者)는 모든 과실(過失)이 용서되나 빚만은 용서받지 못한다.

②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벌받을 계기(契期)를 마련함이니라.

③ 「최후의 심판일」의 비탄(悲嘆)과 고통에서 구제받기를 원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빚은 더디 재촉해야 하며, 빚의 일부분 혹은 전액(全額)을 없는 것으로 해 주어야 하느니라.

④ 무슬림은 빚을 청산(淸算)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⑤ 진실로 대죄(大罪)를 저지르고 알라 앞에 불려나갈 자는 갚을 것을 남겨두고 빚진 채 죽은 자이니라.

⑥ 빚을 조심하라.

빚은 밤엔 근심의 씨앗이고 낮에는 욕의 씨앗이다.

③ 정직하게 생계를 꾸려 가는 자는 신의 사랑을 받으리라。

④ 구걸하지 않고、자기의 노력(努力)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자에게 신은 자비로우시다。

⑤ 신이여、점장이나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⑥ 하루치의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구걸은 금지된다。

⑦ 위의손이 아래손보다 낫다。위의손은 주는 사람이고 아래손은 걸인이니라。

⑧ 구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안다면 손을 내밀러 다닐 사람은 없으리라。

⑥ 개간(開墾)과 광산물(鑛產物)

① 땅에 숨겨진 보물에서 생계를 구하라。

②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개간한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가 된다。

③ 죽은 땅에 생명을 부어넣는 사람——황무지를 개간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상을 받는다。

④ 땅을 개간해서 작물(作物)로 새를 먹이고 가난을 물리침은 자선이다。

⑤ 남는 물은 둬두지 말고 흘러내려가게 하라。최소한 풀이 자라나리니。

⑦ 매점(買占)

① 양곡을 매점(買占)해서 양곡이 부족할 때 득(得)을 보려는 자는 죄인이다。이런 자는 양곡이 쌀 때는 슬퍼하고 비쌀 때는 좋아한다。

② 양곡이 모자랄 때를 바라면서 양곡을 40일간 매점해 두는 자는 신의 버림을 받을 것이며、또한 신을 저버린 자이니라。

전에 지급해야 한다。

② 사람을 고용(雇傭)할 땐 노임을 알려 주어야 하느니라。

③ 지급 명령(支給命令)대로 기꺼이 지급해 주는 충실한 회계사(會計士)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④ 주인의 뜻을 잘 받드는 종에게는 주인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이고、주인과 같은 옷을 입혀 줄 일이다。

주인의 뜻을 잘 받들지 않는 종은 내보내되 벌을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⑤ 종은 잘 타이르고 형제처럼 해 주라。

⑥ 예언자 마호멧이 충고(忠告)하기를 종을「내 아들」、「내 딸」이라 부르라 하였다。

⑦ 고용주는 고용인(雇傭人)이 일하기 쉬운 것만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고용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④ 신용(信用)

① 너를 신임(信任)해 준 사람에게 신임을 반려(返戾)하라。

너를 속인 사람에게 너도 속이지 말라。

② 협의(協議)를 받은 사람은 보관인(保管人)이 된다。

⑤ 구걸

① 구걸의 문을 여는 자에겐 신은 가난의 문을 열어 주신다。

②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는 신의 상(賞)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

⑮ 예언자 마호멧은 모든 물거래를 금했다。

⑯ 예언자 마호멧은 곡물더미를 지나다가 손을 넣어 보았다。 손을 빼어 보니 젖어있었다。 마호멧은 주인에게 물었다。

「이건 무언가?」

주인은 말했다。

「오 사도여、비에 젖은 것입니다。」

「왜 비에 젖은 것을 위로 드러내 놓지 않았는가? 약점을 은폐하는 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라。」

註 부정 거래를 하는 자는 「우리의 동신자(同信者)가 아니다」라는 뜻。

② 거래 금지(去來禁止)

① 예언자 마호멧은 과일과 곡물이 익을 때까지 거래를 금했다。

② 알라의 사도는 수확 전의 곡물 매매를 금했다。

註 즉 입도선매(立稻先賣) 같은 것을 금했다。

③ 마호멧은 말했다。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앞질러서 만나지 말라。」

④ 알라의 사도는 포도알이 검기 전에 팔지 말것과、곡식알이 굳기 전에 팔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거래를 독점(獨占)하는 자는 죄인이다。

⑥ 알라의 사도는 농업 임대차 계약(農業賃貸借契約)을 금했고、협동 노동(協同勞動)을 명령했다。

③ 노사 문제(勞使問題)

① 노임(勞賃)은 노무자의 이마의 땀이 마르기

그렇고、 또한 몬을 치르고 받는 데 너그러운 사람에게 신은 자비를 내리소서。

④ 허위 맹서(虛僞盟誓)는 상품이 팔리게 할는지는 몰라도 신의 축복을 상쇄하느니라。

⑤ 곡물(穀物)을 사서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팔아서는 안 된다。

⑥ 알라와 알라의 사도는 술、 죽은 동물、 돼지、 우상(偶像)의 거래를 금했다。

⑦ 곡식을 도시로 가져와서 싸게 파는 자는 신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을 것이며、 비싸게 팔셈으로 저장해 두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⑧ 청구(請求)와 지급(支給)에 있어 수긍이 가는 상인(商人)은 훌륭한 상인이다。 청구와 지불에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상인은 가장 나쁜 상인이다。

⑨ 물건 매매에 맹세와 허위가 섞이는 수가 있나니、 이를 자선으로 씻어 내라。

⑩ 상품의 내용을 보여 주지 않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⑪ 물건을 저울질할 땐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저울을 기울이라。

⑫ 곡물(穀物) 거래는 저울로 하라。 그래야 축복이 있으리니。

⑬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거래 성립전까지는 철회(撤回)의 자유가 있다。

피차 진실을 말하고 감추는 것이 없다면 그 거래는 축복받을 것이다。 거짓말이나 감추는 것이 있다면 그 거래는 축복받지 못하리라。

⑭ 예언자 마호멧은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제 손으로 하는 일과 속임수 없는 매매업이며

② 시기심을 멀리하라.
시기심은 선행(善行)을 삼켜 버리거나 빼앗아 간다. 마치 불길이 나무를 삼켜 버리거나 태워 버리듯이.

③ 진실한 동기(動機)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
남의 행동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가장 어두운 거짓말이니라.
남의 실수를 찾아 내지 말라.

④ 거짓 전하지 말라.

⑤ 너희들이 시기해야 할 사람이 두 사람 있나니, 신이 재산을 많이 주어서 자선하도록 한 사람과, 신이 종교의 지식을 주어서 스스로 실천하고 남을 가르치도록 한 사람이니라.

⑥ 눈앞에서건 없는 데서이건 형제(무슬림)를 보호하는 자는 참다운 사람이다.

⑦ 말, 행동, 사상(思想)이 다 함께 참답지 않고서야 진정한 의미의 참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⑧ 될 수 있으면 아침에서 밤까지, 밤에서 아침까지 남을 시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간직하라. 이는 나의 법률(法律)의 하나이거니 나의 법률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라.

경제관(經濟觀)

① 매매(賣買)

① 물건을 사고팔 때, 혹은 심판(審判)을 하거나 심판을 받을 때, 공평하고 아량있게 하는 자에게 신이 천국의 길을 허락하신다.

② 셈이 밝은 자는 훌륭하다.

③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함께 너

㉛ 최상(最上)의 자선(慈善)은 지식의 탐구와 탐구한 지식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㉜ 지식의 보급(普及)보다 높은 자선은 없다.

㉝ 지식의 탐구 중에 순사(殉死)하는 자는 순교자다.

㉞ 지식의 탐구자(探究者)는 사자(死者) 속의 산 사람과 같다.

㉟ 소시(少時)에 지식을 탐구함은 돌에 글을 새기는 것과 같고, 만학(晩學)은 물 위에다 글을 쓰는 것과 같다.

㊱ 무슬림은 망실 재산(忘失財產)을 회복(回復)하라. 그것은 학문이니라.

㊲ 욕심은 학자의 마음에서 지혜를 훔쳐간다.

㊳ 천부(天賦)의 지성(知性)이 있는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㊴ 지식을 찾아 내기 위하여 공부하라.

㊵ 감추어진 지식은 잊어버린 지식이다.

㊶ 쓸모없는 사람이나 겁장이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㊷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식자는 모든 학문의 샘을 신에게로 귀착시켜야 하느니라.

㊸ 간략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㊹ 학문에 활력소(活力素)를 넣어 주는 자는 죽지 않는다.

시기심

① 남을 시기하지 말라.

를 유산으로 받느니라.

⑲ 어떤 사람을 식자라 하느냐?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⑳ 자신을 알 것을 배우라.

㉑ 예언자 마호멧이 말했다고 우스만이 진술했다. 註 우스만은 제三대 칼리프

「너희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자는 쿠란을 배워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자이니라.」

㉒ 지식의 낭비라 함은 무가치한 사람에게 지식을 말하는 것을 일컬음이니, 이는 마치 돼지목에 진주, 보석, 금목걸이를 걸어 줌과 같으니라.

㉓ 진실로, 한 사람의 학자가 무지한 예배자 위에 군림함은 마치 무수한 별 위에 군림하는 만월(滿月)과 같으니라.

㉔ 종교 지식의 부흥을 위하여 학문 탐구를 하는 도중에 목숨을 잃는 자는 예언자와 단지 한계층 아래 자리를 차지하느니라.

㉕ 지식의 탐구는 예배보다 훨씬 상위(上位)이니라.

㉖ 약간이라도 지식을 얻는 것이 예배를 많이 보는 것보다 낫다.

㉗ 지식을 구하라. 그리고 지식을 구하기 위하여 위신(威信)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또한 스승에게 겸손하고 존경심을 가지라.

㉘ 너를 가르쳐 준 사람을 존경하라.

㉙ 남을 가르침에 엄하게 굴지 말라. 교사(敎師)는 엄한 규율가(規律家)보다 나은 사람이거니.

㉚ 한 번도 만족한 적 없는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과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이니라.

하여 주나니, 지식은 천국에의 길을 밝혀 주는 광명, 사막의 벗이니라.

사회에서 외로울 때 벗이 없을 때의 벗이니라.

지식은 행복에의 안내자 비참(悲慘)을 막아 주고, 교우(交友) 속의 훈장이며, 적과 싸울 때의 갑옷이니라.

⑧ 요람(搖籃)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지식을 탐구하라.

⑨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배우라. 그러나 배운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자에겐 신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⑩ 지식은 충실한 낙타와 같거니, 어디를 가나 데리고 가라.

⑪ 활용하지 않는 지식은 마치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재물과 같다.

⑫ 지식의 재난(災難)은 망각(忘却)이다.

또한 지식의 상실(喪失)이라 함은 쓸모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⑬ 많은 지식은 많은 예배보다 낫다.

종교를 지탱하는 것은 절제(節制)이니라.

⑭ 밤새워 예배보는 것보다 밤의 시간을 가르침에 소비함이 나으니라.

⑮ 악(惡)에 대항함에는 한 사람의 식자가 무지한 사람 천명보다 더 강하다.

⑯ 지식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신은 천국에의 방향을 제시하시느니라.

⑰ 지식을 탐구함에는 중국(中國)의 오지(奧地)라도 가서 배우라.

⑱ 식자는 예언자들의 상속인(相續人)이다.

식자는 유산(遺產)으로 그들의 지식을 후세에 남기고, 지식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찬란한 장래

술은 모든 악의 씨앗이다、악을 멀리하라。

③ 아이샤가 진술했다。

㈜ 아이샤는 마호멧의 처

알라의 사도는 비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비트는 꿀로 만든 술인데、예멘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었다。 알라의 사도는 말했다。〈모든 취(醉)하는 것은 금기(禁忌)다。〉」

④ 술 먹으면 가슴에서 신앙의 광명이 사라진다。

의무 제일주의

① 신을 믿으라。 그러나 너의 낙타를 잘 매어 두라。

㈜ 너의 의무를 먼저 다 해 놓고 그 다음은 신에게 맡기라。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철학이다。

지식과 학문

① 지식의 탐구는 남녀 무슬림의 의무이다。

② 식자(識者)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③ 식자를 존중함은 나를 존중함이다。

④ 학자(學者)의 잉크는 순교자(殉敎者)의 피보다도 성스럽다。

⑤ 식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와 남들이 알 수 있도록 과학(科學)을 가르치는 자는 종교 수련보다 월등하게 낫다。

⑥ 지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집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는 자는 알라의 길을 가는 자이다。

⑦ 지식을 탐구하라。

지식은 선악(善惡)을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할 일 못할 일

① 신자(信者)는 좋은 말만 하라. 아니면 침묵을 지키라.

② 알라의 눈에 거슬리는 가장 나쁜 자는 거친 말을 함부로 방언(放言)하여 사이를 나쁘게 하는 자이니라.

③ 억측(臆測)으로부터 네 자신을 지키라.
억측은 가장 큰 허위(虛僞)일 수 있느니라.
적의(敵意)와 증오심을 품지 말라.
곤경(困境)에 처하여 친구를 버리지 말고 협력하라.
알라의 종이 되라.
서로 형제가 되라.

④ 비탄(悲嘆)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救援)을 베푼 사람을 위하여 알라는 七三 가지의 용서를 적어 두셨다.

⑤ 저술(著述)을 해서 자손에게 전해 줄 지식을 보존하라.

⑥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권하지 않고, 나쁜 일을 금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 우리의 동신자(同信者)가 아니다.

⑦ 나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나니, 너희는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지어다. 아니면 너희들 머지 않아 벌을 받으리니.

술

① 술은 악마의 어미다.

② 술 먹지 말라.

⑩ 마호멧 앞을 관(棺)이 지나가고 있었다。 마호멧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누가 말했다。
「저건 유태인(猶太人)의 시체입니다。」
마호멧은 말했다。
「그렇다고 저기에는 영혼(靈魂)이 담겨 있지 않단 말이냐?」

⑪ 좋은 일을 하는 자、 오래 삶으로써 좋은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니、 죽음을 원하지 말지어다。
범죄자(犯罪者)도 죽음을 바라지 말지어다。 오래 삶으로써 회개(悔改)하여 신의 용서를 받을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임에。 죽음의 시기가 오기 전에 죽음을 바라지 말라。 죽음을 애원하지 말라。 일단 죽으면 (저 세상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의 선악(善惡)에 따라서 신의 상을 받을) 희망도 야심도 없어지리니。
진실로、 신자는 오래 살수록 좋은 일을 많이 하는도다。

⑫ 세상 고민 때문에 죽음을 바라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나 정 죽음을 바라야만 되겠거든、 이렇게 말해야 하느니라。「오、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이 좋아질는지도 모를 그때까지 오래 살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젠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실 때 이 몸을 죽게 하여 주소서。」

분별(分別)

① 상대방의 정신 능력에 따라서 말을 하라。 아무한테나 모든 것을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과오를 범하는 수가 있느니라。

② 모든 사물(事物)은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런 경우엔 삼가는 것이 현명하니라。

무엇이겠나이까?」

마호멧은 자기 혀 끝을 꽉 잡아 보이며 「이것이니라。」 하였다。

⑲ 최상(最上)의 증인(證人)은 심문받는 자리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니라。

⑳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좋은 것을 말하고、선(善)을 인식하는 사람은 참답지 않은 사람일 수 없다。

생사관(生死觀)

① 무덤은 영원으로 떠나는 여행의 첫발이다。

② 죽음은 친구와 친구가 헤어지는 다리(橋梁)다。

③ 잠은 죽음의 형제다。

④ 이생은 내세(來世)로 가는 경작지(耕作地)에 지나지 않느니라。그러함이어늘、내세에서 받을 상(賞)을 저축하기 위하여 이생에서 좋은 일을 하라。노력은 신의 명령(命令)이거니。신이 명령한 것은 분투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느니라。

⑤ 이생은 미래의 생명에게는 금단(禁斷)이며 미래의 생명은 이생에게 금단이다。

⑥ 죽은 자에겐 좋게 말할 일이며、나쁘게 말하지 말라。

⑦ 독신자(篤信者)는 죽지 않나니 다만 이생에서 영원한 생존(生存)으로 옮겨질 뿐이다。

⑧ 모든 즐거움의 파괴자(破壞者)인 죽음을 기억할 일이로다。

⑨ 아담의 아들들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그 하나는 죽음이니라。그러나 죽음은 죄짓는 것보다 낫으니라。또 하나는 돈 부족(不足)인데、그러나 내세(來世)에서는 돈을 따지지 않느니라。

⑩「최후의 심판일」에 신이 멀리하는 자가 있으니, 들은 대로 얘기하지 않고 왜곡해서 말하는 자이니라。

⑪ 허위(虛僞)임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⑫ 얼굴을 마주 쳐다보는 사람에게 신을 일깨워 주는 것 같은 사람은 최고의 「신의 종」이다。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친구 사이에 불화(不和)의 씨를 뿌리고, 결백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는 가장 나쁜 자이다。

⑬ 중상모략이란 무엇이랴? 불화의 씨를 뿌릴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라。

⑭ 본인(本人)의 면전(面前)에서 칭찬하는 자의 입속엔 쓰레기가 가득차 있느니라。

⑮ 만약 누구를 꼭 칭찬해야만 하겠거든 이러이러한 점을 칭찬한다는 말만 하라。 그리고 만약 네가 정 그를 칭찬한다면 그를 생각해서 이렇게 첨가해서 말하라。「그러나 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고。

⑯ 어느 사람이 예언자 마호멧에게 와서 물었다。

「가장 성스런 행위는 무엇이겠읍니까?」

마호멧은 대답했다。

「독재자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라。」

⑰ 무엇이든지 듣는 대로 되풀이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는 거짓말장이라는 충분한 증거다。

⑱ 압둘라의 아들 사피안이 진술하기를

「신의 사도(使徒)여, 꼭 붙들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 주소서。」

하니 마호멧은 말했다。

「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리라。」

사피안은 말했다。

「신의 사도여, 제게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만족(滿足)

① 신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를 사랑한다。

② 재산(財產)은 세속적(世俗的)인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만족함을 아는 마음에서 온다。

③ 자기보다 돈이 많거나 자기보다 아름다운 사람한테로 눈길이 쏠릴 땐、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로 눈길을 돌리라。

④ 너보다 못한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라。그러면 신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의 용기

① 신의 종교를 비방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책망하라。

② 듣는 사람의 귀에 달갑지 않고 불쾌하게 들릴지라도 진리를 말하라。

③ 덕(德)과 진리(眞理)에 탁월(卓越)하도록 항상 힘쓸 일이다。

④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고、약속을 해 놓곤 지키지 않고、신용을 걸었을 때 신용을 이행하지 않는 자、이런 자는 나의 동신자(同信者)가 아니다。

⑤ 거짓말하지 말라。

⑥ 너의 혀를 감시하라。

⑦ 내가 가장 사랑함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니라。

⑧ 신의 눈에 가장 못쓸 악인(惡人)으로 보이는 자의 하나가 이중 성격자이니라。

⑨ 일단 진리임을 알고 인정했을 때 진리를 말하는 너를 막는 자를 두려워 말라。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건강과 여가(餘暇)이니라.

㊟ 무슬림은 예배볼 때 반드시 소정(小淨)을 한다. 이것을 「우쥬」라고 한다. 목욕을 자주 하도록 가르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은 씻어서 먹어야 한다.

이슬람은 일상 생활에 입각한 종교로서 일상 생활을 격리실(隔離室)에 가두어 두고 내세(來世)만을 위한 정신적 추구에만 치중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슬람은 교회 종교가 아닌 생활 종교이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은 일상 생활이며 일상 생활이 곧 이슬람이다. 따라서 이슬람은 육체와 정신을 다 함께 깨끗이할 것을 강조한다.

벗

① 나쁜 사람과 어울리느니보다 홀로 있음이 낫고, 홀로 떨어져 있느니보다 좋은 벗과 함께 있음이 나으니라.

② 침묵(沈默)보다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과 이야기함이 낫고, 나쁜 말보다는 침묵이 나으니라.

양심(良心)

① 선행(善行)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기가 저지른 악을 슬퍼한다면 너는 참다운 신자이니라.

② 말썽이 생길 일을 멀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일에 의존(依存)할 일이다.

항심(恒心)

① 신이 보실 때, 가장 훌륭한 선행(善行)은 아무리 조금씩이라도 선행을 항상 끊임없이 하는 것이니라.

② 선행을 중단(中斷) 말고 하라.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

명상(瞑想)과 연구

신의 피조물에 대한 一시간의 명상과 연구는 一년간의 예배보다 낫다.

형식적인 자선이 아닌 가장 넓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선행(善行)과 인자한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정결(淨潔)

① 정결은 신앙의 반(半)이다.

② 신은 순수하다. 신은 순수와 정결을 사랑한다.

③ 마음이 참답고 순수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리라.

④ 속세(俗世)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러면 신의 사랑을 받으리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남의 사랑을 받으리라.

⑤ 신은 정결의 기반(基盤) 위에 이슬람을 세우셨거니, 너희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지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갖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⑥ 겉보다도 안을 깨끗이 하라.

⑦ 집과 마당을 말끔하게 하라.

⑧ 남을 찾아갈 땐 옷과 입안을 깨끗이 하고 가라. 신은 불결(不潔)과 말끔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⑨ 신성(神聖)을 추구(追求)하면서도 손톱을 새발톱처럼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어서 때가 끼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⑩ 몸의 털이 너무 자라도록 깎지 않고 내버려 두고, 손톱과 코밑 수염을 손질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동신자(同信者)가 아니니라.

⑪ 병자와 건강한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놓지 말 일이다.

⑫ 사람들이 타고난 축복을 충분히 활용하지

신은 말했다。

「있느니라。 아담의 후예들아、 주라。 바른손이 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㉓ 최고(最高)의 자선은 인간 상호간의 친선증진(親善增進)이니라。

㉔ 최고의 자선은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니라。

㉕ 남에게 너의 옷을 주었을 때 받은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너는 신의 가호(加護) 밑에 있느니라。

㉖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네가 먹지 않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되느니라。

㉗ 자선은 너의 부양 가족부터 시작하라。

㉘ 너 자신부터 쓰고、 다음은 부양 가족에게 미치라。 그 다음 남는 것이 있으면 일가 친척에게 미치고、 그리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타인(他人)에게 미치라。

㉙ 너의 아내에게 주는 것은 다 자선이니라。

㉚ 너의 집 문앞에 찾아오는 걸인(乞人)에게 하다못해 누룽지 한 조각이라도 손에 들려 보내라。

㉛ 자산가(資産家)、 건강한 사람、 사지(四肢)가 든든한 사람은 자선을 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㉜ 빚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연기(延期)해 줄 경우、 연기 일수(延期日數)는 자선이 되는도다。

㉝ 소박맞은 딸이 아비 외엔 의지할 곳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받아줌은 가장 크나큰 자선이니라。

㊟ 이슬람의 자선의 어휘(語彙)만큼 깊은 뜻과 함축성 있는 말은 없다 하겠다。 이슬람의 자선은

⑲ 묻는 말에 부드러히 대답함은 자선이니라.

⑳ 자선을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곧 자선이니라.

㉑ 우물가에 있는 개 옆을 지날 때 그 간부(姦婦)는 죄를 용서받았다. 우물가에서 개가 갈증이 나서 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개는 거의 죽어 가고 있었다. 여인은 신발을 벗어 치마 끝에 매고 물을 길어서 개에게 주었다. 이 행위로 해서 여인의 죄는 용서받았다.

㉒ 천사는 말했다.

「오, 신이여! 당신의 창조물(創造物) 중에서 바위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읍니까?」

신은 말했다.

「있느니라. 쇠는 바위보다 강하도다. 쇠는 바위를 부수느니라.」

천사는 말했다.

「오, 신이여! 당신의 창조물 중에서 쇠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읍니까?」

신은 말했다.

「있느니라. 불은 쇠보다도 강하도다. 불은 쇠를 녹이느니라.」

천사는 말했다.

「오, 신이여! 당신의 창조물 중에서 불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읍니까?」

신은 말했다.

「있느니라. 물은 불을 능가하느니라. 물은 불을 끄고 식혀 버리는도다.」

천사는 말했다.

「오, 주여! 당신의 창조물 중에서 물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읍니까?」

신은 말했다.

「있느니라. 바람은 물을 능가하여 물을 움직이게 하는도다.」

그들은 말했다.

「오, 조물주여! 당신의 창조물 중에서 바람보다도 더 강한 것이 또 있읍니까?」

노여움을 진정시키도록 하라。

⑥ 명랑한 낯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향연(饗宴)에 초대함은 자선의 행위이니라。

⑦ 부드럽게 아내를 대해 줌은 자선의 행위이니라。

⑧ 아이들을·애정으로 대해 주고 빰을 맞추어 줌은 자선의 행위이니라。

⑨ 이웃에 마음을 쓰거나 선물을 보냄은 자선의 행위이니라。

⑩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함은 자선의 행위이니라。

⑪ 노상(路上)의 장애물(障碍物)을 치우는 것은 자선의 행위이니라。

⑫ 자선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니라。 자선을 베풀 능력이 없거든 선(善)을 행하라。 그것이 곧 자선이니라。 모든 선행(善行)은 자선이니라。

⑬ 순수하지 않은 예배는 신이 받아들이지 않듯이, 불법 수단(不法手段)으로 번 것으로 베푸는 자선은 신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⑭ 손마디마다 매일 자선을 베풀 의무가 있나니, 말이나 낙타를 타는 사람을 거들어 주거나 짐 올리는 것을 도와줌은 자선이니라。

⑮ 좋은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선이니라。

⑯ 예배보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한걸음 한걸음이 다 자선이니라。

⑰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자선이니라。

⑱ 순수한 말로 남을 위로해 줌은 자선이니라。

나 악용(惡用)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신자로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② 제 마음 속에도 잠재(潛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남의 부덕(不德)을 욕하거나 꼬집어 말하지 말 일이다。

③ 남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거나 험담하는 자는 천국(天國)에 가지 못하느니라。

④ 험담은 세정(洗淨)과 단식(斷食)을 더럽힌다。

注 무슬림은 예배 때 세정을 한다。 세정을 하지 않고 예배 보는 자는 이슬람교 신도가 아니라고 할 만큼 예배 전의 세정은 무슬림의 절대 불가결의 의무적인 계율이다。 예배 전에 세정을 해야 함은 세정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예배로 마음과 정신을 정화(淨化)함이다。

그런데 종교 의식(宗敎儀式)에는 하등의 정함이 없는 형식주의에만 치중함으로써 제 아무리 「세정과 예배」의 계율을 지키는 무슬림이라 해도 남의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일삼는다면 세정을 아니한 것과 진배없이 부정(不淨)하다는 것이다。 형식주의에 대한 경구(警句)라 하겠다。

자선(慈善)

① 인간에게 자비롭지 않은 자에게 신은 자비롭지 않으시다。

② 참답고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꽃이 만발한 주거(住居)에 들리라。

注 「꽃이 만발한 주거」는 천국을 말함。

③ 요구호 대상자(要救護對象者)에게 선(善)을 베푸는 자에게 신은 이생과 저생에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④ 친절은 신앙심의 표지(表識)이다。 친절하지 않은 자는 신앙심이 없는 자다。

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대추 반조각밖에 안 되는 것일지라도 자선을 베풀어 신의

「만약 너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서 돌을 던져 눈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너에게 죄가 없다.」

⑩ 예언자 마호멧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아나스 이븐 말리크(Anas Ibn Malik)가 진술했다.
「너희는 다 알라의 종이거니 서로 적대시(敵對視)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화내지 말고, 형제답게 살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무슬림)를 3일 이상 멀리함은 불법(不法)이니라.」

⑪ 의로운 사람에겐 동정과 사랑과 친절은 마치 몸의 수족(手足)과 같은 것이어서 수족 어느 하나라도 병이 나면 온몸에 열이 나고 불구(不具)가 되는 것과 같으니라.

⑫ 우정(友情)을 느끼는 사람에겐 그의 성명(姓名), 부친의 성명, 그의 인적 사항을 묻도록 하라. 우애(友愛)는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⑬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었거든 그를 의심하지말고 제삼자(第三者)에게 그에 대한 것을 알아보지 말라. 친구가 된 그에게 적의(敵意)를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며, 참다운 얘기가 아닌 것을 말해 줌으로써 너와 친구와의 사이를 끊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 무슬림의 형제애(兄弟愛)는 이슬람의 특징이다. 인류사(人類史)에 지금도 이슬람이 비길 바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형제애」인 것이다. 「이슬람의 형제애」에는 국경이 없다. 종족(種族), 계급, 피부색, 민족, 국적의 차이가 없다. 우주적(宇宙的)이고 평등한 「형제애」인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건 무슬림끼리 만날 땐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형제로서 만나는 것이며, 무슬림의 세계 공통인 인사는 「앗사람오 알라이꿈—」이라고 한다. 「그대에게 평화 있기를 기원한다」는 인사이다.

험담과 중상(中傷)

① 명예 훼손(名譽毀損)을 일삼는 자는 신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을 저주(呪咀)하거

② 이슬람은 수도 생활을 장려하지 않는다.

형제애(兄弟愛)

① 무슬림은 형제다.
서로 억압하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조언조력(助言助力)을 해야 하며,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② 모든 무슬림은 하나의 육신(肉身)과 같다. 머리가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눈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니라.

③ 모든 무슬림은 하나의 기초(基礎)의 구성분자(構成分子)와 같다. 자자가 서로서로를 강화(強化)하느니라.

④ 모든 무슬림은 하나의 벽(壁)과 같다. 서로서로 강화하여 다 함께 합심해서 지지(支持)해야 하느니라.

⑤ 형제(무슬림)들이 곤경에 빠졌을 땐 서로 돕고, 악의 길을 갈 땐 구해 주라.

⑥ 천지만물(天地萬物)은 신의 가족과 같은 것이므로, 크나큰 신의 은총을 받을 사람은 신의 가족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니라.

⑦ 형제들(무슬림)의 소원을 제 소원처럼 생각하지 않는 한 참다운 신자가 아니니라.

⑧ 압박자(壓迫者)이건 피압박자이건 너의 형제 무슬림에게 조언을 하라.
「그러나 압박자에게 어떻게 조언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 마호멧은 말했다.
「압박 못하도록 제지(制止)하는 것이 압박자에 대한 조언이니라.」

⑨ 예언자 마호멧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아부후레이라 (Abu Hurairah)가 진술했다.

사람도 균형(均衡)을 잃지 않는다。가장 나쁜 성질은、화를 내는 데는 빠르고 가라앉히는 데는 더딘 사람이다。

자제(自制—自己克服)

① 자제(自制)는 성전(聖戰)이다。

② 가장 성스런 싸움〔聖戰〕은 자제(自制)를 위한 싸움이다。

③ 자신을 아는 자 신(神)을 안다。

④ 진실로、내가 가장 사랑하고 저승에서 내 곁에 있을 사람은 마음을 선량하게 쓰는 사람이고、진실로 가장 큰 나의 적(敵)이며 나와 멀리 있을 사람은 성질이 나쁜 사람이니라。

⑤ 판사(判事)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들이 발끈해 있을 때 판결(判決)을 내리지 말라。

⑥ 거의 모든 인간들이 타고난 축복(祝福)을 남용(濫用)하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건강과 번영(繁榮)이다。

⑦ 성욕(性慾)을 절제(節制)하는 자는 현명하고 지각 있는 자이며、성욕에 끌려 가면서도 신의 용서를 바라는 자는 무지한 자다。

⑧ 격정(激情)과 공포(恐怖)와 분노(憤怒)가 폭발할 경우에 이를 자제(自制)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신이 보호해 주신다。

⑨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약자(弱者)에게 애정을 쏟고、양친을 위해 재산을 쓰는 자는 천국에 들리라。

금욕주의(禁慾主義)

① 이슬람은 금욕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화

①「저에게 조언(助言)을 해 주소서。」하고 어느 사람이 마호멧에게 묻으니、마호멧 이르되「화내지 말라」하였다。

②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경우에 화를 억제하는 사람은 신한테서 큰 상을 받는도다。

③ 남을 때려눕힌다 해서 강자(强者)가 아니니라、화날 때 화를 억제하는 자、참다운 강자이니라。

④ 신을 위해서 화날 때 화를 삼켜 버리는 사람만큼 더 맛좋은 것을 마시는 사람이 없느니라。

⑤ 화는 신앙심을 망친다。

⑥ 남을 위하여 가르쳐 주고、하는 일이 쉽게 되도록 도와주고、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고、남의 화를 돋구어 주지 말 일이며、화난 사람을 진정시킬 일이로다。

⑦ 화를 억제하는 사람은 신이 그의 결점(缺點)을 감추어 주시느니라。

⑧ 화는 사탄을 동반(同伴)하나니、사탄의 성질은 격노(激怒)이니라。

물로 불을 끄듯이、화날 땐 세수를 하라。

⑨ 화날 때 자제(自制)하는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니라。보복(報復)할 힘이 있으면서도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참을성 있는 사람이니라。

⑩ 화가 날 땐 서 있지 말고 앉으라。앉아도 매한가지라면 드러누으라。

⑪ 화를 빨리 내지 않는 사람、화를 빨리 가라앉히는 사람——이런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화도 빨리 내지만 가라앉히기도 빠른 사람——이런 사람은 그의 성급(性急)함이 메꾸어진다。화를 빨리 내지 않으나 더디 가라앉히는 사람——이런

권하는 행동

1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문병(問病)하고, 부당하게 잡혀 있는 노예를 석방해 주라. 무슬림·비(非)무슬림을 막론하고 비탄(悲嘆)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

2 단식(斷食), 희사(喜捨), 예배(禮拜)보다 훌륭한 행동이 없음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소냐? 이는 인간 사회의 평화를 조성(助成)한다. 반목(反目)과 악의(惡意)는 천국의 상을 뿌리째 뽑아 없애느니라.

3 권태(倦怠)로운 사람의 가슴에 즐거움을 채워 주고, 괴로운 사람의 고통을 덜어 줌은 (저승에서) 그만큼 상을 받느니라.

4 도움이 필요한 동포를 도와주고, 비탄(悲嘆)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최후(最後)의 심판일(審判日)」에 신의 도움을 받느니라.

구조(救助)

1 오른손이 준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일이다.

2 구조(救助)는 너희들의 의무이니라. 구조는 부자(富者)한테서 거두어서 빈자(貧者)에게 주어야 하느니라.

3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말로 남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줌은 가장 훌륭한 구원(救援)이니라.

4 노동해서 번 것을, 그것도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이 자기 능력껏 베푸는 희사(喜捨)야말로 가장 훌륭하도다.

2、마호멧 言行錄(하디스)

행동(行動)

① 행동은 동기(動機)에 의해서 판단(判斷)되느니라.

② 너희가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행동에 달려 있느니라.

㊟ 여기의 상벌(賞罰)은 저승에서의 「최후의 심판일」에 신에게서 받는 상벌을 말한다. 그러나 이 상벌은 또한 현실에서도 같은 것이다.

③ 선행(善行)은 이를 두고 두고 해야 하느니라.

④ 어떠한 것이 가장 훌륭한 행동이랴? 남의 가슴에 기쁨을 채워 주고、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괴로운 사람을 도와주고、서러운 사람의 설움을 가벼이 해 주고、부상자의 상처를 낫게 해 줌이니라.

㊟ 이슬람은 단순히 신앙에만 그치는 종교가 아니다. 실천(實踐)의 종교이다. 이슬람 교리의 기본적 요소는 「권장(勸奬)」과 금기(禁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행동」은 신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자아(自我)에 대한 행동、자기의 가족에 대한 행동、이웃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의무의 개념은 삼차원을 이룬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란 저속한 자아(自我)의 정복에서 비롯하는데、이 투쟁은 자기에게만 이로울 뿐 아니라 사회에도 이로운 것이므로 부단히 계속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이슬람의 행동은 이슬람교 수업(修業)의 초석이고 질서의 관건이다. 끊임없는 선행(善行)의 실천을 예언자 마호멧이 거듭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있다.

13、휴전 조정

무슬림은 무슬림끼리 싸우는 중간에 서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14、신의 서(書)와 하디스의 유산(遺產)

「나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남겨놓았으니 성 쿠란과 나의 사례(事例)(하디스)이니라。」고 그는 말했다。

15、모든 사람이 다 신의 계명(戒銘)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말했다。「이 선언을 들은 자는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느니라。」

(이슬람에는 어느 특정인이나 직업적인 선교사가 없다。 이슬람의 신도라면 자기가 받은 광명과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신도는 각자가 자동적으로 전도사인 것이다。)

9、무슬림의 형제애

예언자 마호멧은 무슬림은 다 하나의 형제이므로 인권과 명예를 존중할 것과、 중상모략하지 말 것과、 생명과 재산의 보장을 지적하였다。

10、사 탄

그는 멕카 대성전(大聖殿) 앞에서 말했다。

「유일신교(이슬람)의 선포로 사탄은 물러났다。 그러나 사탄은 딴 길로 네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사탄의 동향과 술책(術策)을 알질러서 방비하도록 하라。」

(이슬람에서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다。 즉 사탄은 「필요악(必要惡)」으로 간주한다。)

11、침 해

예언자 마호멧은 여하한 형태이건 침해를 공공연히 저주했다。 가장 악질적인 신의 적은、 이쪽에선 때리지 않았는데 공격해 오는 자라고 말했다。

12、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

예언자 마호멧은 탓을 아무 상관없는 남에게 돌리는 자、 일꾼의 임금을 전액(全額) 지급지 않는 자는 신의 자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니라。」고 말했다。

4、구원(舊怨)에 의한 유혈 보복 금지

「이슬람 이전 시대에 있었던 구원(舊怨)의 유혈 보복은 금하느니라。」고 그는 말했다。

5、고리 대금 금지

그는 말했다。「이슬람 이전 시대에 행해진 모든 고리 대금은 이를 금한다。 그리고 내가 취소하는 첫번째 고리(高利)의 돈은 내가 쓴 숙부 「압바스 이븐 뭇딸립의 돈이다。」

6、휴전에 관한 법률 강화

예언자 마호멧은 회교력(回敎曆) 중 四개 성월(聖月)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휴전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四개 성월의 신성함을 준수하도록 강조한 진의(眞意)는 아랍 사회 영도자들 사이에 평화가 조성될 수 있게 함에서였다。

7、여권(女權) 보장

8、노예의 권리 보장

여기에 노예라 함은 「노예」를 확대 해석하여 통속적인 말로 식모(食母)라고 칭하는 하인、노사간(勞使間)의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죄수、전쟁 포로、피납치자、피압박자……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서약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예언자 마호멧은——예배、 자카트(희사금)、 단식의 종교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인간 상호간 및 세계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평화 수립을 위한 인간 관계를 견지할 것을 거듭 강조한 점이다。 예언자 마호멧의 「고별의 순례」에서 행한 설교 속에 종교 의식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十五개 항복으로 집약되는 그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1、 생명 재산 무슬림의 명예는 신성하다

이 점에 대하여 예언자 마호멧은 이렇게 말했다。

「오 인류여! 나의 말을 들어 두고 가슴 깊이 간직할지어다。 모든 무슬림은 다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은 다 한 형제이니라。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사유(私有)함은 금할 일이다。」

2、 평등한 권리

예언자 마호멧은 「평등한 권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아담과 이브의 후예여! 아랍인이 비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 아랍인 또한 아랍인보다 우월(優越)하지 않느니라。 선행(善行)에 의해서만 우월이 있느니라。」

3、 가문의 차별 폐지

그는 「사람들은 혈통을 자랑해서는 안 되느니라。 자랑이 된 것은 오로지 선행(善行)뿐이

면에서 사탄을 조심할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도록 하라。 전해 듣는 사람들은 내게서 들은 사람들을 기껍게 기억하리라。」

「오 인류여! 그러함이니 나의 말을 이해해 둘 일이다。 내 너희들을 위해 놓고 가는 것이 있으니, 이를 꼭 쥐는 사람들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알기 쉬운 지침(指針)이니라。

「신의 서(書)」와 「신의 예언자의 실천 사례(實踐事例)」가 그것이다。 내 말을 잘 유의할지어다。」

이 말을 한 다음 예언자 마호멧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청껏 소리높여 외쳤다。

「오 주님이시여! 이 몸은 당신의 복음을 전했나이다。」

아라파트 산 계곡은 무수한 순례자들의 목청에서 쏟아져나오는 한가지 화답(和答)으로 진동하였다。「그대는 전해 주었느니라!」

이어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오 주님이시여! 당신에게 간청하나이다。 당신이 증인이 나이다。」

예언자 마호멧의 「고별의 순례」의 설교를 요약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세계 평화 선언」이라 할 수 있는 다음의 十五개 항목으로 집약된다。

들은 다 한 형제다。
남이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사유(私有)함은 금할 일이다。
부정(不正)을 범하지 않도록 네 몸을 지키라。」
위의 말을 한 다음 예언자 마호멧은 성쿠란 제九장 三六절과 三七절을 외어 나갔다。 이것은 순례의 달을 정한 쿠란 귀절이다。
「진실로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신의 명령으로 정한(一년의) 월수(月數)는 十二이니라。 그 중 四개월은 성월(聖月)이며、 이것이 참 종교이니、 잘못이 없도록 할지어다。」
「진실로 성월을 바꾼다는 것은 무신앙(無信仰)을 더할 뿐이니라。 그리하여 불신자는 길을 잘못 가게 되며、 금년은 보통 때의 월(月)로 했다가 다음해엔 성월(聖月)로 했다가 한다。——불신자(不信者)는 이 성월(聖月)의 제정을 신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제 맘대로 당겼다 연기했다 하여서、 성월 중엔 싸움이 금해져 있는 것을 준수하지 않고 제 맘대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월수(月數)만은 신이 정하신 성월(聖月)에 맞추고 있으나、 신의 성월 중의 금기(禁忌)를 맘대로 해금(解禁)하고 있다。 그들은 악행(惡行)을 잘한 짓인 듯이 보이고 있으나、 신은 불신자(不信者)의 무리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니라。」
쿠란을 윈 다음 예언자 마호멧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면 이제 이날에 시간으로 하여금 그 주기(週期)를 수행(遂行)케 함이니、 이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날이니라。」
「오 인류여! 진실로 사탄은 너희들에게서 숭배받을 꿈을 영원히 잊어버렸다。 너의 신앙

당(抵當)을 한 자는 신용을 담보(擔保)해 준 자에게 돌려줘야 하느니라.」

「이날(순례의 날)로 모든 이윤(利潤)의 계산(計算)을 지불해야 한다. 나의 숙부 압바스 이븐 압두 알 뭇딸립의 이윤도 포함해서.」

「이날로 이교(異敎) 시대에 저질러진 모든 살인의 보복을 금한다. 그리고 우선 라비아 이븐 하리스의 살인을 용서한다.」

「오 인류여! 너희들은 아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아내 또한 너희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느니라. 아내는 네 손에 맡긴 신의 위탁(委託)인 것이다. 그러함이어늘 아내에게 친절하라. 너희들은 다만 신의 위탁을 맡았을 뿐, 너희들은 서로(남편과 아내가) 신의 말씀에 의해서 향락(享樂)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의 노예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을 먹이고, 너희들이 입는 것과 같은 것을 입히라. 그들이 실수를 했을 때 너희들에게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그들을 놓아 주라. 그들은 신의 종이거니(信者라는 뜻), 가혹하게 처우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신용(信用)해 주는 사람에게 항상 충실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담과 이브의 후예여. 아랍인이 비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 아랍인 또한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느니라. 선행(善行)에 의해서만 우월(優越)이 있느니라.」

「오 인류여! 나의 말을 들어 두고 가슴 깊이 간직할지어다. 모든 무슬림은 다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예언자 마호멧은 이 말을 하면서 두 팔을 번쩍 쳐들어 오른손과 왼손 첫째 손가락을 나란히 합쳐 보였다.) 인류는 평등하다. (너희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다.) 너희

「오、 신이여! 당신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복음을 전했옵니다。」

예언자는 라비아를 향해 말했다。「저들에게 말하라——오 중생들이여! 그대들은 지금이 무슨 달(月)인지 알겠는가?」 그들은 말했다。「스 알 힛자의 성월(聖月)입니다。」

예언자는 라비아를 향해 말했다。「저들에게 말하라。 —신께서는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날까지 이 달이 신성(神聖)한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신성한 것으로 하셨다。」

그리고는 예언자 마호멧은 라비아를 향해 말했다。「저들에게 말하라。 여기는 어떤 영역인지 알겠는가?」 그들은 화답(和答)하여 말하기를 「(메카의) 성지(聖地)입니다」라고 하였다。

예언자 마호멧은 라비아를 향해 저들에게 말하라고 했다。「신께서는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날까지 이 영역이 신성한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신성한 것으로 하셨다。」

그리고는 예언자는 라비아를 향해 말했다。「중생에게 말하라。 지금이 무슨 날(日)인 줄 알겠는가?」 그들은 말했다。「대 핫즈(大巡禮의 날)의 날입니다。」 예언자 마호멧은 라비아를 향해 저들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신께서는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날까지 이 순례의 날처럼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은 신성함이니 서로 침입하지 말도록 하셨느니라。」

「신은 각자의 유산(遺産)의 몫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셨다。 상속자를 상해(傷害)하는 서약은 불법(不法)이니라。」

「자식은 양친(兩親)의 소산이다。 결혼 생활의 위반자를 위해서는 돌멩이가 있다。」

「너희들은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것인즉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행실을 심문하시리라。 저

문이었다。

전체 순례자의 대행진(大行進)이 아라파트 평원에 이르러 거기서 머무는 것은 순례 의식중 빼놓을 수 없는 의무이므로、예언자는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 낙타 등에 올라탔다。그는 낙타 등에 앉아서 신을 찬미、찬송한 다음 라비아를 향해 말하였다。「저들에게 말하라——오 중생들이여!」신의 사도는 말했다。

「나는 그대들과 똑같은 인간이다。그대들은 이곳에서 아마도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는지도 모른다。(예언자는 약 三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서기 六三二년 六월 八일이다。)

그러하거늘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 두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나의 말을 들은 다음 나의 말을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내리소서。

이 자리에선 나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법하다。그러나 세상에는 나의 말의 뜻을 너희들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그러하거늘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갖다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라。예언자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福音)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수가 흔히 있느니라。」

예언자 마호멧이 말을 마치고 「외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라비아가 반복을 마친 다음、예언자 마호멧은 자기의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 청중들에게 물어 보았다。모든 청중들이 그의 말을 잘 들었음을 소리쳐 대답하자 예언자 마호멧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다。

히지라력(回教暦) 제十년 예언자 마호멧은 순례자를 인솔하고 순례에 올랐는데, 이 순례에서 귀환 후 三 개월만에 별세하였다. 이런 연유에서 이 순례를 예언자 마호멧의 「고별의 순례」라고 부른다.

예언자 마호멧은 그의 「고별의 순례」에서 「세계 평화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였다. 그는 이 선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고별의 순례」 중에 五번이나 되풀이했다. 멕카 대성전(大聖殿)에서 一번, 아라파트(Arafat)에서 二번, 미나(Mina)에서 二번, ——이렇게 五번 반복했다. (「아라파트」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신에 의해서 추방되었으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으로써 신은 자비롭게 이들을 인간 재회(人間再會)시킨 「자비의 산」이며, 순례 의식의 최종 코오스이고, 「미나」는 멕카와 아라파트의 중간에 있는, 역시 순례 코오스이다.)

이때의 예언자 주변에는 「외치는 사람」이 항상 수행하면서 마호멧의 말을 받아서 한마디 한마디씩 또박또박 되풀이했다. 교우 비랄(Bilal)이 낙타의 고삐를 잡고 수행하였다.

어떤 때는 마호멧의 사위인 알리(Ali)가 외치는 사람의 역할을 하였고, 어떤 때는 목소리가 우렁찬 젊은 이가 하였다. 예언자 마호멧은 외치는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자기가 한 말을 한마디 한마디씩 큰 목소리로 되풀이시켰다. 아라파트에서는 라비아 이븐 칼라프(Rabiah Ibn Khalaf)가 외치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

서기 六三二년 예언자 마호멧의 「고별의 순례」에 운집한 순례자는 十二만에서 十四만이었는데, 그가 선언을 五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 많은 순례자를 한군데 모으기 어려웠기 때

(理想)에 기반을 두었던 것이다。

리차드 프라이(Richard N. Frye) 신부(神父):「이슬람은 종교 이상의 것이다。 사회적·개인적 양면을 겸비한 문화의 총화다。 이슬람은 생활 양식이다。」

로드로 스토다르트(Dr. Lothro Stoddard):「이슬람의 상승(上昇)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일 것이다。 버려진 땅과 사람들 속에서 솟아나온 이슬람은 一세기 동안에 지구의 반 이상을 뒤덮었고、위대한 제국(帝國)들을 창건했고、장기 존립하는 종교로 압도했고、인류의 정신을 재형성했고、하나의 전체적인 신세계——즉 이슬람 세계를 세웠다。」

——세계의 예언자(마호멧)와 그의 교훈에 대한 서구 저술가들의 견해를 여기에 장황하게 인용한 의도는 이슬람을 진정한 각도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欲求)를 비쳐 주는 하나의 촛불이고자 함에서이고、또한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을 망각하고 있는 오늘날 무슬림을 척도로 해서 이슬람을 대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⑧ 마호멧의「고별의 순례」에서 행한 설교

——서기 六三二년 二월 二三일

이슬람은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는 신빙성이 가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대에 이슬람을 등한시할 수 있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이슬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행하는 종교인가를 편견없이 허심탄회하게 연구해야 할 일이다。 이슬람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이슬람 교의 기본 교리인 유일성(唯一性)、 형제애、 도덕、 관용을 이해하게 되리라。」

깁브(Gibb) 교수 : 「우리는 유럽의 기술 발달의 편중된 성질이 전복(顚覆)해 놓은 서구 문명의 평형을 복귀시키고、 이를 유럽 국가주의의 과장된 발전에서 구출해 내기 위하여、 이슬람 사회를 동반해야 한다。 인류의 여러 종족을 지위(地位)、 기회(機會) 및 노력의 평등으로 결속(結束)함에 있어 성공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는 이슬람 사회를 빼놓고는 없는 것이다。」

로날드 오그든(Ronald Ogden) : 「이슬람은 범부(凡夫)를 승진시켜서 유력자(有力者)의 수준으로 올려 놓는다。 예언자의 교훈과 모든 인간은 형제임을 인지한다。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다。」

윌프레드 칸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 「서양에서는 법률을 도덕법(道德法)、 민법(民法)、 교회법(敎會法) 등으로 세분하였으나、 이슬람은 대부분이 하나의 복합적 구조로 된 「법률의 종교」——이슬람법으로 있어 왔다。 이슬람 문명이 번영했던 시대에 이 이상

인명(人命)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는 평화가 그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은 한편으론 신의 유일성을 가르치고, 한편으론 인류의 형제애를 가르친다。

참다운 무슬림(이슬람 교도)은 격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신의 계율」에 자기 자신을 조절해서 「신의 율법」에 의해서 조화된 생을 누린다。 이 「신의 율법」은 신분의 고하(高下)와 빈부(貧富)를 막론하고, 지배층, 피지배층, 흑과 백에 공평히 해당하는 것이며, 소수(少數)·다수(多數)를 똑같이 다스리는 것이다。 무슬림은 신앙을 혀끝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며, 구제(救濟)를 받고자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위한 진리를 과감히 소신껏 말하는 편견없는 서구 학자들의 「이슬람관」을 소개하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으리라。

미카엘 햄(Michael Hames) : 「이슬람의 핵심은 유일성이다。 이슬람의 신앙은 유일신(唯一神)이고 마호멧은 예언자다。 이원성(二元性)은 배제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神學)이 아니고, 성자(聖者)와 세속(世俗)의 구별이 없고, 동서양의 관념이 없다。 오직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인류가 있을 뿐이다。 이슬람에서 인류의 형제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까닭이다。 민족적 차별이란 이와 같은 형제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피부색이 백색이건, 황색이건, 적색이건, 갈색이건, 흑색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이슬람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슬람은 완전한 인생 철학을 제시하기 때문이고,

으로 나누어서, 너희들이 서로 알고 지내게 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였느니라. 진실로 신의 눈에 가장 존귀한 자는 가장 의로운 자이니라.」(쿠란 四九 : 一三)

「이슬람」의 어원(語源)은, 「평화」다. 「이슬람(Islam)」이란 「Salam(평화)」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명칭이 말해 주듯이 이슬람교는 신도에게 평화를 포교할 뿐 아니라, 신도 아닌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로 대한다. 신자끼리의 인사말을 「앗사람우 알라이쿰」 하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알라의 평화가 내리시기를 축원하오.」 라는 뜻이며, 그러면 인사를 먼저 받은 쪽에선 「와 알라이쿰 사람」(당신께서도…) 한다. 「와」는 and이며, 이것은 영어 인사의 「And you?」에 해당한다)

천국(天國)을 묘사한 쿠란 말씀에 「평화는 자비로우신 주(主)께서 하시는 말씀이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랴.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형제끼리 다툰다면, 부자간 부부간에 언쟁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바로 지옥이리랴.

이와 같이 평화의 전파(傳播)는 안전감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번영의 열쇠인 것이다.

개인 생활에서 무리인 것은 국가에 있어서도 또한 무리이다.

이슬람은 이중(二重)의 평화를 가져온다. 첫째, 「신의 의사」에 무조건 항복하고, 「신의 계율(戒律)」에 이의없이 복종하는 평화가 그것이고, 둘째는 인간들이 서로 존중하고, 남의

게 가장 긴급히 요청되는 것은「평화」다。 평화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부(富)와 번영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과학의 발전을 누리고 있으나、끊임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의 절규는「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자」는 정책(政策)의 옹호에 있으나、그러나 민족적·집단적 횡포는 이와 같은 숙원을 가로막는 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마다 상대국을 두려워하고、하나의 사상을 형성한 그룹으로 대립해 있고、서로 증오에 불타고 있고、평화의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무장을 하고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이와 같은 긴장의 종식을 갈망하고 있으며、또 문제 해결의 수단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 구제책은 있다。 그런데 모색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든 마(魔)를 퇴치하는 만병통치약을 주는 이슬람 교를 연구해 보도록 그들을 초치(招致)하고 싶은 것이다。 신은 무한한 지식으로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므로、모든 진통(陣痛)의 치료제로 一四〇〇 년 전에 선택된 예언자에게 종교를 내려보내 주었다。 그것은 이슬람이다。 이슬람이란 신의 의사에 절대 복종한다는 뜻이다。 세계의 절대적인 주인은 오직「신」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인식한다면 인간은 다 평등하게 될 것이고、신의 지배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우주적(宇宙的)인 형제애(兄弟愛)가 수립될 것이다。

적의(敵意)와 증오심이 생기는 것은、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의 우열(優劣)에서 생기는 것이다。

「오、인간들이여! 나(神)는 너희들을 남녀 한쌍으로 창조하여、여러 나라와 종족(種族)

었다。」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마호멧은 공포를 자기 주위에 불러들인 하나의 왕자였다。 몇 해 안 가서 무슬림은 세계의 반을 정복하였다。 그들은 십오년간에 모세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十五세기 걸려서 해낸 것보다도 월등하게 사이비 신(神)으로부터 영혼을 끌어 냈고(迷信打破)、우상을 파괴했고、잡신(雜神)의 사원을 분쇄했던 것이다。 마호멧은 위대한 인물이었다。」

챔버 백과 사전(Chamber's Encyclopaedia)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인간 마호멧의 비범한 힘과 천부의 재능은 현대의 상식적인 척도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를 판단함에는 당시의 풍습、도덕、사회상도 감안해야 한다。……예언자、설교자(說敎者)、왕자로서의 그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그의 개인적 인격、완숙성(完熟性)、친구에 대한 충실성、가족에 대한 인자함、적을 번번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에 넣어야 하며、이 외에도 사생활이 극도로 소박했던 점 등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권좌(權座)에 오른 후에도 형편없는 토옥(土屋)에서 살았으며、옷을 손수 꿰매 입었고、모든 노예를 석방했다。」

그러면 최종 예언자의 인간상에 대한 관찰은 이쯤 간추린 다음、그가 포교하였고 세계를 개혁시켜 놓은 종교(이슬람)를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세계 대전을 두 번 치르고 난 인류에

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유일신」(신의 유일성)을 믿었다. 실행(行實—몸과 마음 가짐), 효행(孝行), 영원한 신에의 예배, 인간 상호간의 존경, 정의와 자비의 원천은 「의로움」임을 강조하였다. 먹어서 취하는 것은 다 금하고, 중용(中庸)을 지키고, 모든 학문의 탐구를 존중할 것을 믿었다. 마호멧은 정신주의자(精神主義者)였고 「신의 예언자」였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에드워드 깁슨(Edward Gibb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호멧은 이슬람을 통해서 一〇년 내로 아라비아인의 포악성 보복 기질(報復氣質), 무정부 상태, 여성 타락, 적대 행위, 무법(無法), 고리 대금(高利貸金), 음주(飮酒), 유아 생매장(幼兒生埋葬), 살인 행위, 인간 희생 습관, 미신(迷信)을 타파했다. 그는 이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지상에 천상(天上)의 왕국을 세웠다.」

버나드 쇼(Bernad Shaw)는 「마호멧은 인류의 구세주였고, 모든 인류의 자비(慈悲)였으며, 축복이었고, 모든 시대의 시범자였다.」고 말했다.

다벤파트(Davenpa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그들보다 더욱 혁혁한 미래의 예언자의 출현 보증을 기뻐했고, 신약 성서 복음 교회(Evanelist)가 약속하는 성령(聖靈), 위문자(慰問者)는 신의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상했었다. ——그것이 마호멧이

애국자, 정치가로서도 위대한 인간이었고, 하나의 위대한 국가를 세운 물질적 건설자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 건설자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위대하였고, 또 그보다도 더욱 위대한 것은 그는 자기에 충실하였고, 중생(衆生)에 충실하였고, 그 모든 것보다도 신(神)에 충실한 인간이었다。」

라마르틴(Lamartine)은 그의 저서 「터어키 역사」(Histoire de la Turqui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목적의 위대함, 수단의 왜소(倭少)함, 경이적인 결과, ——이 세 가지가 천재(天才)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현대사의 인물 중에서 마호멧에 비길 만한 인물이 그 누가 있으랴。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 해도 그들은 무기(武器), 법률(法律), 제국(帝國)을 창조했을 뿐이다。 그들이 무언가 창건한 것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인 힘 이상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것은 그들의 목전에서 거품처럼 사라져 가는 것이 일쑤였다。 그러나 마호멧은 군대(軍隊), 입법(立法), 제국(帝國), 중생(衆生), 왕조(王朝)를 움직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세계 인구의 三분의 一을 움직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신(迷信)의 제단(祭壇), 잡신(雜神), 사이비 종교, 사상, 신앙, 인간의 영혼을 움직였던 것이다。 경전에 입각해서 경전의 귀절마다 법률로 화하게 했으며, 모든 언어와 종족을 망라한 국민성을 창조하였으니, 그의 이와 같은 신조는 하나의 기적이었다。」

조오지 린제이 존슨(George Lindsay Joh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마호멧——그는 다

건전하고, 현명하고, 온순하고,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의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명 사회를 성취하여, 무엇이 인간의 최고 행복인가를 알고 있는 「자비로운 주(主)」, 「조물주」, 「은혜자(恩惠者)」인 신의 지도 밑에서 서로가 형제로서 평화로이 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원대(遠大)하고 숭고한 목적의 완수를 위해 주(主)의 선택은 마호멧의 유일무이하고 복받은 인품에 내려졌던 것이다.

예언자 마호멧의 인간상(人間像)에 대한(신격화(神格化)가 아닌 인격으로서) 좀더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 무슬림 학자들의 「마호멧관」을 몇 가지 열거해 보기로 한다.

윌프레드 카우트웰 스미스(Wilfred Cautwell Smith)

「꼭 한번 이것을 마지막으로 신의 진리와 신의 정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이것을 전해 주고 해석해 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사자(使者)가 선택되었으니, 그가 마호멧이었다.」

메이저 레오나르드(Major Leonard)는 그의 저서 「이슬람—그 도덕적, 정신적 가치」(Islam Her Moral and Spiritual Valu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호멧은 어느 시대의 인물보다도 가장 진지하고 성실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위대한 한 인간이었을 뿐 아니라 인류에서 나온 위대한 인간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하나의 예언자로서 위대할 뿐 아니라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느끼고, 「최후의 예언자」를 택하여, 一개 국가나 一개 지역에만 필요할 뿐 아니라 전인류와 미래에 걸친 우주적인 예언자를 보내게 된 것이다。

「그는 신의 사도(使徒)이며 예언자들의 문장(紋章)이니라。」(쿠란 三三 : 四〇)

여기의 「예언자의 문장」이란 사도의 서열을 끝막는다는 뜻이다。 즉 최후의 예언자라는 뜻이다。

「나(神)는 그대를 인류의 우주적 사자로 보냈을 따름이니라。」(쿠란 三四 : 二八)

그러면 그만한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란 막강한 영향력, 고매한 도덕적 인격, 두뇌와 마음의 유례없는 특징, 그의 다음으로 또다른 개혁자(改革者)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세계의 예언자」로서 인류 향상을 위한 통찰력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神)는 세상에 오직 자비롭도록 그대를 보냈을 따름이니라。」(쿠란 二一 : 一〇七)

그러므로 그의 수족(手足)은 역사상 달리 비교될 수 없고, 「최후의 심판일」까지 변함없는 기적으로서 역할을 할 경전(經典)에 의해서 강화되어야만 되는 것이었다。 그의 강림(降臨)은 모든 인류를 위한 축복이어야 할 것이며, 그의 복음은 인종(人種), 계급(階級), 피부색(皮膚色)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자(使者)의 교훈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마련되어야 하고, 모든 시대에 적합해야 하고, 전 인류의 최고선(最高善)에 도움이 되는 자연의 기본법에 입각해야만 한다。 그의 목적하는 바는, 인간이 행복하고,

아담이었다。 아담에 이어 여러 사자가 보내져 왔다。

「그리고、 집단(集團)마다 그곳엔 사자가 보내졌나니。」(쿠란 五:四七)

이는 곧 피조물(被造物)에 대한 조물주의 자비(慈悲)의 소치이다。 사자의 수는 십만이 넘는다고 믿어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진정 사명을 다한 사자(使者)는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아는 일이다。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일、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와 같은 예언자들이 출현하였고、 개중에는 경전(經典)이 내려진 사자도 있었고、 신의 사명과 사자들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음을 이행하였다。

「나(神)는 사자들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느니라。」(쿠란 二:二八五)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슬림의 신앙으로서는 어떤 사자는 받아들이고、 어떤 사자는 이를 거부하든가 하지 않는다。 이 점 모세를 받아들이되 예수는 거부한 유태교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모세)는 받아들이되 이슬람의 예언자(마호멧)는 거부하는 기독교와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와 세계 곳곳에 인류의 은인이며 초인간이며、 암흑에 광명을 주어 인간의 도덕 수준을 향상시킨 발광체(發光體)가 보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다만 필요와 정신적 향상에 의거해서 보내졌을 뿐이며、 똑같은 우주적 종교의 성분을 구성한 것이다。 쿠란에 「그리고、 진실로 너희들의 종교는 한가지 종교이니라。」고 하였다。 신의 계시에 의해서 마련된 이 방법은 창세기 때부터 비롯해서 수없는 세대(世代) 동안 계속되었고、 예언자의 뒤를 이어 예언자가 출현하여 이 사명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급기야 전지전능한 신은 시대와 민족과 국가에 따라 예언자를 보낸 과정은

은 거의 모든 무슬림 신학자들이 무가치한 것으로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소치이다。와키디가 전했다는 하디스는 전혀 그 권위를 인정치 않으며、성실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정통파 이슬람의 사대파(四大派)의 하나인 이맘 샤피 역시 와키디의 저서는 거짓 덩어리라고 말하였다。그런데 그의 하디스 학자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서구 저술가들은 하디스를 오도(誤導)하고 이슬람 교를 중상하는 자료를 이와 같은 소스에서 가져오고들 있는 것이다。

7 하디스의 필요성

신이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축복을 내려 주고、인간에게 조물주(造物主)를 알게 하여 받은 복에 보답하도록、신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에게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고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신은 인류 속에서 사자(使者)를 선택하여 자기들의 말을 실천케 하고、복음(福音)의 실천 가능성을 시범하여 추종하도록 하였다。사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때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신에 의해 선출된 사자들은 비범한 인격과、경전함과、정의감의 소유자였다。사자의 출현은 창세기 때부터 비롯했으며、사자 서열상(序列上)의 시조(始祖)는 온 인류의 어버이인

이맘 부카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그는 六만 장의 하디스에서 四천 장을 선정했는데、이것은 위조가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그러나 적절한 조사 연구도 없이 성급히 내린 결론으로서、이맘 부카리의 선정 기준과 삭제 원인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一장의 하디스 보고자가 五〇〇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따라서 하디스 수를 五〇〇장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있으나 선정에 있어서는 一로 계산하였다。가령 아부 후레이라는 八〇〇명의 제자를 거느렸는데、이들에게 一의 하디스를 읽어 주고 각자 암송케 할 때 각각 八〇〇명의 진술자로 계산됐으나、서로가 실질적으로 확증하였는지를 인식케 하였다。서구 비평가들은 유태인과 기독교인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전혀 종교적 성격의 것이 아닌 사건 따위를 하디스에 결부시키기도 했다。

당시 고담가(古談家)와 이야기꾼들이 옛 이야기로 민중을 모아들여 밥벌이를 하는 패거리들이 많았는데、칼리프는 이들의 과장벽(誇張癖)을 경고하곤 하였다。이들은 가령、길 이쪽 끝에 한 사람、저쪽 끝에 한 사람씩 서서、이쪽에선 칼리프 알리(제四대 칼리프)를 추켜올리는 이야기를 부르짖고、저쪽에선 아부 바크르(제一대 칼리프)의 찬미를 외치면서、각각 분파(分派) 교도들의 마음을 사려는 수작을 꾸며서 돈벌이를 한 다음、해질 무렵에 서로 번 돈을 합쳐서 나누어 가졌다。이러한 이야기꾼은 물론 하디스 전달자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서 와키디(Wakidi)의 이야기를 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이 자는 전기작가(傳記作家)이며 소설가인데、서구 저술가들이 하디스 비평의 권위로 보고 있으나、이것

알프레드 귈라움(Alfred Guilaume)은 그의 저서 「이슬람(Islam)」에서 「이맘 말리크와 당시의 하디스 편찬자들은 예언자 마호멧의 언행(하디스)보다 마호멧의 교우들의 하디스를 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맘과 교우들은 예언자의 참된 하디스와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면 자기들의 하디스를 말소하고 예언자의 참 하디스를 택한 고증(考證)에 비추어 보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법률의 제공자이며 신의 지침(指針)을 가르쳐 준 것은 예언자였지 예언자의 교우나 이맘이 아니었음에랴。 그들이 어찌 스승을 앞지를 수 있으랴。

윌리암 뮤이르(Sir William Muir)경는 그의 저서 마호멧의 생애(Life of Muhammad)에서 「하디스는 이슬람의 전사(戰士)들이 싸움이 없을 때 한가롭게 들어앉아서 마호멧의 말(하디스)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전혀 딴 것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슬람의 용장(勇將)들이 보고한 하디스는 전혀 없다는 사실(史實)이 그 반론이 되겠다。

그런가 하면、 무슬림은 하디스의 사학적 업적에 자부심을 가져 마땅하다고 격찬하는 서구 학자들도 많이 있다。

뮤이르와 귈라움과 같은 서구(西歐)의 이슬람 저술가들이 비평을 거듭하는 것 중에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하디스에 위조가 너무도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곤란하고、 권위라곤 전혀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유포(流布)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관용어、구문법(構文法)、사전(事典) 편집을 보존했었다。그들은 경건하고、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篤信者)이었으며、예언자 마호멧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할 경우(하디스를 위조할 경우) 자기들의 갈 곳은 지옥이라는 신앙에 산 사람들이었다。그들은 티끌만한 결함도 없었던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고、역사는 또한 당시의 아랍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보존한 그 배분의 일이라도 한 국가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깁브(H.A.R.Gibb)는 그의 저서「마호멧교(Mohammedanism)」에서 하디스 편찬자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서구 학자의 눈에는 하디스 편찬자들이 하디스 전달자의 권위의 연쇄를 조사하여 편찬기준으로 한 하디스 비평의 기술은 일대 결점으로 보인다。위조자들이 하디스의 전반부(Isnad—진술자의 소급 연쇄)를 날조하기란 용이한 일이었다는 것이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위조자들이 성실하고 덕망있는 학자들에게 위조 하디스를 용납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믿는 말이다。무슬림 하디스 비평가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독신자(篤信者)라야 인정받았다。

서구 비평가 중에는 후기 중세 무슬림 스카라 철학의 인위적 창조를 지적하여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논쟁을 하고 있으나、이것과 하디스 문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무슬림 하디스 비평가는 전적으로 형식적인 이스나드 자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평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公布)하기에 앞서 하디스 전달자를 먼저 따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디스의 진부(眞否) 판단에는 쿠란이 그 원전(原典)임은 두말할 것 없으며、 마호멧도 자기의 말(하디스)은 신의 말씀(쿠란)을 훼손하지 않으며、 만일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자기의 말은 과감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하디스의 진부 판단 기준에는 이 밖에도 또 한 가지가 있다。 즉 하디스의 용어(用語)는 마호멧이 쓰던 말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말을 써야 하는「언어의 순수성」이 그것이다。 마호멧이 쓰던 말은 딴사람이 쓴 말과는 분명히 판이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아라비아 문학자들이 명확히 구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또 하나의 기준은、 사실(史實)을 뒷받침하는 하디스의 확인이었다。 하디스의 이성(理性) 판단、 다른 하디스와의 연관적 확인、 광범위한 유포(流布)、 제三、 제四의 믿을 만한 전달자들에 의한 반복(反復) 여부의 조사 연구가 그것이다。 하디스에서 허위성을 제거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모든 사전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디스의 편찬은 전적으로 날조라는 서구 비평가들의 비난은 순전히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일삼는 편견이므로 지양해야 할 일이다。 비평은 진실에 입각해야 하며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아랍어 및 그 문법(文法)、 법(法)의 원리가 아직도 원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당시에 학자들이 경탄할 만한 정밀성(精密性)으로 방대한 하디스 문학을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시켰다는 것은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하디스 편찬자들은 지금으로부터 一三〇〇 년 전에 이미 하디스뿐만 아니라 아랍어 및 그

유무(有無 및 신빙성 여부를 비평적 태도로 수록했다。

그러、진술자의 소급(遡及)이 멀면 멀수록 그 신빙성을 가려 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하디스 진술자의 자격 심사를 엄밀히 하여서 인격면에서 만족할 만한 진술자만 택하고 나머지는 거절하였다。 하디스 진술자의 자격 심사의 엄격성은、비무슬림 비평가에게 하디스 편찬자들은 하디스 전달자의 연쇄(連鎖) 여부에만 조사를 국한하고 하디스의 주제 연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정도였다。

그 일례로서 니콜라스(Nicolas P.Aghnides)는 그의 저서「무슬림의 재정학(財政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디스 편찬자들은 내용(主文)은 전적으로 등한시하고 예언자에까지 소급(遡及)하는 하디스 전달의 연속성(連續性)에만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다。하나의 하디스를 채택해서 수록할 경우 전달자의 연속이 중단되지만 않으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공포(公布)했다。」

그러나 모든 하디스를 주제(主題)와 아울러 연구하였음에 비추어 보아、이와 같은 견해는 진실에서 먼 얘기인 것이다。 모든 하디스는 Isnad(遡及)와 Matan(主文)의 두 부분이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하디스의 전반부(遡及)만을 발굴해 내고 후반부(主文—즉 내용)를 등한시했다는 견해는 어불성설이다。 하디스 박사(博士)들이 하디스의 전반부에 우위를 둔 것은 의심할 바 없는데、이것은 하디스 전달자들의 진실성이 엄격히 입증되면 하디스의 왜곡(歪曲)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자연히 하디스의 내용도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하나의 하디스를 수록(收錄) 공포

⑥ 이맘 무슬림(Imam Muslim 204—261 AH)

이맘 무슬림의 하디스 편찬은 북하리 다음가는 정확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북하리의 뒤를 밟은 그는 九二〇〇의 하디스를 선집(選集)하였다。

⑥ 비무슬림의 하디스 평에 대한 해명

하디스 편찬자들이 우선 여러 소스로부터 수집해서 진본(眞本)과 위본(僞本)을 구별하는 엄중한 규칙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은 전장(前章)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독신자(篤信者)이고 덕망이 높고、 성실하고、 마호멧 별세(別世) 후 그의 모든 자질을 계승한 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느니보다는 목숨을 던지기를 택한 사람들이었다。 지배 계급의 영향을 물리치고、 관직(官職)에 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 사회의 의무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마호멧이 제정한 규칙 그대로를 굳게 지켰다。 따라서 그들은 집권자의 피치 못할 적이었다。

그들 하디스 편찬자들은 하디스 기록에만 그치지 않고、 하디스 진술자의 전기와 가치의

그리하여 그는 선정된 七二七五장에서 중복을 제외한 二七六二장을 편찬하였다。 이것을 「북하리의 하디스」(Sahih al-Bukhari)라 한다。 一六년을 걸려서 완성했으며、 이슬람 학자들은 「쿠란 다음가는 지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성실한 책」이라는 찬사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의 문하(門下)에는 九만 명의 학도(學徒)가 있었다。 그는 사마르칸드(Samarkand) 근방에 정착하여 六二세에 사망했다。(256 AH 서기 870)

북하리의 하디스(Sahih al-Bukahri)는 다음의 九七권으로 분류된다。

계시、 신앙、 지식에 관한 장	3 권
소정(小淨)、 예배、 회사、 순례、 단식에 관한 장	30 〃
상거래、 고용 조건(雇傭條件)、 법적 문제에 관한 장	22 〃
성전(聖戰、 Jihad)에 관한 장	3 〃
예언자의 생애、 메디나 성천(聖遷)에 관한 장	4 〃
메디나에서의 예언자에 관한 장	1 〃
쿠란 귀절 해의(解義)에 관한 장	2 〃
결혼、 이혼、 및 해당 문제에 관한 장	3 〃
음식、 음료、 의복、 행위、 서약、 박해 및 말세(末世) 전의 시련에 관한 장	27 〃
쿠란과 전승(傳承)에 관한 장	1 〃
신의 유일성(唯一性)에 관한 장	1 〃
합계	97 권

그는 때로는 단 一장(章)의 하디스를 보유하고 있는 어느 특정인을 만나보러 수배 마일을 여행했다고 한다。 그러나、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그 사람은 빈 사료(飼料)통을 들고 모이를 먹으라고 말을 부르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사람의 기만(欺瞞) 행위를 목격한 북하리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는 만나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모두 천 명이 넘는 학자들을 만나보았다 한다。 그는 하디스 선정에 있어 위대한 비판력을 보여주었고、그 편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하디스 전달자의 「소급(遡及)」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멀고도 오랜 세월의 고행을 감수 한 다음 비로소 一장(章)의 하디스가 수집되었다 하자。 그러면 그는 소정(小淨)을 하고 예배를 올리어 신의 도움과 지도를 구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一장의 하디스를 편찬에 삽입하였던 것이다。

그는 구전(口傳) 하디스에서 결점을 찾아 내는 통찰력이 비범한 점에서 이름이 있었고、모든 전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여야 하며、 또한 전달자의 연쇄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하디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하리는 六〇만 장을 수집한 중에서 二二만 장을 암기하였는데、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인정되는 七二七五 장만을 채택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나머지는 정본(正本)과 위조(僞造)가 혼합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전달자들에 의한 중복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예언자 마호멧은 말했다。〈행동은 동기(動機)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한 하디스는 七〇〇회나 중복되어 있었다。

이맘 한발은 당대의 집권자에게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음으로 해서 옥사(獄死)하였으며, 그의 장례식에 운집한 二만 명의 유태교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에 입교했다 한다.

⑤ 이맘 북하리(Imam Bukhari, 194—256AH)

이상의 정통과 사대 분파(四大分派)의 창시자들에 의한 하디스 편찬 외에 다음의 二대 편찬자의 것이 있다. 이맘 북하리와 이맘 무슬림의 하디스 편찬이 그것이다.

이맘 북하리의 원명(原名)은 Muhammad Ibn Ismail Abu Abdullah Al-Dufi 며, 서기 八一○년 七월 二一일 북하라(Bukhara) 지방에서 출생하여 서기 八七○년 사망했다. 어린 시절에 부친을 여의고 편모(偏母) 밑에서 자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뛰어나게 영리하고 기억력이 강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하디스를 필기(筆記)하지 않고 모조리 암기하여 학우들의 틀린 필기를 고쳐 줄 정도였다. 十一세 때 신학자 집회에서 하디스 낭송자(朗誦者)의 틀린 곳을 수정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十六세에 그는 하디스 학사(學士)가 되었다. 十八세 때에 「예언자의 교우 판정론(判定論)」이라는 저서를 내었다. 스승들은 그에게 모든 권위있는 하디스를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을 이구동성으로 권장하였다. 그는 경모(敬慕)해 마지않는 예언자 마호멧의 꿈을 꾸었는데, 식자들은 이를 해몽하기를, 그가 하디스의 정본(正本)과 위조(僞造)를 식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사명에 전심 전력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며, 하디스의 지식 탐구와 수집을 위하여 근 四○년간 무슬림 세계를 샅샅이 여행하였다.

다。샤피 파의 창시자인 이맘 샤피는 쿠란과 하디스 지식에 있어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七세에 쿠란 전권(全卷)을 암송하였고、一〇세에 이맘 말리크의 하디스(즉 Muwatta)를 암기하였다 한다。이맘 말리크의 제자로서 후일 스승을 능가하였고、그의 제자 중에서 한발리 파의 창시자인 이맘 한발(Imam Hanbal)을 배출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효(有効)한 하디스와 취소된 하디스의 구별을 할 줄 몰랐었다。이맘 샤피는 하디스 판결 기준의 균형과 온전한 학설로 이름이 높았으며、최초로 하디스 판정 기준의 원칙론(原則論)을 기술하였다。

샤피 파는 오늘날 남부 아라비아、이집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인도와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 널려 있다。

④ 이맘 아마드 이븐 한발(Imam Ahmad Ibn Hanbal, 164—241 AH)

한발리 파는 서기 七八〇년 바그다드에서 출생하여 서기 八五五년 사망한 이맘 한발에 의해서 창시되었으며、이 파는 샤피 파의 반대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맘 한발은 이맘 샤피의 제자 중에서 가장 독신자(篤信者)이고、덕망 높은 학자였다。그는 一七년간、육욕 생활(肉慾生活)을 버리고 고행 수도(苦行修道)했다。그는 마호멧의 七〇〇명의 교우들이 전하는 하디스 백만 장(章)을 항목별로 전달하였다。한발리 파는 오스만 제국의 정복 이전까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강세를 폈었다。一八세기 초엽 와하비 파(Wahabism)의 이름으로 재활(再活)하여 오늘날 중부·북부 아라비아를 지배하고 있다。

정통파인 순니는 四파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하나피, 말리키, 샤피, 한발리가 그것이다。이 정통파의 四파에는 이슬람교의 기본적 교리와 계율면에 있어서는 하등의 상이점이 없고, 다만 쿠란 해석학상(解釋學上) 四파로 나뉘어진 것이다。 하나피 파는 쿠란에 법칙이 명문화(明文化)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슬람법학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성으로 쿠란을 해석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② 이맘 말리크 이븐 아나스(Imam Malik Ibn Anas, 95—179 AH)

말리키 파(Maliki School)의 창시자인 그는 메디나에서 태어났다。 말리키 파는 하나피 파에 대립되는 一파로서, 이성(理性)을 배척하고 어디까지나 구전(口傳)에 의한 기록에 준할 것을 주장한다。 이맘 말리크와 제자들은 법학의 기초를 세웠고, 또한 샤피 파를 창시한 이맘 샤피를 배출하였다。「무왓타(Muwatta—平行路)」라 불리는 최초의 하디스를 편찬하였다。 이것은 또한 최초의 이슬람 법의 집대성이기도 하다。 말리키 파는 오늘날 북부 및 서부 아프리카와 상부 이집트에 많다。

③ 이맘 샤피(Imam Shafi, 150—204 AH)

샤피 파는 서기 七六七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법학자 도사(導師)인 이맘 샤피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이맘」이란 「도사(導師)」의 원어) 이 파는 이슬람 법학의 원리를 창시하였으며, 쿠란 해석(解釋)에 있어서 일정한 문리·해석(文理解釋)으로 유추(類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언자 마호멧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사랑에서 역시 추종되고 있는 것이다。

⑤ 저명한 역사적 하디스 편찬자들

① 이맘 아부 하니파(Imam Abu Hanifa, 80—150AH)

그는 자신이 하디스를 편찬하지 않았고、「무스나드」로 알려져 있는 하디스는 그의 제자들이 수록한 것이다。 그는 이슬람법학의 위대한 권위이고 「하나피 파」(Hanafi School)의 창시자이다。 그의 종교법학 사상은 높은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나피 파는 오늘날의 파키스탄、인도、이라크、터어키、남부 이집트에 널려 있다。

여기서 이슬람교의 분파(分派)를 잠깐 알아보기로 한다。

이슬람교는 「순니」 즉 정통파(正統派)와 「시이아」 즉 분리파(分離派)의 둘로 대별되는데、오늘날 전세계 이슬람교도의 九〇% 이상이 「순니」이며 약 八%가 「시이아」이다。 지금의 이란、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이 시이아에 속한다。 정통파와 분리파의 상이점은 여기서 취급하지 않겠거니와、이 이대 분파(二大分派)는 신앙 조항에 있어서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특히 교권 상속 문제로 하여 분파를 이루고 있다。

쿠란 귀절과 모순되거나、혹은 잘 알려져 있는 하디스 귀절과 위배될 경우、또는 마호멧의 교우들에 의해서 폐기 처분된 것이 섞여 있는 것은 수락되지 않는다。 예언자 마호멧은 말하였다。「자기의 말은 신의 말씀을 말소(抹消)하지 못한다。 자기의 말은 경전의 해석이고 해설이다。」라고。

이성(理性)과、이슬람법에서 잘 알려져 있는 원리원칙에 모순되는 하디스도 거절된다。 예를 들면、사소한 과실에 대한 중벌(重罰)이라든가、무의미한 덕을 과장하여 높은 보상을 받는다고 진술한 따위는 하디스로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과 관계되는 말이 쿠란에 있는데、「쿠란의 몇 귀절이라도 읽는 자에겐 크나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느니라。」고 되어 있다。

예언자、예언자의 가족、예언자의 교우(敎友)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난을 일삼는 따위의 것은 하디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품위없는 말과 부도덕한 어휘를 사용한 비아랍식 하디스 또한 수락되지 않는다。

하디스는、하디스의 용어(用語)나 양심은、수락될 만한 전달의 양식을 추종함이 기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예언자 마호멧이 쓴 바로 그런 말과 마음과、내용만을 썼는지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법률의 힘을 갖지 않는 예언자 마호멧의 행동만을 보고한 하디스는 의무적 이행 사항은

었다。

하디스 학자가 무엇보다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하디스 전달자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시험과 지식이었다。 또한 진술자에 대한 지식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디스 편찬의 필요성으로 하여 기준을 연구 조사、체계화하는 하디스의 학문이 발생하였던 것이고、많은 학자를 배출하면서 발전해 갔다。

하디스 진술자는 법률을 공부한 이름있는 사람일 경우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하디스 진술자가 이름있는 인물일지라도 법률가로 평가되지 않고、하디스 전달자의 권위와 신빙성 판단 기준에 어긋날 경우、그가 전달하는 하디스는 수락되지 않았다。

또한 하디스 진술자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인지 분명치 않을 경우에、그가 전하는 하디스로서 마호멧의 교우(敎友)들이 살아 있었던 시대나 또는 그들의 계승자들이 살아 있었던 시대에 공인되지 못한 것은 수락되지 않는다。

한편、하디스 진술자의 연속(즉 소급)이 끊어진 것일지라도、예언자 마호멧의 교우들에 의해서 진술된 것은、교우들의 높은 인격과 정확성에 대한 그들의 배려로 하여 모든 학파(學派)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제三기 이후에서 진술자의 연속이 끊어져 있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진술자의 연속이 없는 단일 진술자의 하디스는 일반성이 없으므로 제외된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 권위자의 연속은 완전하더라도、진술자에 가해지는 조건에 불만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 그 진술자가 전하는 하디스는 거절된다。

빙성 여부를 검토해야만 되었던 것이다。(여기에 「그의 부모」까지 검토해야만 되었다고 했는데、이 풍습은 지금도 무슬림은 성명이 「아무아무개의 아들(딸) 아무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예를 들면、압둘라 빈 우마르의 성명을 분해하면 우마르의 아들 압둘라라는 이름인 것이다。우마르는 제二대 칼리프 우마르이므로、그의 아들 압둘라라는 이름이다。압둘라는 알라의 종(Servent of Allah)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기억력의 신빙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기억력이 좋아야 할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해서 그것을 진술한 때 정확하게 재생(再生)해야 됨을 뜻하는 것이다。또한 그는 학자라야 한다。죄진 일이 없어야 하고、거짓말 한 일이 없어야 하고、위증(僞證)한 일이 없어야 하고、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야만 한다。하디스 진술자의 말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그의 종교적 신앙심과 경향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그의 불편부당(不偏不黨)、진실성을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가령 하디스 진술자가 또 하나의 진술자로부터 이것을 들은 것이라고 말한다면、만났음직한 가능성과 만난 사정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이것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압둘라 빈 마수드(마호멧 사후 제一세기의 유명한 하디스 진술자의 한 사람)가 시핀(Siffin) 전장에 관계되는 마호멧의 말 즉 하디스를 구전(口傳)했을 때、이것을 하디스의 전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는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이니까 말이다。이와 같이 하디스 진술자가 살아 있었던 연월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하디스의 토론과 일상 생활에 하디스를 인용하는 풍조가 습관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하디스의 순환(循環)과 생활화 속에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특정 하디스의 진부(眞否)에 관한 질의(質疑)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하디스의 진술은 그것이 예언자 마호멧 별세 시기와 가까운 시기의 것일수록 진본 판정(眞本判定)에 유리한 가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이는 그것을 입증하는 교우들이 생존했었던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음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독신자(篤信者)였고 훨씬 미더운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二세는 三세보다 독신자였고 훨씬 미더운 사람들로 여겼다。 따라서 하디스의 보고자들이 살아 있었던 시대는 앞에서 말한 질의(質疑)를 결정짓는 데 큰 의의를 가졌다。

하디스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제一의 기준은、믿을 수 있는 권위의 단절 없는 연속、즉 「소급(遡及—Isnad)이었다。 하디스의 입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점점 신뢰도를 더해 가는 것이었다。 이슬람 법학자들은 고절(孤絕)된 하디스에 대해서는 그 법적 권위를 인정하기를 꺼려하였다。 하디스 진술자의 증언은 근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만 인정받았는데、그 조건은 매우 무거운 것이었고、엄격한 조사를 거쳐야만 했다。

진본(眞本) 하디스의 수락 선행 조건은 하디스 진술자의 티없는 인격이었다。 여기에 하디스 진술자의 고매(高邁)한 인격을 판정함에는、그의 부모、직업、성실성、특히 기억력의 신

이다。 참고할 만한 그 어떤 전례나 지도를 구할 길도 없었고、 인쇄술과 출판술(出版術)이 유치했던 시대에 이 연구를 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이상스러울 게 없으니、「인간 마호멧」에 대한 사랑과 흠모가 하디스 연구의 정신적 원천이었던 것이다。

④ 하디스의 학문

「하디스 학문(Ilm al-Hadith)」은 도덕의 규범과 이슬람법을 구성하는 가장 찬란한 이슬람 학문의 하나이다。 하디스의 학문은 그 뒤를 따라 역사(歷史)、 전기(傳記)、 지리、 사전 편찬(事典編纂)、 고대 아라비아 시문학 대집(詩文學大集)과 같은 아라비아 문학의 발상과 발달을 초래하였다。 외국의 과학도 약학(藥學)、 철학(哲學) 분야에서 하디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이지 쿠란과 아울러 하디스는 압바스(Abbase) 시대 아랍인의 모든 과학 활동의 기초였음은 서구 학자(西歐學者)들도 인정하고 있다。 기억력과 구전(口傳)에만 의존해 왔던 하디스를 후세를 위하여 보존해야겠다는 의식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헌신한 무슬림이 많았음은、 그들이 단 一장의 하디스에 관한 연구 조사를 위해 一년이 걸리는 먼 곳도 마다않고 여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말했거니와 마호멧

지 연쇄적으로 소급되는 하디스를 말한다。

⒀ 지체(遲滯)된 것——하디스를 전한 마호멧의 교우에까지 소급되는 하디스。

⒁ 족(足)한 것——교우들의 후계자에까지 소급되는 하디스를 말한다。

⒂ 동의(同意)된 것——이는 가장 믿을 만한 하디스 편찬자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二대 하디스 학자인 이맘 북하리와 이맘 무슬림에 의해서 수락되고 동의를 얻은 하디스를 말한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분류 기준이 많이 있으나 지엽적(技葉的)인 것의 번잡을 피하기로 한다。

말해 둘 것은、「하디스의 분류」는 하디스 학자들에 의해서 하디스의 순위 및 신빙도의 등급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디스의 하나하나를 이와 같이 엄격하고 예리한 비판적 태도로서 시험한 연후에 비로소 선정하여 편찬에 삽입했다는 것은、그것도 현대와 같은 비판 방법과 과학적 경험이 없었던 一〇〇〇년이 넘는 옛날의 일이었다는 것은 경탄해 마지않을 일이라 하겠다。오로지 성실과 신빙성에 기준해서 하디스를 수록했음은 빛나는 업적이 아닐 수 없다。참다운 진리를 발견함에 있어 진리에 어긋나느니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잃기를 원했던 그들이었다。그들은 정치 세력이나 통치자의 권력에서 초연(超然)하여 이 「하디스 보존의 과학(科學)」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한 연구에만 전심 전력하였고、존경해 마지않을 성공을 거둔 것

위의 분류 외에、 진술자의 연쇄(連鎖)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다른 분류법이 있다。

(1) 연속된 것——즉 진술자가 중단되는 일 없이 연속되어 있는 배경을 가진 「하디스」。

(2) 중단된 것——시초의 진술자가 빠져 있는 하디스。

(3) 불완전한 것——맨 끝의 진술자가 빠져 있는 하디스。

(4) 익명(匿名)인 것——一명 이상의 진술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하디스。

(5) 파손된 것——하디스 소스 소급(遡及) 중간에서 一명 이상의 진술자의 이름이 없어진 하디스。

(6) 난처한 것——즉 중간에 와서 二명의 진술자의 이름이 없어진 하디스。

(7) 임의로 발명해 낸 것——조작의 혐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히(Sahih)에 반대되는 것이다。

(8) 폐기된 것——하디스 진술자가 하디스 진술 외의 일로 해서 허위죄(虛僞罪)로 고발된 사람이 전하는 하디스。

(9) 고발된 것——하디스를 진술함에 있어서 많은 과오를 범했고、 주의력이 산만하고、 기억력과 청취력이 불완전한 사람이 전하는 하디스。

(10) 축복받은 것——이는 (4)항과 정반대되는 하디스를 말한다。

(11) 모순되는 것——이미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있는 하디스의 내용과 모순되는 하디스。

(12) 고귀한 것——하디스 전달 경로에 불완전함이 없고 하디스 소스가 예언 자마호멧에까

따라서 분류해야만 되었다。 수집된 하디스라 해서 다 동등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므로 무슬림 학자들은 이를 이스나드의 완벽성과 전승자의 신뢰도(전승자의 인격、 덕망、 신앙심、 그리고 허언자(虛言者)가 아니라는 조사 연구 등으로)에 의거해서 분류하고、 주제별로 제목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다。

무슬림 주석자(註釋者)들은 하디스의 광의(廣義)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1) (신의 계시를 복합해서 한 말이 아닌) 순전한 예언자의 말。

(2) (신의 계시를 참조해서 한) 예언자의 말。

하디스를 조사(調査)에 입각해서 분류할 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사히(Sahih) 즉 「전전한 것」 가장 신빙할 수 있는 하디스。 이는 기억력이 나무랄데 없이 완전무결한 진술자에 의해서 전달된 것을 말한다。

(2) 하산(Hasan)——우수하나 제一분류보다 그 신빙성이 「약한 것」。 이는 그 「소급(遡及)은 완전하지만、 한 가지의 결점을 가진 것으로서、 그러나 또 하나의 똑같은 귀절에 의해서 확인되고 전체 보고에 동의가 가는 것을 말한다。

(3) 다이프(Da'eef)——즉 신빙성이 「약한 것」。 진술자의 연쇄성이 불완전함으로써 신뢰도가 적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신빙성이 적은 하디스를 가려 내는 여러 등급이 있다。

여기의 「전전한 것」과 「우수한 것」은 이슬람의 기본법으로 수락되지만、 「약한 것」은 도의 교육용(道義敎育用)으로는 수락되나、 법의 기원(起源)으로는 수락되지 않는다。

③ 하디스의 분류

하디스가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은, 예언자 마호멧의 인격에 대한 심오한 감명이 후배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의 일상 생활의 언행(言行)을 자세히 수집해서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예언자 마호멧에 대한 교우(敎友)들의 사랑과 헌신은 크나큰 것이어서 예언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밀히 모방하는 것을 그들의 종교의 일부분으로 삼을 정도였다。 가령 예언자가 내의의 단추를 빼 놓은 것이 교우들 눈에 띄었다고 하자。 그러면 교우들도 이와 똑같이 하였던 것이다。 예배 때 예언자가 잠시 몸을 비스듬이 하고 앉았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도 이와 똑같이 반복했다。 가령 예언자가 소정(小淨)을 한 물이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은 앞을 다투어 나머지 물을 마치 귀중품 다루듯 받아들고는 축복으로서 얼굴에 바르는 것이었다。

전장(戰場)에서는 교우들이 예언자 마호멧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방위(防衛)하여 그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예언자 마호멧에 대한 교우들의 헌신은 수없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예언자 마호멧에 대한 교우들의 사랑과 헌신이 하디스를 수집케 했던 것이며, 수집되는 하디스의 수가 나날이 많아져 감에 따라, 이를 그 신빙성의 농도와 등급에

냐〉고 물으니, 마호멧 이르되 〈이슬람은……이니라〉」 따위도 이와 같이 예언자 마호멧에게로 귀착하는 권위있는 증인을 연결, 소급(遡及)함으로써, 마호멧의 말인 주문(主文)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디스 수집자와 이스나드의 부분에 열거(列擧)한 인물의 신용도(信用度)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슬람 문학에 친숙할 기회가 적었거나 이슬람을 오해(誤解)하고 있는 우리 나라 비(非)무슬림의 실정에 비추어 비무슬림의 이슬람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또 우리 나라 무슬림의 하디스 공부의 편의를 생각해서, 여기에는 「마호멧의 말」인 주문(主文)만을 수록 편찬하는 바이다. 사실이지 오늘날 이슬람 국가의 하디스 인용의 예를 보더라도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는 주문만을 수록하는 경향이 많다.

하디스는 마호멧의 산 초상화(肖像畫)다. 우상 파괴(偶像破壞), 우상 숭배 배격에 입각해 있는 이슬람교이니만큼, 예언자 마호멧의 초상화나 우상이 후세에 남아 있지 않은 터에 하디스는 마호멧의 산 초상화일 만큼 하디스에 수록된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인간 마호멧」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 주고 있다.

그려면 여기서 하디스 서술 양식의 요점을 알아두기로 한다。

하디스에는 늘 최초의 보고자——원진술자(原陳述者)의 이름이 나온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① 성(聖) 아나스(Anas)는 예언자(마호멧)의 권위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이르되 「형제 사랑하기를 제몸 사랑하듯 하지 않는 자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니라。」(북하리 편(編) 하디스 2:6)

② 성 아부 후레이라(Abu Hurairah) 이르되 「알라의 사도는 말하였다。 〈신자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완벽한 신자는 도덕(道德)이 탁월한 자이니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내에게 친절한 자이니라〉」(티르미디 편 하디스 10:11)

③ 성 미크담은 보고하기를 「알라의 사도는 말하였다。 이르되 〈자기 손수 한 일로 먹는 자보다도 훌륭한 음식을 먹는 자 없느니라〉」(북하리 편 하디스 34:15)

이와 같이 하디스는 전거(典據)의 연속인 이스나드(Isnad—「遡及」)와 주문(主文) 마튼(Matn)으로 되어 있다。 아랍어의 하디스는 긴 이스나드가 선행(先行)하고 주문은 말단에 놓여진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경우 아랍어식 배열의 순서와 반대가 된다。

하디스의 문체(文體)의 일례를 들어 보면, 「〈예언자가……라고 하였다〉고 모인(某人)이 모인에게 모인이 전했다」라든가, 혹은 「〈모인이 예언자가……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모인이 모인에게서, 모인이 모인에게서 들었다」하는 따위다。 또는 「모인이 〈이슬람은 무엇이

가지 보조 학문이 고안(考案)되어 쿠란 해석학의 발생과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쿠란 해석학(解釋學)의 발전이 곧 이슬람 신학(神學)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디스는 이슬람법과 이슬람 법리학(法理學)의 발달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서 쿠란 해석학이 필요하였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쿠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난점이 있을 경우에 예언자 마호멧의 말, 행위, 제三자의 행위에 대한 마호멧의 묵인(默認) 등의 내용을 수록한 하디스에다가 문제 해결의 근거를 두게 된 것이다.(이것은 이슬람 법에 기반을 둔 현대 이슬람 제국(諸國)에 있어서 지금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하디스는 쿠란 해석의 제一 보조물로서 쿠란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권위가 인정되게 된 것이다.

하디스의 수록(收錄)은 또한 「전기술(傳記術)」의 발생 계기가 되었다.

하디스 과학(科學)의 제一 필수 조건은 하디스 전달자에 관한 전기의 자료 수집에 있었는데, 이것이 학문(學問)의 새 분야를 개척하였고, 전기 자료의 수집은 전기 사전(傳記事典)의 체재를 갖추게 됨으로써 마호멧의 교우(敎友)와 학자들에 관한 웅대한 문학을 산출하였다. 이 「전기 사전」은 마호멧 별세 후의 「제一대 무슬림」 즉 「예언자의 교우의 이야기」(The Story of Sahaba, Sahaba는 「교우(敎友)」라는 뜻이다) 「제二대 무슬림」 즉 「교우(敎友)들의 제자들」, 「제三대 무슬림」 즉 「교우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등등의 서열로 분류했다. 이때가 하디스 문학의 전성기였다.

리(Sahi al-Bukhari)라는 책으로 편찬해서 후세에 전해 줌으로써, 학자의 양심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의 유업(遺業)은 이맘 무슬림의 사히(Sahih)로서 계승되었으며, 三만 장에서 九二〇〇 장이 수록되었다. 이 二개의 사히가 차지하는 지위는 쿠란 다음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학자들의 다음 세대에 와서 四대 수난(Four Sunans)으로 알려져 있는 아부 다우드(Abu Dawood AH 275 사망), 터어미디히(Tirmidhi, AH 279 사망), 나사이(Nasa'i AH 303 사망), 이븐 마자(Ibn Majah AH 295 사망)가 있다.

앞서 말한 「二대 사히」와 이 「四대 수난」을 일컬어 〈Sahih Sittah〉 즉 「신빙성이 인정된 六대 하디스」라고 한다. 또한 이 시대를 하디스 문학의 황금 시대라고 한다.(Sittah는 6의 아랍 발음이다)

이슬람 법의 한발리 학파(Hanbali School of Islamic Law)의 창시자인 이맘 아하마드 한발(Imam Ahmad b. Hanbal AH 241 사망)도 이 시대의 학자다.

이슬람 교도(무슬림)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하디스의 진부(眞否) 판단에 적용한 선정 기준과 기본 여건에 대하여 친숙해야만 한다.

쿠란을 교리(敎理)와 계율(戒律)별로 연구하여 이의 조직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는 것이 여사의 진리인 것처럼, 이러한 시대에 이맘 북하리 Imam Eukhari 869 CE—AH 256)가 나왔다。

'성 쿠란 다음가는 가장 신빙성 있는 책은 「북하리의 하디스」라고 인정되고 있을 만큼 그의 하디스는 중요하다。 그는 一장의 하디스를 수집하기 위하여 멀고도 오랜 세월을 여행하여 찾아가서 그 소스를 확인할 만큼 성실하였고, 이렇게 해서 수집한 一장의 하디스를 수록하기에 앞서, 목욕하고 예배를 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하디스를 써서 수록하였다。 이맘 북하리는 「논난(論難)과 정당화」라는 비판, 분석의 규칙을 확립하여 모든 하디스의 심의 기준으로 하였다。

동시대에 또한 이맘 무슬림(Imam Muslim AH 161 사망)이 있다。

이 학자들에 의해서 전승된 하디스에는 원래의 진술자까지 단계적으로 소급(遡及)하여 권위의 연쇄성을 입증하는 서문(序文)을 실었는데, 이 과정을 이스나드(Isnad), 즉 「소급(遡及)」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슬람 법」 즉 「샤리아」(Shariah)의 구성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 하디스 전승자의 도덕, 인격, 신앙심, 기억력을 면밀히 조사하는 연구 태도를 취한 학자도 있었다。

이맘 북하리는 모든 하디스를 예의 검토해서 수만의 하디스 속에서 가장 권위있는 것을 가려 내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가 응용한 원리 원칙은 하디스를 제목별로 다룬 점이다。 그는 六만 장(章)의 하디스에서 다만 七二七五 장을 선택하여 사히 알 북하

© 마호멧 사후 제三세기

제二세기 중의 하디스 편찬은 범위가 그리 넓지 못했다。 유명한 이맘 말리크의 하디스는 (Muwatta라고 함) 一七〇〇 장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 대부분이 예배、 단식(斷食)、 희사(喜捨)、 순례와 같은 「신앙의 실천에 관한 것」에 국한되었고、 예언자 마호멧의 인격、 도덕관、 전쟁관、 쿠란 귀절의 해의(解義)에 관한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주제를 총망라한 훨씬 광범위한 것을 편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맘 말리크의 하디스 수록——

이맘 말리크는 예언자 마호멧의 교우들의 제자로서 하디스를 공부하는 혜택을 누렸고、 후에 메디나의 예언자 성원(豫言者聖院)에 아카데미를 설립、 동쪽은 중앙 아시아와 서쪽은 스페인으로부터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제자인 야하(Yahya : 스페인 안달루시아 출신)가 스승 이맘 말리크에게서 배운 하디스를 수록하였다。(Muwatta라 불린다)

이 무왓타가 유포되자 무슬림 학자 간에 하디스 연구가 고조되고 하디스 문학 보편화(普遍化)의 신기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하디스의 위조(僞造)가 자행되는 추악상을 빚어 내기도 했다。 만약 이 타락의 현상이 오래 계속하였더라면 이슬람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무정부 상태로까지 악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는 위인(偉人)을 배출한다

람 학자들의 업적은 그리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확실히 가상(嘉賞)할 일이었다。만약에 이들「하디스의 박사들」이 각고의 탐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후세의 사람들은 하디스의 고귀한 보물을 영영 잃어버렸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하디스의 보존은 온 무슬림 세계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아유브 안사리(Ayyub Ansari)는 오직 하디스 한 장(章)을 입수하기 위하여 장장 메디나(아라비아)에서 애급까지 여행하였고、자비르 빈 압둘라(Jabir bin Abdullah)는 압둘라 빈 아나스(Abdullah bin Anas)한데서 하디스 한 장을 입수하기 위해서 一개월이 걸리는 여행을 했던 것이다。

Ⓑ 마호멧 사후 제二세기

마호멧 사후 제二세기의 시대에 와서 몇몇 유명한 하디스 학자가 배출되었다。많은 하디스 중에서 가장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六개를 치는데(이것을 Saheeh Sittah라고 함)、그 중 메디나 학파(學派)(Medinian School)의 창시자인 이맘 말리크(Imam Malik, AH179 사망)、하나피 학파(Hanafi School)의 창시자인 이라크의 아부 하니파(Abu Hanifa, AH 150 사망)、샤피 학파(Shafi School)의 창시자인 이맘 샤피(Imam Shafi, AH 204 사망)가 이 시대의 대표적 학자들이다。

와 제四대 칼리프 알리 사이에 정쟁(政爭)이 시작되자(정통파와 오늘날 이란의 시아파 간의 종파(宗派) 싸움을 말함) 각 파(派)가 자파(自派)의 방위를 위하려는 목적에서 하디스를 생산하는 불손(不遜)한 징후(徵候)를 보이게 되자, 마호멧이 한 말이 아닌 것을 마호멧이 한 말처럼 발명해 내거나 위조한 것을 정통 하디스에 혼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디스 학자들은 정본(正本)과 위조(僞造)를 가려낼 통제 방법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긴박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무슬림 제국의 판도(版圖)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거짓 하디스와 정통 하디스를 혼합하는 잡인(雜人)들이 생기게 될 전망이 많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회교 기원(回敎紀元) 一〇一년 덕망이 높은 주권자이며 신을 두려워하는 무슬림(참다운 이슬람 교도를 말함)인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Umar bin Abdul Aziz-101 AH)가 이슬람학자(Ulama)들에게 위촉하여 하디스 구전자(口傳者)에 관한 전기(傳記)의 자료 및 그들의 학설을 아울러서 연구 조사케 하여 하디스의 소스 발견에 대한 규칙을 세우게 함으로써 수배권의 책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마호멧 사후 백년째 되는 시대) 최초의 하디스 편찬자는 이븐 시합 알 주리(Ibn Shihab Al-Zuhri)였다。 그는 하디스 구전자의 전기、인격、성실성에 관한 고증(考證)과 함께 그 하디스 귀절의 요지를 함께 편찬하였다。

또 하나의 편찬자에 아부 바크르 이븐 하즘(Abu Bakr ibn Hazam)이 있다。 당시의 칼리프가 그에게 모든 정본(正本) 하디스를 편찬하도록 서한(書翰)을 보냈는데、이는 학자들이 죽으면 이 방면의 지식도 없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당시의 이슬

송자(吟誦者)는 암기력의 시험을 받은 다음 앉은자리에서 여러 시인들의 시 二九〇〇 연을 암송하고 상을 타는 행사에 여념이 없었고, 시인 二〇〇 명의 중복되지 않은 시를 一 개월 간 연속해서 암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을 정도였다. 이것은 아랍인의 기억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던가를 말해 주는 약간의 예에 불과하다. 당시 멕카에는 매년 시경송 대회(詩競誦大會)가 열렸는데, 경송 대회에서 읊은 시는 다음날 아라비아 전역에서 되풀이해 가며 읊어졌다고 한다.

당시 멕카엔 인쇄술(印刷術)과 출판술(出版術)이 아직 없었고, 글을 써서 보존하는 풍습도 드문 때였으나, 아랍인의 놀라운 기억력은 잘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것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해 둘 수 있어서 그들이 어느 때건 원할 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늘은 아마도 쿠란과 하디스를 쉽게 암기해서 길이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땅을 택했나 보다.

이슬람 발상(發祥) 후 아랍인은 이교(異敎)의 유산으로 생각되었던 시에서, 사랑과 헌신인 종교의 방향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들의 기억력은 이제 종교에서 기능(技能)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슬람 역(曆) 一세기에 있어 하디스 보급의 체계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되었고, 역대 칼리프들은 하디스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하디스 전파에 각별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좋았던 것이다. 하디스는 대개가 구전(口傳)으로 보존되어 왔었으므로 이를 제목별로 조직화, 구분화하지 않았었으나, 그 후 아미르 무아위야(Amir Muawiyah)

지카트(Zakat)를 소채류(蔬菜類)로 내도 되는가 하는 문의가 예멘에서 서신(書信)으로 왔을 때 마호멧은 안 된다는 회답을 보냈던 것이다。(자카트는 이슬람교 五대 의무의 하나인 희사(喜捨)를 말한다。 자카트를 구빈세(救貧稅)라고도 한다。)

위의 몇 가지 예는 마호멧 재세(在世) 당시에 「글 쓰는 법(Writing)」이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러나 많은 하디스가 글로 씌어져서 후세에 전해졌다고는 하지만、「가슴에 간직해서」 전해진 것이 더욱 많았다。 이 시대는 글을 책으로 만드는 조직적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로서、 당시 아라비아에서 가장 선진(先進)하였다는 도시인 메카에 글쓸 줄 아는 사람이란 불과 一七 명밖엔 없었다。

당시의 아라비아의 제二의 도시인 메디나도 같은 형편으로 약 十여 명이 있을 뿐이었다。 아랍인은 책읽기와 글쓰기를 경시(輕視)하고 그들의 탁월한 기억력에 의존해서 재표현하였다는 것은 서구 동양학자들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다。

니콜슨(Nicholson)은 「아랍 문학사(A Literary History of The Arabs)」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랍인은 글쓰기(Writing)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매우 우수한 수준에 달해 있었던 이슬람 이전의 시문학(詩文學)도 구전(口傳)으로 보존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의 시인들은 각자 한 사람의 〈Rawi,(음송자(吟誦者))〉를 대동하고 다니며 그의 기억력을 동원시켜 자기의 시(詩)를 읊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Rawi〉의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기억력을 수입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장시(長詩) 一〇〇 수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음

(西歐學者) 중에는, 가령 하디스 학자인 스프렝거(Sprenger)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는 부정확한 것이며, 하디스는 마호멧 재세(在世)시에 기록된 것으로서, 당시 하디스는 사히파(Sahifas)라고 불리는 책으로서 보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압둘라 빈 아미르 빈 알라스(Abdullah b. Amr b. al-'As)는 하디스 一천 장을 수록하여 이를 〈al-Sadiqa〉라 불렀고, 알리(제4대 칼리프 알리)는 법률을 포함한 또 하나의 사히파(Sahifa)를 보존하였는데, 〈al-Qazaya〉라고 불렀다。 압둘라 빈 압바스(Abdullah b. Abbas)는 한 권이 넘는 하디스를 수록하였다 한다。 후맘(Humam)의 사히파는 아부 후레이라(Abu Hurairah)가 수록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호멧 생존 당시는 글쓰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게 아니다。 그것은 아라비아의 인접 국가인 로마 제국의 시이저, 페르시아 왕, 애급왕(埃及王), 아비시니아왕 등에게 보낸 이슬람교 입교 권고의 메시지를 글로 써서 보낸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제四부 「마호멧 전기」 참조)

한번은 마호멧의 교우 한 사람이 자기는 기억력이 약하다는 불만을 토하는 것을 보고, 마호멧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 즉 오른손을 잡아 주고 글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번은 예언자가 교우인 압둘라 빈 우마르(Abdullah bin Umar)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받아쓰되, 자기의 말은 진리이며,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않노라고 하였다。 (압둘라 빈 우마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슬람 초창기의 하디스 목록자의 한 사람이다。)

강조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하디스의 중요성과 하디스가 무슬림에게 미치는 법률의 힘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예언자 마호멧의 사후、마호멧 생시 그와 행동을 함께한 안사리 중에서 교권(敎權) 계승자(칼리프)를 선정해야 했을 때、제一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가 「영도권 (리이더쉽)은 쿠레이쉬 족에게 간다。」고 한 하디스의 한 귀절을 낭독함으로써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이교도의 공격을 받고 멕카에서 메디나로 난을 피할 때 생사를 함께 한 교우들을 안사리(Ansari)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의 피난을 히즈라(聖遷)이라고 하며 이것이 회교력 기원(回敎曆紀元)인 것이다)
예언자 마호멧의 장지(葬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예언자의 묻힐 곳은 그의 죽은 자리로 정한다。」고 한 하디스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의 시체(屍體)를 예루살렘이나 멕카로 운구(運柩)하려는 논쟁은 근거 없는 것으로 낙착되었던 것이다。(예언자 마호멧의 장지(葬地)는 메디나다。)

예언자의 딸 파티마가 유산권(遺產權)을 주장하고 나섰을 때 제一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는 「예언자들은 유산(遺產)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이 남기고 가는 것들은 다 자선(慈善)이다。」라고 한 마호멧의 말(하디스)을 인용함으로써 그녀의 주장은 거절되었던 것이다。

하디스에 관해 서양 기독교인 동양학자들이 날조(捏造)한 책이 많이 있는데、이들은 말하기를 하디스는 마호멧 생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호멧 별세 후 백년까지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다만 교우들의 기억력에 의해서 보존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하지

轉意) 같은 전기 작가(傳記作家)가 있었던 게 아니다。 마호멧이 설교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 눈에 주목의 대상이 되고 마는 인간이었으므로 교우들은 그의 입에서 새어 나오는 말을 낱낱이 가슴 깊이 새겨 두었고、 그의 행동을 세심히 눈익혀 두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슬람 초창기 제一세기엔 이들 무수한 산 증인들이 하디스를 수록해서 기억력을 총집결하여 후손들에게 구전(口傳)했던 것이다。

예언자를 가까이 만나 직접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남녀 십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史實)이 말해 주고 있듯이、 이들이 예언자를 만나 볼 행운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언자의 언행(하디스)을 구전(口傳)했던 것이다。 마호멧 별세 후 제二대 칼리프 우마르는 예언자와 오래 교류했던 교우의 일단(一團)을 교사(敎師)로서 무슬림 제국 사방으로 파견하였는데、 전기한 압둘라 빈 마수우드(Abdullah b. Mas'ud)와 「교양이 아버지」로 알려졌던 아부 후레이라(Abu Hurairah)도 이들의 계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를 전파시킴이 신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가르친 마호멧의 말(하디스)에 의해 한층 박차(拍車)를 가하게 된 것이었다。

마호멧은 경고하기를、 자기가 한 말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한 말처럼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의 갈 곳은 지옥(地獄)이라 하였는데、 이는 자기 말의 오전(誤傳)이나 복합(複合)을 견제하는 목적에서였다。

하디스의 귀절을 인용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의 논쟁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여기에

예언자 마호멧을 진정한 신의 사도(使徒)로 성실히 믿으며, 제몸 사랑하기보다도 마호멧을 더욱 사랑한 일단(一團)의 추종자와 교우(敎友)들이 마호멧의 입술에서 떨어져 내리는 보석(寶石)을 주워 모아 보존하였다. 하디스 수록의 제一기가 된다. 그들 일단(一團)은 우선 이슬람 초창기의 사대(四大)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Ahu Bakr), 우마르(Umar), 우스만(Uthman), 알리(Ali)를 들어야 한다.(이 이슬람 초창기의 四대 칼리프 시대를 이슬람의 황금 시대라 일컫는다) 제一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는 자신이 五〇〇 장의 하디스를 수록한 바 있으나, 혹시 부주의로 본의아닌 가짜를 포함시켰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회의를 품게 되자 만의 하나라도 그렇다면 신벌(神罰)을 받을 대죄(大罪)이므로 자기가 수록 편찬한 하디스집(集) 전부를 불태워 버렸다. 하디스 수록자들은 이만큼이나 자기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후세의 하디스집(集)에는 역시 그가 전달한 一五〇 장의 하디스가 포함되어 있다. 제二대 칼리프 우마르가 전달한 하디스는 二〇〇 장에 달하며 제三대와 제四대 칼리프가 전달한 것도 있다.

사대(四大) 칼리프 시대 후로는 예언자의 교우들인 아부 아유브 안사리(Abu Ayyub Ansari), 압둘라 빈 우마르(Abdullah b. Umar), 압둘라 빈 주베이르(Abdullah b. Zubair), 압둘라 빈 마수우드(Abdullah b. Mas'ud), 아나스 빈 말리크(Anas b. Malik), 자비르 빈 압둘라(Jabir b. Abdullah), 사이드 빈 와카스(Sád b. Waqqas) 자이드 빈 타비트(Zaid b. Thabit), 우베이 빈 카압(Ubayy b. Ka'b) 등이 전달한 하디스가 있다.

예언자 마호멧에게 보스웰(James Boswell: 1740—95. 영국의 전기 작가. 충실한 전기 작가라는

(3) 그들은 그 내용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만한 지성(知性)의 소유자였으며、

(4) 그들은 마호멧의 말을 와전할 아무런 타의(他意)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허언자(虛言者)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며、

(5) 비난받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確證)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6)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서 수집한 것을 마호멧의 말로써 수록하기에 앞서 그것이 쿠란과 모순되지 않는가를 대조 검토했던 것이다。

(7) 그리고도 그것이 마호멧의 입에서 직접 들은 다른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재확인되어야 했고、 후세(後世) 전달자들의 모든 연결성이 시험에 통과돼야만 그때 비로소 마호멧의 말로써 수록되었던 것이다。 마호멧의 말을 하디스로 수록함에 있어 그 진부(眞否)를 철저히 가려 낸 연후에 편입시킨 이와 같은 엄정한 신빙성은 아마도 딴 역사에는 드물다 하겠다。

Ⓐ 마호멧 사후 제一세기

마호멧 재세(在世)시 그를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고、 그와 함께 기거(起居)했던 세대(世代)가 지나감에 따라서 하디스 수록 제三기가 된다。 제二기엔 개인에서 일반으로 전달되던 하디스가 제三기의 글쓰는 기술이 일반화함에 따라 하디스의 양산(量産)을 가져왔다。

은 이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총계 三二○○○ 장(章)의 하디스 수록 중에서、 아부 후레이라의 암기력에 의한 것이 五三七四 장이 된다。 이 숫자로 미루어 보아 아부 후레이라의 구술자(口述者)로서의 중요성을 짐작할 만하다 하겠다。 그는 후에 학교를 설립하여 하디스를 가르쳤으며、 그 학생 수는 八○○ 명이었다。 아브 후레이라와 같은 인물이 살던 집이 후에 하디스의 지식을 보급하는 아카데미가 되었던 것이다。

(나) 마호멧 사후(死後)

초기 하디스 편찬자들은 마호멧의 말 하나하나를 비평적으로 시험하여 마호멧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을 연대적으로 찾아 올라가서 직접 들은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수록하였고、 또한 전달의 출처에 전후 모순이 없는 것 속에서 지적(知的)、 도덕적 건전성이 입증되는 것만을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마호멧의 말과 행위(하디스)를 집대성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1) 마호멧의 말을 실지로 들은 사람은 그것을 명백히 파악하고 있을 만큼 마호멧과 가까왔다는 것과、

(2) 마호멧의 말을 전달한 마호멧 사후의 보고자들은 매우 훌륭한 기억력의 소유자였었다는 것과、

가 상당수에 달하는데, 이는 마호멧 사후(死後)에도 四八년을 더 산 그녀의 놀랄 만한 기억력의 소산인 것이다. 그녀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들어 넘기지 않고 만족할 만큼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물어 보았다고 한다.

마호멧의 사생활을 관찰하여 이를 보고한 일단의 전달자로는 마호멧의 처(妻)들 외에도 그의 딸 화티마, 그의 사위 알리, 몸종 아나스가 있다.

마호멧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닌 무아진을 맡아본 비랄이 있다.(무아진(Muazzin)이란 禮拜引導者——典執者의 바로 뒷 자리에 서서 예배의 신호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

아샵 알 수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일단의 가난한 교우(友敎)들이 메디나의 모스크 한 구퉁이에서 기거하며 이슬람 연구에 헌신하였는데, 항상 예언자와 기거를 같이하는 영광을 누려 왔다. 이들 중에 아부 후레이라라는 유명한 연설가가 있었다. 그의 성(姓)은「고양이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는 아마도 그가 고양이를 매우 사랑했던 데서 생긴 모양이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예언자의 식객(食客)이었다. 방대한 수의 하디스를 빠뜨리지 않고 암기하고 있는 그의 기억력에 모두들 놀라 마지않았는데, 이것은 그가 항상 예언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생계(生計)를 근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예언자에게 자기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는 넋두리를 하였던 바, 예언자는 그에게 쇼올(아라비아인들이 어깨에 두르는 천)을 펴라고 해서 무슨 신호를 해 보이고, 그것으로 어깨를 덮으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무엇이고 기억해 두고 싶은 것

(가) 마호멧 생시(生時)

마호멧은 우주적 예언자로 신이 점지한 인간이므로, 인간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발생함직한 온갖 경우(境遇)를 「예시(例示)하고」,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부여된 것이다。 그는 이 목적(使命)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가 대중 앞에서 행한 공언(公言)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행위도 일반 법칙으로 알려지게 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부족(異部族)에서 몇 명의 처(妻)를 맞아들인 것도 이 까닭에서였는데, 심사숙고한 판단으로 그것도 자기보다 연장(年長)인 과부들을 처(妻)로 맞아들인 것은 이부족(異部族) 간의 우호적인 유대를 굳게 하기 위한 이상에서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그의 언행을 관찰케 하여 이를 널리 전달케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마호멧의 진의(眞意)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非)무슬림 저술가(著述家)들은 마호멧의 다처(多妻)를 비난하고 그를 호색가(好色家)라고 하였다。 편견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겐 마호멧의 결혼의 깊은 사려(思慮)를 이해하지 못하리라。 그의 이상과 교훈을 전파함에 있어 그의 결혼은 도움이 되었고, 이들 여러 처(妻)를 통해서 특히 가정 생활과 관계되는 「전승(傳承)」(하디스)이 전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처 아이샤가 전한 하디스

중요한 것이며、하디스는 인간의 정신적·물질적 향상을 위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라 하겠다。무슬림에게는 하디스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힘을 가진다。쿠란에서는 다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하디스에서 세부적으로 소상히 이를 해석、설명해 주고 있다。하디스는 가장 신빙성 있는 역사적인 책이다。

② 하디스의 보존

쿠란은 마호멧 생존시에 쓰여지지 않았으나、하디스는 그의 생존시부터 쓰여졌다。(쿠란은 그의 사후 二〇년 四대 칼리프「성 알리」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그리고 쿠란은 마호멧의 의사(意思)나 그 자신의 말이 아닌「신(神)의 말씀」인 것에 비하여、하디스는 마호멧의 말이다。 그러므로 마호멧은 자기의 말(하디스)과 신의 말씀(쿠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였음은 앞서 말한 대로다。하디스는 예언자 마호멧과 말을 주고 받았거나 그가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권위자들이 마호멧 사후(死後)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하디스의 보존을 마호멧 생시와 마호멧 사후로 구분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슬기와 힘을 붙어넣어 준 것이다。
마호멧은 또한 어느 정도의 금욕(禁欲)과 자아 수련(自我修練)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을 일상 생활에 피폐(疲弊)하지 않도록 하여 준다。 인간은 신의 재산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성시키어 인간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향상시킨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소비 생활에 있어서 항상 「물건을 아껴 쓸 것」(措物)을 마음에 간직하여 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中庸)。 예를 들면、 돈은 써야 하는 물건이나 인간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극히 개론적(概論的)인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마호멧은 항상 현실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이슬람교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쿠란이고 그 다음 것이 하디스다。
다시 말하자면、 이슬람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쿠란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오직 하디스뿐으로서、 하디스는 이슬람교 기본 신앙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예언자 마호멧의 언행(言行)을 기록한 하디스에 관한 이해는 절대 불가결의 것이며、 인간 마호멧을 알고 나서 그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이해하고、 하디스와 쿠란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이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지하고 편견 없는 하디스 연구는 무슬림에겐 물론이거니와 비(非)무슬림에게도 매우

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 모든 면에 관한 마호멧의 교훈과 조언은 현실주의적이다。 그의 교훈에는 실천 불가능한 것이 없다。「신앙의 실천」을 포교(布敎)함에 있어 「일상 생활을 통한 실천」이 그의 포교의 전부였다。 그는 망상적인 철학가가 아니였으며 「일상 생활 모든 면에서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면과 아울러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적 생활에 관한 것과 법인체적(法人體的)인 것을 다 함께 가르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작은 것、 큰 것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적 욕구에 관한 조리를 이룬 지침(指針)인 것이다。 그는 내세(來世)에서뿐만 아니라 현세(現世)에서도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쳤다。 현세에서 손해보지 않고 신(神)이 부여한 혜택을 향유할 것을 원하는 동시에 내세를 잊어버리지 말 것을 가르쳤다。

그는 인간에게 선(善)의 배려을 주기 위하여 가장 화려하게 천국(天國)의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악(惡)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장 무서운 지옥의 그림을 그려 보여준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의 표현은 가장 독특한 것이다。

마호멧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것과、 지상(地上)、 지하(地下)、 해저(海底)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 봉사하게끔 창조되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또한 인간은 「각자 신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에게 자신(自信)이라는 무기(武器)를 안겨 주었고、 용기를 채워 주었고、「새로운 신앙」을 가슴에 채워 준 것이다。 인간은 각자 신의 대리인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 있지 않다。 그는 말할 때 늘「오、 그대들 인류여!」라고 한 것은 전 세계가 그의 교관구(敎管區)이고 전 인류가 그의 청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교훈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언행록을 읽는 우리를 살아있는 개성으로 취급하여 우리의 욕망、 요구、 인간적 충동을 의식케 하고 특히 개개인의 능력 한계를 알고 있는 듯이 취급하여、 인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를 의식케 하여 준다。 인간 마호멧의 인생관은 실용주의(實用主義)와 현실주의(現實主義)에 입각해 있고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을 강조하고、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교훈은 물결처럼 파동쳐 인간애、 친절、 자선(慈善)、 관대(寬大)、 동정、 진리、 정의를 전파하고 있다。 마호멧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미친、 자석(磁石) 같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세계 무슬림들에게 지금도「절대적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무슬림은 마호멧의 사소한 언행 일체를 거의 다 암기하고 있는 정도다。 마호멧에의 추앙(追仰)、 마호멧에의 추종은、 지금도 무슬림들은 턱수염이나 콧수염을 기름으로써 마호멧의 외모까지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하물며 무슬림의 생활과 사회의 규범에 있어서랴。 쿠란과 하디스가 피가되고 살이 된 이슬람 정신이며 무슬림의 인간상이다。

여기에 마호멧의 언행록(하디스)을 편찬하는 목적의 하나는、 읽는 이로 하여금 마호멧의 「사상의 우주성(宇宙性)」、「윤리의 우아함」、「상식의 강력한 목적 의식」、「실용주의적인 말」、「인간적인 말」에 참다운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하디스에서 인간의 실생활 각 분야에 걸친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마호멧의 교훈

하디스는 三만 장(章)에 달한다。 여기에 수록한 것은 물론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장황한 자료의 나열보다는、짧지만 선택된 자료의 집중적인 부연(敷衍)이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一四○○년의 역사를 갖는 방대한 종교 문학——대해(大海)와 같은 지식의 보고(寶庫)에 이르는 이슬람·문화 직수입의 교량(橋梁)이었으면 하는 한 사람의 이슬람 교도의 충정(忠情)에서 윤리、사회 생활의 규범(規範) 등 대표적인 것을 발췌(拔萃)하여 항목별로 편찬하는 바이다。 또한「마호멧 언행록」(聖訓)을 통하여 그가 받은 계시(쿠란)와 그의 포교(이슬람)를 명백히 이해하도록 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마호멧 언행록」을 골라서 한 권으로 엮음에 있어 마호멧·전기학자의 말이 생각난다。「나는 마치 꽃이 만발한 정원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느낌이다。 수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꽃동산에 묻혀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꽃들을 꺾어들고 보니 꺾어들지 않은 딴 꽃들이 더 아름다와 보인다。」

그 많은 수록 중에서 가장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여섯 개를 친다。(Saheeh Sittah) 이 문제는「하디스의 보존(保存)」난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하디스——마호멧 언행록(言行錄)을 잠깐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마호멧의 교훈은 그 성질과 내용이 우주적이라는 것을 확신케 한다。 그것은 어느 특정 종족、민족에만 국한되

일례를 들자면, 「이슬람의 五대 의무」의 하나인 예배——즉 一일 五회의 예배에 관한 내역(內譯)은 하디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쿠란에는 명세(明細)가 없다.

또 「순례(巡禮)의 달」에 관한 것을 그 예로 들자면, 쿠란에는 다만 「순례의 시기는 잘 알려져 있는 달에 하느니라.」(二:一九七)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달이냐 하는 것은 하디스에 지적되어 있다. 즉 샤우왈달(이슬람 력(曆) 一二월)이라고 하디스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디스는 쿠란의 해설서인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 성 마호멧은 자기를 잘못 인용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언급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쿠란만이 최종적인 말씀이며, 쿠란만이 경전(經典)임을 명백히 한 그 점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말은 알라의 말씀(쿠란)을 말소(抹消)하지 못하나, 알라의 말씀은 나의 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하였다. 「나의 말은 알라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느니라.」 따라서 마호멧의 말 가운데에서 쿠란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호멧의 말은 쿠란의 말씀 앞에서 빛을 잃는 것이다. 마호멧의 말(하디스)은 쿠란의 말씀을 설명하고 부연(敷衍)하되 모순되지 않는다. 마호멧의 말은 쿠란의 말씀을 보충할 수는 있으되 대치(代直)할 수는 없다. 마호멧 언행록(聖訓) 하디스를 읽는 사람은 이 미묘하고도 탁월한 기본적인 관점을 명심해야 한다.

활의 규범의 사례를 기록한 것인데、이 외에도 교우(敎友)들이 마호멧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경우 마호멧이 묵인함으로써 승인되었거나、금지되었거나 한 따위도 역시 하디스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디스는 모든 무슬림이 일상 생활에서 추종해야 할 본보기와 이상(理想)을 구성한다。 하디스라는 낱말은 또한 진술(陳述)로 직역(直譯)되며、일반적으로 「순나(Sunnah—「실천」 혹은 「관습」)으로도 알려져 있다。 축어적(逐語的)으로는 「생활의 규범(規範)」이라는 뜻이다。

옛날의 아라비아 부족 간에는 「순나」 즉 국가적 전통이 있어서 조상 대대로 전래해 오는 것으로서、사회 생활면에서도 이것을 엄수(嚴守)하였다。

그러나 여기 언급된 순나는 모든 무슬림 사회에서 이것을 사회적、법률적 사례로 활용하도록 예언자 마호멧이 마련해 놓은 것을 말한다。

쿠란과 하디스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쿠란은 영원 불변의 「알라의 순나」를 예언자 마호멧을 통해서 규정、금기(禁忌)、예시(例示)의 형태로 계시된 것을 담은 것이다。 쿠란에 「그 누구도 알라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느니라。」(六：三四) 하였듯이、「알라의 말씀」——즉 쿠란은 영원 불변인 것이다。

쿠란은 신(神)의 원전(原典)이며、하디스는 그 해설서이다。 따라서 쿠란의 뜻과 교훈을 완전히 이해함에는 하디스의 연구가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하디스의 도움 없이는 신의 말씀(곧 쿠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lim)에게 「법률의 힘을 보유」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도를 따르는 자, 어김없이 알라를 따르느니라.」(쿠란)

쿠란은 무슬림에게, 신(神)에 복종할 뿐 아니라 신의 사도인 마호멧에게도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마호멧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호멧을 통해 내려진 신의 계시(啓示)는 전적으로 그 의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쿠란에도 「사도를 따르는 자 어김없이 알라를 따르느니라.」고 하였다.

마호멧 생존시 그의 교우들은 마호멧의 말, 행동 및 사례(事例)를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것이 「하디스」로 알려져 있는 무슬림의 종교 문학(宗敎文學)이다.

마호멧의 사후(死後), 이슬람 초창기의 헌신적이고 독실한 학자와 신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연구 조사를 하여 이를 집대성하였다.

우리 나라 교도(敎徒)들은 중국(中國)의 회교도(回敎徒)들처럼 하디스를 「성훈(聖訓)」이라 번역한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 직수입의 교량 역할(役割)을 담당한 것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는 교도(敎徒)가 아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Sayings of Prophet」의 직역(直譯)을 따서 이를 「마호멧 언행록」이라 붙이고 제목별로 나열하였다.

「하디스」——즉 「전승(傳承)」은 예언자 마호멧이 四〇세 되는 해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서기 六〇九년), 六三세 되는 해 별세하기까지의(서기 六三二년) 그의 언행, 관습, 일상 생

1、「마호멧 言行錄」概論

① 「하디스」의 의미와 그 중요성

예언자 마호멧은 서기 五七一년 멕카에서 탄생하여 六三세(서기 六三四년)에 별세했다。 마호멧이 예언자로서 계시를 받고 포교(布敎)한 기간은 서기 六一〇—六三四년이다。 마호멧의 말, 행동 및 사례(事例)를 수록 편찬한 것을 「하디스(Hadith)」라고 한다。 즉 「마호멧 언행록」이다。

예언자 마호멧에 관한 연구 없이는 이슬람의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언자 마호멧에 관한 연구는 이슬람의 연구에 선행(先行)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쿠란」(「코란」이 아니라 「쿠란」이 정확한 발음이다)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졌으며, 마호멧의 언행록은 쿠란의 산 해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호멧의 언행록은 다른 예언자나 성현들의 그것과는 달라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구상의 四분의 一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무슬림=Mus-

제二부 마호멧 言行錄

위인은 항상 천광(天光)과 같은 것이며, 또 인간들은 마치 연료(燃料)처럼 「위인」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그들도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Thomas Carlyle,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e in History", Everyman's Library, London, 1918, p. 311)

「서양 저술가(著述家)들의 음난의 비난은 주로 여성 문제에 두고 있다。 그러나 마호멧 이전엔, 처(妻)의 수는 무제한 이었던 것을 일부일부(一夫一婦)를 쿠란에 명확히 해 놓은 것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마호멧은 실제적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브라힘이 죽었을 때 마침 일식(日蝕)이 있었다。 그러자 이것은 신인(神人)을 위안하는 징조라는 낭설이 유포되었다。 그러나 마호멧은 〈일식은 자연 현상이다。 이런 것을 인간의 생사(生死)에 관련시킨다는 것은 우매(愚昧)한 짓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호멧이 죽었을 때, 그를 신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제一대 칼리프가 된 교우 아부 바크르가 병적인 망상을 말살시켰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종교사상(宗敎史上) 가장 존귀한 말을 남겼던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마호멧에게 예배를 올렸던 사람이 있다면, 마호멧은 죽었다는 것을 알라。 그러나 너희가 신에게 예배를 올린다면 신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알라。」 (James A. Michener, "Islam: The Misunderstood Religion". in the Reader's Digest (American Edition, May 1955, pp. 68—70)

「……이와 같은 아라비아인, 인간 마호멧, 그리고 一세기——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섬광과 같은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이 섬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모래 같은 것이나, 그러나 보라, 이 모래는 폭발성 분말(粉末)임을 증명하여 델리에서 그레나다에 이르는 하늘 높이 화염(火焰)을 올리고 있다。

「마호멧의 설교(說敎)는 우상 숭배자인 부자 아랍인들을 격분시키기에 이르렀고、그는 출생지인 멕카에서 쫓겨났다。 그가 설교하는 신앙의 자유의 방위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자、그는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여러 차례의 싸움에서 그는 거의 五대 一의 적을 번번이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국가와 주권(主權)의 장(長)이 되었다。 착잡(錯雜)한 사건 처리에서 시범을 보여준 그의 교훈이 오늘날의 이슬람을 다스리고 있는 종교법(宗敎法)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그의 말년(末年)에 독재자나 혹은 성인이 되어 달라는 권유를 받았으나、신이 이 세상에 보낸 자기 이전의 예언자들처럼 자기도 한낱 다를 것 없는 인간이라면서、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마호멧은 그의 비범한 인간성의 힘으로 아라비아와 동방(東方) 일대의 생활에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자기 손으로 고대(古代)의 우상(偶像)을 분쇄하고、하나의 신에 봉사하는 종교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는 여성이 남자의 소유물이었던 그러한 속박(束縛)을 풀어 주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고、사회 정의를 가르쳤다。」

「서양 사람들이 마호멧은 음난한 종교를 창설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을 때、이것은 아이러니라고 생각들 하고 있다。 취한(醉漢)을 금주가(禁酒家)로 만들었으니、지금에도 훌륭한 무슬림들은 대개가 금주가인 것이다。 나태한 사람들에게 매일 다섯 번의 개인 예배를 정해 놓았다。 주연 축제(酒宴祝祭)로 세월을 보내던 나라에 三〇일 간의 단식을 가르쳐 준 것이다。」

철폐하여 아라비아의 생활에 개혁을 가져왔던 것이다。」 (Rev. R. Macgregor, "Yorkshire Post" for 8th June, 1935)

「영감(靈感)을 받고 이슬람을 창설한 마호멧은 서기 五七〇년경、우상 숭배의 아랍인 부족에서 태어났다。날 때부터 고아였던 그는 가난한 사람 요구호자(要救護者)、과부와 고아 노예、피압박 민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三〇세에 벌써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였고、부유한 과부의 낙타 대상 관리인이 되었다。그의 二五 세때 그 공을 인정한 과부 주인은 그에게 청혼을 해 왔다。 그녀는 一五년이나 연장자였으나、그는 그 구혼(求婚)을 받아들였고、그녀는 죽을 때까지 충실히 남편을 섬겼다。」

「四〇 세까지 이 사막의 사나이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간직한 극히 만족한 생활을 보냈다。그러자 극적(劇的)이고 두려운 사전들이 뒤를 이어 일어났으니、천사장(天使長) 지브라일을 통해서 신의 말씀인 계시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호멧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이 대개가 그러하였듯이、마호멧도 신의 말씀의 중계자로서 봉사하기에는 자기는 부적격임을 자각하고 소심(小心)과 싸워야만 했다。그러나 천사장(天使長)은 〈읽으라!〉고 명령을 내렸다。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마호멧은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무학자였다。그러나 이때 마호멧은 말을 받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신은 하나뿐이다〉라고。」

「마호멧의 정신과、이슬람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호멧은 한낱 정신적 행상인도 아니고、비속한 방랑객도 아니었고、어느 시대의 인물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한 〈인간이었다。〉 세계 위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하나의 예언자로서만이 아니라、애국자로서、정치가로서도 위대한 인간이었고、위대한 국가、위대한 제국(帝國)의 물질적 정신적 창건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창건자였다。 뿐만 아니라、그는 진리의 창건자였으니、이는 그가 자신에 충실했고、인류에 충실했고、특히 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런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슬람은 심오한 참다운 의례(儀禮)임을 알게 되고、이슬람은 인류를 어둠에서 끌어올리어、〈광명과 진리〉의 왕좌(王座)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Major Arthur Glyn Leonard, "Islam—Her Moral and Spiritual Value", London 1927, pp. 20—21)

「유일신 알라의 예배에다 아랍족을 통일시켰고、자기 이름을 알라의 예언자로서 영원히 남아 있게 한 마호멧의 눈부신 성공은 경탄과 추앙을 받을 만함에 이의가 없다 하겠다。 메디나 시대의、비참한 빈곤을 용감하게 견디어 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는 가구(家具)라야 보잘것없는 오막살이집에 살았다。 이것으로써 그의 신자(信者)들을 열광케 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위험에 봉착해도 침착했으며、적에게 쫓기던 동굴에서도 아부 바크르(제一대 칼리프)에게 신은 그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던 것이다。 그는 형언키 어려운 궁자 속에서 스파르타 정신의 인내력을 보여주었다。 알콜과 매춘(賣春) 행위를

하질 않았다。」

「그는 남을 보호해 주는 신의(信義) 두터운 보호자였다。 그의 말은 다 수긍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를 만나는 사람은 갑자기 존경이 충만해지는 것이었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는 이런 사람을 전에도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그는 극히 말이 적었다。 그러나 그가 일단 말문을 열면 강조(强調)와 신중(愼重)을 기하여 말을 했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이것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The Speeches and Table-Talk of the Prophet Muhammad, by Stanley Lane-Poole. London 1882, Introduction pp. 27—29)

「적에 대한 마호멧의 대승(大勝)은 자신에 대한 승리의 날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기를 냉대하고 목에 현상금까지 걸게 하여 추방한 쿠레이쉬 족을 용서하고、 멕카의 전 시민에게 대사(大赦)를 내렸다。 병사(兵士)는 그의 시범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조용히 평화스럽게 입성(入城)하였으며、 약탈(掠奪)과 부녀자를 능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파괴를 면치 못한 것이 있었다。 카아바 신전으로 다가선 마호멧은 三六〇개의 우상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진리는 왔다。 허위는 물러나거라!〉고 말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신자(信者)들은 우상에 달려들어、 우상과 미신(迷信)의 제당(祭堂)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同上 pp. 46—47)

활품이 검소하였다。 그가 권력의 절정에 앉았을 때도 애초의 습관 그대로였다。 그가 가장 몰두한 사치(侈奢)는 아비시니아의 선물인 무기와 황색 장화(長靴)뿐이었다。 그러나 향수(香水)는 열렬히 좋아했다。 강한 음료(飮料)는 싫어했다。」

「……그는 상상력(想像力)과、 심적 안정과、 우미(優美)하고 세련된 감정의 천부(天賦)의 자질(資質)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는 커어튼 뒤의 처녀보다도 더 정숙(貞淑)하였다。〉고도 한다。 그는 손아래사람들을 가장 아끼었으며、 어린 종이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도 꾸짖지 못하게 했다。 〈十년을 예언자 곁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에게 〈이놈〉 하는 말조차 하신 적이 없었읍니다。〉라고 어린 종 안나스는 말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었다。 대장간 집 마누라인 유모(乳母)의 집 연기가 뽀얀 속에서、 그의 한 아들이 죽어 갈 때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였다。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남을 때린 적이 없었다。 그가 가장 나쁜 말을 썼다는 것은、 〈저 애를 어떻게 할까? 앞 이마에다 흙을 칠해서 시커멓게 해 줘도 상관없을까!〉 하는 정도였다。 어떤 사람을 혼내 달라고 누가 부탁해 오자、 그는 〈나는 남을 혼내 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인류에게 자비(慈悲)를 베풀어 주고자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자(病者)를 찾아가 보았고、 어디서건 관(棺)이 나가는 것을 만나면 장지(葬地)에 따라갔고、 노예(奴隸)가 초대하는 식사를 받아들였고、 자기 옷을 제 손으로 꿰매고 양젖을 짜기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손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먼저 손을 빼거나、 저쪽에서 발길을 돌리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발길을 돌리거나

만 마호멧은 一三○○년간 여러 나라 수억의 인류를 인도해 왔고, 지금도 상승 일로에 있는 종교를 세운 것이다. 단순한 세력 추구의 광신자는, 후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간적인 자력(磁力)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마호멧의 사후(死後), 세계에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가장 괄목할 만한 정복이 일어났던 것이다. (Selwyn Gurney, M.D., and Dorothy Short, "Readings fron World Religions". London 1951, p. 254)

마호멧은 중키에 비대하지 않은 편이나, 어깨와 가슴이 넓고, 골격과 근력이 강했다. 두골(頭骨)이 크고 강하게 발달하였다. 흑발(黑髮), 약간 곱슬머리가 어깨까지 치렁치렁 내려 흐르고 있었다. 계시의 고뇌 때문에 희어진 약간의 백발이 있었을 뿐, 노년(老年)에도 광택이 나는 머리카락이었다. 그의 얼굴은 난형(卵形)에 약간 황갈색이었다. 아치형의 긴 눈썹이 그가 열띠는 순간에 떨렸다. 컸고 숱이 많은 속눈썹 아래서 크고 검은 눈동자가 움직였다. 코가 컸다. 매우 소중히 손질한 그의 치아(齒牙)는 고르고 하얗게 빛났다. 얼굴 그득한 수염이 그의 사나이다운 용모를 이루고 있었다. 피부는 깨끗하고 부드러웠고 안색은 「붉고 흰 빛」이었다. 손은 비단처럼 윤이 흐르기를 마치 여인의 손결 같았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탄력성이 있어, 「산비탈을 내려오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얼굴을 돌릴 때는, 전신(全身)을 돌렸다. 그의 보행은 위엄이 있었다. 그의 용모는 미소와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웃느니보다는, 미소짓는 일이 더 많았다. 「그는 남에 대한 관심은 지극했으면서도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는, 매우 소탈했다. 음식 음료(飮料), 의복, 생

던 것이다。(Washington Irving, "Mahomet and his Successors", London 1909, p.192—193, 199)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호멧은 호색가(好色家)가 아니었다는 그것이다。 우리가, 이 인간을 한낱 주색(酒色)잡기로 본다든가, 온갖 향락(享樂)에 몰두한 사람으로 본다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집안 살림은 검소하기 짝이 없었고, 일상시의 식사는 보리빵과 물이었다。 구두 수선과 외투(外套) 수선을 손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빈한(貧寒)하였고, 쉬지 않는 노력가였고, 속된 인간들이 그를 괴롭혀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는 악인(惡人)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두어야겠다。 그에게는 훌륭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횡포 무도(橫暴無道)한 아라비아 인들이 일상시의 접촉에서 그를 이다지도 존경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들 아라비아 인들은 야성적이고 난폭하고 정당한 형식도, 인간성도 없는 족속들로서 그들을 통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어떤 왕관의 위력으로도 이들의 야성적인 병력을 굴복시킬 만한 왕(王)이 없었다。 틀림없이 영웅인 이 二三년 간의 시련을 통해 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다。」(Thomas Carlyle,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London 1888, p. 61)

「그의 신념은 외골수의 성격이었고, 인간적으로 금욕주의자였다。 후세의 독재자들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몰락해 갔다는 것이 그 답인 것이다。 그렇건

하지만 보통 심자하고 엄위(嚴威)로왔다. —— 매혹적이고 감미로운 미소의 소유자였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의 혈색은 보통 아랍인보다도 훨씬 핏기가 좋았다. 그가 흥분하고 열정적인 순간엔 그의 용모에 광채가 돌았는데,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예언의 초자연적인 광선이라고 장엄하게 보았다.

그의 지적(知的) 자질(資質)이 보통 이상이었던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는 이해가 빨랐고, 기억력이 비상했고, 상상력(想像力)이 명석(明晳)하였고, 발견의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지(眞摯)했고 음식(飮食)을 절제하였고 엄격한 단식(斷食)의 관찰자였다. 의관(衣冠)과 보잘것없는 마음의 허식을 무시했다.

사사(私事)에 공평하였다. 그는 친구, 낯선 사람,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권세가(權勢家)와 무력자(無力者)를 평등하게 취급했다.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불평불만을 들어 주었기에 상민(常民)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리 사욕에 움직일 수도 있었으련만, 거만하거나 공허한 영화(榮華)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다. 최대의 권한을 쥐고 있을 때에도, 고난의 시대와 진배없이 언행과 용모가 한결같이 간소(簡素)하였다. 그가 우주적(宇宙的) 주권(主權)을 목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주권이었다. 한때 그의 손에 통치권이 쥐어졌으나 그것을 함부로 쓴 적이 없었다. 그러기에 그 통치권을 자기 혈통이나 가문(家門)에 물려주지 않았

「영원 불멸의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 그는 공허한 형이상학에 개의치 않고, 정결(淨潔), 냉정(冷靜), 단식(斷食), 예배(禮拜)에 관한 규범(規範)을 가지고, 인간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공헌하였다。 그는 그의 교훈 중에서도 구빈세(救貧稅——喜捨)와 자선(慈善)을 무엇보다도 존중했다。」 (John William Draper, M.D., LL.D., "A History of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Europe, London 1875, Vol. 1. pp.329—330)

「그는 설교할 때, 자신의 신통력을 주장한 적 없었다。 이 인간 예언자는 자기 가족과 자기 가문(家門)의 귀족부터 먼저 입교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인간적 감화력은 경탄할 만한 것이었기에, 그가 가난의 도탄(塗炭)에 빠졌을 때나, 난(難)을 피해 도망칠 때나, 또는 영화(榮華)의 절정에 있었을 때나, 한번 입교한 사람치고 누구 하나 변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자신(自身)에 대한 신념과 하늘의 영감은, 정복시킨 적에게 자기의 조건을 독재(獨裁)할 수 있었을 때보다도, 절망과 패배에 놓였을 때가 더욱 강력하였다。 그의 생존시에도 그러하였듯이, 초창기의 신자(信者)와 교우(敎友)들에 둘러싸인 속에서 마호멧은 죽어 갔다。 그의 생애에 위장이 없었듯이, 그의 죽음에는 신비가 없었다。」 (H.M. Hyndman, The Awakening of Asia, London 1919, p. 9)

「그의 언행(言行)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시종일관하였다。 때로는 우스운 일에 쏠리기도

마호멧은 기적(奇蹟)을 보이라는 요구를 단연코 거부하였다。 존대(尊大)를 경멸(輕蔑)하고、금욕주의자가 아님에도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 원칙을 세우고 살았었다。 그는 매우 단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상노(常奴)가 하는 일을 손수 하였고、청교도적인 옷차림에 산의 계시는 금(金)과 비단을 몸에 걸치지 말라 했다고 말했다。」(A.C. Bouquet, "Comparative Religion", Penguin Books Ltd. Harmondsworth, Middlesex, 1954, pp. 269~270)

「종교 사상(宗敎史上) 마호멧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그는 자신을 성자(聖者)나 천사(天使)로 자처하지 않았고、인간 이상의 것으로 내세우는 일 없이、자기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주입시켜 주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일반 무슬림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인간이었다。」(R.V.C. Bodley "The Messenger", London 1946, p.338)

「마호멧은 그의 종교 체제를 수립함에 있어、동족의 감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그러한 관점을 초월해서 인류의 공통된 관념에 조화되도록 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전 인류의 1/2 이상을 자기와 동일한 사상으로 전환시켜 놓을 수 있었다。 그것도 불과 四〇년 이내에。」(Le Comte de Boulainvilliers, "La Vie de Mahomed, Amsterdam, 1731, pp.143—144)

디를 가도 동일한 의식(儀式)으로 예배를 본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국적(國籍), 인종(人種), 피부색의 차별이 없는 우주적 형제애가 실천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그것이다。 이 이슬람의 획일성(劃一性)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이슬람의 오대 의무(五大義務)의 하나인 「순례」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세계 각국의 각 지방에서 참집(參集)하는 백만이 넘는 신도(信徒)들이 일정한 시기에 메카에 운집하여, 일체의 인간적 차별을 두지 않고, 유일신(唯一神) 알라를 찬송하며 망아(忘我)와 열광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一四〇〇년의 전통에 의한 알라의 지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⑰ 서구 비 무슬림의 마호멧 관

「우리는 그를 시인이자 예언자라고 불러야 할 게다。 왜냐 하면, 그의 말은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John Austin, "Muhammad the Prophet of Allah", in T.P.'s and Cassels' Weekly for 24th September, 1927)」

「마호멧은 퇴폐(頹廢)한 비잔틴 제국(帝國)에 비하여 월등하게 인류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중동(中東) 아시아 일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념을 청신하고 활기있게 일변시켰다。 …

제二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이들 고난을 겪어 온 이슬람 제국은 민족적 각성과 국가적 독립을 획득하여 이슬람을 신봉하는 민족은 다시금 세계 무대에 재등장하였다。

현재의 세계 무슬림 인구는、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서、「타임」지(誌) 一九六五년 四월 二六일자에 게재된 것에 의하면、아시아 전역이 三五三백만、아프리카가 九八五〇만、유럽이 一三〇〇만、오세아니아가 一〇만、합계 四六五五〇만으로서、이 중 五〇% 이상이 무슬림 인구인 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데、三五 개국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는 六九四七五만 이라는 통계도 있듯이、현재 공식적 통계로는 대체로 七억으로 보고 있다。

지구의 광범한 지역에 분포된 무슬림 현상은、각기 다른 그 지역에 다른 지리적、인종적、또는 개발 사정 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으나、이러한 조건을 초월하여 반드시 공통된 기본 원리에 의거해서 일체(一體)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이고 무슬림 지역 사회에는 어디나 마스지드(Masjid —영어로는 Mosque=모스크、이슬람 교회)가 있으며、一일 五회의 예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과、어느 나라、어느 지방、어느 마스지드도 멕카 신전을 향한 예배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한국에서는 西西南)、이슬람 교회 내엔 인간이나 생물의 형태를 가진 하등의 조상(彫像)이나 불당(佛堂) 또는 제단(祭壇) 같은 것이 없다는 것과、예배 순서와 의식(儀式)이 예외없이 동일하며、쿠란 독경(讀經)은 아랍어로 하며、따라서 어느 나라 무슬림이건 세계 어

(布敎)를 위한 교단(敎團)은 칼리프가 이를 통솔하여, 신도의 군세(軍勢)로 원정을 감행, 一세기 후엔 북부 아프리카의 전역을 비롯해서, 중동(中東) 거의 전부와 동쪽으론 인더스강 유역까지 판도를 확장, 강대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로부터 三○○년은 이슬람 국가의 전성기로서 서쪽으로 스페인, 아프리카의 북부 일대, 지금의 소련령(蘇聯領) 중앙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뻗치어, 동남쪽으론 인도, 말레이시아 반도, 자바, 필리핀까지 석권하였다. 이 강대한 국가는 다만 종교뿐만이 아니고, 학술(學術), 예술 및 산업에 걸친 넓은 범위의 문화를 가짐으로써, 당시 아직도 중세 암흑 시대에 놓여 있던 유럽에 동쪽으로부터의 신문화를 전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강대한 종교 국가도 번영의 길을 치닫는 중에 칼리프 왕조가 분립함으로써, 교리(敎理)와 종교 의례(儀禮)는 형식화되고 분열이 격심해져 약체화되어 갔다. 게다가 르네상스를 원동력으로 하는 유럽 문명의 부흥과 더불어 점차 쇠퇴해 가는 한편, 서구(西歐) 제국의 동침(東侵) 정책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차례로 식민지와 속국(屬國)의 지위로 전락하여, 한동안 강대와 번영을 과시했던 이슬람 판도는 一八세기, 一九세기에 이르러서는 터어키 및 기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피정복국(被征服國)으로서 식민지화하여 문명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 특기할 사실은, 이슬람 제국의 이와 같은 최악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신앙은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 속에 뿌리깊이 살아남아 박해와 압정 아래에서 절대적인 정신의 지주(支柱)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등불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밀히 신에게 기도한 적도 없다。 ……사실이지、전지전능한 주의 도움이 없이는 이를 완수한 능력이 없는 터무니없는 사람이 중임(重任)을 맡게 됐다。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 아님에도 여러분의 통치자로 임명되었다。 내가 일을 옳게 처리할 땐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잘못한 땐 나를 바로잡아 달라。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다。 그러나 허위는 배신이다。 약자는 (신의 의사에 따라)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것이므로 나와 함께 강할 것이고、강자는 신이 원한 경우엔 강자로서의 권리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나와 함께 약하게 될 것이다。 알라의 길에서 한 사람도 지하드(성전)를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신은 성전(聖戰)에다 타락(墮落)을 쌓아 놓으셨으니、누구나 파렴치한 행위에 몰두하는 자는 신벌(神罰)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신과 신의 사도(使徒)에게 복종할 땐 내 명령에 복종하라。 그러나 내가 신과 신의 사도에 불복종할 땐 내게 복종하지 말라。」

⑯ 이슬람의 과거와 현재

마호멧은 예언자로서의 二三년 간의 생애에 있어서 당시 아라비아 사막 전역에 오랜 세월을 두고 뿌리박고 있던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야만인을 일신(一神)、일예언자(一豫言者)、일경전(一經典) 하에 통합했던 것이다。

마호멧이 서기 六三二년 별세한 후로는 예언자로서의 후계자는 끊어졌으나、이슬람 포교

마호멧 별세 후의 이와 같은 위기를 모면한 메디나의 무슬림 사회는 한층 무겁고 중대한 문제── 곧 영도자 선정 문제에 직면했다。

신생 무슬림 사회는 이제 겨우 안정을 얻은 중대 시기에 적은 아직도 많고, 구원(舊怨)을 설욕(雪辱)할 기회를 호시탐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일 무슬림의 대열에 분열이 생긴다거나 리이더십에 무능(無能)이나 약점을 드러낸다면 이제까지 마호멧이 성취시켜 놓은 모든 것을 무(無)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책임은 가중해 가고 있었으나, 리이더십의 관(冠)을 가시관보다도 꺼려 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내 극복되었으니 우마르(후에 제二대 칼리프가 됨)가 아부 바크르를 리이더십 계승자로 지명 요청하고 충성을 맹세함에 거의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하였고, 아부 바크르 또한 이를 엄숙히 수락하였다。

이 리이더십 인계식(引繼式)에 즈음한 아부 바크르의 말들은 역사에 길이 남아 있으며 당시의 무슬림 사회의 기본 원리에 귀중한 광명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부 바크르는 제一대 칼리프가 된 것이다。 (칼리프(Calif)──교권(敎權) 후계자, 계승자。 그러나 칼리프는 예언자의 후계자가 아니다。 예언자는 마호멧으로서 끝을 맺은 것이다。)

아부 바크르의 교권 인계식(제一대)에서 행한 연설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신에 맹세하고 말하거니와, 나는 이 통치권(統治權)을 한 번도 탐낸 적 없으며, 나의 성향(性向)이 이에 맞지도 않는다。 이것이 내게로 오게 해 주십사 하고, 공공연히 혹은 은

가장 확고부동한 신념의 소유자이며、가장 용감하고 가장 무서운 존재인 우마르조차 평정(平靜)을 잃고 칼을 빼들어 휘두르며、감히 예언자가 죽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을러대는 것이었다。

당황과 혼란의 노도(怒濤) 속에서 아부 바크르는 침착하고 엄숙하게 예언자의 모스크 안의 민발(이슬람 교회 내부의 설교단)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였다。그것은 참으로 마호멧 별세 후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진실로 여러분 중에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마호멧을 숭배한 사람이 있었다면、보라! 마호멧은 정말로 죽었다。그러나 알라를 숭배한 분들이여、보라! 알라는 살아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다。」

아부 바크르는 쿠란 한 귀절을 낭송했다。「그리고 마호멧은 사도(使徒)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니라。다른 많은 사도들이 그보다 앞서 죽어갔듯이 그도 죽느니라。그(마호멧)가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한다 해서 너희들은 발길을 돌리려 하느냐。발길을 돌린다 한들 알라에겐 아무런 지장이 없느니라。그러나 (어떠한 곤경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겐 알라께서 상을 내리시느니라。」(쿠란 三：一四三)

아부 바크르의 이 연설은 청중들을 사로잡아 정세를 일변시켰고、당황과 우수(憂愁)에 싸인 메디나에 자신(自信)과 평온을 돌이켜 놓았다。

충실히 실천되었다。 이 순낫의 집대성이 「하디스」인 것이다。

5

예언자 마호멧이 사랑하는 아내인 아이샤의 곁에서 임종할 때 마호멧의 친근한 교우인 아부 바크르(Abu Bakr)는 곁에 없었다。 아부 바크르는 마호멧이 병중(病中)에 있을 때 마호멧의 지시를 받아가며 종교적인 면과 세속적인 문제를 대리했었다。

마호멧의 죽음을 통지받고 달려온 아부 바크르는 덮어 놓은 천을 벗기고 눈감은 마호멧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대는 얼마나 축복받은 생(生)을 보냈으며、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고。」

아부 바크르가 상가(喪家)를 나와서 비보(悲報)를 전하자 예언자 마호멧의 인품이 사회적 존립의 추축(樞軸)을 이루고 있던 메디나는 경악과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이끌어 내었고、 야만(野蠻)에서 문명 생활로 이끌어올려 주었으며、 무지(無知)에서 지식(知識)으로、 우상 숭배에서 유일신교(唯一神敎)의 참 종교로 이끌어 준 마호멧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마호멧은 주인、 영도자、 지침、 입법자、 양식、 광명(光明)이었다。 그러한 마호멧이 어찌 죽을 수 있다는 것인가? 누가 그를 계승한단 말인가? 그가 남겨놓은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다。

이 기적의 책의 특징은, 이 책은 종합적인 원리와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사회적·정치적·정신적인 지도와 아울러, 인간사(人間史)와 종교 사상의 기본적인 지식에 눈을 뜨게 하고, 우주관·철학관·지리학 등의 연구 조사에 대한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 쿠란은 또한 비교 종교학의 책이며 우주의 조물주(造物主)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그 특성, 인간과 신과의 관계, 사회 기구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쿠란은 법률적·역사적·사회적·정신적·도덕적·정치적—총괄적 내용을 구비한 책이다. 이슬람의 기원(起源)에서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이슬람 실록(實錄)이다.

이슬람은 일신(一神), 일예언자(一豫言者), 일경전(一經典) 아래 통합한 교리(敎理)인 것이다.

마호멧의 추종자들이 생명을 버려 가며 마호멧과 동일 행동을 취하여 갖은 고통을 겪었던 것은 오직 마호멧에 대한 추종자들의 깊은 애정과 그가 설교하는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 때문으로서 그들은 예언자 마호멧을 모든 진리의 원천으로 추앙하여, 그의 언행(하디스)을 법칙(쿠란)의 해설로 믿었다.

마호멧의 행동의 전역정(全歷程)은 계시와 쿠란의 명령을 실현시키는 데 시종(始終)하였다. 이것이 순낫(Sunnat——예언자 마호멧의 실천 사항)이다. 순낫은 보급(普及)을 위한 조치이며, 쿠란의 명령의 실현화(實現化)인 것이다. 이 순낫은 추종자들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마지막 날이 왔다。 군중은 어제의 몇 배나 운집하였다。 마호멧은 먼산을 향해 두 손을 펴고 소리 높이 부르는 것이었다。

「저 산이여、 내게로 다가올지어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마호멧은 단을 내려가 보무당당히 산을 향해 가면서 말했다。

「저 산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면 내 저 산을 향해 가리라。」

그 무엇도 움직이지 못할 굳은 신념으로 엄숙하게 군중을 헤치고 산을 향해 가는 마호멧에게 감히 행패를 가해 오는 자 없었던 것이다。 군중은 마호멧의 굳은 신념에 감복했던 것이다。

4

예언자 마호멧의 특징은 이슬람 포교(布敎)를 위한 여하한 종교적 특수 계급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 점이다。 이슬람에는 승려 계급이나 성직자(聖職者) 제도가 없다。 이슬람의 전파(傳播)는 교리(敎理)를 받아들인, 신도들의 개인적인、 학적(學的)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슬람의 유일한 기적인 「쿠란」——

남으리라。」고 그는 말했다。
마호멧의 포교(布敎)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적의(敵意)와 조소(嘲笑)와 박해를 일삼던 멕카 사람들이 마호멧에게 대항해 왔다。
「사실로 예언자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면 예언자로 인정할 것이고 기적을 보이지 못하면 죽음을 각오하라。」「그러면 내 기적을 보이리라。」 마호멧은 아무날 아무때에 아무곳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그날 약속된 장소에 많은 군중이 운집하였다。 마호멧을 살해할 뜻을 품은 멕카 사람들은 마호멧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독촉이 성화같았다。 운집한 군중을 헤치고 높은 곳에 올라선 마호멧은 먼산을 가리키며 산을 움직이겠다고 하였다。 조소와 공포로 착잡(錯雜)해진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마호멧을 응시하고 있었다。
「산이여、 내 앞으로 다가올지어다!」
마호멧은 위엄있게 외쳤다。 그러나 산은 산인 채로 여전하였다。
군중 앞으로 내려와서 약속한 대로 죽음을 감수하라는 야유의 고함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호멧은 태연자약했다。 그는 내일 다시 이곳에 모이면 기적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튿날의 군중은 더 많았다。 그러나 산은 움직이지 않았다。 광란(狂亂)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속에서 마호멧은 조금도 동요를 보이지 않고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내일 한번 더 모여 준다면 꼭 기적을 보이겠노라 하였고、 군중은 마지막 기회와 목숨을 바꾸게 한다는 약속을 하고 흩어졌다。

통 사람으로선「향수와 여자이니라。」하리라。

마호멧도 향수와 여자를 좋아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첫째 「예배」를 좋아하는 인간이었다。 어디까지나 굳은 신앙에 기반을 둔 인간 예언자였다。

3

인간 예언자(人間豫言者) 마호멧에 관해서는 하등의 불가사의나 신화도 있지 않다。 모두가 수정(水晶)처럼 투명하다。

이름 있는 예언자들 중에서 그에게만 유독히 현저한 점은 그에게 내려진 계시인 쿠란 성전(聖典)은 삭제도、 개조도、 첨가도 없는 완벽한 것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그것이다。

쿠란은 교회용(敎會用)이나 휴대용(携帶用) 바이블과는 달리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국어(國語)를 쓰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쿠란 전권(全卷) 혹은 일부를 원어(原語) 그대로인 아랍어로 암기하여、 이슬람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대를 두고 매일 五회의 예배 때마다 소리높여 암송하고 있다。 그것은 실로 一四〇〇 년 전 마호멧이 발음하던 그대로의 발음인 것이다。 이것은 국적(國籍)、 언어、 풍습의 차이 없이 지금도 동일하다。

마호멧 자신도 말했듯이 마호멧의 기적(奇蹟)은 쿠란이다。 다른 예언자와 같은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딴 예언자들은 기적을 가졌었다。 나의 기적은 쿠란이다。 쿠란은 영원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우마르는 칼을 빼、 예언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벌가(罰價)로서 그 무슬림의 목을 베어 버렸다。

2

어느날 사도 마호멧과 교우(敎友)들이 길을 걷고 있었다。 지나가고 있는 절세의 미인(美人)에게로 시선이 갔다。

마호멧은 「알라—아크발!」이란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알라—아크발」이란 「알라는 위대하다」는 뜻)

교우들은 그 뜻을 잘 몰라서 물어 보았다。「저런 미인을 보고 어찌하여 알라는 위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알라는 아름다운 미인을 창조하시는 힘을 가졌으니 위대하지 않은가。」라고 마호멧은 대답했다。

마호멧은 향수(香水)를 퍽 좋아했다。 어느날 하루 교우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였다。「사도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교우들은 사도의 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내세관(來世觀)、신관(神觀) 등 심오한 종교의 철리(哲理)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었다。 마호멧은 대답했다。

「첫째 예배、둘째 향수、세째 여자이니라。」

이것은 「인간 예언자」 마호멧의 인간적 편모를 말해 주는 좋은 일화(逸話)라 하겠다。 보

그러나 그의 말과 이슬람 법(法)의 부분을 구성하지 못하는 그의 사견(私見)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예컨대 마호멧이 예언자의 자격으로 전달한, 신의 유일성(唯一性), 신의 속성(屬性), 예배, 사회, 민사(民事), 형사(刑事), 금기(禁忌)에 관한 교시(敎示)에 대해서 한 말은 이슬람교의 필수 부분이 되는 것이지만, 마호멧이 하나의 범부(凡夫)로서 말한 개인 의견과 충고는 이 범주(範疇)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 구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흔히 다음의 두 가지가 예로 들어진다.

예언자의 처 아이샤의 여노예인 바레라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남편 묵히스는 계속 노예의 신분으로 남기로 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자유로운 여인으로서 이슬람 법에 의해 남편과의 결혼을 인정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하였다. 그녀는 후자(後者)의 방향으로 결정지을 것을 검토했다. 그녀의 남편은 예언자(마호멧)에게 하소연하여 부부권(夫婦權) 회복을 위해 개입해 줄 것을 애원했다. 마호멧은 바레라를 찾아가 남편이 풀이 죽어 있으니 다시 남편으로 맞이해 가도록 충고했다. 그녀는 마호멧에게, 이것은 마호멧이 예언자의 자격으로 그녀에게 내리는 방향 제시인가를 물었더니 마호멧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호멧에게 동의할 것을 거부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유태인과 무슬림 두 사람이 어느 문제를 들고 마호멧을 찾아가 해결을 해 줄 것을 바란 일이 있었다. 예언자 마호멧은 유태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매우 못마땅해 한 그 무슬림은 확고 부동한 무슬림 지지자인 우마르(우마르는 후에 제二대 칼리프가 됨)를 찾아갔다. 유태인은 우마르에게 말하기를 이 결정은 이미 예언자에 의해서 내려진

「사도가 너희들에게 지정한 것을 취하라。 그리고 그가 너희들한테서 제지하는 것을 거부하라。」(쿠란 五四：七)

아담에서 비롯하여 인류(人類)는 위엄 장대(威嚴壯大)한 군주、 정복자의 장군、 위대한 명성을 떨친 철학자、 사상가、 세계적인 시인들을 배출하였으나、 과연 이들 인류사의 위인들 중에서 짓밟힌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간의 마음의 때를 씻어 주어 정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들은 과연 전 인류의 향상을 위해 추앙(追仰)할 만한 모범을 남긴 것일까。 평화가 군림하는 세계적 형제애(兄弟愛)를 건설함에 기여한 바 있는가。 인류의 도덕적 향상의 초석을 놓은 바 있는가。 정복자는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파괴와 황폐를 남길 뿐、 건설적인 것을 남긴 바 없다。 시인들은 오직 상상의 천국에서 살뿐이고、 철학자들은 하등 실질적인 공헌을 한 바 없었다。 사회악의 만능약(萬能藥)임을 입증한 것은 오직 마호멧의 인간성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설교자로서、 가족과 친구 속의 세속적인 인간으로서、 도인으로서、 지도자로서、 학자로서、 사회 개혁자로서、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그리고 광대한 왕국(王國)의 통치자로서 마호멧의 생애는 생(生)의 모든 면을 포함한 생애였고、 하디스란 바로 이와 같은 인생 모든 면에 걸친 예언자 마호멧의 언행록인 것이다。

았다。

쿠란의 다음 귀절(句節)이 이를 확증한다。

「너희들의 벗(마호멧)은 길을 잃고 있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니라。」
「또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다 그에게 내려진 계시일 뿐이니라。」
「그에게 (啓示를) 가르쳐 준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진 자로다(天使)。」(쿠란五三：二～五)
「너희들이 그(마호멧)에 복종하면 옳은 길을 가게 되리라。 사도(使徒)의 할 일은 명확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뿐이니라。」(쿠란 二四：五四)

그리고 예언자(마호멧)를 추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

「그리고、올바른 길로 보내 주었는데、그래도 사도와 다투고、신자(信者)가 되는 길이 아닌 딴 길을 가는 자、이러한 자에겐、제맘대로 택한 길을 가게 내버려 두리라。그러면 지옥에 다다르리라、무서운 종말이여!」(쿠란 四：一一五)
「신과 사도(使徒)에 의해서 이미 결정지어진 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가짐은 신자(信者) 남녀에게 적당치 못하도다。신과 사도에 불복한다는 것은 길을 잘못 들고 있음이니라。」(쿠란 三六：三六)

「인내심은 나의 옷이다。」
「만족감은 나의 이윤(利潤)이다。」
「빈곤은 나의 자랑이다。」
「신앙심은 나의 힘이다。」
「진리는 신 앞에서의 나의 조력자(助力者)다。」
「복종(服從)은 나의 명예다。」
「투쟁은 나의 인격이다。」
「나의 만족과 평화는 예배에 있다。」

마호멧의 인품(人品)은 인자하고、중용(中庸)이고、신앙이 두텁고、용맹하고、가혹한 참변이나 역경에 처하여 좌절하는 일이 없고、신의 가호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추종자들의 찬란한 규범(標本)일 수 있었다。생애를 통해 그는 흠잡을 곳 없는 인간이었고、덕(德)의 표본이었으니、성 쿠란의 가르침의 참모습이었다。

마호멧은 그가 인생의 귀감(龜鑑)임을 실생활로서 시범하도록 전지자(全知者)가 선정한 것이므로、추종자들은「마호멧의 언어 행동」을 성실히 눈익히고 명심해서 이를 후세에 낱낱이 전달했던 것이다。그들은 마호멧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은 신의 계시의 전달인 것이며、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이거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나타내는 말이 아님을 믿어 마지않

말하고 있다。「마호멧은 마치 가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 양、남에게 주었다。」

마호멧은 인자(仁慈)하였다。

잠자리의 발치 담요 속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가 잠을 깰까 봐 고양이가 일어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마호멧이었다。

옷은 항상 간소한 것을 입고 번쩍이는 것을 몸에 걸치지 않았는데、그렇다고 이것은 그가 은둔자(隱遁者)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다。

마호멧은 이렇게 인자한 반면、우리에게 「생의 힘과 인내」의 시범(標本)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남기고 있다。

「지식(知識)은 나의 자본이다。」

「사상은 나의 종교의 소스다。」

「사랑은 나의 근본 방침이다。」

「동경(憧憬)은 나의 차량(車輛)이다。」

「신을 염원(念願)함은 나의 벗이다。」

「자신(自信)은 나의 보물이다。」

「애도(哀悼)는 나의 교우(敎友)이다。」

「과학(科學)은 나의 무기다。」

미가 없었다。

마호멧이 일상 입는 옷은 누더누더 기워 입은 옷이었고、오막살이 토옥(土屋)에 살고 있었으며 집안의 가구(家具)라고는 원목(原木)으로 만든 침대 하나와 물동이 하나뿐이었다。이것이 정신적 지주이고 현세적 실권자이자 군주인 그의 산 모습이었으며、마호멧은 이 세상을 잠시 살다 갈 거처(居處)——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았다。

마호멧은 아이들이 노는 곳을 지날 때면 아무리 바쁜 걸음이라도 발을 멈추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다。옷이 떨어지면 손수 꿰매 입었고 손수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쓸었고、친절하고 어진 남편이자 어버이였다。

그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인물이어서、남의 집에 찾아 들어갔을 땐、자리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고 가까운 곳에 앉았다。

그는 교우(敎友)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내게 아첨 말게。나는 신의 종일세。〈신의 종、예언자〉그렇게 부르게。」

한번은 교우들이 앉아 있는 앞을 마호멧이 지나가게 되었다。마호멧이 오는 것을 본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마호멧은 그들에게「마치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게。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걸세。」

그는 내일을 생각해서 집에 재물을 쌓아 두지 않았는데、이에 대하여 아랍인들은 이렇게

을 해방하여 그들을 하나의 완전한 여성으로 존중, 이들 여자 노예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자 노예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암흑 세계인 이슬람 이전 시대의 처참했던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킨 마호멧의 시범의 하나이다.

마호멧은 그의 「고별의 순례」의 서약에서 추종자들에게 설교하기를 「아내를 친절히 대우하고, 남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였다. 「너희들의 노예를 대하기를, 너희들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것으로 먹게 하고, 너희들이 입는 옷과 똑같은 것을 입히라. 그들은 주(主)의 종복(從僕)이니 학대하지 말라.」 하였다.

마호멧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와 빈자(貧者)를 도와주었고, 문전에 찾아드는 걸인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대국(大國)의 군주 못지않게 된 후에도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다.

그는 어찌나 관대하였던지, 만약 빚을 갚지 못하고 죽는 무슬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갚을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죽을 때 자기 옷을 빚 때문에 빼앗겼다.

아라비아 전역을 무슬림이 장악하게 되자 사방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호멧은 모든 재보(財寶)를 공유 재산으로 다루어 매일 이것을 분배해 주었으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오는 배당은 이를 거절했다. 추종자들이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과 가족에게 우대(優待)하지 않도록 가족에게 금지령을 내려 희사(喜捨, Zakat)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의 가정을 다스린 조건이 이 정도였으므로, 집안에 불끼 없는 날이 비일비재하였으며, 끼니를 거르지 않고 지내는 날이 거의 없었다. 마호멧에게는 부귀영화에 흥

마호멧은 가장 간악한 반대자들까지도 용서하였다。 그리고 신에게 그들의 용서를 빌어 마지않았다。 마호멧에게 十三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갖은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가해 온 멕카인이었으나、 마호멧은 멕카를 평정하였을 때 대사령(大赦令)을 내려 티끌만큼도 보복하지 않았다。

가장 흉악했던 적장(敵將)들이 마호멧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대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마호멧의 묻는 말에、 평정된 적장들은 말했다。

「형제여、 자비(慈悲)로소이다。」

정복되어 무릎을 꿇은 적장들에게 마호멧은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니라。」

마호멧은 항상 일개 범부(凡夫)로서 머물렀으며 노예를 차별 대우하지 않았다。

그 좋은 본보기로서 마호멧은 하디자와 결혼할 때 선물로 받은 노예를 해방하였던바、 세상에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주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조차 없는 그 노예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하인(下人)이 되었는데、 마호멧은 이 하인 자이드(Zaid)를 자기의 조카딸과 결혼시킴으로써、 조물주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진리를 솔선 수범하였던 것이다。 그는 노예를 소유하는 즉시로 해방시킴으로써 마호멧의 추종자들도 따르게 하여 교우(敎友)들도 노예를 해방하였고、 당시 부동산의 항목으로 취급되었던 여자 노예들

우 밭길을 돌리려 하느냐。 밭길을 돌린다 한들 알라에겐 아무런 지장이 없느니라。 그러나 (어떠한 곤경에도) 감사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겐 알라께서 상을 내리시느니라。」
(쿠란 三：一四三)

(여기의 「마호멧은 사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니라」고 한 쿠란 귀절은, 즉 마호멧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인간이며 신이나 천사가 아니라는 단언인 것이다。「인간 예언자」인 마호멧의 자격은 이것으로 못박혀 있듯이 마호멧은 어디까지나 인격이므로 마호멧을 신격화(神格化)함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는 죄인 것이다。)

마호멧은 예언자로서의 마호멧일 뿐 아니라, 행정가(行政家), 입법자(立法者)로서의 마호멧이었다。 그러나 「신의 의사에 절대 복종」하는(그것이 바로 이슬람이다) 「인간 마호멧」이었다。

마호멧이 멕카를 정복하고 입성했을 때 그는 실질적인 절대 군주일 수 있었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머물렀다。

시이저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개선하여 군주를 수락하였다。

이 두 인물은 모두 위인이었으나 마호멧은 예언자——인간 마호멧으로 머물렀지만, 시이저는 인간 영웅으로 되어 버린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년 후	바니 아밀의 반란과 무슬림 선교단 학살
5 년 후	호(壕)의 싸움
6 년 후	후데이비아 조약
7 년 후	인접 왕국의 왕과 추장에게 입교 권유 메시지 발송, 카이발 원정(遠征)
8 년 후	마후타 원정, 멕카에 가다
9 년 후	다부크 진군(進軍), 아랍 부족의 대표단 메디나 방문, 무슬림의 멕카 순례
10 년 후	고별의 순례, 최후의 설교
11 년 후	와병(臥病), 사망

⑮ 인간 마호멧

1

「진실로, 너희들을 위하여 알라의 사자(使者)인 훌륭한 표본이 있느니라。」(쿠란 三三：二一)

「그리고, 마호멧은 사도(使徒)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니라。 다른 많은 사도들이 그보다 앞서 죽어 갔듯이, 그도 죽느니라。 그(마호멧)가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한다 해서 너희들

사도 시절(使徒時節)

40 세	계시(啓示)
3 년 후	남녀 40명이 이슬람에 입교(入敎)
5 년 후	무슬림의 아비시니아 이민(移民)
6 년 후	함자와 우마르의 입교
7 년 후	쿠레이쉬족의 사회적 보이코트
10 년 후	사회적 보이코트 종식, 숙부 아부 딸립의 사망, 아내 하디자의 사망
11 년 후	6 명의 메디나인 입교
12 년 후	메디나인 12 명이 또 입교
13 년 후	메디나인 72 명이 입교

히즈라(回敎歷紀元)에서 별세의 기간

53 세	히즈라
1 년 후	메디나의 무슬림 사회 발족
2 년 후	바드르 전(戰)
3 년 후	우후드 전(戰)

마호멧 연대기(年代記)

출생에서 히라 동굴 시기

서기 五七一년	
四월 二二일	출 생
1 주일 후	유모에게 보내짐
5 년 후	모친 아미나에게로 다시 돌아옴
6 년 후	모친 사망
8 년 후	조부(祖父) 압둘 뭇딸립 사망
12 년 후	시리아로 최초의 여행
25 년 후	하디자와 결혼
30 년 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림
35 년 후	자기의 출신 부족인 쿠레이쉬 족의 조정자가 됨
37 년 후	히라 동굴에서의 명상

「마호멧은 중키에 비대하지 않은 편이나、어깨와 가슴이 넓고 골격과 근육이 강했다。두골(頭骨)이 크고 강력하게 발달하였다。 흑발(黑髮)、약간 곱슬머리가 어깨까지 칠칠이 내려 흐르고 있었다。 노년(老年)에도 윤이나는 머리카락에 백발(白髮)이 얼마 없었다。……그의 얼굴은 난형(卵形)이었다。 아아치형의 긴 눈썹이 그가 열띠는 순간에 떨렸다。 길고 숱이 많은 속눈섭 아래서 크고 검은 눈동자가 움직였다。 코가 컸다。 매우 소중하게 손질한 그의 치아(齒牙)는 고르고 하얗게 빛났다。 얼굴에 그득한 수염이 그의 사나이다운 용모를 이룩하고 있었다。 피부는 깨끗하고 부드러웠고、안색은 붉고 흰빛이었다。 손은 비단처럼 윤이 흐르기를 마치 여인의 손결 같았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탄력성이 있어 산비탈을 내려오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얼굴을 돌릴 때는 전신을 돌렸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엄이 있었다。 그의 용모는 미소와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웃느니보 다는 미소짓는 일이 더 많았다。」

(The Speeches and Table-Talk of the Prophet Muhammad, by Stanley Lane-Poole, London 1882, Introduction pp. 27~29)

사는 마호멧이 그것을 쓰고 싶어함을 알아차리고 미스와크를 물에 적셔서 한쪽 끝을 이빨로 질겅질겅 씹어서 이 닦기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었다。 마호멧은 그것으로 이를 닦으며 여러 번 옆에 놓인 물그릇에 손을 담가서 타는 듯한 얼굴을 문질렀다。「오 신이여、나의 임종의 고통에 친절을 베푸소서。」라고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사랑하는 처(妻) 아이샤가 말했다。「갑자기 내 다리가 무거워지고 그를 지켜보니 눈동자에서 빛을 내며 마지막 말을 하셨읍니다。〈신과 함께 있고 싶으니라。〉」

이리하여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멧은 히즈라 十一년 「라비 울 아우왈」(Rabi-ul-Auwal) 달 十二일、별세하였다。

——그를 평안하게 해 줍소서。

⑭ 마호멧의 초상(肖像)

우상 파괴에 기반을 둔 이슬람이니만큼 그 예언자의 초상화가 있을 리 없다。

여기의 「마호멧의 초상」은 스탠리(Stanley Lane-Poole)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하루는 병이 좀 나아져서 모스크에 들어서니、마침 아부 바크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마호멧의 발소리를 들은 아부 바크르는 예배 인도자의 자리를 비키고 뒤로 물러서니 그는 아부 바크르를 손짓해서 불러 자기 옆에 앉게 하고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였다。마호멧 옆에 앉은 아부 바크르는 앉아서 예배보는 마호멧을 따라서 하고 딴 사람들은 아부 바크르를 따라서 예배를 보았다。(예배는 원칙적으로 횡대로 서서 보지만、병자의 경우엔 앉은 채 본다는 시범을 남긴 것이다。)

다소 소강 상태가 되자、그는 교우(敎友)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너희들에게 사절단이 왔을 땐 갈 때 선물을 주어 보내라。이교도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우사마의 군대가 사명을 달성하는 것을 보라。안사리에게 잘해야 되며 그들의 잘못을 관대히 보아넘기라。」

임종(臨終)이 가까와오자 그는 아이사에게 말했다。「집에 있는 것은 다 구호(救護)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시오。」집에 있는 것이라곤 五드라츠마(7sh, 1d)밖에 없었는데、이것을 모두 주어 버렸다。

그는 방의 커튼을 걷어올리고 모스크의 안마당을 내다보며 합동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것에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아부 바크르의 아들 압둘 라만(Abdul Rahman)이 미스와크(Miswak—칫솔로 쓰는 나무 뿌리。치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뿌리로 이를 닦는다。대개 한 뼘 정도의 크기。이슬람 국가에선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찬찬히 보고 있는 것에 눈길이 간 아이

이해에 그는 병에 걸렸는데 점점 더해 가고 있었다。
이 소식은 불한당들에게는 경쟁 의식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자극이 되었으나 곧 없어졌다。

마호멧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접경(接境)의 충돌에 대한 청문회(聽聞會)를 소집하여 이야기를 들은 다음 군대의 집결을 명령했다。 그는 우사마(Usama)를 군사령관(軍司令官)에 앉히고 병석에서 일어나서 우사마에게 지휘봉을 맡긴 다음 군대와 결별했다。
군대는 진격하여 메디나에서 멀지 않은 자라프라는 곳에 진(陣)을 쳤다。 알리(Ali)와 압바스(Abbas)는 뒤에 남아서 마호멧을 돌보았고、 우마르(Uamar)와 아부 바크르(Abu Bakr)가 군사령관의 허가를 받고 가끔 자라프 진지에서 그를 보러 왔다。
마호멧의 병세(病勢)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어느날、 좀 차도가 있자 그는 밖에 나와서 추종자들에게 연설을 했다。
「신을 두려워하라。 나는 그대들을 위해 기도한다。 신이 그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대들을 신에게 위탁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죄와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고해 주었다。 오 인간이여、 거만과 자만(自慢)을 없이하라。 천국과 내세(來世)의 축복은 겸손하고 의로운 자의 것이니라。 자만(自慢)이 살 곳은 지옥이니라。」
마호멧이 예배 인도를 아부 바크르에게 부탁하자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사(Aisha)가 애원하기를、「나의 아버지에게 그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연약하십니다。」 고 말했으나、 마호멧은 그대로 주장하여 이 직책은 아브 바크르에게 위임되었던 것이다。

⑫ 고별(告別)의 순례

히즈라 一〇년이었다。

무슬림 국토(國土)에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고、마호멧은 대순례단(大巡禮團)을 인솔하고 멕카 순례를 하였는데、그는 이 순례에서 메디나로 귀환 후 三개월만에 와병(臥病)、별세하였다。따라서 이 순례를 「고별의 순례」라고 한다。

이 항(項)은 제二부의 〈마호멧의 고별의 순례에서 행한 설교(說敎)〉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⑬ 마호멧의 별세

히즈라 十一년이었다。

마호멧의 사명(使命)은 이미 완수되었으며、그의 신앙은 완성을 보아 성공적이었다。

한편으론 무한한 관용(寬容)을 거듭해서 가르치면서 한편으론 추종자들에게 법(法)의 존중을 엄격히 훈련시켰다。

한번은 매우 유력한 부족의 부인이 도둑질을 한 것이 발견되어 일반 범인과 다름없이 유죄(有罪)를 선고했던바、이에 화가 난 쿠레이쉬 족의 귀족들은 그녀의 변호(辯護)에 나설만한 유력한 사람을 찾다가 급기야 마호멧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이드의 아들 우사마(Usama)에게 이 일을 부탁하였다。

그녀를 대리(代理)해서 우사마가 입을 열자 마호멧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스치며 말했다。「오 우사마、신의 율법(律法)을 간섭하려 드느냐?」 그리고는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말했다。「오 인간들이여、유력자의 죄는 보아넘기고 조그만 과실을 가지고도 약자(弱者)에겐 죄를 내림으로써 너희들 이전 사람들은 파멸되어 갔다。신이 나의 증인이다。나는 설사 나의 딸 화티마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오른손을 잘라 내라고 명령하리라。」

다부크에서 무슬림들이 귀환하자 사절단이며 대표단들이、때로는 부족 전원이 끊임없는 강물처럼 메디나로 밀려와서 대열에 참가했다。

같은 해에 마호멧은 아부 바클을 대표로 하는 백 명의 교우들을 메카 순례에 보냈으며、그때 끌고 간 회생제(犧牲祭)에 쓸 낙타가 二〇 마리였다。

이교도의 성지(聖地) 출입 금지와 카아바 신전에서의 이교도의 종교 의식(宗教儀式)을 금지하는 법령을 강화하기 위해서 알리도 파견되었다。

데, 하팀은 인심좋은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마호멧 앞에 끌려나오자 그녀의 부친의 선행(善行) 때문에 당장 석방하라고 명령하니, 그녀는 「내 언니는 이곳에 잡혀 있고 나만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마호멧은 「과연 하팀의 딸이기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모든 타이이의 여인에게 자유를 허용했다. 그녀는 이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이슬람에 입교(入敎)하고 시리아까지 길을 떠나, 오빠를 찾아가서 입교를 설득함에 오빠도 누이를 따랐다.

한편 당대의 유명한 시인(詩人)의 한 사람인 캅(Kab)은 무슬림 사회를 풍자한 시(詩)를 썼는데, 입교한 다음부터는 「이슬람의 예언자」를 찬미하는 불멸의 시가(詩歌)를 썼다.

앞에 서술한 바 있는 우베이이의 아들 압둘라는 아마도 메디나의 무슬림 사회에 대항한 가장 흉악한 모반자이리라. 그는 비상시(非常時)마다 항상 배신해 왔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헌신적인 무슬림이었다. 어느날 그는 예언자를 찾아와서 말했다.

「나에게 내 아비를 죽이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행(非行)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무슬림이 그를 죽인다면 나는 복수의 피를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며, 그러면 내 손으로 무슬림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아니다. 안 된다.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가 살아 있어서 광명을 보고 자신을 개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마호멧은 말했다.

그러나 압둘라는 광명을 못 보고 죽었다. 마호멧은 그의 장례의 예배를 주재(主宰)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속옷으로 적의 시체를 감싸 주었다.

아부 아밀도 같은 목적으로 시이저를 찾았다。

무슬림에 대항하는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안 마호멧은 모든 무슬림 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메디나에 집합하도록 했다。 가까운 곳、먼 곳에서 무수한 무슬림 병사들이 메디나에 집결했다。 메디나의 멕카 출신 피난자(避難者) 무슬림과 메디나 출신 조력자(助力者) 무슬림들도 다함께 원정대를 위해 사심(私心) 없는 공헌을 하여 三만 명이 집결해서 장비를 갖추었다。

마호멧은 역시 마호멧의 이름을 가진 살마의 아들인 교우(敎友)와 사촌 알리를 각각 메디나의 총독과 방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자신이 군대의 선두에 서서 진군(進軍)、메디나 북방 약 三〇〇 마일 지점에 있는 다부크라는 곳에 진을 쳤다。

이 군세(軍勢)에 사기(士氣)를 잃은 로마 병사와 갓산 병사들은 싸우지 않고 퇴각했다。 무슬림 군대는 다부크에 그대로 二〇 일간을 머물렀는데、많은 추장들이 진지로 평화와 우정의 선물을 보내왔었다。

싸움 없이 철수하여 메디나로 오는 도중、이제는 신종교가 자기들의 묵은 편견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된 따이프의 대표들도 메디나에 와서 이슬람에 입교했다。

신종파가 아라비아 전역을 실질적으로 석권하였으나、작은 충돌은 계속되었고、때때로 그들의 이교(異敎)와 모반(謀反)으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으며、소규모의 정벌대를 보내어 이러한 반란을 진압해야만 했다。

반란은 쉬 뿌리뽑혔다。 무슬림에게 잡힌 포로 중에 전 추장(前酋長) 하팀의 딸이 있었는

그들 무슬림 사회는 또한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이며 마호멧과 교우들에게 초인간적 힘이나、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敎皇)의 불유성(不謬性)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음을 배웠다。다시 말해서 예언자 마호멧은 인격(人格)이지 신격(神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인간의 우열(優劣)은 선(善)에 의해서 판단되고 물질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겸손이 교만보다 덕(德)이며、관대가 과욕(過欲)보다 우위이며、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하여 노예를 석방하여 평등하게 대우하고、모욕하지 말 것과、마음이 더렵혀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할 것과、술에 빠지거나 난혼(亂婚)、음탕(淫蕩)을 버리는 것이 덕(德)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여인(女人)을 인간으로 존중하고、물건처럼 사고 팔지 말아야 하며、여인의 상속권、결혼권、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배웠다。

마호멧은 이 가르침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다。「천국(天國)은 어머니의 발 밑에 있느니라。」

히즈라 九년이었다。

이제 신종교의 명성(名聲)은 아라비아 반도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으며、인접 왕국들은 힘차게 커 가는 새로운 움직임에 우려(憂慮)를 표시하기 시작했다。갓산왕은 마우타의 패전(敗戰)을 설욕하기 위하여 로마에 사절을 보내어 원병(援兵)을 요청했다。멕카의 승려인

했다。

무엇보다도 예배 때의 세정(洗淨)은 정결과 위생의 양면의 뜻을 갖는 육체적 정결과 내적 순수성의 상징이었다。 또한 예배 방향의 통일은 카아바 신전을 우상화하거나 숭배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고、다만 모든 신도(信徒)의 초점을 설정함으로써 신도의 이념적 통일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세째로 합동 예배의 종대식 정열(縱隊式整列)은 수련(修練)과 인간 평등의 상징인 것이었다。 이 수련과 평등주의는 멕카 순례에서 더욱 강력히 표현되어 있다。「멕카 순례」에는 출신 계급이나 지위의 차별 없이 동일한 순례복을 입는데、알몸에 백의(白衣)의 광목(廣木) 두 장으로 상하를 가린다。

무슬림 사회는 모든 종교에 경의를 표하고、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적대시하지 말 것을 가르쳐 받았다。 그리하여 당시에 기독교 선교단이 메디나에 오자 그들을「예언자의 모스크」에 머무르게 하고 모스크에서 그들 크리스천 예배를 보도록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용은 이교적(異敎的) 미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따이프의 대표단이 이슬람에 귀의 후 메디나를 찾아와 요청하기를、「자기들의 미신적인 여인들을 고려해서」우상(偶像)에 손대지 말고 방치하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이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다。

우상(偶像)은 초자연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전적으로 파괴했던 것이다。

(「하산(Hasan)이란 「아름답다」는 뜻인데, 하산은 이름대로 예쁜 손자였다。) 이때의 마호멧은 통치자이며, 총사령관이며, 최고 재판관일 뿐 아니라, 사도(使徒)이고 입법자(立法者)이고, 최고의 국민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서민과 다른 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집은, 부자와 빈자, 귀족과 농사꾼, 무지한 사람과 학자(學者), 남녀, 주인과 하인의 차별 없이 모든 방문자에게 언제나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들 방문자들이 그들의 문제거리, 근심거리, 의혹(疑惑) 따위를 갖고 찾아오면 마호멧은 일일이 귀담아 듣고 인내 깊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마음이 흡족해서 돌아가게 하였다。

마호멧의 교우(敎友)들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과, 일상 생활에서의 그의 행동과, 그들의 눈에 띈 마호멧의 희비애노(喜悲哀怒)의 표정을 기억했다가 기록하였는데 (하디스 보존의 史實), 이는 딴 종교의 신봉자들이 복음(福音)의 원본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세밀하고 정확한 것이었다。

신종교의 실제적인 것을 관찰하려고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찾아온 여러 부족과 사회의 대표단들은 이슬람의 단순성, 직접적인 성격, 부담감 없는 종교 의식(宗敎儀式)을 관찰하였다。 이들의 사회에 도입되어야 할 것은 오로지 「유일신(唯一神)의 신앙」과 「신의 예언자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들은 모든 양심적인 행동은 그것이 의롭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이상 신앙의 일부라는 것을 관찰하고 갔다。 예배 의식(禮拜儀式), 윤리적 사회적 의의가 다 명확함을 관찰

았다。
한번은 돈을 구하려 온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마호멧의 집에는 돈 한푼 없었다。 마호멧은 그에게 「아무나 유복(裕福)한 사람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꾸도록 하라。」고 말했다。(마호멧 이렇게 해서 꾼 돈을 갚을 돈이 없어서 임종(臨終) 전에 자기의 옷을 빚 대신 갚았다。)
그의 인자한 인격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날 잠자리를 찾아드는 고양이 때문에 중요한 일손을 멈추고 문을 열어 주는 그였다。 발치 담요 밑에 끼어서 자는 고양이가 깨는 것이 애처로와서 고양이가 일어날 때까지 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지 못하는 부드러운 마음씨의 사나이였다。 흔히 자기의 낙타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한번은 참새가 미친 듯이 제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짹짹거리므로 알아보았더니 알이 없어진 때문이었다。 그는 알을 가져간 자를 찾아내어 알을 도로 갖다 넣으라고 명령했다。 「말못하는 힘없는 동물을 해친다면 신(神)이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낙타가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유목민 주인을 엄하게 꾸짖기도 하였다。

그의 처소는 일인 법정(一人法廷)이었으며、 언제나 문을 열어 놓아서 구원(救援)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였으며、 법정(法廷)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처리되었다。 그의 가슴은 인자(仁慈)로 차 있어서 아이들을 퍽 사랑했다。
손자 하산과 후인 노예의 아이 우사마를 두 어깨에 얹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의 얼굴은 참다운 사람의 얼굴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그를 보고 나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말을 가슴에 지니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다. 그는 아랍족의 최고 강자로서 가장 큰 영토와 정예 부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왕좌(王座) 대신 마룻 바닥에 앉아 있고, 왕관(王冠) 대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을——그들은 눈으로 보았다.

그는 종족(種族), 민족, 지위의 높고 낮음에 차별없이 동등한 예의(禮儀)와 친절로써 누구나 다 반가이 맞이했다.

그는 그의 명령이라면 언제 어디에서고 최선을 다한 용의가 되어 있는 무수한 귀의자(歸依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신발을 제 손으로 수선(修繕)하고 옷을 손수 꿰매고, 양젖을 짜고 부드러운 손으로 집안 일을 손수 하는 것이었다.

여기 유일무이한 군주(君主)가 있었으니, 가구(家具)라고는 도무지 끈이 달린 상자(箱子) 하나뿐이었다. 침대에는 대추나무잎(棗椰子樹葉)을 채운 이불 하나뿐이었다.

대추(棗椰子)와 오트밀의 빈약한 식량이 떨어지는 날이 허다했고 화로에는 불기운이 없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하인이나 눈치만 살피는 궁중 신하와 대신들이 있지 않았고, 법 제정(法制定)에 있어 과시나 화려 장엄한 것이 없었다.

그는 최고 영광 속에서도, 최악의 역경 속에서 그러하였듯이, 겸소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의 박애(博愛)는 대해(大海)와 같이 무한했다. 걸인이 문앞에 찾아왔는데 집안에 있는 것이라곤 도무지 대추 한 움큼밖에 없을지라도 이것을 주어 보내고 가족은 굶는 수가 많

뜨바(Utba)를 멕카 총독으로 임명했다。 그는 불과 二〇세의 약관이었다。 생계에 걱정 없이、 위임받은 일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에 一드라크마(Drachma : 1.5 실링)의 급료(給料)를 주었다。 또 그 외에 마아즈(Máaz)라는 교우(敎友)를 임명하여 교육과 선교(宣敎)를 위임했다。 우트바는 성지(聖地)의 총독으로서 멕카 지도층으로서 순례를 한 최초의 무슬림이었다。 그의 순례에는 무슬림과 이교도(異敎徒)가 동시에 각각 의식을 가졌는데、 서로 간섭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

이제 멕카에는 이교도들이 무슬림과 친밀한 사회적 유대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같은 구역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생활과 행동을 눈익혀 보아 오는 동안에 많은 감명과 영향을 받았다。 멕카 순례를 마치고 메디나로 돌아온 마호멧은 같은 해에(히즈라 八년) 주기 예배(週期禮拜—매주 금요일)때 사용하는 설교대(說敎臺— 민바르)를 내부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는 전세계 회교 성원(모스크)의 전통이 되고 있다。

이 무렵 바레인(Bahrein—오늘날 아라비아 만에 위치해 있는 토후국(Shakedome))의 통치자가 이슬람에 입교했다。

이 시대에 이르러 신종교의 조류는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파급하여 이제 마호멧의 말은 한낱 광야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 먼 곳 가까운 곳에서 크고 작은 각 부족들과 인파(人波)가 자기들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만나러 몰려들었다。 추장(酋長)이며 귀족들、 과부와 고아(孤兒)、 남녀노소의 인파가 끊일 사이 없었다。 메디나로 몰려들어 여러 날을 묵으며、 마호멧을 만나보고 설교를 들었다。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감탄했다。「이 사람

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안사리들은 「진실로, 신과 신의 예언자의 크나큰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마호멧은 말했다.

「너희들은 가난했으며, 신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을 부자로 해 주시지 않았는가?」

「진실로, 신과 신이 보내신 예언자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 주셨나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마호멧은 말했다. 「너희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모든 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거절할 때 우리는 받아들였읍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에게 피신처를 주었읍니다. 당신을 돕는 사람 없을 때 우리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읍니다.〉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오 안사리 형제들이여, 너희들의 말에 나의 단언(斷言)을 추가하여 입증해 보이겠으니, 여기서 양자 택일하라. 저들(멕카 무슬림 피난자)에게 이번 싸움에서 손에 들어온 양(羊)과, 여생(餘生)을 너희들과 함께 있을 이 마호멧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는가?」

이 말을 들은 안사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또한 이리하여 마호멧은 메디나를 영주지(永住地)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따이프에서 저항하던 적과도 평화를 이룩하게 되자 마호멧은 다시 한번 멕카 순례(巡禮)를 했다. 순례 의식을 다 마치고 메디나로 돌아감에 즈음하여 교우(敎友)의 한 사람인 우

위기에 직면한 마호멧은 대갈일성 도주하는 병사의 발을 멈추게 했다. 「나는 신이 보낸 예언자다. 내 말을 의심하는 자 없으리라. 나는 압둘 뭇딸립의 상속인, 마호멧이다.」

이 소리를 들은 무슬림 병사들은 도주의 발길을 돌리고 다시금 집결했다. 그들의 반격은 용감 무쌍한 것이어서 적진(敵陣)은 무너져 둘로 갈라졌다. 다른 일진(一陣)은 전장을 버리고 도주했고 다른 일진은 따이프의 성루(城壘)로 피해 갔다. 마호멧은 성루를 공략하였으나, 유목민의 현자(賢者)의 충고를 받아들여 후에 철수했다. 한편 패주한 하와진 부족은 六명의 추장을 보내어 평화와 자비를 애원해 왔다. 마호멧은 이를 수락하여 모든 포로들을 석방했다. 사키이프 부족도 이에 따랐다. 그리하여 이 역시 모든 포로들을 석방해 주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신종교에 귀의하도록 강요하거나 서약 또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포로 중에는 마호멧의 유모(乳母)인 하리마가 끼여 있었는데, 마호멧은 그녀를 정중히 면접하고 땅 위에 상의(上衣)를 벗어서 깔아 주고 앉게 하였으며, 많은 선물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무슬림 병사들의 전리품(戰利品) 배당에 있어 메디나 무슬림 간에는(메디나 원주민 무슬림. 이들은 멕카에서 이주해 온 무슬림 무하질(避難者)을 도운 안사리(協助者)라 함은 앞서 이야기하였음) 멕카 무슬림과 유목민 부대의 대우가 자기들보다 좋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려 왔다. 이 불만의 소리는 결국 마호멧의 귀에 들어왔다. 마호멧은 메디나 무슬림을 소집하여 말했다.

「안사리들이여, 암흑 속에서 살던 너희들에게 신이 나를 통해서 광명으로 인도해 주셨음

우후드 전투에서 쓰러진 함자의 간(肝)을 꺼내어 씹은, 피에 굶주린 아부 수피안의 처는 야만적인 살인자였지만, 그녀도 용서받았다. 무슬림 캬라반이 메디나로 가는 도중에서 마호멧의 딸 자이납을 잔인하게 살해한 합발이라는 자도 용서를 받았다. 멕카의 정복(征服)은 전쟁사(戰爭史)에 관대와 관용의 선례(先例)를 만들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이것뿐이었다.

멕카의 정복자는 승리를 장려할 축제를 벌이지 않았다. 대관식(戴冠式), 군악(軍樂) 연주, 화려한 과시 따위는 없었다.

다만 땅에 엎드리어 신에 감사하는 예배가 있을 뿐이었다.

멕카 정복 얼마 후의 일인데, 멕카를 공격해서 무슬림의 승리를 탈환하려는 대군(大軍)이 후나인(Hunayn) 계곡에 집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이때의 마호멧은 一만二천명의 무슬림과 二천명의 비 무슬림을 집결시키어 후나인으로 진격했다. 대치(對峙)한 적진(敵陣)은 사키이프와 하와진의 이대 부대(二大部隊)였다.

무슬림의 진격을 앞질러서 하와진 부족은 전략적 요충 지대(要衝地帶)를 이미 점령하고 있다가 계곡이 한눈에 보이는 협곡(狹谷)으로 무슬림이 진입(進入)하자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있던 하와진 부족의 명사수들이 화살을 비내리듯 퍼부어 무슬림 대열에 일대 파괴를 가져왔다. 혼비백산해서 도주하는 자가 많이 나오고 그들의 지도자와 남은 병력은 불과 열마밖에 되지 않았다.

족이었다。 그들은 반마호멧의 음모자(陰謀者)들이었으며、우정을 공언(公言)하고 나서 배신하는 모반자(謀反者)들이었으며、각 부족들을 선동하거나 딴 나라 왕(王)들 앞에서 그를 불신하도록 하였고、피난해 가는 곳마다 추적하고 마호멧이 거처(居處)하였던 성스러운 곳은 이를 모조리 파괴해 버린 그들이었다。

당시의 아라비아는 전쟁의 규칙으로서 자비와 관용을 모르던 때였다。 전투원에게 숙소(宿所)를 주는 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패전(敗戰)의 댓가는 노예가 아니면 죽음뿐이었다。 패전할 경우 정복자에 의한 유배(流配)、투옥(投獄) 또는 대중 앞에서의 매질이 면제되는 일이 없었고、최소한 두목들은 예를 남기기 위해서 사형(死刑)에 처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호멧의 자비 아래 놓인 멕카에서는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를 노예로 삼거나 처형을 내리든가、욕 한 마디도 없었다。

「우리의 몸을 당신의 자비(慈悲)에 맡기겠읍니다。」라고 마호멧의 적(敵)들이 말해 오면 마호멧은 대답하는 것이었다。「평화롭게 돌아가거라。 너는 자유이거니 누구도 너를 보복하지 않으리라。」

마호멧은 맹세나 보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무슬림이 멕카에서 피난나갈 때 빼앗긴 재산조차 권리를 포기할 것을 무슬림들에게 설득하였다。

아부 자흘의 아들인 아크라마라는 자는 무슬림 二명을 죽이고 도망쳤는데、그 자의 처(妻)가 대신 서약을 하고 용서를 받는 일조차 있었다。 그자는 용서를 받은 다음 돌아오도록 허용되었다。

카아바 신전의 열쇠 보관은 명예로운 높은 직책이었으며, 고명(高名)한 무슬림들 중에는 이것을 은근히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호멧은 지금까지 열쇠 보관을 맡아 오던 사람에게 돌려주며 계속 보관케 했다.

「이 열쇠는 영원히 네 집과 함께 있으리라.」고 그는 말했다.

그때의 그 가문(家門)이 지금도 그 열쇠의 보관인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는 마호멧은 일어서서 말했다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신은 배우자가 없으며 신에 비길 다른 것이 또 없다. 오늘 신은 신의 약속을 이행하셨다. 신은 모든 신의 종을 도우시어 신의 적을 누르고 승리를 안겨 주셨다.」

「신과 신의 예언자를 믿는 자로서 제 맘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함은 불법이다.」

「나는 오늘로서 이교(異敎) 시대의 모든 관습과 종교 의식을 폐지한다. 카아바 신전의 「잠잠 성천(聖泉)」은 전과 다름없이 존속한다. (「잠잠 성천」 전술 참고)

「오 쿠레이쉬 족이여, 조심할 일이다. 신은 너희들의 이교 시대의 파벌 싸움과 혈통과 가문의 자랑을 파괴하셨다. 인류는 다 한 선조(先祖) 아담의 후예들이다. 아담은 한줌 흙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성도(聖都) 멕카는 이제 마호멧의 의심할 바 없는 영역이 되었고, 오만한 쿠레이쉬 족은 완전히 그의 자비 밑에 놓여졌다.

마호멧의 피에 갈증을 느끼던 그들이었고, 마호멧과 교우(敎友)들을 박해했고 잔인한 고문(拷問)과 모욕을 자행하던 그들이었다. 대중 앞에서 모욕하고 저주하던 그들 쿠레이쉬

「카아바 신전(神殿)에 들어가는 자는 용서받는다。」
「무장하지 않고 자기 일터에 가는 자에겐 평화가 있다。」

그들의 신앙을 바꾸도록 강요하거나 신변(身邊)의 안전 보장으로 정복자의 신앙을 받도록 하는 사전의 조건 같은 것은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간단한 조건이 내려졌을 뿐이다――그것은 평화로운 복종이었다。

그리고는 소대(小隊)로 나누어 여러 방향으로부터 실로 여러 해 동안 추방당한 끝에 고향에 돌아왔다。 그동안 가장 친근한 사람、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은 겸손해진 적에게서 이제까지 받아온 잔학성과 박해와 고통의 쓰디쓴 기억이 가슴에 살아있었다。 그러나 복수(復讐)나 보복(報復)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방위력(防衛力) 없는 원수에게 칼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멕카의 한 구역에서 쿠레이쉬 족이 저항해 왔으나 카리드 이븐 와리드가 인솔하는 그들은 빗발치는 화살의 대접을 받았을 뿐이다。 저항은 곧 평정되었으며、一五명 내지 一八명의 쿠레이쉬 족이 쓰러졌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마호멧은 상심(傷心)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었다。 모든 유혈(流血)은 이를 엄격히 금했었다。」고 말했다。

마호멧은 선두에 서서 카아바 신전으로 들어가 실로 오랜 시대를 두고 카아바 신전의 신성함을 더럽혀 온 우상(偶像)과 잡신(雜神)들을 손수 치워 버렸다。

를 자기들의 손으로 뽑아 버리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군(大軍)을 집결하여 멕카 진격을 단행하는 것이다。

초기 무슬림 사회의 핸디캡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영역 밖을 나서는 경우에는 공포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무슬림의 명성과 힘은 이마 커져 있어서 진군(進軍)을 간섭하거나 제지하는 자는 없었다。 그들은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멕카 몇 마일밖에 남지 않은 곳에 다다르자 진군을 멈추고 하룻밤을 야영했다。 마호멧은 명령을 내리어 분대(分隊)마다 불을 밝게 비취게 하여 멕카 사람들에게 이쪽의 군세(軍勢)를 알리도록 했다。 멕카인들에게 그들의 저항이 쓸데없음을 알려 전투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호멧은 언제나 불필요한 유혈전(流血戰)을 피할 것에 마음을 써 왔듯이 어쨌든 유혈 충돌이 없었다。

쿠레이쉬 족도 이에 찬동해 왔다。
쿠레이쉬 족의 무서운 두목(頭目)인 아부 수피안(Abu Sufyan)이 대표로 마호멧의 앞에 나와서 이슬람에 입교(入敎)했다。

아부 수피안은 멕카에 돌아와서 마호멧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다。

「아부 수피안의 집으로 피신하는 자는 용서받는다。」

「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용서받는다。」

분산된 병사들을 재집합시켜서 적을 패주케 하였다。

히즈라 8년의 일이었다。

후데이비아 조약은 체결된 지 근 二년이 되었는데 멕카의 쿠레이쉬 족측에서 조항을 위반하여 그들의 동맹군이 무슬림 동맹군을 공격해서 막대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었다。공격을 받은 부족은 마호멧에게 불평했다。마호멧은 멕카에 서한(書翰)을 보내 조약에 의하여 피습자(被襲者)의 손해 배상을 하든가、아니면 무슬림 측은 임의대로 하겠음을 요구했다。

그들은 양자택일하여 조약 폐기를 알려 왔다。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부 수피안을 메디나로 파견하여 이를 수정(修正)하고자 하였으나、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11 마호멧의 멕카 귀환

八년간에 걸쳐 멕카는 반무슬림 음모의 온상(温床)이었다。

아라비아 반도 어느 곳에서건 분쟁과 박해가 발생할 때마다 멕카의 적은 이것을 돕고、선동하고、성원하고、격려했다。무슬림은 인내에 지칠 대로 지치어、급기야 이 고통의 씨

다。 그 후 예멘의 태수는 이슬람에 입교하여 마호멧의 추종자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불과 몇 해 안 가서 퍼베즈의 왕가(王家)와 제국은 무슬림 군에 의해서 소탕되었다。

아비시니아 왕은 온순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이였다。 그는 서한(書翰)을 받고 곧 무슬림 대열에 참가했다。

잔인성으로 이름이 높은 완강한 세도가 아랍 추장 쉐지일에게도 서한이 보내졌었는데、 그는 무슬림 전권 공사를 체포해서 죽였다。 당시의 관습상 이는 공공연한 선전(宣戰)이었다。 그들의 공격을 선제(先制)하기 위하여 마호멧은 三천 명의 전사(戰士)를 모아서 파견했다。 이 三천 명 가운데에는 쿠레이쉬 족의 명문(名門)과 협조자의 지도자들인 멕카·메디나의 귀족과 이름높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호멧은 그들의 수령(首領)을 추장이나 귀족으로 세우지 않고、 석방해서 자유를 준 노예나 자기의 노예인 자이드를 수령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무슬림 사회에서는 오로지 공덕(功德)과 선(善)만이 존중되며、 재산이나 영향력은 치지 않음을 구현(具顯)하기 위해서였다。

쉐지일은 이쪽보다 훨씬 대군(大軍)을 보내왔고 마우타(Muta)라고 하는 곳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양쪽 군사가 모두 용감하게 싸웠다。 마호멧이 석방해 준 노예인 자이드、 예언자의 사촌인 자팔、 압둘라 이븐 라와하 등 여러 싸움에서의 용사인 이름높은 교우(敎友)들이 이번 싸움에서 쓰러졌다。 그러자 이젠 무슬림이 된 카리드 이븐 와리드가 사령관이 되어

마호멧의 서간(書簡)이 시이저 제국의 궁전에 전달되었을 때 마침 멕카의 추장인 아부 수피안이 궁전에 와 있었는데, 시이저는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낸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물어 보니 그는 말했다.「압둘라의 아들 마호멧은 귀족 출신입니다. 마호멧의 추종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는 정직하고 참다운 사람이며 거짓말한 적이 없으며, 약속을 깨뜨린 적도 없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유일신(唯一神)만을 섬기고 잡신(雜神)을 섬기지 말도록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경건하고 관대하라고 설교합니다.」

시이저는 이 서간(書簡)과 아부 수피안의 증언에 크게 감동하여 메시지에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 같다. 시이저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이어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를 설득조로 말했다. 광신적인 성직자들은 시이저의 마음이 동요함에 당혹(當惑)하며 새로운 신앙을 가혹하게 반대했다. 그들이 당혹한 것은, 이 새로운 신앙은 단순하고 민주주의적이기는 하나 저희들의 권한, 재산, 영향력을 위협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시이저는 감히 성직자들을 불쾌하게 할 생각이 없었으며,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을 입밖에 내지 않고 죽었다.

페르시아 황제 퍼베즈는 서간(書簡)을 받고 격노하여 찢어 버리고 예멘의 태수(太守)에게 명령하여 서간의 발송인을 잡아서 궁전으로 끌고 오라 했다. 예멘의 태수는 두 사람을 대표로 멕카에 파견해서 조사케 했다. 이들이 마호멧 앞에 끌려오자 마호멧은 말했다.「너희들을 이곳에 보냈고 너희들이 그를 신(神)보다 우위(優位)에 모시는 자는 이미 죽고 없다.」 이 자들은 크게 당황해서 예멘으로 돌아가 보니 과연 퍼베즈는 그의 아들 손에 죽고 없었

전사한 유태인 귀족의 부인이 마호멧과 교우(敎友) 몇 사람을 자기집으로 식사에 초대했다。 음식엔 독(毒)이 들어 있었다。 마호멧은 배신을 의심하여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으나、 교우 바실은 음식을 먹고 독살되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 배신 행위에 대해서 유태인 사회 전체가 처벌당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마호멧은 이를 제지하고 범죄 여인만 처벌했다。

그러자 유태인은 자기들의 토지에서 추방하지 말 것、 가옥과 재산을 박탈하지 말 것、 그 대신 복종과 세금 지불을 맹세하겠다고 제의해 오자、 마호멧은 이것도 수락하고 그들의 재산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같은 해에 마호멧은 二천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후데이비아의 조약을 준수하며 순례를 갔다。 무슬림은 조약문의 조항을 마음대로 써 넣을 생각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해졌으나、 서명한 대로 지켜 나갔다。

이제 「신의 말」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서 멀리에까지 미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하여 마호멧은 「로마의 시이저」、「이란왕」、「애급왕」、「아비시니아왕」、「예멘의 추장」들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 동일한 것으로서 정치적、 외교적 글귀를 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말」을 택하라는 것이었다。 이 서간(書簡)은、 위에 「신의 이름으로」 라는 글귀와 아래에 「발신처(發信處)」、 그리고 맨끝에 「마호멧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당시의 애급왕이 보존한 것이 현대에 남아 있다。

「나는 한 말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마 신께서 길을 터 주시리라。」고 했다。
우트바는 복종을 다짐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두 사람과 말을 타고 돌아갔다。 세 사람이 메디나의 경계선을 넘어서자(여기서부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 우트바는 그들을 덮어누르고 한 명을 찔러 죽이자 한 명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우트바는 해안(海岸) 지방으로 도망쳤는데、 이곳은 무인 지대이며 멕카 인、 메디나 인 어느 쪽도 조약에 저촉되지 않았다。 이것은 압박받고 있는 멕카의 무슬림들에게 새로운 대로(大路)를 개척하였으며、 그들은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도망쳐 나가서 해안 지방에 무슬림 영토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무슬림 영토는 시리아 지방으로 가는 대상로(隊商路)였으므로、 이는 멕카의 쿠레이쉬 족측에게는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대상(隊商)의 안전에 겁을 품고 적이 대상 통로에 있느니보다는 멀리 메디나에 있기를 바랐고、 따라서 조약 문서에서 이 특별 조항을 철폐했었던 것이었다。

히즈라 七년。

마호멧이 후데이비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의 일이었다。 카이발의 유태인들이 패전(敗戰)을 복수하려 메디나에 대한 재공격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무슬림은 선수(先手)를 써서 一六○○ 명의 전사(戰士)로 카이발 요새지를 공격、 포위 二○일 만에 알라에 의해서 정복했다。

앞으로 나왔다. 그의 이름은 아부 준달로, 전에 멕카에서 이슬람에 입교한 무슬림이었는데, 멕카인들은 그를 쇠사슬에 묶어 두고 고문을 했었다. 온 몸에 고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호멧이 멕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간신이 탈출해 나와서 마호멧의 자비(慈悲)에 몸을 맡기고 메디나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이교도인 그의 아버지 수헤일은 조약문(條約文)에 의해서 그를 멕카인에게로 인도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가련한 몸을 보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생각한 교우(敎友)들과 마호멧의 추종자들은 마음이 몹시 괴로왔다. 모두들 그를 죽음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호멧은 말했다.

「비록 이교도의 불성실한 모사(謀士)와 맺은 맹세일지라도 맹세한 말은 지켜야 한다.」

그는 체결된 조약은 결과적으로 이쪽에도 유리한 때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즈음 멕카에는 신종교에 접근해 오는 경향이 많았으나 터놓고 선언하지를 못했다. 무언(無言)의 곤욕과 조약에 매여 멕카를 빠져나가 메디나로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우트바라는 사람은 신앙을 선언하고 나섰다. 무자비한 고문을 받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자 그는 메디나로 도망쳐 갔다. 그 직후 멕카에서 二명의 전권 공사(全權公使)가 와서 그의 신병(身柄) 인도를 요구했다. 마호멧은 저들과 함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우트바는 슬픔에 몸을 떨며 목멘 소리로 말했다.

「나더러 신을 외면하고 무신론자 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마호멧은 대답하기를

둘째, 순례는 다음 해에 허용하되, 멕카에 三일 이상 체류하지 못한다。

세째, 멕카 거주자 무슬림을 메디나로 데려가지 못하며, 순례 대원 중에서 멕카에 주거가 있는 자는 거주지를 바꾸지 말 것。

네째, 메디나로 간 멕카인은 이들을 멕카로 돌려보내야 하며, 멕카에 온 무슬림은 메디나로 돌아가지 말 것。

멕카인은 될수록 가혹하고 자극적인 조건을 내세웠으나, 마호멧은 노하지 않았다。항상 평화를 원하고 유혈(流血)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굴욕과 모욕을 내포한 이 조건을 수락했다。

무슬림을 대표해서 알리가 조약문을 작성하고, 끝에 「신의 사도(使徒), 마호멧」이라고 썼다。쿠레이쉬 족은 즉석에서 이를 거절하며 말했다。「우리는 마호멧을 신의 사도로 수락하지 않는다。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쪽의 문제점인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된 호칭을 수락하지 못하겠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 문귀만큼은 내 손으로 삭제할 수 없다。」고 알리가 말하자, 마호멧은 펜을 들어 「신의 사도」라는 문귀를 지우고 알리에게 그 대신 「압둘라의 아들 마호멧」으로 삽입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조약은 「후데이비아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조약 문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쿠레이쉬 족의 전령인 수헤일의 아들이 예언자의

쿠레이쉬 족에게 보낸 전령(傳令)은 돌아오지 못했다。 다음 사람이 또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적에게 살해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쿠레이쉬 족은 무장한 한 무리를 보내 무슬림의 야영지(野營地)를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무슬림에게 굴복하고 전원이 잡혔다。 무슬림은 싸울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포로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쿠레이쉬 족에게로 돌려보냈다。 마호멧은 최종적으로 가장 신임하는 교우의 한 사람인 우스만을 보내어 쿠레이쉬 족과 타협을 짓도록 했다。

그도 붙잡힌 몸이 되었고、 무슬림의 분노를 부채질할 목적으로 쿠레이쉬 족은 우스만이 살해되었다는 낭설을 퍼뜨렸다。 이것은 분명히 싸움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슬림은 비무장이었으므로 싸움은 곧 무슬림 쪽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호멧은 전원을 집합시켜 리드완(Ridwan)이라는 오아시스 근처로 전진해 갔다。 여기서 그는 모두에게 만일 신이 지고(至高)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의없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말하였다。 한사람 한사람씩 나와서 그의 손을 만지고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을 것을 맹세했다。 이 맹세는 이슬람 사(史)에 「리드완의 맹세」로 유명하다。 이 소식을 들은 멕카 인들은 은근히 겁이 났다。 애초에는 이 순례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생각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전령(傳令)을 보내어 마호멧과 협상하자 청해 왔다。 쿠레이쉬 족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무슬림들은 순례를 포기하고 메디나로 돌아갈 것。

이「회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메디나에 대한 침공은 다시 없었으니, 적의 힘은 영원히 깨지고 만 것이었다。

히즈라 六년。

멕카 순례의 계절에 마호멧은 一四○○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성지(聖地)를 향해 길을 떠났다。순례대는 비무장의 순례복 차림에 희생제(犧牲祭)에 쓸 양과 낙타떼만 끌고 갔다。평화로운 순례대가 목적지에 가까와 오자, 멕카 인들이 싸움을 생각하고 있으며 강제로 길을 막을지도 모른다는 징조가 보이므로 마호멧은 후데이비아라는 곳에서 추종자들을 멈추게 하고, 우물을 가운데 두고 야영(野營)에 들어갔다。여기서 마호멧은 쿠레이쉬 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다만 평화로운 종교의 사명에서 이곳에 왔다。우리는 다만 성스러운 순례를 왔을 뿐이다。우리는 유혈도 싸움도 원치 않으며 쿠레이쉬 족이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휴전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

한편 쿠레이쉬 족측에서도 무슬림 야영에 정찰대를 보내서 동태를 살펴 오게 했다。정찰에서 돌아온 보고는 이러했다。「나는 시이저의 궁전에도 가 본 일이 있고 코스로스(Chosroes) 앞에도 나가 본 일이 있으나 마호멧만큼 헌신적인 추종자들을 이끌고 있는 예를 보지 못했읍니다。마호멧이 손을 씻고 나면 그 물을 땅에 흘려 버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성의가 대단한 경우를 보았읍니다。」

림 사회의 도전을 받게 되자 자연히 화가 치민 것이다。 신생 무슬림 사회의 조직과 세력이 차츰 견고하게 향상되어 가자、 그들의 분노는 차츰 고조(高潮)되어 갔다。 처음엔 대단치 않은 욕설로 자기들의 침체(沈滯)의 배설구(排泄口)로 삼던 것이、 무슬림 여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거나 노상(路上)에서 창피를 주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드디어 마호멧을 살해할 음모까지도 꾸몄고、 더 나아가 무슬림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행위를 선포하고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다。

유태인과의 평화 공존이 불가능하게 되자、 무슬림은 그들에게 싸움 아니면 이주(移住)의 양자택일을 하게 하였던바、 후자를 택해서 시리아의 변경(邊境)인 카이발로 이주해 갔던 것이다。

그들이 메디나를 떠날 때 모든 소유물을 반출해 가도록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관용은 원시 사회인 그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이리하여 메디나는 하룻밤 사이에 거의 모든 재산과 생활 필수품을 빼앗기고 알몸뚱이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만 五년 동안、 이때에 와선 불과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마호멧의 추종자들은 실질적으로 적진에 포위된 바리케이트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이 곤경을 극복한 불굴의 정신은 신념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다。 적병들은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메디나를 포위한 호를 따라 배치해 있었다。

적군에는 천인력(千人力)이 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아라비아의 장사가 있었는데、 안하무인격으로 앞으로 나서서 힘을 겨눌 만한 무슬림이 있으면 나오라고 고함을 치자、 알리가 당장 말을 몰고 달려 나가서 한칼에 그를 쓰러뜨렸다。 분노에 제 정신이 아닌 침입군은 호(壕)를 향해 일제 공격을 해 왔으나、 이번에도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포위군도 식량과 보급이 바닥이 나 가고 유목민 부대 안에는 불평 불만이 일고 있었다。

하룻밤、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일어나 군(軍) 막사를 뒤집어엎고、 장비와 보급물을 헤쳐 버리고、 군마(軍馬)는 공포에 아우성치고、 무엇보다도 어둠과 전례 없는 추위가 공포와 혼란을 몰고와서 날이 새었을 때는 침입군은 포위를 풀고 퇴각해 버린 다음이었다。

메디나의 유태인 추방에는 훨씬 세밀한 계책이 필요했다。

유태인은 강인하고 우수한 민족이었다。 유태인은 대부분이 상인、 대금업자(貸金業者)、 현자(賢者)、 식자(識者)이며 토착(土着) 메디나 인의 무슬림들보다 세상일에 경험이 많은 부족이었다。 토착 메디나 인들은 대개가 유태인의 빚쟁이였다。

유태인들은 그들의 재산과 학식을 자랑했다。 그들은 가난한 동료 시민을 모욕적으로 손에 넣고 자기들이 메디나의 정당한 지도층이라고 자처했었다。 그러한 유태인이 신생 무슬

히즈라 五년이었다。(서기 六二六년)

메디나 무슬림은 유태인、사막 유목민 부족、메디나의 배신자들로 뭉친 동맹군에 의해서 여전히 포위되어 있었다。무슬림은 굶일 줄 모르는 공격을 받는 그때그때마다 이를 격퇴시키고 음모를 효과적으로 분쇄시켰다。

적개심과 배신 행위 때문에 메디나에서 추방된 유태족들은 카이발이라는 곳에 진지를 치고 멕카의 쿠레이쉬 족과 제휴해서 메디나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했다。멕카 군은 우후드 전투가 있은 지 二년 후 대군(大軍)을 소집하여 메디나로 진격해 왔다。

그때의 침입군은 一〇만에서 二四만에 이르렀다고、전하는 기록이 구구하나、어쨌든 이것은 아라비아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이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호멧은 또한번 교우(敎友)들을 소집해서 협의했다。교우의 한 사람인 페르샤 사람 살만이 제안하기를、메디나 주위에 호(壕)를 파서 둘러싸이게 하고 무슬림들 배후(背後)에도 호를 파서 배수(背水)의 진을 치자고 했다。마호멧은 메디나 전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하고 호를 팠다。이 싸움을「호 싸움」이라고 한다。

침입군은 우박 쏟아지듯이 메디나를 엄습했었으나、호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무슬림은 아녀자(兒女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킨 다음 요새지에 인원 배치를 했다。이 포위와 호의 작전은 一개월 이상이나 계속되었다。식량은 떨어지고 보급(補給)은 그 바닥이 드러났다。배고픔의 고통을 참기 어려울 땐 포위망 안의 병사들은 배에 돌을 칭칭 동여매었

히즈라 四년, 바누 아밀 부족의 추장이 메디나로 찾아와서 「신의 말씀」을 가르쳐 줄 선교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경건하고 유식한 七○명의 선교단을 그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러나 그 요청은 하나의 계략에 불과했다. 七○명의 선교단은 도중에서 매복해 있던 적에 자살(刺殺)되고 한 명만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 외로운 생존자는 간신히 빠져나와 메디나로 돌아와서 이 비참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일은 마호멧을 크게 상심(傷心)시켰다. 마호멧은 싸울 아무 힘도 없는 선교사들이 당한 무서운 위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화(敎化)를 요청해 오는 데야 이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또 있었다. 八명이 죽었고 쿠바입과 자이드 두 사람은 멕카에 있는 적의 손에 넘겨졌는데, 형장(刑場)에 끌려갈 때 쿠바입은 짤막한 예배를 올리고 나서 형리(刑吏)에게 말했다.

「오늘 나는 예배를 오래 오래도록 올리고 싶었소.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예배니까 말이오. 그러나 아주 짤막하게 하였소. 예배를 오래 오래 올리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들 할테니까 말이오.」

그들은 쿠바입의 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 자이드의 차례가 되자 「어떤가, 네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너의 예언자를 죽일 생각은 없는가?」 하고 말했다. 자이드는 대답했다. 「나의 목숨은 나의 주인이 발을 가시에 찔린 것만큼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주인의 목숨은 주인에게 맡겨 두도록 하라.」

우후드 전은 승부가 나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러나 쿠레이쉬 족은 처음으로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고、 무슬림은 막대한 손실을 겪었다。 따라서 쿠레이쉬 족은、 이것은 마호멧의 종말이 가까와 온 시초이며 자기들이 제압해 버리기에 앞서 저절로 종말이 올 것임은 다만 시간 문제라고 선전했다。 그들은 무슬림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적개심을 갖도록 아랍 부족들을、 특히 메디나 주변의 부족들을 선동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싸움이 있은 직후 한동안 메디나 무슬림에 대한 저항은 전보다도 더 널리 확대되었다。

메디나에서는 유태인들이 무슬림과 체결한 협정에 불만을 품고、 한두 번 협정을 위반해 오다가、 이슬람의 적과 손을 잡고 함께 음모를 꾸몄다。

그리하여 무슬림은 다시 한번 대내외(對內外)의 위협——외부의 침공과 내부의 배신을 겪어야 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있을지 모를 일이므로 그들은 밤낮으로 무장을 풀지 않고 부단한 경계를 해 왔다。 마호멧은 시련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당분간만 인내하라。 평화는 눈앞에 와 있다。」

우후드 전투가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멕카와 인접 지방을 심한 기근(飢饉)이 휩쓸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마호멧은 메디나 무슬림들의 원조를 호소했다。 많은 액수의 기부(寄附)가 모아지자 이를 멕카로 보냈다。 이 친절한 마음의 표시는 적에게 얼마간의 감동을 주었다。 멕카인들은 원조를 받기는 받겠으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항쟁을 풀지는 않겠다고 해 왔다。

당은 용감한 남편들을 잃고 슬픔에 젖은 것은 이번엔 메디나 시였다。 싸움터에서 쓰러진 용사들의 비보(悲報)가 속속 들어왔다。

부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자、 자기 부친 이야기는 귓전으로 흘려 버리며 「우리들의 예언자는 어떻게 되었소?」 하고 여인은 물어 보는 것이었다。 「당신 오빠도 죽었소。」 하고 전해 주어도 「글쎄 예언자의 안부가 궁금하오。」 하고 여전히 예언자에 대해서만 물었다。「당신 남편도 죽었소。」하니 「하느님 맙소사、 예언자의 안부를 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려!」 라고 여인은 소리쳤다。 그리고는 여인은 우후드까지 제발로 달려와서 마호멧 앞에 와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사사로운 슬픔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철수 중이던 메카 유목민 부대는 도중에서 승전의 유일한 증거인 포로를 끌고 가지 않음을 알았다。 동료 부족들의 사기(士氣)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싸움에선 자기편이 이겼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은 절대로 필요한 일인데、 단 한 사람의 포로도 끌고 가지 않는다면 좀 곤란한 일이었다。 그들은 철수의 행진을 멈추고 다시 한번 급습(急襲)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동향을 밀접히 미행하던 무슬림 수색대원이 이 소식을 사령관에게 알렸다。 이에 무슬림 일단(一團)이 급히 그들을 추격하였던바、 메카 군은 그러한 계획을 포기하고 서둘러서 철수하였다。

우후드 전투에서도 멕카 인이 먼저 공격해 왔고、방위군의 필사적인 용기로써 적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다。침공자들도 이 싸움에서는 메디나 쪽에 못지않게 용감히 싸웠으나、혼란이 일어나자 대부분이 도주하였고 무슬림은 이것을 추격했다。혼전(混戰)이 시작되자 후방 도로를 수비하던 궁수(弓手)들이 혼전 속에 가세해 왔다。이 싸움에서 쿠레이쉬 쪽의 가장 괄목할 당대의 장사는 와리드의 아들 카리드였다。그는 후방 도로가 무방비라는 것을 탐정하고 二백 명을 모아서 후방으로부터 공격해 왔다。이미 적세에 몰려 버린 무슬림의 포진(布陣)은 더욱 혼란 속에 빠져 버려 전세의 양상이 변해 버렸다。그러자 마호멧이 자살(刺殺)되었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싸움터를 휩쓸었다。이 부르짖는 소리는 마호멧의 처 아이샤(Aisha)의 귀에 들어왔고、부상병을 치료하거나 전장으로 먹을 물을 나르는 여인들에게로 전해졌다。마호멧이 자살(刺殺)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무슬림들은 갑자기 사기를 잃고 말았다。사방에서 싸움은 불을 뿜고 있는데 슬픔에 빠져 할 말을 잃은 채 검(劍)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는 병사를 보고 외쳤다。「자넨 왜 싸우지 않는가?」「예언자는 칼에 맞아 죽었다。가장 영특한 그가 죽었는데 우리의 목숨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라고 그는 대답하는 것이었다。

위급한 상황은 겨우 회복이 되었다。무슬림들은 다시 집결해서 공격해 나갔다。기진맥진한 멕카군들은 퇴각하기 시작했다。그들은 퇴각하면서 무슬림 시체의 귀와 코를 난도질해서 잘라내며 분노를 배설시켰다。멕카군 지휘자 아부 수피안의 처(妻)는 마호멧의 숙부 함자의 시체의 배를 갈라서 간(肝)을 꺼내 씹었다。

용자(勇者)를 칭찬하고 비겁자에겐 욕설을 퍼부었다。메카 군은 메디나 북방서 三마일 떨어진 우후드(Uhud) 구릉에 진을 쳤다。메디나 주변의 목초지와 밭은 쑥밭이 되고 말았다。

마호멧은 다시 한번 교우들을 집합시켜 전쟁 회의를 열었다。이쪽에서 진격해 들어가서 적이 진치고 있는 곳에서 싸우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마호멧은 인원 부족과 장비의 빈약을 들어 의견을 달리했으나、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그의 생애를 통해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그는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존중했으며、이 전통은 후세의 무슬림에게 남게 되었다。

우후드에 진을 친 적 三천에 비해 메디나는 천 명에 불과했다。이 천 명 중에서 三백 명은 배신자 압둘라의 인솔 아래에 있었는데、그는 얼마 진격하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그래서 독신자의 지휘 아래 든 인원은 불과 七백 명밖에 없었고、그것도 갑옷을 입은 병사는 약 백 명뿐이었으며、말을 탄 자는 아주 적었다。인원과 장비가 부족하였으나、전투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러한 약점을 메운 것은 열성과 사기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다。

마호멧은 진격을 명령하여 손수 전투원을 배치했다。우후드 구릉으로 통하는 도로 후방의 기습에 대비해서 十五명의 궁수(弓手)를 배치시켜、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수(死守)할 것을 명령했다。

배치를 마친 마호멧은、이 싸움은 영토나 소유물이나 유혈의 목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방위하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각 전투원에게 강조하여 말하였다。

휩싸였다。 집집마다 울음 소리가 가득찼고、 분노에 이를 갈았다。 명문(名門)과 노련한 전사들은 부족의 굴욕과 피의 복수를 하기 전에는 물러앉지 않을 것을 그들이 섬기는 잡신(雜神)에게 단연코 맹서하는 것이었다。

한편 메디나에서는 전쟁 포로들을 극진한 자비와 관용으로써 처우했다。 보상금을 지불하는 포로들은 신속히 이를 전원 석방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노인 포로들은 보상금 없이 석방하였다。 교사(敎師)의 능력이 있는 포로들은 메디나의 문맹자(文盲者)를 가르치는 의무를 부과받아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댓가로 자유를 갖도록 허용해 주었다。 교육을 받는 가족들은 그 포로 교사의 의식주를 책임지게 하였다。 마호멧의 교우(敎友)들은 대추와 죽을 먹고 살면서도 포로에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좋은 음식을 먹였던 것이다。 포로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자유의 댓가로 무슬림이 되도록 하지는 않았다。

복수를 선언한 멕카 인들은 이미 적극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무역 상인들은 그들의 이익금에서 전비(戰費)를 지불하고、 일반 사람들은 각자 능력껏 헌금을 하여 만一년 동안의 작전 계획을 세워、 그들은 이제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히즈라 三년이었다。

완전 무장한 三천 명의 멕카 전사들이 메디나로 쇄도해 왔다。 여자들도 전장에 동행하여

싸움터에서 마호멧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전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쪽에서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전투 중、개인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지 말라。 전투원이 아닌 자에게 무기를 들지 말라。 노인과 허약자를 해치지 말라。 아녀자를 살상하지 말라。」

싸움이 시작되었다。

창검은 불을 뿜었다。

이 필사(必死)의 전투에서 맞붙은 전사들은 피차간 초면(初面)들이 아니었으니、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고、아비가 아들과 싸우고、아들이 아비에게 대들어 싸웠다。

싸움이 절정에 이르자 마호멧은 신 앞에 몸을 맡기고 기도를 올렸다。

「오、신이여。 만일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멸한다면 당신의 복음을 선언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사심(私心) 없이 진심으로 당신을 섬길 사람이 없게 되나이다。 당신의 참 신앙은 영원히 파멸되겠사오니、당신의 독신자(篤信者)들을 도우소서。 나의 주여、그들에게 승리가 있게 하소서。」

신은 이 기도를 받아들여、승리는 무슬림에게로 돌아왔다。 쿠레이쉬 족은 많은 시체와 부상자를 버리고 도주했다。 그 속에는 이름 있는 지도자들도 있었다。 시체 속에는 무슬림의 강적인 아부 자훌도 끼여 있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아부 자훌을 쳐눕인 것은 불과 十三、四세의 젊은이였다고 한다。 포로 속에는 마호멧의 숙부 압바스도 끼여 있었다。

패전(敗戰) 소식은 패잔병이 멕카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들려왔다。 멕카는 온통 비통에

을 과대시하여 대군(大軍)을 파견해서 시리아의 아부 수피안과 합류시켰던 것이다。 아무런 도전이 없자 아부 수피안은 파견군의 복귀를 종용했으나 지휘관 아부 자흘은 이를 묵살하고 그길로 메디나 진격을 주장하고 나섰다。

마호멧은 공격이 절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멕카의 피난자」와 「메디나의 협조자」인 추종자들을 즉시 소집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위험이 닥쳐올 때나 무슬림 사회가 어느 중요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특히 현자(賢者)와 고명한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마호멧의 습관이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가족과도 상의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쿠레이쉬 족의 살륙(殺戮)에 정당 방위를 함에 있어 멕카에서 피난해 온 무슬림과 메디나의 조력자 무슬림들이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三一三명의 병력에 말 두 필과 몇 마리의 낙타뿐이었다。 무기는 돈이 들어야 했으므로 그들의 장비는 빈약했다。 그러나 강인한 결의로 헌신했다。

그들과 대치한 적은 훌륭한 말과 많은 자원으로 장비가 강력하고 보급이 풍부한 천 명의 훈련병이었다。 메디나에서 六〇마일 떨어진 바드르(Badr)라는 곳에서 병력의 차가 엄청난 양군이 대치한 것이다。 한편은 그들의 생명과 신앙을 방위하려는 빈약한 장비와 반기아(半飢餓)의 소수 인원이고 (그러나 그들은 전쟁터에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보았다)、저편은 적개심과 살륙의 욕망에 불타고 있는 강대한 다수 인원이었다。

아래 정당 방위를 준비하고 대기했다。

멕카 인의 침공 계획은、 한편으론 침공의 대군을 준비하고、 한편으론 무법 천지의 유목민들인 모든 부족들을 선동해서 메디나에 무력으로 대항케 한다는 양면 작전이었다。

시리아 지방으로 교역(交易)의 길을 떠난 캬라반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무슬림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악선전하였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반도는 거의 다 이 악선전의 독소(毒素)에 물들어 메디나의 소수 무슬림 사회에 대한 난동(亂動)의 악취(惡臭)가 온천지에 충만하기 시작했다。

이제 히즈라 二년이 되었다。

멕카 인은 침공 작전 계획을 끝낸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다만 구실(口實)과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하나의 구실이 생겼다。

쿠레이쉬 족의 부자며 유력한 지도자인 아부 수피안은 대상(隊商)을 이끌고 시리아에 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값비싼 상품(商品)을 가득 싣고 돌아가야겠는데 도중에 무슬림의 간섭을 받을 위험이 없어야겠다는 편지를 멕카로 보내었다。 이 편지는 멕카 인들이 그를 호송해 오기 위하여 무장 원정대를 파견한다는 구실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무슬림이 공격해 올 위험성이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이지 아부 수피안의 캬라반은 아무 저항을 받지 않고 메디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멕카인들은 이 가상적인 도전

그는 역설했다。

이 음모는 곧 마호멧에게 전해져 왔다。 마호멧은 유혈 사태를 원치 않았으므로、압둘라와 의논하였던바、이 자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음모를 부인하고 무슬림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거짓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 자는 이미 배신하려는 생각으로 가슴 가득 차 있는 사나이였다。

이 무렵 메디나의 아유스 부족 추장이 멕카 순례를 왔을 때의 일이다。 멕카인들은 그에게 노발대발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가 감히 멕카엘 오다니。 너는 우리의 적을 무장(武裝) 원조해 주고 있지 않느냐?」

「여보、내 말 좀 들어 보시오。」 하고 아유스 추장은 대답했다。 「우리 부족은 당신들의 캬라반이 메디나로 통과하도록 보호해 주었소。 우리는 당신들 캬라반의 통로와 교역(交易)을 간섭한 적이 없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적대시한다면 앞으로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터이니 그리들 아시오。」

메디나의 마호멧은 시민 간의 우애와 친목의 양성과、선조때부터 내려오는 부족간의 구원(舊怨)을 잊어버리게 하여、하나의 형제의 사회로 결속시키는 노력을 하는 반면、멕카의 지도층들은 메디나의 유혈 침략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멕카인들의 메디나 침공 계획은 메디나에 알려졌고、무슬림들은 찬란한 영도자의 지휘

예언자일 뿐 아니라 메디나 시의 정치적 지배자이기도 하였다。

지붕을 야자잎으로 덮은 소박한 모스크이기는 하였으나、마호멧을 중심으로 하는 무슬림들은 공개적으로 집단 예배를 볼 수 있었다。마호멧은 신의 유일성(唯一性)、위대성、무한한 은총을 설교하고 무슬림의 결속(結束)、무슬림 형제애、과부、고아에 대한 사랑과 동물에의 자비를 설파했다。

한편 마호멧과 교우(敎友)들이 메카를 떠나고 없어지자 적(敵)들은 한동안은 마음이 흐뭇했었다。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다。

메디나 인들은 마호멧을 이의없는 통치자로 받아들여 영원한 지지를 서약했고、마호멧의 신앙은 날로 번성해 가고 무슬림들은 강요나 간섭 없이 스스로 경건한 길을 가며、이제는 이교도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알게 된 메카 인들의 가슴엔 복수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다。

메카 인들은 메디나에 교활하고 야심이 많은 사나이 압둘라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그들은 이 자와 은밀이 만나서 메디나의 동조자들을 동원해서 무슬림을 멸망시키려는 데 쿠레이쉬 족과 손을 잡자고 했다。「우리와 동맹을 맺지 않는다면 쿠레이쉬 족과 동맹 세력들이 메디나를 쳐부수고 아녀자(兒女子)들을 몰살하겠다。」

과히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었던 압둘라는 유대인과 친구들을 소집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우리들의 생명과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침입자들과 떨어지기로 하자。」고

마호멧의 다음 과업(課業)은 멕카에서 함께 이주해 온 사람들의 거처(居處)와 생계 문제였다。 고향(멕카)에서는 유복(裕福)하게 살던 그들이었으나 이제와서는 다같은 운명이었다。 마호멧은 우선 메디나의 무슬림들에게(이들을 「안사리」(Ansari)——조력자라고 한다) 멕카에 온 무슬림「무하지르」(Muhajir——피난자라고 한다)들을 동반자의 형제로서 맞아들이어、부이건 아니건 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친척에게 주듯이 나누어줄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의리는 잘 지키어져서 피난자들은 토착 사회(메디나)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당시 메디나에는 다수의 유태인이 살고 있었는데、마호멧은 피난자들과 유태인과의 관계 조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협정을 수립하였다。

1、모든 부족、종문(宗門)들은 사건과 쟁의(爭議)을 자체내의 법(法)에 의거해서 처리한다。

2、메디나에 거주하는 단체로서 무슬림·유태인을 막론하고 메디나 영외(領外)의 단체와 직접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

3、메디나 외에서 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전(交戰) 쌍방 어느쪽이고 메디나 시민을 강제 참전시킬 수 없다。

4、마호멧이 메디나의 모든 쟁의(爭議)의 최종적인 조정자가 된다。

마호멧은 메디나 이주 이후 이곳에 새로운 신앙의 지반을 굳혀 갔다。 박해와 압박과 조소(嘲笑)에 차 있던 멕카 시대와는 판이하게 메디나 시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마호멧은

⑩ 메디나에서의 마호멧

마호멧의 메디나 이주(히즈라) 이전엔 시(市)를 「야스립」이라 했으나, 마호멧의 이주 후부터는 「메디나툴 나비(Medinat-ul-nabi)」, 생략해서 「메디나」라고 부르게 되었다。(메디나는 「City」, 「울」은 「of(…의)」, 「나비」는 「Prophet(예언자)」이므로 즉 「예언자의 도시」(City of Prophet)라는 뜻이다。 이것을 생략해서 메디나라고 한다。 멕카의 다음인 이슬람의 제二의 성지다。 마호멧의 외가의 고향이며 마호멧의 유해는 이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 안에 안치되어 있다。)

메디나에 모스크를 세울 때 마호멧은 교우(敎友)들과 함께 일반 노무자처럼 땅 파기, 돌깨기, 흙 개기를 했다。 그것은 소박한 건물이었다。 건물 한쪽은 집 없는 추종자들의 저실(居室)로 썼는데, 돌로 만든 바닥이라 해서 이들을 「돌바닥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이 새로운 종교의 선교 이동반(宣敎移動班)이었다。 이들은 스승의 발치에 둘러앉아서 스승의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을 아라비아 사막 곳곳에 전해 주러 가는 것이었다。

마호멧의 모든 교우(敎友)들은 소박하고 근엄한 생활을 했는데, 이들 「돌바닥 사람들」은 교우들보다도 월등하게 근엄한 금욕주의자(禁欲主義者)들이었다。

멧의 메디나 도착은 무슬림 역사의 무적(無敵)의 성공이며 간섭을 받지 않는 진보이기 때문이었다.

마호멧이 쿠바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야스립에 퍼지자,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메디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해뜨기 전부터 몰려와서 종일토록 견디기 힘든 뙤약볕에서 줄지어 기다리다가 서운하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위대한 날이 왔다. 마호멧이 드디어 쿠바를 떠나 야스립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야스립의 온 시민이 연도(沿道)에 늘어서서 그를 환영했다. 햇빛에 번뜩이는 무기(武器)와 갑옷을 입은 바누 낫잘이 환영 군중을 지휘하고 소녀들은 춤과 노래로 환영했다.

웃옷으로 해를 가린 아부 바크르를 대동(帶同)하고 마호멧은 야스립에 들어왔다. (서기 六二二년) 야스립의 모든 호주(戶主)들은 앞으로 나서서 환대의 영광을 갖고 싶어 했다. 그러자 마호멧은 말했다.

「내 낙타의 고삐를 놓아라. 낙타가 발을 멈추는 곳을 내가 있을 곳으로 정하리라.」

낙타는 이곳저곳 서성대다가 어느 공지(空地)에 주저앉았다. 이곳이 지금의 「예언자의 모스크」의 문 건너편이다. 이 공지는 두 고아 소년의 소유였는데, 마호멧은 땅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방이 二개 붙은 모스크를 세우고 주거처(住居處)로 삼았다.

지해 왔다。 三일이 지나자 적이 다 물러갔음을 종복(從僕)이 알려 오자 세 사람은 메디나로 떠났다。

마호멧은 아부 바크르의 종복이 가지고 온 낙타에 올라타기에 앞서 아부 바크르에게 낙타의 값을 청산했다。

그러나 멕카의 추장들은 마호멧의 생포(生捕)를 단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호멧의 생포나 살해에 낙타 백 두의 상금을 내걸었다。 당시의 아랍인에게 낙타 백 두란 일대 행운을 뜻하는 것이었다。 아랍인 중에서도 말타기가 가장 빠른 수라카라는 사나이가 상금이 나붙었음을 알고 추적에 나섰다。 이 자가 겨우 멕카 교외를 벗어나자 말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는 일어나 다시 메디나로 급히 달려갔는데、 드디어 먹이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잠시뿐으로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 더욱 속력을 내고 달리던 말이 갑자기 부사(浮砂)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걸어서 멕카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야스립(메디나 시) 근교 쿠바(Quba)에 도착한 마호멧이 3、4일을 쉬는 동안 사촌 알리가 합류해 왔으며、 이곳에다 「모스크」(Mosque——회교 예배당、 한국 교도는 「성원(聖院)」이라 함)를 세웠으니 오늘날 무슬림은 이곳에 크나큰 존경을 베풀고 있다。

이 해가 회교력 기원(回敎曆紀元)이다。(회교력을 「히즈라(Hijra)」라고 한다。 서기 六二二년 九월)

이 해를 히즈라의 기원으로 하는 것은、 예언자의 생애에 신기원이 시작되었고、 또한 마호

그릇 인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호멧은 사촌인 알리를 자기로 알도록 위장하여 아부 바크르의 집에 가서 자도록 했다。「내게 여기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마호멧은 말했다。이 말을 들은 아부 바크르는 기뻐 울면서 함께 야스립을 향해 길을 떠났다。

마호멧의 침소(寢所)인、지금은 고인(故人)인 숙부 아부 딸립의 집에 새벽 햇살이 비칠 무렵 이교도 추장들은 칼을 빼어들고 마호멧의 침대로 발소리를 죽이며 잠입했다。그러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호멧이 아닌 알리였다。

당황한 그들은 제일가는 기수(騎手)들을 당장에 급파하여 추적하도록 했다。추적자들은 사막의 구릉(丘陵)과 계곡을 오르내리며 수색하고 멕카에서 나가는 큰길、오솔길을 모조리 뒤졌으나 마호멧의 그림자는 찾을 길이 없었다。멕카에서 멀리 떨어진 사우르(Thaur)라고 불리는 어느 동굴 속에 두 사람은 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三일 동안을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추적자들이 배회하며 찾아다녔다。하루는 수색대가 동굴 입구 가까이까지 다가오는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도 뚜렷하게 들려왔다。

마음이 몹시 초조해진 아부 바크르는「우리는 겨우 두 사람이고 저들의 수는 많습니다。발각되면 어찌 되겠읍니까?」하니 마호멧은 대답했다。「겁내지 말라。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다。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

매일 해뜨기 전에 아부 바크르의 딸 아스마(Asma)가 먹을 것과 물을 동굴로 날라 오고 종복(從僕)은 양을 끌고 와서 동굴 입구에 양젖을 짜서 놓고 가고、때로는 적정(敵情)을 탐

든 땅과 집에 애착을 갖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으나, 이때의 마호멧의 추종자들은 계시의 말을 절대 복종하였으므로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멕카에는 무슬림은 거의 없다시피 다 이주해 갔으며, 예언자 자신과 친우 아부 바크르와 사촌 알리만이 남았다。 그러나 이 대거 이주를 가지고도 마호멧의 적(敵)들을 무마하거나 적의 공격을 막아 낼 수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포기하고 갔다 하지만, 곤욕과 박해 저 멀리 피신해 감으로써 다시는 그들의 항전(抗戰)을 분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들 하였다。 그뿐이랴。 그들과 약속이 되어 있는 야스립 시(市)의 우정과 환대는 그들의 비타협적 태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며, 그들이 다른 부족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두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들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최종 수단, 즉 마호멧을 살해할 것을 결의했다。 이 생각은 그들이 오래 전부터 품어 왔던 것이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다。 그들은 사전 계획을 세워 마호멧의 침실을 포위하여 기침(起寢)하는 순간에 여럿이 함께 덮어씌우자는 것인데 이렇게 다수의 동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마호멧의 가문(家門)인 바누 하심(Banu Hashim) 측에서 감히 복수해 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마호멧은 거사 직전에 음모를 알게 되어 멕카 인들의 신탁 관리를 맡아보고 있는 재산 일체를 알리에게 넘겼다。 이상스럽게도 그에게 적개심(敵愾心)을 갖고 있으면서도 멕카인들은 마호멧에게 재산 관리를 신탁하였던 것이다。

개인 거래면에서 그렇게도 완벽하게 정직한 사나이가 신앙면에서 비양심적으로 그들을

될 것을 서약합니다。」

마호멧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맹서하나니、그대들에게 싸움을 걸어 오는 자에게는 나도 싸우겠고、그대들에게 평화를 지키는 자에게는 나도 평화를 지키리라。그대들을 괴롭히는 일은 곧 나를 괴롭힘이요、그대들에게 명예로운 것은 곧 나의 명예이니라。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대들의 편임을 서약하노라。」

이와 같은 서약을 주고받은 야스립 사람들은 행복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⑨ 히 즈 라

메디나 이주——회교력 기원(回教暦紀元—서기 六二二년 九월)

마호멧의 포교 제十三년 때였다。

하루는 마호멧이 교우(教友)들에게 알리기를、야스립(메카에서 약 五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후의 메디나)으로 이주하도록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마호멧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이 곧 복종이므로、모든 추종자들은 당장에 집、가산(家產)、사업、과수원、낙타 등을 팔아치우거나 포기하고、四五일간에 걸쳐 그들은 二패 三패씩 무리를 지어 야스립을 향해 떠났다。정

이 멕카에 순례를 왔다。 마호멧은 이들을 찾아가서 쿠란 귀절을 음송(吟誦)해 주며、 착하고 독실한 생활의 축복을 예거해 주고、 교(敎)에 초대했던바 그들은 전원이 이슬람에 입교하였고、 고향인 야스립에 돌아가서 친구며 친척이며 고향 사람들에게 신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야스립의 온 마을은 새로운 종교와 경이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이로 인해서 다음해 야스립에서 온 十二명의 순례자가 또 입교하였다。 그들은 마호멧을 찾아와서 우상 숭배를 금할 것과、 잔인성、 허언(虛言)、 잡신(雜神)을 폐지할 것과 난혼(亂婚)、 음탕을 금하여 올바른 생활을 할 것과 유일신(唯一神)을 믿을 것을 서약했다。 마호멧은 교우(敎友)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그들과 함께 야스립으로 가게 하여 「진리의 길」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 선교는 대성공을 거두어 그 다음해엔 야스립에서 온 순례자 七二명이 입교했다。

그런데 이들은 쿠레이쉬 족의 적의(敵意)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마호멧의 숙부인 압바스(Abbas)에게서 「예언자」가 멕카를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체없이 마호멧에게로 갔다。 「오、 신의 사도여。 우리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무엇이든 귀담아 들어서 당신이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복종하려고 이곳에 왔나이다。 영원히 당신 편을 들고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서약하겠나이다。」

이에 대하여 마호멧은 쿠란 몇 귀절(句節)을 외어 주고 신을 이야기해 준 다음 말했다。

「그대들이 어린것들에게 편을 들 듯이 항상 나의 편에 설 것을 서약하겠는가?」

야스립의 순례단장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들이 어린것들의 편을 들 듯이 당신 편이

멕카에서 六〇마일 떨어진 곳에 따이프(Taif)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마호멧은 자기가 해방해 준 노예 자이드를 데리고 그곳으로 설교하려 갔다. 따이프에서는 멕카인들보다도 더욱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다. 몰매, 투석(投石), 욕설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말을 이끌고 마호멧은 어느 과수원 속으로 은신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호멧은 포도밭 그늘에 몸을 숨기고 신에게 고했다. 「오 신이여, 나보다 훨씬 강력한 박해에 대항할 길이 없는 보잘것 없는 나의 무력함과 힘의 결핍에서 오는 비탄을 당신 앞에 갖다놓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신이여, 오직 당신만이 약자와 「무력자」의 보호자입니다. 당신 이외에 내겐 은신처가 없읍니다. 당신께서는 잔인무도한 저들에게 나를 인도하시렵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련만…… 신이여, 당신의 자비심은 광대무변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거두는 당신의 광명의 이름으로 애원하오니, 이 몸에 자비를 내리사 당신의 노여움을 거두어들이소서. 단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멕카로 돌아와서 선교(宣敎)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적의 박해와 집념도 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의 전파는 날로 늘어나, 주위를 둘러싼 위기에도 불구하고 마호멧은 해마다 모여드는 모든 부족들의 순례자를 찾아가서 전보다 더욱 우아하게 설교하였다.

예언자의 전도, 제十一년 되는 때에 야스립(Yathrib——후에 메디나로 개칭되는, 멕카 다음가는 아라비아 제二의 도시로 이슬람의 「제二의 성지」이기도 하다)에서 유력한 부족의 순례자 六명

그들은 임종이 머지 않은 마호멧의 숙부 아부 딸립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들은 최후의 복안을 가지고 왔소。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당신 조카를 설득해서 단 한 가지만 맹세해 달라고 해 주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간섭 말아 달라는 것이오。 그 대신 우리들은 그의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리다。」
아부 딸립은 조카에게 사람을 보내 이 안(案)을 제시하였다。 마호멧은 이에 대하여 「그들이 수락하겠다는 것을 다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 중에서 아부 자흘(Abu Jahl)이 큰 목소리로 말에 끼여들면서、「그렇소、 그렇소。 우리가 한 말에 동의한다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 조건이라도 수락하겠소。」
이에 마호멧은 「나의 조건은 간단한 것이오。 당신들의 잡신(雜神)과 우상 숭배를 포기하라는 것이오。 그리고 〈신 이외에 신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오。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신들은 모든 아랍족의 주인이 될 것이며、 외국 사람들은 당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쿠레이쉬 족은 두말할 것 없이 이를 거절하고 노발대발해서 가 버렸다。
마호멧의 포교 제一〇년이 되던 때였다。 이로부터 며칠 후 마호멧의 친애하는 숙부가 세상을 떠났고、 또 그로부터 몇 주일 후 二五년 동안 부드럽고 독실한 동반자였던 아내 하디자가 세상을 떠났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마호멧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두 사람을 잃었으므로、 이 해는 「슬픔의 해」로 알려져 오고 있는 것이다。

다。 무슬림에게 혹독한 곤욕의 시기였다。

여러날 동안 굶을 때도 있었고、 음료수는 동이 났고、 구원(救援)이나 식량이 떨어진 상황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소년들、 병자와 허약자들이 고통스런 최후의 숨을 거두었다。 무슬림 천막촌 에서는 신음 소리와 울음 소리가 소용돌이 쳤으나 배신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속에서도 순례의 시기가 되자 마호멧은 멕카 행(行)을 감행하여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전과 다름없이 설교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三년간 계속되었으며、 쿠레이쉬 족 가운데에도 마음을 누구려 무슬림을 제집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설득하는 동정파들도 있었다。

멕카 지도층이 하고 있는 행동은、 권력층을 에워싸고 있는 강제에 추종하고 있을 뿐이며、 자기들의 이해 관계、 헤게모니、 영향력、 재물、 지위를 위협하는 강제에 추종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위협은 항상 다수(多數)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에게서 수탈(收奪)하는 형태를 갖거나、 피권력층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력층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었다。

쿠레이쉬 족 지도층과 마호멧의 추종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멕카의 투쟁은 현상 유지를 바라는 특권층과 진보적인 인도주의의 현명적 주창자 사이의 유서깊은 싸움이었다。 따라서 반복되는 반대에 부딪쳐 가면서도 쿠레이쉬 족 지도층들은 저항해 온 것이었다。

힘과 유혹으로 굴복시키려던 수단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이제 외교 수단과 화해로 해 보고자 시도했다。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신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네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다 함께 좋은 상을 받으리라。 네가 나의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참고 기다릴 게다。 언젠가는 신 자신이 너와 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답을 들은 그들은 매우 놀라 마지않았다。 그들 부족 수령들은 사람의 모든 노고와 노력은 재물、권력、쾌락으로 낙착됨에 틀림없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었으나、자기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어느 미지(未知)의 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거절하는 괴상한 사나이가 있었음에랴。

쿠레이쉬 족의 수령들은 이제 정말로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적을 함락시킬 만한 책략을 이것저것 다 해 보았으나、 하나도 적중하는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거의 결정타가 될 것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 선언을 작성해서 카아바 신전 성벽에 붙였다。

「지금으로부터 멕카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호멧과 그의 가족이나 추종자들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였음을 알리는 바이다。 그들에게 식량을 팔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가도 안 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이 금지는 마호멧의 무리들이 벌가(罰價)로서 처벌받도록 마호멧을 우리측에 인도할 때까지 존속된다。」

이 사회적 보이콧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어서 마호멧과 추종자들은 멕카시를 등지고 은신처를 찾아서 시협 아비 딸립(Shib Abi Talib)이라고 불리는 계곡을 찾아가야만 되겠

정하고 최고위층들이 회동(會同)해서 마호멧에게 사람을 보냈다。

「마호멧、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모든 신을 걸고 하는 말이니 들으라。 아랍인 치고 동족(同族)에게 기막히는 고통의 씨를 뿌린 것은 너 말고 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야말로 불화(不和)의 씨를 뿌려 놓았고、단결을 깨뜨렸으며、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 주었다。 재물이나 보화(寶貨)가 생각이 나서 이런 일대 변란을 일으킨 것이라면 그렇다고 말하라。 너를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만들어 주마。 권력이나 권위가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말하라。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만들겠다。 혹 너의 가슴을 사로잡은 여인 때문이라면 그 이름을 대어라。 그녀를 너의 것으로 해 주겠다。 너에게 나타났다고 네가 말하는 그것이 「진」(Jinn)——악령(惡靈)이었다면 우리에게 알려 다오。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마술사와 약사(藥師)들을 모아 들여서 네 병을 고쳐 주고 그 악마를 쫓아 내 주겠다。」

그들은 애처럽고 겸손한 사나이에게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바치겠다고 제안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마호멧은 냉정히 대답했다。

「나는 재물도 보화(寶貨)도 원하지 않는다。 왕이 될 생각도 없다。 내 심금을 울린 여인도 없다。 나는 병자가 아니며 마귀(魔鬼)에 걸린 것도 아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일개 신의 종복(從僕)일 뿐이다。 신은 나를 신의 사도로서 네게 보낸 것이다。 신은 내게 「경전(經典)」을 계시하시어、네가 신을 거역하면 신의 노여움을 살 것이고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네게는 신의 축복이 약속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네게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땅 위의 어떠한 힘도 나의 포교(布敎)를 막지 못하리라。 네가 나의

것입니다。 이리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피난온 것입니다。 왕께서는 왕께서도 잘 아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니、 우리들을 무자비한 압박에서 구해 주시어 정의를 베푸소서。」

학교라곤 다닌 일도 없고 책을 읽은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왕이라곤 만나본 일도 없는 무학자의 지도자(마호멧)의 이 또한 무학자인 추종자가 존엄한 황제(皇帝) 앞에 나서서 이로정연(理路整然)한 말로써、 점잖고 감동적인 연설을 함으로써、 왕은 크게 감동되었다。 왕은 선물을 돌려주며 멕카의 대표단에게 말했다。

「나는 이 왕국(王國)을 차지하고자 신에게 뇌물(賂物)을 바친 적이 없으며 인간에게 불의를 가하고자 뇌물을 받을 생각이 없노라。 피신처를 찾아 내 땅으로 온 이 결백한 남녀들을 그대들에게 인도하지 않으리라。」

물론 멕카의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쿠레이쉬 족의 두목들은 분에 못 이겨 이를 갈았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무슬림들은 서둘러 길 떠날 준비를 하여、 다음 해엔 백 세대를 훨씬 넘는 무슬림들이 아비시니아로 정착하러 떠났다。——마호멧의 포교(布敎) 제六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이 해에 쿠레이쉬 족의 유력한 추장인 함자(Hamza)와 우마르(Umar)가 이슬람에 입교하였는데、 무슬림들은 이에 용기백배하여 백일 천하(百日天下)에서 합동 예배를 올렸다。

아부 딸립이나 제삼자를 통한 마호멧 제거에 실패한 멕카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해보기로 결

말하기를 〈허위、속임수、사기(詐欺)、이중 거래(二重去來)는 죄〉라고 하였으므로、우리들은 이런 죄를 멀리했으며、〈결백한 여인을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으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입을 봉했읍니다。〈훔치지 말라。고아(孤兒)의 재산을 약탈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우리들은 이런 부정 소득을 포기했으며、의롭고、신을 두려워하고、신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했으므로 우리들은 그의 말에 복종할 것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자팔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말했다。

「오 왕이시여、우리들은 이 사도(使徒)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읍니다。그의 말을 믿기에 그 명령대로 해 왔으며、그러자 우리들의 생은 완전히 기적적으로 변화하였읍니다。모든 악덕(惡德)과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경건한 새 생활을 시작했읍니다。그랬더니 우리 고향 사람들은 노발대발하여 갖은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들을 박해하고 고문했읍니다。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무지 속에서 살기를 거부했다 해서 우리들을 못살게 굴었읍니다。이들은 우리더러 새로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읍니다。우리가 새로 찾아 낸 선(善)、순수(純粹)、진(眞)、정직(正直)을 버리고 다시 한번 예전의 죄많은 길로 돌아올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읍니다。우리들은 이것을 거부했읍니다。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거부했고、우리들의 적은 박해를 포기할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적의 잔혹성이 도를 넘어 우리들의 생명이 위태로와지자 정든 땅을 버리고 이민(移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우리들은 우리들을 후히 대해 줄 땅을 찾아다녔고、피난처를 줄 인정 많고 의로운 왕을 찾아다니다가、오 왕이시여、우리들은 당신을 택한

을 돌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라고 우리들을 보내서 온 것입니다.」

왕은 대표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 멕카에서 온 피난민들을 불러오게 하여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고 하였다. 아부 딸립의 아들 자팔과 알리의 형제가 왕 앞에 나서서 대답하였다.

「오 왕이시여, 우리들은 무지(無知)에 빠져 있는 무리들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비와 할아비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육(死肉)과 불결한 것조차 먹습니다. 도박이 심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연민(憐憫)도 모르고 사랑과 동정을 모릅니다. 또한 약자(弱者)와 무력자를 압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들은 수천 년을 이런 속에서 살았었는데, 신은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광명(光明)을 보내주셨읍니다. 잔인하고 아둔한 사람 속에서 신은 예언자이며 신의 사도(使徒)가 될 사람 하나를 대표로 뽑으셨는데, 그 사람은 멕카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동의 순수함과, 방법이 선량하고 귀족 출신임을 증언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유일신(唯一神,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해 주었으며, 우리는 그의 호소에 귀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였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짜 잡신과 우상을 버리고 「한 분뿐인 참다운 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직, 친절, 애정, 정의를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들은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였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이유 없이 살상(殺傷)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을 때리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들은 그의 말대로 했읍니다. 그는 王

의 아들 암마라(Ammara)를 택하여 아부 딸립에게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잘생긴 이 청년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아부 딸립、이 청년을 당신 아들로 받으시오。 그리고 당신 조카 마호멧을 내놓으시오。」라고 그들은 제안했다。
「내 조카를 주리다。」하고 그는 말했다。「그래서 죽이시구려。 그 대신 당신들의 친척을 내게 갖다주고 날더러 키우라 하는구려! 여러분 나의 동족、대체 이 무슨 홍정이오?」
이 말에 쿠레이쉬 족은 대답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서 물러가 버렸다。

추종자들에게 내려지는 잔혹(殘酷)과 곤욕(困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마호멧의 가슴은 몹시 어지러웠다。 드디어 그는 아비시니아로 이주(移住)하도록 추종자들에게 권유했다。 남자 十一명과 여자 四명이 대상(隊商)으로 구성되어 비밀리에 아비시니아로 길을 떠났다。 이것을 안 쿠레이쉬 족은 추적대(追跡隊)를 급파하였으나 대상은 벌써 멀리 사라진 뒤여서 눈에 띄지 않았다。 격노한 쿠레이쉬 족은 아비시니아 왕에게 선물과 함께 대표단을 보내 이주자의 인도를 설득했다。
아비시니아 왕 앞에 나선 대표단은 이렇게 연설했다。
「오 왕이시여、길을 잘못 들었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이 선조(先祖)의 종교를 배반하고 왕의 나라로 피난해 왔읍니다。 그들이 왕의 종교에 입교(入敎)했다면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종교에도 입교하지 않았군요。 그들은 왕께서도、우리들도 알 수 없는 새 종교를 만들어 냈읍니다。 오 영특하신 왕이시여、멕카의 쿠레이쉬 족이 왕께 그들

만 할 것을 결의했소。」

아부 딸립은 이 위협에 대하여 몹시 근심하였다。쿠레이쉬 족은 일단 말을 내면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였으며、무엇이고 결정만 하면 하고야 마는 그들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그는 조카에게 슬픈 목소리로 애걸해서 말했다。「오、너의 사랑하는 숙부의 간청이니라。내게 견디기 힘든 짐을 지워 주지 말아 다오。」

마호멧은 즉각적으로 알아 차렸다。숙부는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힘을 써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책임을 면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다。

마호멧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대답했다。

「오、나의 숙부님、그 사람들이 내 오른손에 태양을 갖다주고 왼손에 달을 갖다준다 해도 나의 사명을 막지는 못 할 것입니다。나의 사명을 신께서 완수하시든가、사명 도상(途上)에서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든가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일어서서 나갔다。

그러자 아부 딸립은 그를 부르며 말했다。

「슬퍼하지 말아라、조카야。네가 최선(最善)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여라。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숙부와 조카는 사랑이 깊었으므로、숙부가 조카로부터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쿠레이쉬 족은 숙부의 사랑을 마호멧과 동등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딴 젊은이 하나를 찾아 내기로 하고、멕카에서 가장 잘생겼고 앞날이 촉망되는 무그히라(Mughira)

인가를 그들은 생각했다。 이것을 등한히 하기에는 위험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급기야 마호멧의 운동을 분쇄하고 저지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협박과 박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드디어는 마호멧을 살해할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이 살해 계획은 난관에 부딪쳤으니、아랍족의 불문율에 의하면 한 사람의 부족의 생명은 부족 전체에게 신성한 것이었으므로、같은 부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그들의 토속 종교(土俗宗教)를 주관하고 있고 부족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아부 딸립(마호멧의 숙부)에게 마호멧의 운동을 제지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대표단이 아부 딸립을 찾아왔다。 대표단의 의사를 정중히 듣고 난 아부 딸립은 그 취지를 그의 조카인 마호멧에게 전해 줄 것을 약속했다。 아부 딸립은 조카 마호멧에게 대표단의 의사를 부드럽고 애정어린 말로 전했다。 그러나、신이 보낸 사람——마호멧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그의 설교는 여전히 열광적이고 고집불통이었다。

멕카의 추장들은 다시 회합을 갖고 아부 딸립에게 대표단을 다시 한번 보냈다。「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소。」하고 그들은 말했다。「당신 조카는 우리의 조상을 욕하고、신(雜神)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에게 반기를 들게 하고 있소。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아 왔소。 이젠 더 참을 수 없소。 당신이 조카를 제지시키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다。

그러자 쿠레이쉬 족은 마호멧의 운동은 일시적인 지나가는 사태이거나 보잘것 없는 변동 따위가 아니라 가공할 혁명의 시초임을 알게 되었다。

이 운동은 선언하기를、 신은 오직 하나이고 지존지대(至尊至大)하며 모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판사(判事)이자 조정자(調整者)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수락한다면 그것은 즉 다름 아닌 우리의 조상 전래의 특권인 부족 전용의 잡신(雜神)、 승려 의식(僧侶儀式)、 우리의 재산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영향력 구사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운동은 선언하기를、 모든 인류는 평등하고 또한 모든 인류는 형제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수락한다면 그것은 즉 부족 일가(部族一家)의 가문(家門)과 혈통의 종언(終焉)인 것이며、 또한 아랍 기질의 상표(商標)인 아랍 부족의 긍지의 끝장이라고들 생각했다。 이 운동은 또한 육욕(肉慾)의 탐닉도 안 되고、 방탕한 향락이며 가무 음곡(歌舞音曲)과 술타령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름 아닌 인생을 화려하게 하고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모든것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마호멧이 증오하는 이와 같은 쾌락이 없다면 인생은 무슨 살맛이 있겠는가? 이런 쾌락이 없다면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살풍경일 것이리라。

우리의 신(雜神)의 상실、 부족 관계의 종말、 우리의 재산과 쾌락의 소멸이 얼마나 큰 것

마호멧의 머리에 흙과 돌을 던지는가 하면, 맨발 밑에 가시덤불을 깔기도 하고 쓰레기와 똥을 퍼부었다.

한 번은 그의 목에 보자기를 걸어서 비틀어댐으로써 마호멧은 하마트면 숨이 끊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이때 마침 친구 아부 바크르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제지하면서,

「도대체 이 착한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죽이려 하는가? 그에게 죄가 있다면 유일신(唯一神)을 숭배하고 잡신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군중들은, 마호멧은 내버려 두고 아부 바크르를 덮어씌워 넘어뜨려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멕카의 귀족이며 덕망이 많은 사람으로 추앙받아 오던 마호멧은 가장 불쾌한 별명과 비난의 대상으로 일변하였다. 멕카인들은 마호멧을 가리켜 마술사(魔術師),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갖은 압력을 가해 왔다. 추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박해도 더해 갔다.

추종자들을 대낮의 초열(焦熱) 속으로 끌어내어 불처럼 타는 사막에 눕혀 놓고 가슴을 무거운 돌로 짓눌러 놓거나, 엎드려 놓고 등에 무거운 돌을 짊어지워 하루 종일 기어다니게 했다.

온 몸을, 갓잡은 짐승 껍데기 속에 넣어 꿰매어 가지고 햇빛 속에 내두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 사람을 쇠사슬이나 밧줄로 목이나 발목을 한데 묶어 가지고 끌고 다녔다.

마호멧의 추종자들은 가장 포악 무도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으나 끝끝내 굴복하지 않았

기분을 부채질했다。이 축제는 다시없는 음주 난동、가무 음곡(歌舞音曲)의 광난의 기회였다。난폭한 음주와 축제가 끝나면 각 아랍 부족들은 카아바 신전의 잡신과 우상 주위를 축제 기분으로 돌았다。

마호멧은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축제에서 몸을 피하고 근신(謹愼)하였으나、이제 새로운 교리(敎理)를 선언하라는 계시를 받은 그는 이 축제 대회로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설교했다。군중들은 마호멧을 비웃고 조롱했다。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견디며 화내지 않고、다소라도 반응이 좋은 곳에서는 같은 설교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같은 아랍 부족들이 집합하는 멕카 순례의 연례 행사에서도 같은 설교를 했다。

마호멧의 숙부인 아부 라합、아부 자홀、쿠레이쉬 족의 추장들은 그의 고집에 약간 지치기 시작하였다。개구장이 아이들을 선동해서 마호멧의 뒤를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괴롭히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소음(騷音)을 내어서 그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했다。숙부 아부 라합은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했다。「불쌍한 내 조카가 머리가 좀 돌았으니 미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오。」숙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제가 신의 예언자라고 하면서 쏘다니는 그 자는 정말 미친 사람이 틀림없네。친숙부까지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 말일세。」

멕카 귀족들과 지자자들의 조롱、멸시、중상에도 불구하고 마호멧의 전도(傳道)는 날로 번성하여 추종자들은 점점 늘어났다。숙부 아부 라합과 친구들의 격노는 점점 높아져서 이제까지는 모욕적인 언사로 조롱 멸시하던 것이 그 정도를 넘어 가해(加害)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듣고 고함들을 쳤다。 특히 숙부 아부 라합의 말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쿠레이쉬 족은 마호멧의 말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머리가 돈 자가 바람결에 지나가는 소리를 지껄인다고 웃어 넘겨 버렸다。

⑧ 마호멧의 포교(布敎)와 멕카의 반응

마호멧은 이제 四〇대가 되었다。

어린 시절을 빼놓고 그는 진리에서 어긋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정신적 고뇌에 여생의 전부를 보냈다。

그 진리는 드디어 그에게로 왔으니 계시로서 길이 트인 것이다。 그리하여 마호멧은 신종교(新宗敎)를 위한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을 위하여 여생을 바쳤다。

이 무렵 멕카에서 해마다 성시(盛市)와 축제(祝祭)가 벌어졌으며、 모든 아랍 부족들이 모여드는 기회였다。 축제 동안 모든 문물(文物)이 집산(集散)하였고 전쟁놀이、 말타기、 검술대회(劍術大會)、 씨름、 백일장 등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점잖은 연설가、 이름있는 음유 시인(吟遊詩人)들이 광희(狂喜)의 청중들에게 무용담(武勇譚)、 유혈(流血)、 전쟁담、 여인·술·노래의 방탕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군중들의 축제

는 일이었다。「부활」의 관념은 격론의 회오리바람을 몰아 왔고、이슬람에서 말하는 윤리(倫理)의 교훈은 그들의 관습、방종한 행위——특히 음주(飮酒)、여자、고리 대금(高利貸金)、도박이 상습인 그들에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알게 된 마호멧은 처음에는 그의 신앙을 공공연히 설교(說敎)하는 것을 삼갔다。그 대신 마호멧은 조용한 속에서 조심 조심 설교하려 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에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과 받아들일 듯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그리하여 三년 동안에 四〇명의 추종자를 얻었는데、이들을「최초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자 어느날 계시가 내려졌다。「명령을 받은 것은 무엇이든 이를 널리 선언(宣言)하라。진리(眞理)와 허위(虛僞)를 구별하도록 하라。욕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쓰지 말라。믿는 자들에게 인자(仁慈)하게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라。진실로、나 마호멧은 보복(報復)을 마련하는 자들을 경고해 주고자 이 세상에 보내어졌느니라。」

그리하여 마호멧은 사파 언덕(메카에 있음)에 올라가 메카 사람들에게 외쳤다。떼 많은 군중이 모여들자 그는 우선 자기의 정직과 옳은 신앙을 맹세했다。그리고 그들의 가짜 신을 버리고「참다운 유일신(唯一神)」외엔 숭배하지 말 것과、난혼(亂婚)、음탕을 금할 것과、깨끗하고 덕있는 생활을 할 것과、서로 친절히 대할 것과、모든 미신과 잡신의 의식(儀式)을 버릴 것을 간청하였다。

메카 사람들은 마호멧의 말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솟았다。그들의 우상과 잡신을 모욕

그 목소리는 이번엔 마호멧의 가슴을 전처럼 괴롭히지 않았으며、자기에게 내려진、새로운 책임인 사명(使命)임을 알게 되자 마음이 가볍고 후련하게 느껴졌다。

그는 집에 돌아와、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음을 하디자에게 이야기하였다。

하디자는 조금도 주저없이 그의 말이 진리임을 받아들여 마호멧의 최초의 추종자가 되었다。이리하여 후에 「이슬람」으로 알려지게 된 신종교(新宗敎)가 시작된 것이다。(히라의 동굴은 후에 「광명의 동굴」로 불리었다。)

하디자 다음으로 마호멧의 친구 아부 바크르(Abu Bakr)、사촌 알리(Ali)、석방한 노예 자이드(Zayd)가 그의 말이 충실함을 서약하고 나섰다。이 세 사람은 마호멧과 오래 전부터 친한 사이였다。이들에게 있어 마호멧의 생애와 인격은 비밀이나 애매함이 추호도 없는 펴 놓은 책과 같은 것이었다。마호멧과의 친근이 그들로 하여금 마호멧의 정직과 독신(篤信)을 믿게 하였던 것이며、마호멧이 불과 몇 마디의 말을 했을 뿐이었으나 그들은 조상의 종교를 포기하고 잡신과 미련없이 결별을 고했던 것이다。

마호멧의 말은 인자하고 누구에게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특히「신의 유일성(唯一性)」과「인류 평등 사상」에 있어서 당시의 멕카 귀족들이 오래 전부터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그들의 우상(偶像)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든가、종복(從僕)과 노예를 재산으로 간주해서 치부(致富)하고 있는 것을 지적、비난하여 만민 평등이라고 선언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넘겨 버릴 수 없

가르쳐 주시고、인간에게 미지의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쿠란 九六：一—五)…… 그 소리는 갑자기 내 가슴 속에 살아나더니 사지(四肢)가 덜덜 떨리면서 이대로 죽는 것만 같아서 겁이 났소。」

마호멧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디자는 처음엔 몹시 근심스러워 마호멧이 덜덜 떠는 모습을 찬찬히 보고 있다가 침착을 되찾고는 그를 위로하는 것이었다。

「나의 고귀한 분、염려 마시고 기뻐하십시오。이 일은 신께서 당신을 포기하시고 욕을 보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당신은 좋은 분이고 친절하고 정직한 분이시니까요。당신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후하고 가난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도우시고、의로운 행동을 지지하는 분이시니까요。」

계시의 첫 경험은 그에게 괴상하게만 여겨질 뿐 첫 계시를 전하고 사라진 천사도 그것이 천사였는지 어떤지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다。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다。그러나 인기척 없는 적막한 사막의 동굴로 예고없이 나타났다가 돌연히 사라져 버린 이 방문자는 악령(惡靈)의 통념적인 관념과 혼합이 되어 그를 경악시켰고、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모해서 사생활을 해롭게 간섭하는 정신 상태에 사로잡히게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러날 동안 마호멧은 자기가 만난 영광스런 방문자를 고대(苦待)하면서 동굴 속에서 은거하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여러날을 기다리고 있자니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오、그대 담요로 몸을 싸고 있는 자여! 일어서라。그리고 뭇 생명들에게 신의 벌을 말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⑦ 최초의 계시(啓示)

히라의 동굴에서 명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마호멧의 나이 四〇세(서기 六一〇년) 되던 때였다。

히라의 동굴에서 돌아온 마호멧은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으로 이상스러워 보였으며, 큰 눈은 더욱 크게 어리둥절해 있었다。

「하더자, 날 좀 덮어 주오。」하고는 온 몸이 열에 들떠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잠시후 냉정을 회복한 그는 말했다。「오늘 저녁이었는데, 히라 동굴에서 이상한 것이 내앞에 나타났소。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디다。〈나는 천사 지브릴이다。 신이 보내셨다。〉 그리고는 날더러 읽으라고 명령하였소。나는 〈무학자입니다〉라고 말했더니 나를 그 가슴에 끌어당기더니 꽉 붙듭디다。그리고는 나를 떼어 놓고 재차 읽으라고 하였소。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소。그는 나를 다시 한번 끌어당기면서 또 읽으라고 합디다。나를 세 번째 껴안으면서 말합디다。〈읽으라〉고。나는 말했소。〈내가 무엇을 읽을 수 있겠읍니까〉하고。천사의 목소리는 말했소。〈읽으라。 조물주인 주의 이름으로……。한덩어리의 응혈(凝血)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도다。 읽으라, 너희의 주는 더없이 감사한 분이시니라。 주께서 펜으로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노름 밑천이기도 하였고 가난한 집에 딸이 태어나면 팔아 버리든가 부채(負債)의 댓가로 주어 버리는 습관이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그 어떤 종교적 위안이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급(低級)한 미신에 빠진 사교(邪教)였다。 신성한 카아바 성전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고, 지배 계급들은 이것을 기화로 순례자들로부터 많은 참배료(參拜料), 신탁료(神託料) 혹은 헌납의 제물을 공공연히 약탈하고 있었다。

마호멧은 이런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부정에 대해 무관심할 성품이 아니었다。 주위의 부정 모순에 번민한 그는 자기 혼자만의 안주와 행복한 가정에 파묻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이 四〇이 가까와 오자 성실하고 고상한 성품의 마호멧은 생업(生業)을 멀리하는 경향이 짙어 갔다。 그는 히라 동굴 속에 파묻혀서 여러 날을, 어떤 때는 수 주일씩 혼자 보내면서 이교도들의 행사와 물질 생활의 혼란을 멀리하고 명상에 잠기어 우주의 신비 뒤에 놓여 있는 비밀에 대하여 명상으로 날을 보냈다。 마호멧은 무학자(無學者)로 스승한테서 배운 바도 없으나 이교(異教)를 혐오하고, 우상 숭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 그 어떤 상념도 가진 바 없었으나, 삼라만상의 제행(諸行)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조각의 우상을 믿을 수는 없었다。

의 몸이 된 후에도 주인을 떠나지 않고 은인의 곁에서 일생을 살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 마호멧은 멕카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뿐 아니라 덕망과 총명으로 하여 칭찬이 자자했다。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一五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거부(巨富)의 가장(家長)으로 행복하게 살면서도 마음 속엔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발치에 끼여 자는 고양이를 깨우는 것조차 애처로와서 박차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마음씨 고운 사나이였던 마호멧을 괴롭히는 일들이 그의 주위에 너무나 많았다。

⑥ 히라 동굴(洞窟)에서의 명상(瞑想)

마호멧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그 당시의 아라비아 세계와 멕카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 당시 멕카는 아라비아 대상(隊商)의 중심지였다。 멕카의 지배 계급인 쿠레이쉬 족은 독점 단체를 구성하여 세력을 남용하고 무역의 폭리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들 호상(豪商)은 재력과 권력을 남용하여 온갖 수단으로 민중을 압박、호탕과 부도덕한 생활을 향락하고 있었다。 빈부(貧富)의 차가 극심하여 가난한 자는 가공할 영아(嬰兒) 살인을 상습적으로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를 만큼 타락해 있었다。

⑤ 마호멧의 결혼

마호멧의 보호인인 숙부 아부 딸립은 대가족에다가 사업은 부진하고 가세(家勢)가 기울어 이제는 마호멧을 제 치닥거리는 제가 하도록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멕카에는 하디자(Khadija)라는 부자 과부가 있었는데 대리인을 놓아서 인접 국가와 교역(交易)을 하고 있었다。숙부 아부 딸립은 마호멧을 이 과부에게 추천하여 대리인으로 채택되었다。

근면하고 정직한 마호멧은 알 아민(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신용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주인의 대상(隊商)을 인솔하고 시리아、바스라、예멘 방향을 여행하였다。다른 사람들 같으면 주인의 재산을 축내거나 대상을 송두리째 몰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던 그 당시에 있어서、마호멧은 대상을 끌고 갔다올 때마다 막대한 이익금을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바치는 그런 사나이였다。이러한 마호멧의 성실성과 나무랄데 없는 행실에 감동한 하디자는 아부 딸립에게 중매를 청해서 마호멧과 결혼하게 된다。하디자는 四○세이고 마호멧은 二五세였다。하디자는 마호멧에게 선물로 노예 자이드를 주었던바 마호멧은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노예 자이드는、이런 주인은 생전 본 일이 없는 일이라、자유

이에 젊은 마호멧은 약자(弱者)를 지켜 주고 피압박자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할 운동을 조직하였다。 그의 품행(品行)、 정직(正直)、 성실(誠實)、 의로움이 멕카인들을 감동시키게 되자、 자기들의 재산 관리를 의뢰해 오고、 모든 쟁의(爭議)를 상의하여 마호멧을 비공식 신탁인(信託人)으로 추대(推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AL－AMIN」(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우상 숭배와 잡신(雜神) 숭배의 풍습으로 아랍족은 멕카 신전(카아바)를 신성시(神聖視)하였다。 이 카아바에는 흑석(黑石)이 박혀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신성시했으며、 신전(神殿) 건축에 이 흑석을 끼우는 일을 지명받는 사람은 모든 경쟁자의 우위에 서는 자랑과 우선권(優先權)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모든 종족(種族)、 가문(家門)、 추장(酋長)、 세대주(世代主)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난립했다。 언쟁은 가열(加熱)하여 일촉즉발의 유혈 사태를 몰고오는가 싶었다。 그들은 급기야 마호멧에게 중재(仲裁)와 사태 수습을 의뢰하게 되자、 마호멧은 자기 옷을 땅 위에 펴 흑석(黑石)을 가운데다 놓게 하고 모든 경쟁자들로 하여금 함께 들게 하여 카아바 신전으로 운반、 자기 손으로 흑석을 끼웠다。 이리하여 유혈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던 것이다。

육을 맡기는 까닭도 이와 같은 면을 가진 그들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천부(天賦)의 자질(資質)이 있었으면서도 타락(墮落)과 사도(邪道)를 치달은 것은 그들에게 도덕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유목민은 일정한 곳에 정주(定住)하는 풍습도 없었고 거주(居住)도 없는 사막의 유랑민(流浪民)으로서 푸른 목초(牧草)나 대추 나무(사막 특유의 조야자수)、감수(甘水)가 솟아나는 샘이 있는 곳이면 아무데고 천막을 치고 살다가、이것이 다하면 천막을 거두어 낙타에 싣고 또다시 마땅한 장소를 찾아 사막을 떠다니는 유랑민이었다。

사막의 배、낙타(駱駝)。

낙타는 그들 유목민의 식량이고、유일한 재산이고、유일한 교통 수단이며、의류(衣類)와 천막의 원료이자、공예품의 원료이기도 했다。

온갖 잡것을 피하고 생각이 많은 젊은이로 성장한 마호멧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난 후부터는 홀로 생각에 잠기곤 했다。말이 적고 얼굴과 몸가짐에 고뇌(苦惱)와 내적 갈등의 표정이 뚜렷해 보였다。

그에게는 병자(病者)를 돌보아 주고、이웃에 마음을 쓰고、젊은이에겐 친절하고、노인에겐 존경을 베풀며、고아、과부、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약자(弱者)、괴로운 사람들의 구조에 대한 성향(性向)이 자라나고 있었다。그러나 오만한 메카인들은 약자나 무력자를 동정하는 법 없이 잡스런 일에 낭비하기만 하였다。

끊일 줄을 몰랐다。 패자(敗者)의 머리는 자랑스런 상배(賞盃)였으며 두개골로 술잔을 기울였다。

아랍족은 글읽기와 글쓰기에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詩)·언어(言語)·우아(優雅)에 대해서는 긍지가 대단했고、 따라서 그들에겐 딴 종족들은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여간 미신(迷信)스럽지 않아서 점괘(占卦)와 패떼기、 마술사(魔術師)、 고대 신화(古代神話) 같은 것에 몰두하였다。 물론 미신은 특히 아랍족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여러 타지방에서도 불 숭배、 애증(愛憎)의 신 숭배、 나무、 동물 숭배、 심지어는 돌、 곤충(昆蟲) 숭배 따위가 만연해 있었다。 말하자면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두가 신의 피조물(被造物)을 숭배했다。

아랍족의 남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낙타나 양의 두수(頭數)、 과수원의 숫자、 여인、 노예 등의 수、 재산(財產)、 명문(名門) 출신에 의해서 귀천(貴賤)이 따져지고 선(善)·도덕(道德)·경건(敬虔) 따위는 전연 안중에 없었다。 이 시대를 아라비아의 이교 시대(異敎時代)라고 한다。

그러나 「사막의 아랍족」은 그들나름의 영웅주의、 자유 애호、 환대、 충성심、 자존심(自尊心)、 우아(優雅)、 자신(自信)의 천성이 있었다。 (그들이 아기를 사막 유목민의 유모(乳母)에게 양

했고、 그러나 눈에 띄는 것으로 해서 몹시 괴로와했다。

당시의 아랍 부족 간에는 도박(賭博)、 주벽(酒癖)、 난혼(亂婚)、 우상 숭배(偶像崇拜)가 세상을 휩쓰는 때였다。

「여자」는 마치 낙타、 양、 식량을 거래하듯이 매매 또는 물물교환하는 「물건」이었으며、 남자들의 노름 밑천이기도 하였다。 결혼이 성립되는 법이 없었고 남자들은 마음대로 여자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으며、 한 남자는 한 여자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음탕(淫蕩)은 악덕이 아니었고 난혼은 죄가 아니었다。

남자가 죽으면 아들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가재 도구(家財道具)와 함께 유산으로 받아서、 계모(繼母)들을 정식 아내로 삼기조차 하였다。 딸에 대해서는 괴이하고도 불전전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을 수치와 불명예로 여겼다。 데릴사위는 남자의 명예의 일대 오점으로 여겼다。 딸이 태어나면 교살(絞殺)하거나 생매장해 버렸다。

부자(富者)는 많은 노예를 소유했고、 생사여탈(生死與奪)을 마음대로 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政府)와 국가 관념(國家觀念)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도 못했다。 그저 각 부족마다 자기들의 추장 밑에서 독립적인 생(生)을 영위하였으며、 살인적 경쟁심과 치열한 질시 반목(嫉視反目)이 충만하여 사소한 구실로 칼을 뽑았고、 끝없는 유혈전(流血戰)이 빈번히 일어났다。 대를 이어 끊일 사이 없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엔 피로 대결하고 경마(競馬)、 가축의 방목(放牧)、 우물물을 가지고 유혈 보복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한 어린 시절의 마호멧은 매우 애처로운 고아(孤兒)로서 성장하였다。온순하고、인간을 사랑하며、동정심이 많고、관대하며、정직한 그의 인품 속에 특히 고아에 대한 자애(慈愛)와 무슬림의 형제애(兄弟愛)를 거듭거듭 가르치고 있음은、어릴 때부터 고아로서 자라난 탓인지도 모른다。그의 애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미쳤다。그는 제왕(帝王)이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진 옷을 손수 꿰매어 입는 인품이었고、남의 괴로움에 끝없는 동정을 베푸는 인격이었다。

마호멧의 가문(家門)은 명문이었으나 거의가 가난하여 숙부 역시 가난하였으므로、혹은 양(羊)치기로 혹은 심부름을 하여 숙부를 도와야만 했다。글읽기며 셈놓는 법조차 배울 겨를이 없었으므로 그는 무학(無學)이었다。

이렇게 자라난 어린 시절의 마호멧에게는 사막이 학교였고 밤하늘의 별이 그의 스승이었다。

마호멧은 이제 十二세가 되었고 인덕(人德)이 많은 숙부를 무척 따랐다。어느날 숙부 아부 딸립이 장사차 시리아에 갈 채비를 차리자 어린 마호멧은 이 먼 여행에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으나 멀고 험한 길이라서 숙부는 허락하지 않았다。그러나 끝내 고집하므로 동행을 겨우 허락하였다。

그는 이제 제법 자라서 호기심과 관찰자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事物)을 바라보기 시작

na)로 갔다。 마호멧의 나이 六세 때였다。

이 머나먼 나들이에서 초열(焦熱)의 태양、구름 한점 없는 사막의 하늘、밤하늘의 달과 별、끝없이 펼쳐 있는 사막의 적막(寂莫)이 어린 마호멧을 사로잡았으리라。 그러나 어머니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병석에 누워 버렸고 며칠 있다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낯설고 외로운 곳에서 어린 마호멧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가장 사랑이 깊은 어머니의 임종(臨終)하는 고통을 눈여겨보았다。 이 가슴을 에이는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라고는 계집 종 한 사람뿐이었으며、계집 종은 이 아이 마호멧을 다시 멕카의 조부에게로 데려갔다。

이렇게 해서 마호멧은 나들이를 떠날 땐 아비 없는 아이였으나、나들이에서 돌아올 땐 어미마저 없는 아이가 되었다。

양친(兩親)이 없는 어린 손자에게 조부 압둘 뭇딸렙은 아비 겸、어미 겸、노인 가슴에 그윽히 차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 가며 키웠다。 그러나 조부의 양육도 오래가지 못하여 마호멧이 八세 되는 해에 조부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리하여 숙부(叔父) 아부 딸립(Abu Talib——마호멧 별세 후 제四대 칼리프가 되는 알리(Ali)의 부친)과 숙모 두 분이 친자식으로 키웠다。

마호멧은 조용하고、온순하고、품행이 방정한 소년이었다。 그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아랍 부족들의 잡신(雜神)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싫어하여 그런 것에 예배하거나 제물(祭物)을 올리는 일은 전혀 없었다。

서기 六세기 중엽에 이르러 「아부 뭇딸립(Abu Muttalib)」이라는 사람을 족장(族長)으로 하는 쿠레이쉬 족의 가문(家門)에서 카바아 신전의 관리인을 하고 있었다。

서기 五七一년 四월 二二일 압둘 뭇딸립에게 손자가 태어났는데 유복자(遺腹子)였다。그의 부친 즉 압둘 뭇딸립의 아들인 압둘라(Abdullah)는 아들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압둘 뭇딸립은 손자의 이름을 「마호멧」이라고 지었다。마호멧이라는 이름은 쿠레이쉬 족간에서는 흔한 이름이 아니었으므로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물어 오는 사람들에게 「마호멧」이라는 이름대로 이생과 천국에서 「칭송받는 자」가 되라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당시의 아라비아 귀족들 사이에는 유아(幼兒)를 유목민 유모(乳母)에게 맡겨서 키우는 풍습이 있었다。그것은 비좁은 멕카를 벗어나서 어린아이를 광대한 사막에서 키우기 위해서였다。사막 유목민의 유모(乳母) 품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이 八·九세가 되면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압둘 뭇딸립의 손자를 맡은 유모는 아비 없는 어린애를 양육했댔자 푸짐한 보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탐탁해하지 않았다。유모는 아기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를 생모(生母) 아미나(Amina)에게로 돌려보냈다。

모자(母子)가 다시 합친 후 어머니 아미나는 아들에게 생면(生面)하지 못한 아버지의 무덤을 보여줄 겸해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親庭) 고향이자 남편의 무덤이 있는 메디나(Medi-

도(首都)에다 사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그는 카아바 성전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멕카로 진격해 들어갔다。 마호멧의 조부(祖父) 압둘 뭇딸립이 토족(土族)의 수령(首領)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멕카인들은 침략군 앞에 무능력하여 멕카를 버린 채 멕카 주변에 있는 동굴 속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원정대(遠征隊)는 형편 없이 패배하여 멕카엔 손도 못 대 본 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하여 예멘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 원정대의 패전은 아라비아 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원정대가 코끼리 부대였다는 점에서 그 패전의 해를 「코끼리의 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호멧이 탄생한 것은 이 「코끼리의 해」의 四월이었다。

④ 마호멧의 탄생 · 어린 시절

멕카。

아라비아 반도에 자리잡고 있는 이 도읍은 고대로부터 아랍족의 신전(神殿—카아바)이 있는 곳이어서 아주 옛적부터 번창해 오고 있었다。 이 멕카를 중심으로 해서 「쿠레이쉬(Quraysh)족」이라고 불리는 아랍 부족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방언(方言) 특히 쿠레이쉬 족의 방언이 다른 모든 방언을 제압하고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언자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의 교리는 멕카와 그 주변 부족들에 의하여 한때 지속되어 왔으나 세월의 흐름과 외부에서의 영향에 의하여 일신론(一神論)의 신앙은 점차로 쇠퇴하여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숭배(偶像崇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우주의 창조신이며 지순지고(至純至高)의 존재인 신(알라)의 관념(觀念)은 막연하게 계속해 내려가 우상 숭배의 사교적(邪敎的) 신앙과 혼합해 버렸던 것이다。 카아바 성전(聖殿)에는 거대한 우상들이 세워져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를 무명 시대(無明時代)라고 한다。 그것은 무지무명(無知無明)이었을 뿐 아니라 신앙적 암흑 시대로서 우주 창조자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 숭배와 허다한 신령(神靈)이 있다고 믿는 우상 숭배의 사교도(邪敎徒)들이었다。

③ 코끼리의 해〔年〕

아브라함 때부터 발전해 온 유태교(猶太敎)와 기독교(基督敎)는 아라비아인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멘이 「크리스천 아빗시니아」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아빗시니아 총독(總督) 아브라하는 멕카의 사원(寺院)과 대치(代置)할 목적으로 그의 수

믿는 이슬람 신도들은 메카 순례 때「사파 마루와의 언덕」을 일곱 번 뛰어서 왕복하고 잠 잠 성수(聖水)를 마시면서 속죄(贖罪)를 빈다。 성지 순례자들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갈 때 비행기로 운반해야 할 먼 거리에까지 이「잠 잠 성수」를 가지고 가서 한 모금씩이라도 나누어 준다。 메카에「잠 잠」우물이 있은 후로부터 예멘인의 한 떼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도읍이 이루어졌다。 어린 이스마일은 이곳에서 성장하여 예멘 부족의 언어(言語)인 아랍어를 배우고 그 부족의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스마일의 아버지 이브라힘은 가끔 아들을 찾아와 돌봐주며「잠 잠」우물 근처에 카아바 성전(聖殿)을 건립하였으니、카아바 성전은 그로부터 아랍인의 사당(祠堂)이 되었던 것이고 매년 순례(巡禮)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이슬람 신도들이 이곳을 찾아들게 된 것이다。

② 이슬람 이전의 아랍 족의 종교

이와 같이 마호멧이 탄생하기 수천년 전부터 메카는 아랍인의 정신적·상업적(商業的) 중심지였으며、이곳을 종교적·경제적 목적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메카에 장이 서면서부터 문화적 행사와 웅변 대회며 백일장(白日場)이 성행하였다。 이것이 아라비아의 자랑인 언어(言語)의 발달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북부 아랍인의 아랍어

곱 번 오르내리며 물을 찾아다니는 동안 기적(奇蹟)이 일어나서 「잠 잠」 샘물이 나타나게 되었다。(이것은 멕카의 신앙적 배경의 하나로서 「신은 있다」는 증거이다) 신은 예언자 아브라함(이브라힘)의 신앙을 세 번 시험하였는데, 이 「잠잠 성천(聖泉)」의 이야기가 그 하나다。 즉, 신은 이브라힘에게 하명하여 그의 아내와 아들 이스마일을 사막에 버리고 오라고 하였다。 이것은 예언자 이브라힘이 과연 신의 의사와 명령을 어김없이 복종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하명한 것이었다。

예언자 이브라힘은 신의 하명대로 그의 아내와 아들 이스마일을 사막에 버리고 왔다。 얼마간의 양식과 식수(食水)를 주어 「신에의 복종」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사막에 버려진 그의 아내와 아들은 양식과 물이 있는 동안은 연명할 수 있었으나, 초열(焦熱)의 사막에서 양식과 물이 떨어지자 그 아내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기갈(飢渴)의 사막을 행여나 대상(隊商)이 지나가지나 않나 하고 실신한 사람처럼 되어 갈팡질팡하며 「사파」와 「마루와」의 구릉을 일곱번이나 뛰어다니니, 그 동안 아들 이스마일은 빈사(瀕死)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제까지 황무(荒蕪)하였던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치도록 기쁜 아내는 솟아오른 샘물이 흘러내려가 버리지 않고 괴도록 모래로 뚝을 쌓으며 외치는 것이었다。 「멎어라, 샘물이여! 멎어라, 멎어라」 하면서。 이 「스톱(Stop)、 스톱!」이 아랍어로 「잠 잠(Zam Zam)」이다。 신의 명령이라면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숨이라도 주저없이 바칠 만큼 신에게 복종할 예언자 이브라힘을 가상히 여겨 시험대에 올려놓았던 그의 아내와 이스마일을 살려낸 것이다。 이 기적의 신의(神意)를

은 다반사였다。 남성다운 태도、 환대를 가장 으뜸가는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한편으론 미신과 괴이한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멕카 북방 약 三〇〇 마일 지점에 있는 「야스립(Yathrib)이나 해발 七〇〇 피이트에 자리잡고 있는 따이프(Taif——현재 아라비아의 유일의 피서지) 같은 곳에는 조야자(棗椰子——대추의 일종)와 포도가 생산되는 오아시스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주지는 역시 멕카를 손꼽았다。

멕카는 시리아와 예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대(古代)에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상거래(商去來)의 중심지였다。 대상(隊商)들이 겨울엔 예멘을 내왕하고 여름엔 시리아를 내왕하면서 멕카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멕카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큰 시장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멕카가 부의 축적지(蓄積地)가 되자 귀족 상인 계급(貴族商人階級)이 생기게 되고 그들은 자기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議會)를 설립하였다。 멕카의 토후(土侯)의 추장(酋長)으로 공인을 받게 된 부족(部族)들은 아라비아 전역에 걸쳐 대단한 명성과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며、 특히 예언자 이브라힘(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후예들인 쿠레이쉬 족이 그러하였다。

원래 멕카에는 도읍(都邑)이 없었고 토암 계곡(土岩溪谷)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그러자 예언자 이브라힘은 그의 여노예(女奴隸) 하잘과 그 몸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일에게 약간의 조야자(棗椰子)와 물을 주어 지금의 멕카가 있는 곳에 두고 갔다。 하잘과 아들은 홀로 떨어져 있게 되고、 물이 떨어지자 싸파 마루아 구릉(丘陵)을 일

① 이슬람 이전 시대의 아라비아와 멕카

멕카。

멕카는 홍해(紅海)에서 四八마일 떨어진 아라비아 사막의 황폐한 암석(岩石)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한 도읍(都邑)으로서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예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마호멧 출생 당시의 아라비아인은 대개가 유목민(遊牧民)이었으며、사막의 가혹한 기후관계로 한곳에 정착해서 영주하질 못하고 낙타(駱駝)와 양떼를 몰면서 초원 지대(草原地帶)를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수밖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 있어서 낙타야말로 가장 유용한 동물이며、수송 수단(輸送手段)으로 볼 때 없어선 안 될 귀중한 것이었다。 낙타는 사막의 배〔帆船〕다。

「사막에 낙타가 번창할 때 아라비아는 번창한다。」고 제二대 칼리프(Kalif—敎權繼承者) 우마르가 술회하였을 정도로 그만큼이나 사막의 낙타는 귀중한 것이었다。 아랍인은 낙타와 양의 젖과 고기에 생계(生計)를 의존하였고、두발(頭髮)、털、가죽으로 의복과 천막(天幕)을 만들었다。 그들의 궁핍 생활은 행동면에 나타나게 되었으니、반목(反目)과 공격(攻擊)

제一부 마호멧 傳記

마호멧 言行錄
——하디스

제二부 마호멧 言行錄

「마호멧 言行錄」 槪論

마호멧 傳記・言行錄 目次

슬림=Muslim)에게 현실적인 법률의 힘을 보유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디스는 이슬람의 종교 문학(宗教文學)이며 아울러 쿠란과 더불어 이슬람 법의 원전(原典)인 것이다。 쿠란에서는 다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하디스에서 세부적으로 소상히 이를 해석、 설명해 주고 있다。 하디스는 쿠란의 해설서이다。

예언자 마호멧에 관한 연구 없이는 이슬람의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으니、 예언자 마호멧에 관한 연구는 이슬람의 연구에 선행(先行)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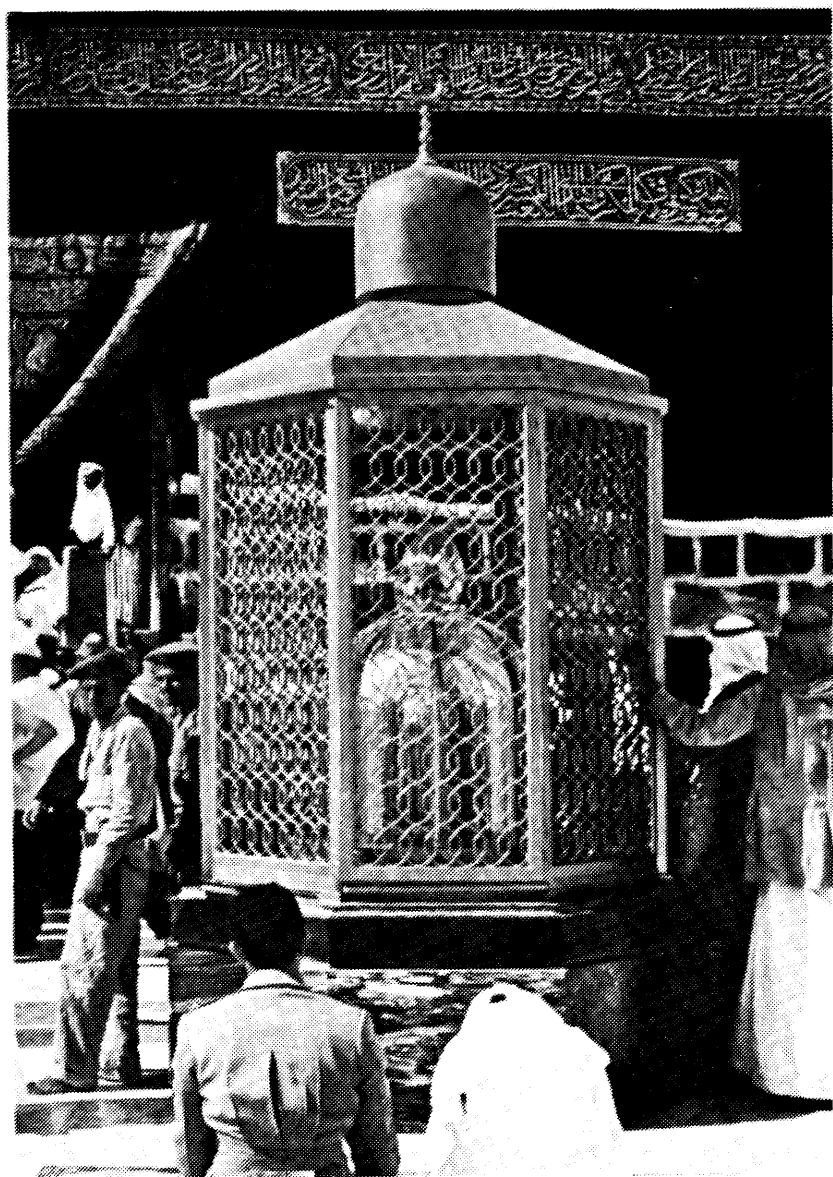
인간 마호멧을 알고 나서 그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이해하고、 하디스와 쿠란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이슬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경위(經緯)에서 「마호멧 전기(傳記)」와 「마호멧 언행록(言行錄)」을 함께 한 권으로 묶는다。

머리말

이슬람교의 경전(經典)이 「쿠란」(Quran)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쿠란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하디스」(Hadith)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슬람교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쿠란」이고 그 다음이 「하디스」다。

마호멧의 「말」、「행동」 및 「사례(事例)」를 수록 편찬한 것을 하디스라고 한다。 중국(中國) 회교도(回敎徒)들도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교도들도 이를 「성훈(聖訓)」이라고 하나、 지식을 사랑하는 이들의 「인간 마호멧」、「마호멧 관(觀)」의 편견 없는 이해를 돕자는 의도에서 나는 이를 「마호멧 언행록(言行錄)」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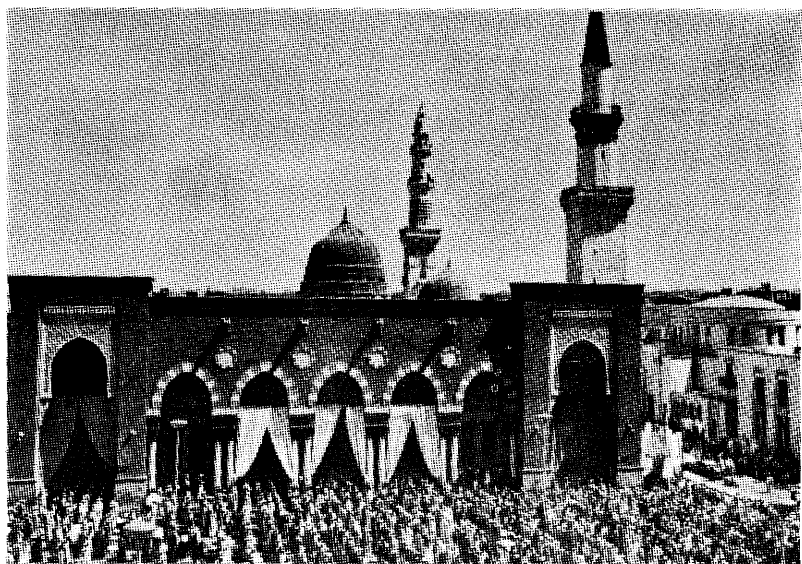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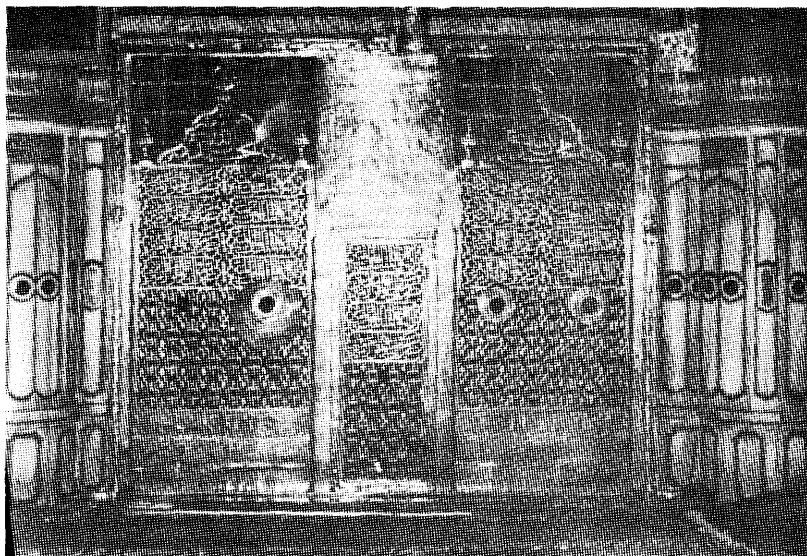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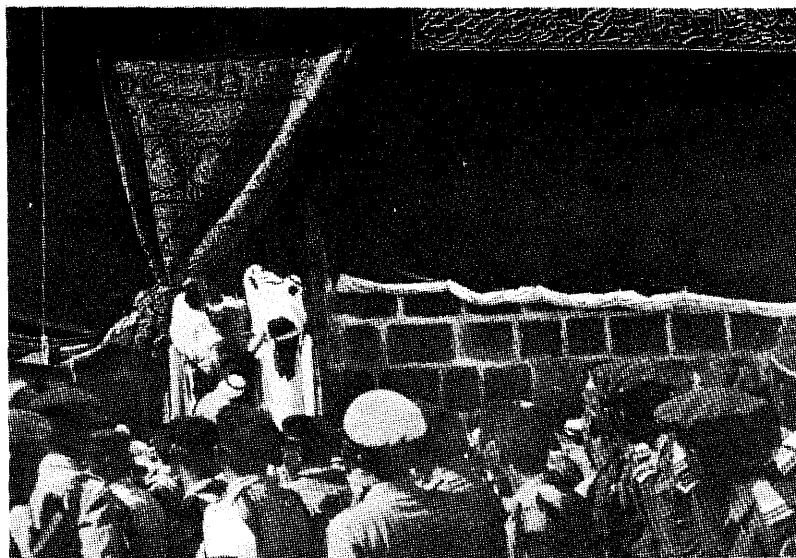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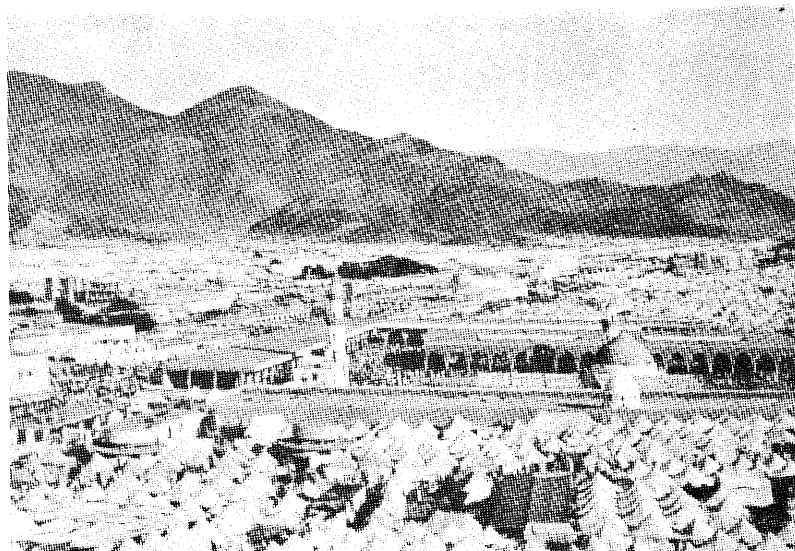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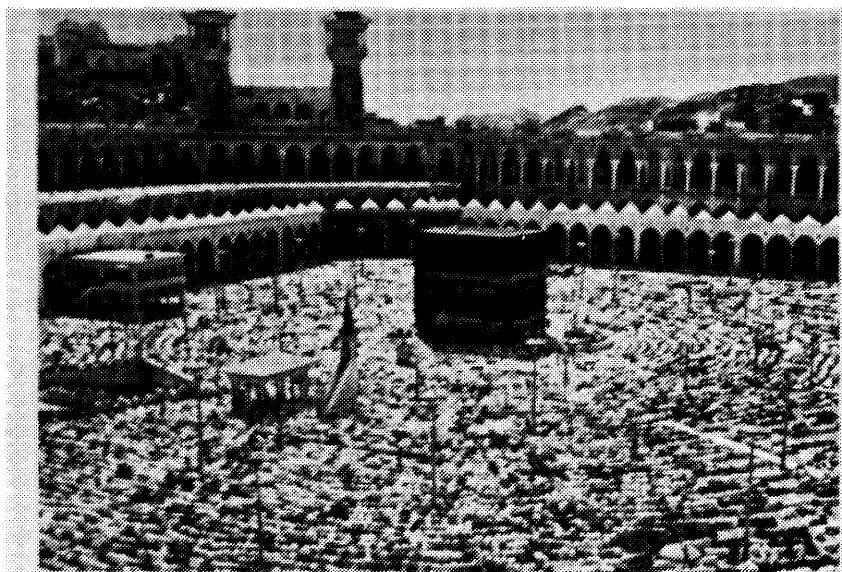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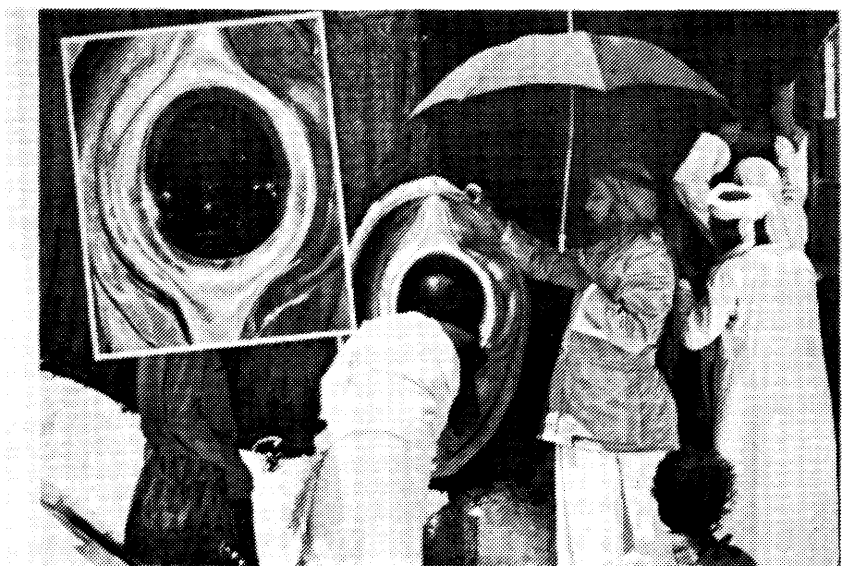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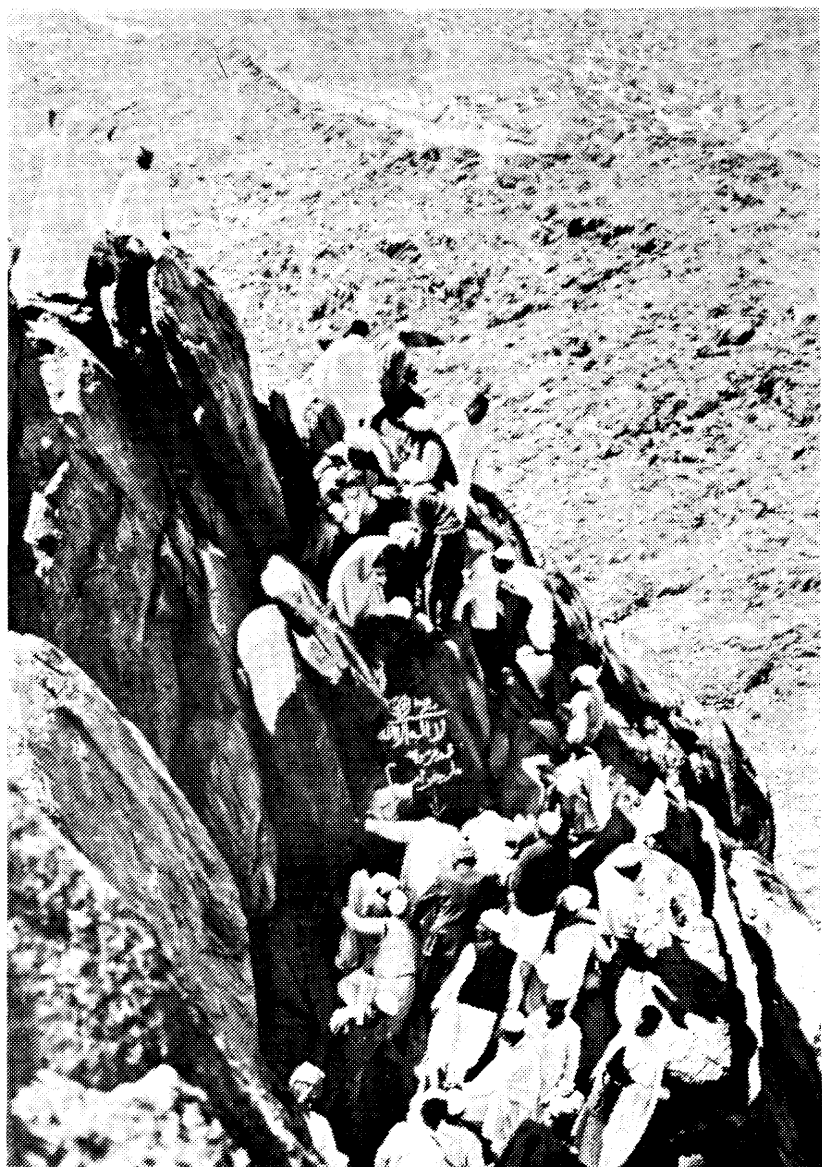
이슬람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쿠란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오직 하디스뿐으로서 하디스는 이슬람교 기본 신앙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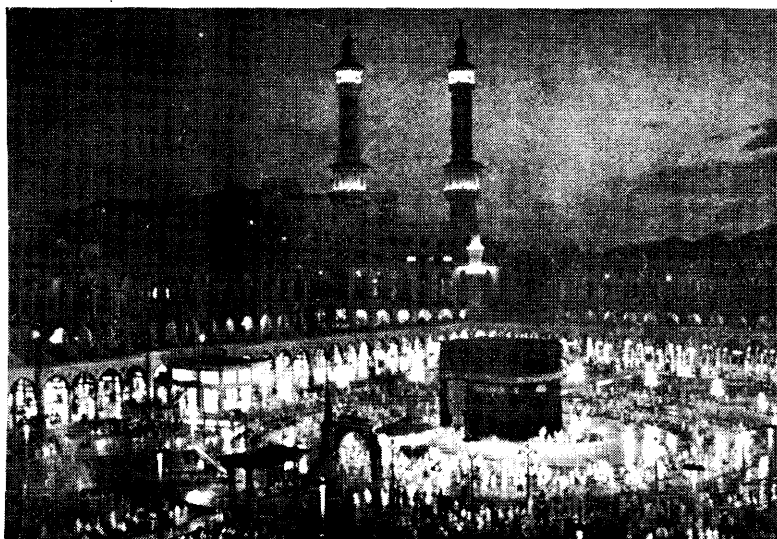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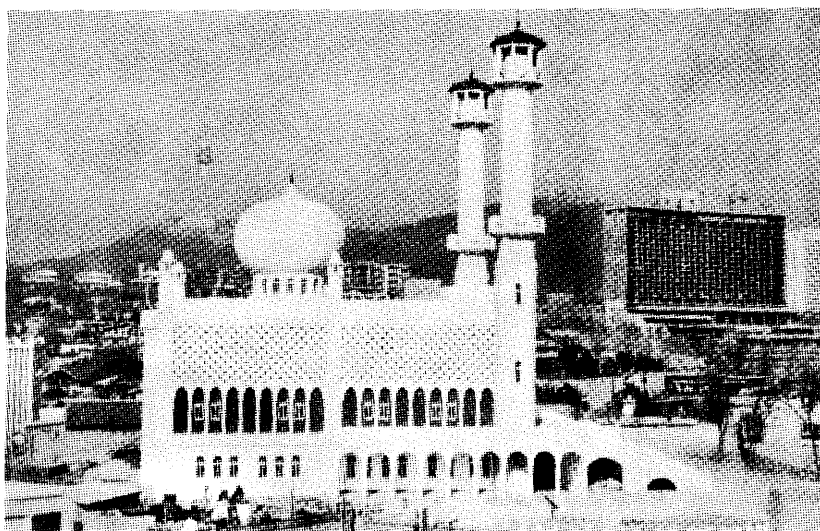
마호멧의 언행록인 하디스는 다른 예언자(豫言者)나 성현(聖賢)들의 그것과는 달라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지구상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무

이브라힘(아브라함) 神殿

메디나의 聖院

메디나의 聖院 안에 있는 預言者 마호멧의 墓所

故 파이잘 國王의 카아바 神殿 소제 儀式

메카 巡禮의 野營 光景

카아바 神殿에서의 禮拜 光景

카아바 神殿 모퉁이에 박혀 있는 黑石(磒石)에 입을 맞추는 巡禮者

히라 洞窟을 巡禮하는 光景

카아바 神殿

카아바 神殿의 夜景

1976年 韓國에 最初로 건립된 韓國 이슬람教 聖院 全景
서울 漢南洞 所在

لا اله الا الله محمد رسول الله
الحج والزيارة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٩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٩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حديث
والسيرة النبوية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